



전북특별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기본구상

2024. 03.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기본구상 용역

2024. 03.

전북특별자치도

제 출 문

귀하

본 보고서를 『전북특별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기본구상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03월

총괄연구기관: (재)전북연구원

원장: 이 남 호

공동연구기관: 국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 천 환

연구진 및 자문위원

연구책임자			
김 보 국	전북연구원		본부장
연구진			
이 강 진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 정 윤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 형 오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재 구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장 충 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배 진 아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박 서 린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한 국 환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허 문 경	전주대학교		교수
김 형 수	국성엔지니어링		이사
김 복 정	국성엔지니어링		부장
김 민 정	국성엔지니어링		차장
자문위원			
손 승 우	한국환경연구원	/ 생태복원	부연구위원
조 영 호	남해관광문화재단	/ 광역 걷기 길	본부장
김 상 욱	원광대학교	/ 산림조경	교수
최 해 선	(사)한국의 길과 문화	/ 국가 걷기 길	실장
홍 진 표	우영환경개발	/ 지역 연계사업	본부장
오 광 진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 농어촌공동체	센터장
김 상 혁	가천대학교	/ 지역관광	교수
정 병 귀	진안고원길	/ 지역 걷기길	사무국장
박 울 진	전북대학교	/ 산림조경	교수
위탁연구			
주)지역연구소플랜플러스 / 노선 및 마을 현장 조사			
주)커넥트 / BI 및 길명칭, 앱 제작			

[목 차]

I. 과업의 개요	1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1-1. 과업의 배경	1
1-2. 과업의 목적	2
2. 과업의 범위	2
3. 과업의 수행 절차	4
II. 탐방자원조사 및 사례 조사	7
1. 탐방자원	7
1-1. 마을자원 목록화	7
1-2. 탐방자원 목록	12
2. ‘생태관광’ 및 ‘탐방로’ 정책동향 분석	21
2-1. 정책 동향	21
2-2. 관련법 검토	31
3. 국내외 사례	36
3-1. 국내 사례	36
3-2. 해외 사례	44
4. 생태탐방 수요자 인식조사	56
4-1. 개요	56
4-2. 트레킹 그룹 응답 결과	60
4-3. 자전거 그룹 응답 결과	66
4-4. 캠핑 그룹 응답 결과	72
4-5. 주요 시사점	79
III. 노선 및 거점 마을 선정	83
1. 노선 선정	83
1-1. 노선 선정 과정	83
1-2. 노선 선정 결과	88
1-3. 노선 특징	93
2. 거점마을 선정	95
2-1. 거점마을 선정 방법	95
2-2. 거점마을 선정 결과	99

IV. 기본구상	105
1. 핵심가치	105
1-1. 개념	105
2. 실현수단	107
2-1. 장거리 걷기길	107
2-2. 거점마을	110
2-3. 권역	111
3. 비전 및 목표	112
3-1. 비전과 목표	112
3-2. 주요사업	113
3-3. 차별성	115
4. 노선 및 거점마을 디자인	116
4-1. 노선 디자인	116
4-2. 마을디자인	132
5. 에코캠핑 삼천리길 BI	155
5-1. 네이밍	155
5-2. 삼천리길(가칭) BI	156
5-3. 통합 길 안내	159
6. 연계 대표사업	160
V. 노선·거점마을 활성화 방안	165
1. 노선 스토리텔링	165
1-1. 동부권	165
1-2. 서부권	194
1-3. 광역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223
2. 마을 비즈니스의 방향성과 비즈니스 모델	226
2-1. 마을 비즈니스 배경 · 개념 · 정책 동향	226
2-2. 마을 비즈니스 현황분석	243
2-3. 조사 결과 및 시사점 종합	265
2-4. 에코캠핑 삼천리길 마을 비즈니스모델 구축	269
3. 운영관리방안	275
3-1. 운영관리 주체	276
3-2. 조례 및 제도 개선 방안	281
3-3. 시범운영	285

VI. 투자 및 자원조달 방안	299
1. 총괄 투자비	299
1-1. 사업추진	299
1-2. 총괄 투자비	299
2. 권역별 투자비	301
3. 자원별 투자비	303
3-1. 년도별 투자계획	303
3-2. 자원별 투자계획	304
4. 자원조달 방안	305
 참고 문헌	309
부록	315

[표 목차]

[표 1-1] 내용적 범위	3
[표 2-1] 조사 마을 목록	7
[표 2-2] 공공자원 목록	12
[표 2-3] 자연자원	12
[표 2-4] 역사자원	15
[표 2-5] 문화자원	17
[표 2-6] 관광자원	18
[표 2-7] 주요 국가의 생태관광 정의	22
[표 2-8] 생태관광 바우처 유형	25
[표 2-9] 관광진흥법 제48조	27
[표 2-10] 생태관광 10대 모델지	28
[표 2-11] 추진주체별 역할 분담	29
[표 2-12] 연차별 추진계획	30
[표 2-13]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관광의 주요 내용	31
[표 2-1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숲길에 대한 주요 내용	32
[표 2-15]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주요 내용	34
[표 2-16]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35
[표 2-17] 프랑스 랑도네 유형구분	50
[표 2-18] 생태탐방 수요자 인식조사 개요	56
[표 2-19] 현장 설문 조사 주요 장소	56
[표 2-20] 트레킹 수요자 설문지 구성	58
[표 2-21] 자전거 수요자 설문지 구성	58
[표 2-22] 캠핑 수요자 설문지 구성	59
[표 2-23] 트레킹 그룹 일반사항	60
[표 2-24] 트레킹 그룹 이동구간 방문 경험	61
[표 2-25] 트레킹 그룹 목적 및 코스 선정 이유	61
[표 2-26] 트레킹 그룹 소요 시간	62
[표 2-27] 트레킹 그룹 동반자	62
[표 2-28] 트레킹 그룹 만족도	62
[표 2-29] 트레킹 그룹 불만족 요소	63
[표 2-30] 트레킹 그룹 만족 요소	64
[표 2-31] 트레킹 그룹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의 필요성	65
[표 2-32] 트레킹 그룹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효과	65
[표 2-33] 자전거 그룹 일반 사항	66

[표 2-34] 자전거 그룹 이동구간 방문 경험	67
[표 2-35] 자전거 타기 소요 시간	67
[표 2-36] 자전거 그룹 구간 선정 목적	68
[표 2-37] 자전거 타기 동반자	68
[표 2-38] 자전거 운반 방법	69
[표 2-39] 자전거 구간 만족도	69
[표 2-40] 자전거를 타는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	70
[표 2-41] 자전거를 타는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70
[표 2-42] 자전거 그룹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필요성	71
[표 2-43] 자전거 그룹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효과	71
[표 2-44] 캠핑 그룹 일반 사항	72
[표 2-45] 캠핑 목적	73
[표 2-46] 캠핑 체류 기간	73
[표 2-47] 캠핑 동반자	74
[표 2-48] 캠핑 그룹 방문 경험	75
[표 2-49] 캠핑 만족도	75
[표 2-50] 캠핑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	76
[표 2-51] 캠핑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76
[표 2-52] 캠핑 그룹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필요성	77
[표 2-53] 캠핑 그룹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효과	77
[표 2-54] 노지캠핑장 계획에 대한 생각	78
[표 3-1] 삼천리길 노선 확정을 위한 시군설명회	85
[표 3-2] 동부권 노선 현황	90
[표 3-3] 서부권 노선 현황	92
[표 3-4] 거점마을의 역할과 기능	96
[표 3-5] 거점마을 선정 평가지표	98
[표 3-6] 동부권 일반거점마을 선정 결과	99
[표 3-7] 동부권 선도거점마을 선정 결과	100
[표 3-8] 서부권 일반거점마을 선정 결과	101
[표 3-9] 서부권 선도거점마을 선정 결과	102
[표 4-1] 에코캠핑 삼천리길 위계	108
[표 4-2] 거점마을 정의 및 역할과 기능	110
[표 4-3] 걷기 노선 디자인 방향	118
[표 4-4] 걷기 및 자전거 혼용노선 디자인 방향	118
[표 4-5] 14개 시군선도거점마을	133

[표 4-6] 네이밍 발굴 개요	155
[표 4-7] 길 이름 ‘네이밍 최종 후보군’	155
[표 4-8] 에코캠핑 삼천리길 위계에 따른 색상 구분	157
[표 4-9] 삼천리길 연계 사업	160
[표 5-1]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협력체계	250
[표 5-2] 정성조사 대상자 및 주요 조사내용 등	251
[표 5-3] 협동조합 공정여행 동네봄 협력체계	259
[표 5-4]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주요 내용	277
[표 5-5] 광역시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비교	282
[표 5-6]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283
[표 6-1] 총괄투자비	299
[표 6-2] 권역별 투자비	300
[표 6-3] 동부권 삼천리길 조성 투자비	301
[표 6-4] 서북권 삼천리길 조성 투자비	302
[표 6-5] 서남권 삼천리길 조성 투자비	302
[표 6-6] 년도별 투자계획	303
[표 6-7] 재원별 투자계획	304
[표 6-8]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현황	305
[표 6-9]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개념적 토대가 되는 ‘녹색복원’ 정의	307
[표 6-10]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 후보목록(2023.5.30.)	307

[그림 목차]

[그림 1-1] 과업의 공간적 범위	3
[그림 1-2] 과업의 수행 절차	4
[그림 1-3] 마을자원 현황	11
[그림 2-1]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 방향의 비전 및 전략	24
[그림 2-2] 국가생태관광지역과 생태문화탐방로와의 관계	26
[그림 2-3] 코리아 둘레길	30
[그림 2-4] 운탄고도 1330 통합지원센터	37
[그림 2-5] 운탄고도 3코스 4코스 주변 경관	38
[그림 2-6] 운탄고도 5코스 변 시설물	39
[그림 2-7] 제주올레 1코스	40
[그림 2-8] 제주올레 1코스 주요 거점	41
[그림 2-9] 제주올레 1코스 주변 관광지	41
[그림 2-10] 제주 올레 1-1코스 및 주요 거점	42
[그림 2-11] 제주올레 1-1코스 주요 전경	42
[그림 2-12] 뉴질랜드 9대 Great Walk	44
[그림 2-13] 밀포드 트랙(Milford Track) Elevation profile	45
[그림 2-14] 밀포드 케플러 트랙 및 카와라우 연계 관광 현황	47
[그림 2-15] 밀포드 루트번 트랙 및 지질공원 현황	48
[그림 2-16] FFRandonnee 인포센터 현황	53
[그림 2-17] 파리 근교 트레 흐 피농 (Trois Pignon) 볼더링 사이트 현황	54
[그림 2-18] 생태탐방 수요자 인식조사 주요 설문 지점	57
[그림 2-19] 트레킹 그룹 일반사항	60
[그림 2-20] 트레킹 그룹 이동구간 방문 경험	61
[그림 2-21] 트레킹 목적 및 코스 선정 이유	61
[그림 2-22] 트레킹 그룹 동반자	63
[그림 2-23] 트레킹 그룹 전반적 만족도	63
[그림 2-24] 트레킹 그룹 불만족 요소	63
[그림 2-25] 트레킹 그룹 만족요소	64
[그림 2-26] 전북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의 필요성(트레킹 그룹)	65
[그림 2-27] 전북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효과(트레킹 그룹)	65
[그림 2-28] 자전거 그룹 일반 사항	66
[그림 2-29] 자전거 그룹 구간 선정 목적	68
[그림 2-30] 자전거 타기 동반자	68
[그림 2-31] 자전거 운반 방법	69

[그림 2-32] 자전거 구간 만족도	69
[그림 2-33] 자전거를 타는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	70
[그림 2-34] 자전거를 타는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71
[그림 2-35] 전북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의 필요성(자전거 그룹)	72
[그림 2-36] 전북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효과(자전거 그룹)	72
[그림 2-37] 캠핑 그룹 일반 사항	73
[그림 2-38] 캠핑 목적	74
[그림 2-39] 캠핑 체류 기간	74
[그림 2-40] 캠핑 동반자	74
[그림 2-41] 캠핑 그룹 방문 경험	75
[그림 2-42] 캠핑 만족도	75
[그림 2-43] 캠핑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	76
[그림 2-44] 캠핑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77
[그림 2-45] 전북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의 필요성(캠핑 그룹)	78
[그림 2-46] 전북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효과(캠핑 그룹)	78
[그림 2-47] 노지캠핑장 계획에 대한 생각	78
[그림 3-1] 삼천리길 구상안(1차 안)	84
[그림 3-2] 삼천리길 현장조사 결과(노선 우회, 시설물 DB 현황)	87
[그림 3-3] '삼천리길' 전체 노선 현황	88
[그림 3-4] 동부권 노선 현황	89
[그림 3-5] 서부권 노선 현황	91
[그림 3-6] 국가 탐방길과 삼천리길과의 관계	93
[그림 3-7] 지역 탐방길과 삼천리길과의 관계	94
[그림 3-8] 거점마을별 관계	96
[그림 3-9] 거점마을 및 선도거점마을 선정 체계	97
[그림 3-10] 동부권 시종점과 선도거점마을	100
[그림 3-11] 서부권 시종점과 선도거점마을	102
[그림 4-1] 루리티지(Ruritage)의 6개 영역 개념도	106
[그림 4-2] 전북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 핵심가치	106
[그림 4-3] 에코캠핑 삼천리길 기본개념	107
[그림 4-4] 전북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 위계 개념도	108
[그림 4-5] 삼천리길 코스 유형	109
[그림 4-6] 삼천리길 이용 방법	109
[그림 4-7] 선도거점마을과 일반거점마을 개념도	110
[그림 4-8] 전북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 권역 설정 및 권역별 컨셉	111

[그림 4-9] 전북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 비전과 목표	112
[그림 4-10] 전북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 추진전략	113
[그림 4-11] 전북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 주요사업	114
[그림 4-12] 전북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의 차별성	115
[그림 4-13] 전용 색상 규정	119
[그림 4-14] 파고라 사례이미지	121
[그림 4-15] 의자 사례이미지	122
[그림 4-16] 종합안내판 사례이미지	123
[그림 4-17] 시설(공간)안내판 사례이미지	123
[그림 4-18] 방향안내판(이정표) 사례이미지	124
[그림 4-19] 위험(응급/우회)안내판 사례이미지	124
[그림 4-20] 표지석 사례이미지	125
[그림 4-21] 안내시설 예시	125
[그림 4-22] 안전웬스 사례이미지	126
[그림 4-2] 노면 정비 및 목재데크 사례이미지	127
[그림 4-23] 노선 조성 예시 모식도	128
[그림 4-24] 걷기 노선 (동 코스 10/11/12)	129
[그림 4-25] 걷기 및 자전거 혼용노선 (서 코스 04)	130
[그림 4-26] 걷기 노선 / 걷기 및 자전거 혼용노선 (서 코스 05/05-1)	131
[그림 4-27] 남원시 백두대간여가캠핑장 조성 예시	134
[그림 4-28] 완주군 밤티마을 조성 예시	135
[그림 4-29] 진안군 은천마을 조성 예시	136
[그림 4-30] 무주군 앞섬마을 조성 예시	137
[그림 4-31] 장수군 주촌마을 조성 예시	138
[그림 4-32] 임실군 성수산자연휴양림 조성 예시	139
[그림 4-33] 순창군 유촌마을 조성 예시	140
[그림 4-34] 전주시 하봉마을 조성 예시	141
[그림 4-35] 군산시 장미동 조성 예시	142
[그림 4-36] 익산시 성당포구마을 조성 예시	143
[그림 4-37] 김제시 심포드리마을 조성 예시	144
[그림 4-38] 정읍시 솔티마을 조성 예시	145
[그림 4-39] 고창군 고창읍 중심마을 조성 예시	146
[그림 4-40] 부안군 변산면 중심마을 조성 예시	147
[그림 4-41] 일반거점마을 예시 (읍면소재지형)	148
[그림 4-42] 일반거점마을 예시 (마을형 : 마을회관 인접)	149
[그림 4-43] 일반거점마을 예시 (마을형 : 빈집 활용)	149
[그림 4-44] 공공건축물 사례이미지	152

[그림 4-45] 공공시설물 사례이미지	154
[그림 4-46] 에코캠핑 삼천리길 BI 기본 방향	156
[그림 4-47] 에코캠핑 삼천리길 BI(안)	156
[그림 4-48] 에코캠핑 삼천리길 BI(안)_위계 구분	157
[그림 4-49] 에코캠핑 삼천리길 BI(안)_길 난이도 구분	157
[그림 4-50] 에코캠핑 삼천리길 BI(안)_방향성 표시	158
[그림 4-51] 에코캠핑 삼천리길 BI(안)_칼라 지정	158
[그림 4-52] 에코캠핑 삼천리길 앱 개발 현황	159
[그림 4-53] 삼천리길과 연계 사업과의 관계	161
[그림 5-1] 동 코스 01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65
[그림 5-2] 동 코스 02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66
[그림 5-3] 동 코스 03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67
[그림 5-4] 동 코스 04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68
[그림 5-5] 동 코스 04-1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69
[그림 5-6] 동 코스 04-2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70
[그림 5-7] 동 코스 04-3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71
[그림 5-8] 동 코스 05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72
[그림 5-9] 동 코스 06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73
[그림 5-10] 동 코스 07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74
[그림 5-11] 동 코스 08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75
[그림 5-12] 동 코스 09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76
[그림 5-13] 동 코스 10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77
[그림 5-14] 동 코스 11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78
[그림 5-15] 동 코스 12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79
[그림 5-16] 동 코스 13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80
[그림 5-17] 동 코스 14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81
[그림 5-18] 동 코스 15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82
[그림 5-19] 동 코스 16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83
[그림 5-20] 동 코스 17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84
[그림 5-21] 동 코스 18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85
[그림 5-22] 동 코스 19~20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86
[그림 5-23] 동 코스 21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87
[그림 5-24] 동 코스 22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88
[그림 5-25] 동 코스 23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89
[그림 5-26] 동 코스 24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90
[그림 5-27] 동 코스 25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91

[그림 5-28] 동 코스 26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92
[그림 5-29] 동 코스 27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93
[그림 5-30] 서 코스 01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94
[그림 5-31] 서 코스 02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95
[그림 5-32] 서 코스 03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96
[그림 5-33] 서 코스 04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97
[그림 5-34] 서 코스 05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98
[그림 5-35] 서 코스 05-1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99
[그림 5-36] 서 코스 05-2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00
[그림 5-37] 서 코스 05-3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01
[그림 5-38] 서 코스 06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02
[그림 5-39] 서 코스 07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03
[그림 5-40] 서 코스 08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04
[그림 5-41] 서 코스 09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05
[그림 5-42] 서 코스 10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06
[그림 5-43] 서 코스 11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07
[그림 5-44] 서 코스 12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08
[그림 5-45] 서 코스 13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09
[그림 5-46] 서 코스 14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10
[그림 5-47] 서 코스 15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11
[그림 5-48] 서 코스 16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12
[그림 5-49] 서 코스 17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13
[그림 5-50] 서 코스 17-2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14
[그림 5-51] 서 코스 18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15
[그림 5-52] 서 코스 19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16
[그림 5-53] 서 코스 20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17
[그림 5-54] 서 코스 21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18
[그림 5-55] 서 코스 21-1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19
[그림 5-56] 서 코스 22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20
[그림 5-57] 서 코스 23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21
[그림 5-58] 서 코스 24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222
[그림 5-59] 순환형 축제 예시	224
[그림 5-60] 큐슈올레 체험상품 검색화면 일부	245
[그림 5-61]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조직 추진체계	263
[그림 5-62] 전북 생태관광 마을 비즈니스 벨류체인	273
[그림 5-63]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조직	277
[그림 5-64] 남해 바래길 및 바래길 앱 현황	278

[그림 5-65]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단기 개편방안	280
[그림 5-66]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장기 개편방안	281
[그림 5-67] 삼천리길 ‘시범운영’ 구간	285
[그림 5-68] 동 코스 01(시범운영 구간) 현황	286
[그림 5-69] 동 코스 02(시범운영 구간) 현황	287
[그림 5-70] 동 코스 03(시범운영 구간) 현황	288
[그림 5-71] 동 코스 04(시범운영 구간) 현황	289
[그림 5-72] 동 코스 05(시범운영 구간) 현황	290
[그림 5-73] 동 코스 06(시범운영 구간) 현황	291
[그림 5-74] 동 코스 07(시범운영 구간) 현황	292
[그림 5-75] 동 코스 08(시범운영 구간) 현황	293
[그림 5-76] 동 코스 09(시범운영 구간) 현황	294
[그림 5-77] 동 코스 10(시범운영 구간) 현황	295
[그림 6-1] 지방소멸대응기금 조합 등 구성 및 역할	305
[그림 6-2] 생태탐방로 구성요소	306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3. 과업의 수행 절차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 과업의 배경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정책 필요

- 행정안전부가 '21년 10월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지역의 문제가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 지방소멸대응기금,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을 인구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 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 필요함

생태관광 트렌드, 지역 관광개발 과제에 대응

- 현 정부는 관광트렌드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더욱 개별화·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를 반영한 지역 관광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음
- 세계 관광 트렌드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조화 롭게 하는 관광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관광은 초광역·거점공간 중심으로 조성이 필요하며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가 필요함. 이 콘텐츠는 지역관광벤처기업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최근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면서 '관계인구(생활인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관광을 통해 관 계인구를 확보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발생하고 있음
- 취미생활이 여행목적인 시대로 변화하면서 1인 여행객, 해마다 늘어나는 캠핑수요 등 최신 트렌드 를 반영한 여행지 조성이 필요함

전북특별자치도는 2016년부터 생태관광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생태관광의 기반을 구축

- 2009년 '고인돌과 질마재를 따라 100리길' 문화생태탐방로, 2010년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약 450km)을 추진함
-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와 민간단체 : 군산시 구불길, 진안군 고원마실길, 4대 종교(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를 잇는 아름다운 순례길을 조성함
- 2015년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음

1-2. 과업의 목적

생태관광 인프라를 통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 생태관광지별 생태관광마을, 마을만들기 생생마을 활용
- 코스별 마을거점 확보를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코로나19 이후 관광트렌드 변화의 수용성 강화

- 소규모 개별 관광객(FIT) 중심 관광 활동 증가 트렌드 반영
- 1인 여가활동 증가, 여가공간으로 역사문화유적지, 캠핑장, 공연장 등 선호
- 근교여행·청정자연 관광지 관심 및 수요 확대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점-선-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천리길 간 상호 시너지 효과 극대화

- 12개 생태관광지의 개별적 성장에서 연계 협력 성장
- 단기간 경유형 천리길을 장기간 체류형 연계순환 삼천리길로 조성
- 1시군 1대표관광지 연계성 확보 고려

생태관광지, 천리길 간 상호시너지 효과 극대화

- 12개 생태관광지의 개별적 성장에서 연계 협력 성장
- 1시군1대표 관광지 연계성 확보 고려

2. 과업의 범위

시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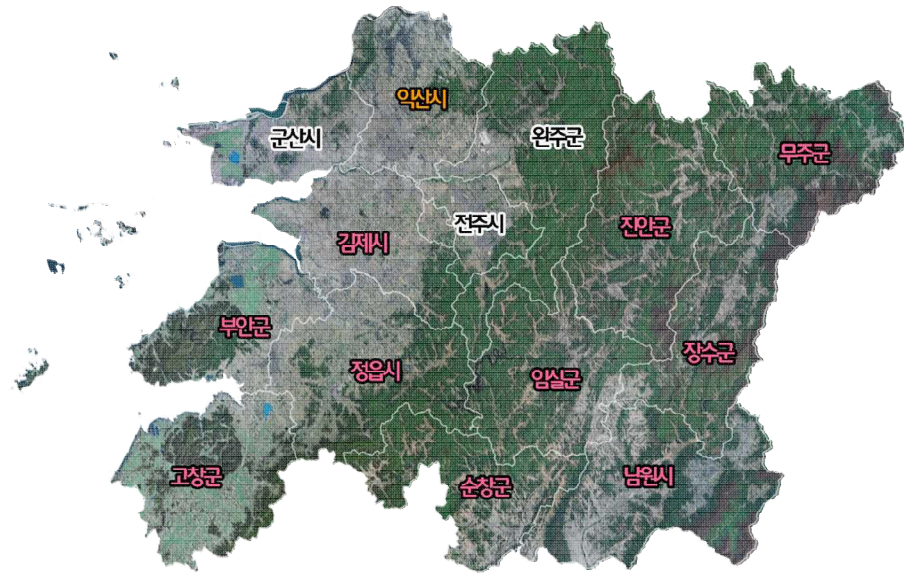
- 계획 시점 : 2023년
- 목표시점
 - 기반(인프라) 조성 : ~ 2027년
 - 길 운영 : 2026년 ~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전역
- 인구감소지역 지정(10) :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남원시

- 인구감소 주의 지역(1) : 익산시
- 일반지역(3) :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그림 1-1] 과업의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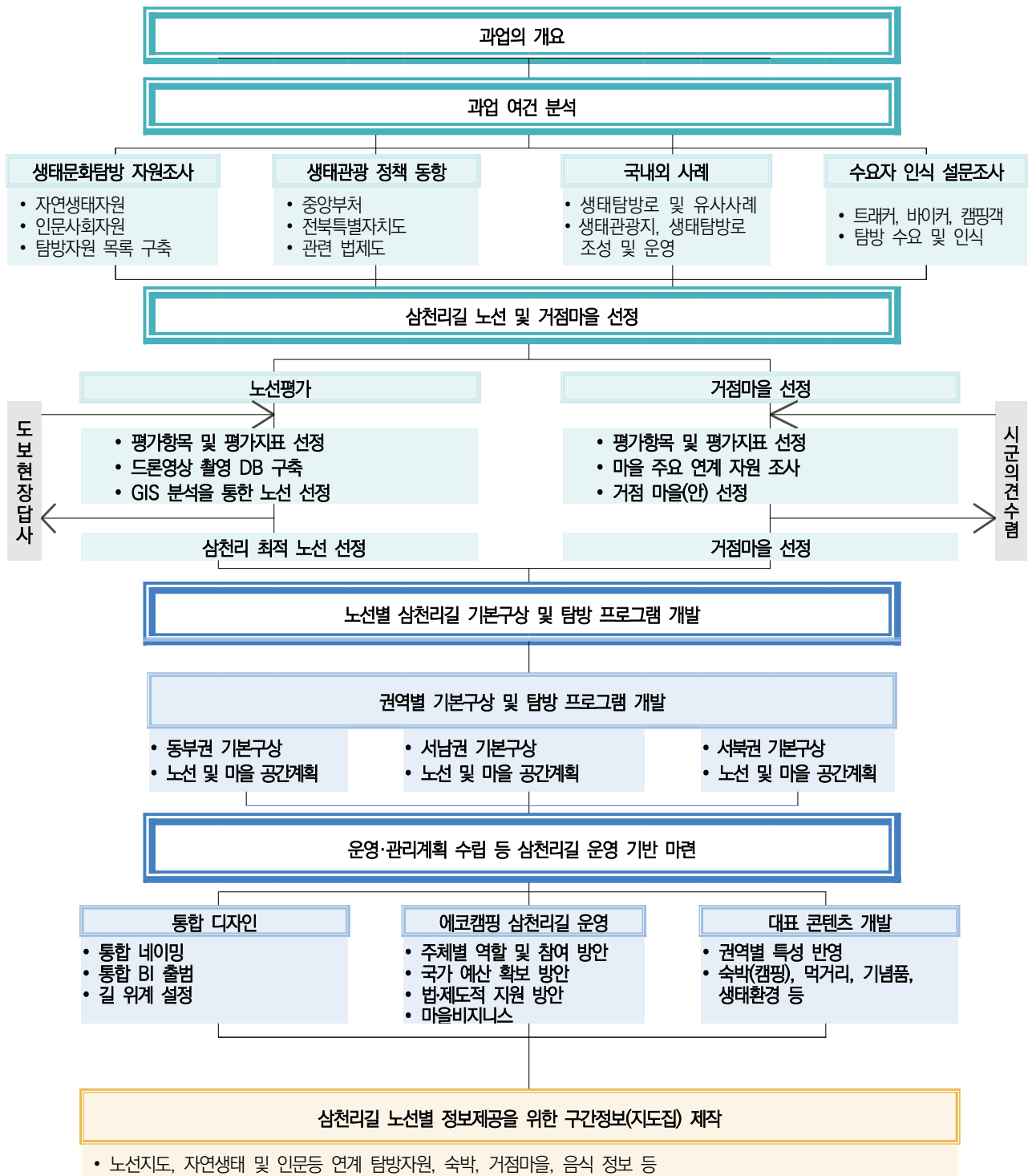
- 과업은 노선 및 거점마을 결정,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탐방프로그램 개발, 탐방정보 DB 구축, 권역별 연계사업 발굴로 구분됨

[표1-1] 내용적 범위

구분	세부 내용
에코캠핑 삼천리길 노선 현장 조사 및 거점마을 등 선정	- 삼천리길 노선 평가 및 최적 탐방노선 선정 - 생태문화탐방 거점마을 선정 - 거점마을 등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에코캠핑 삼천리길 운영·관리계획 수립	- 에코캠핑 삼천리길 운영 등 유지·관리 체계 구축
권역별 삼천리길 운영(안) 구상 및 탐방 프로그램 등 개발	- 거점마을 중심의 소득창출 및 운영기반 마련 - 탐방객 방문 유도를 위한 대표 콘텐츠 조성 방안 제시
노선별 DB 구축을 통한 탐방 정보 체계 구축	- 노선지도, 자연생태 및 인문 등 연계 탐방자원, 숙박, 거점마을, 음식, 굿즈 정보 등을 포함한 노선별
동부산악권 등 각 권역 연계사업(안) 발굴 등	- 권역 특성을 반영한 코스 구성 및 거점마을 공간계획 도출 - 산악생태 탐방 프로그램 개발

3. 과업의 수행 절차

- 과업의 수행 절차는 여건분석 - 삼천리길 노선 및 거점마을 선정 - 기본구상 및 탐방 프로그램 개발 - 운영관리 계획 수립 과정으로 진행됨



[그림 1-2] 과업의 수행 절차

II. 탐방자원조사 및 사례조사

1. 탐방자원
2. 생태관광 및 탐방로 정책동향
3. 국내·외 사례
4. 생태탐방 수요자 인식조사

II. 탐방자원조사 및 사례 조사

1. 탐방자원

- ‘별권 자원조사편’에서 자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고 통합본에서는 자원 목록을 기술함

1-1. 마을자원 목록화

- 경로를 기준으로 직선거리 500m 범위 내 ‘전라북도 생생마을’로 지정 되어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우선 조사함
- 경로를 기준으로 직선거리 500m 범위 내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노선이 길어 경유지가 필요하거나, 마을에 갖춰진 인프라·자연자원의 매력성 등을 고려하여 생생마을 및 마을을 추가로 조사함
- 현장조사에 앞서 인터넷 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내용을 보완·추가함
 - 일반사항, 마을사업, 마을협의체, 마을자원, 조사원 의견 등
- 최종 동부산악권 108개, 서남부권 29개, 서부권 11개 등 148개 마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표 2-1] 조사 마을 목록

구분	연번	시군명	읍면동	마을명	주소	비고
서남부권	1	남원시	아영면	구지마을	남원시 아영면 구지길 36	
	2	남원시	주천면	내송마을	남원시 주천면 내송길 32	은송마을
	3	남원시	주천면	내송재, 안곡마을	남원시 주천면 안곡길 86	호기리
	4	남원시	인월면	달오름마을	남원시 인월면 인월서길 42	정보화체험마을
	5	남원시	운봉읍	동하마을	남원시 운봉읍 동천3길 13	
	6	남원시	운봉읍	산덕마을	남원시 운봉읍 운봉남길 159	
	7	남원시	인월면	서무마을	남원시 인월면 서무1길 31	
	8	남원시	인월면	성내마을	남원시 인월면 성내길 45	유곡리
	9	남원시	운봉읍	소석마을	남원시 운봉읍 소석길 77	화수리
	10	남원시	인월면	외건마을	남원시 인월면 외건길 23	건지리
	11	남원시	금지면	용전마을	남원시 금지면 노송로 88	하도리
	12	남원시	금지면	하도마을	남원시 하도길 149-1	
	13	남원시	아영면	하성마을	남원시 흥부2길 11	
	14	남원시	운봉읍	화신마을	남원시 화신길 19	
	15	남원시	주천면	회덕마을	남원시 회덕길 27	
	16	남원시	아영면	흥부마을생가지	남원시 흥부로 275	체험마을
	17	무주군	안성면	덕곡마을	무주군 덕곡길 8-3	
	18	무주군	안성면	마암마을	무주군 마암길 59	공진리
	19	무주군	안성면	사교마을	무주군 사교길 14	

구분	연번	시군명	읍면동	마을명	주소	비고
	20	무주군	부남면	상굴암마을	무주군 상굴암길 15	
	21	무주군	무주읍	서면마을	무주읍 서면강변로 76	체험마을
	22	무주군	적상면	신대마을	무주군 서창로 94	
	23	무주군	안성면	신무마을	무주군 원통사로 207	
	24	무주군	안성면	용추마을	무주군 용추길 17	공정리
	25	무주군	부남면	울소마을	무주군 울소길 31-8	굴암리
	26	무주군	무주읍	잠두마을	무주군 잠두길 6	용포리
	27	무주군	적상면	중가마을	무주군 적상면 삼가로 227-14	삼가리
	28	무주군	무주읍	추동마을	무주군 추동길 20	
	29	무주군	안성면	통안마을	무주군 통안길 1	
	30	무주군	적상면	하가마을	무주군 하가길 25	
	31	순창군	적성면	과정마을	순창군 과정길 61-1	과정리
	32	순창군	유등면	외이마을	순창군 외이3길 30	외이리
	33	완주군	동상면	거인마을	완주군 동상로 1447	신월리
	34	완주군	운주면	고산촌마을	완주군 대둔산로 1858-78	
	35	완주군	동상면	밤티마을	완주군 동상면 밤티길 20-3	
	36	완주군	구이면	상학마을	완주군 구이면 상학길 37-6	원기리
	37	완주군	경천면	오복마을	완주군 경천면 대둔산로 235-1	경천애인
	38	완주군	동상면	원사봉마을	완주군 동상면 동상로 1181-56	사봉리
	39	완주군	경천면	원용복마을	완주군 경천면 대둔산로 514	용복리
	40	완주군	고산면	창포마을	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392	체험마을
	41	임실군	덕치면	구담마을	임실군 천담2길 287-4	
	42	임실군	강진면	갈담마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58-6	
	43	임실군	덕치면	강변사리마을	임실군 덕치면 강동로 865-20	천담마을 체험마을
	44	임실군	강진면	강서마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6	고산마을
	45	임실군	임실읍	고산마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6	강서마을
	46	임실군	성수면	당당마을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23	체험마을
	47	임실군	신평면	대리마을	임실군 신평면 대리1길 17	
	48	임실군	관촌면	막동마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2길 7	
	49	임실군	덕치면	망월마을	임실군 덕치면 회문3길 9	
	50	임실군	관촌면	방동마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1길 16-16	정보화 체험마을
	51	임실군	관촌면	사선녀마을	임실군 관촌면 사선1길 13	정보화 체험마을
	52	임실군	운암면	선거마을	임실군 운암면 선거1길 33-5	
	53	임실군	성수면	수천마을	임실군 성수면 성수산 2길9	
	54	임실군	관촌면	신병암마을	임실군 관촌면 춘향로 3331	
	55	임실군	덕치면	천담마을	임실군 덕치면 천담1길 39-34	강변사리마을
	56	임실군	운암면	청운마을	임실군 운암면 청운1길 361	
	57	임실군	임실읍	치즈마을	임실군 임실읍 치즈마을1길 4	정보화체험마을

구분	연번	시군명	읍면동	마을명	주소	비고
	58	임실군	성수면	평지마을	임실군 성수면 산성로 778	
	59	임실군	운암면	학암마을	임실군 운암면 학암2길 30	
	60	임실군	관촌면	황두마을	임실군 관촌면 회봉1길 29-7	회봉리
	61	임실군	덕치면	회문마을	임실군 덕치면 회문2길 20	
	62	임실군	성수면	효촌마을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344-4	
	63	임실군	성수면	후촌마을	임실군 성수면 도인로 214	
	64	장수군	장수읍	대덕마을	장수군 장수읍 대덕길 77	
	65	장수군	계북면	문성마을	장수군 계북면 문성길 114	
	66	장수군	장계면	성곡마을	장수군 장계면 성곡길 21	대곡리
	67	장수군	장수읍	수분마을	장수군 장수읍 뜰봉샘길 50	
	68	장수군	장계면	양삼마을	수군 장계면 소비재로 81	
	69	장수군	장계면	양천마을	장수군 장계면 양천길 9-2	
	70	장수군	계남면	원장안마을	장수군 계남면 지소골길 41	장안리
	71	정읍시	산내면	옥정호청정정보화마을	정읍시 산내면 능교3길 14-6	
	72	진안군	용담면	감동마을	진안군 용담면 감동길 51-9	
	73	진안군	주천면	신광석마을	진안군 주천면 신광석길 6-5	
	74	진안군	상전면	금지(배님실)마을	진안군 상전면 금지2길 2	
	75	진안군	성수면	내좌마을	진안군 성수면 산내길 18-3	
	76	진안군	진안읍	노계3마을	진안군 진용로 63-10	
	77	진안군	진안읍	대광2동마을	진안군 진안읍 대광1길 2	
	78	진안군	성수면	반용마을	진안군 성수면 반용길 13	
	79	진안군	주천면	봉소마을	진안군 주천면 봉소길 27-2	
	80	진안군	성수면	봉좌마을	진안군 성수면 봉황길 37	
	81	진안군	성수면	산수동마을	진안군 성수면 산내길 57	
	82	진안군	주천면	삼거마을	진안군 주천면 삼거길 2	
	83	진안군	부귀면	삼봉마을	진안군 부귀면 삼봉길 114	
	84	진안군	진안읍	새마을마을	진안군 진안읍 새마을길 22	
	85	진안군	마령면	서촌마을	진안군 마령면 서촌길 3	
	86	진안군	주천면	성암마을	진안군 주천면 성암2길 4	
	87	진안군	부귀면	신거석마을	진안군 부귀면 신거석길 15	
	88	진안군	성수면	양화마을	진안군 성수면 양화길 27	
	89	진안군	진안읍	연건마을	진안군 진안읍 연건1길 10	
	90	진안군	진안읍	연구1동마을	진안군 진안읍 중연길 24	
	91	진안군	부귀면	오산마을	진안군 부귀면 오산길 55	
	92	진안군	용담면	와룡마을	진안군 용담면 와룡길 49	
	93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마을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96	
	94	진안군	진안읍	우화1마을	진안군 진안읍 우화1길 6	진안읍내
	95	진안군	진안읍	우화2마을	진안군 진안읍 진장로 11	진안읍내
	96	진안군	진안읍	우화5마을	진안군 진안읍 진장로 52	진안읍내
	97	진안군	마령면	원강정마을	진안군 마령면 원강정1길 2	
	98	진안군	상전면	원수동마을	진안군 상전면 원수동길 13	
	99	진안군	용담면	월계마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423-14	
	100	진안군	마령면	월운마을	진안군 마령면 월운길 19	

구분	연번	시군명	읍면동	마을명	주소	비고
	101	진안군	진안읍	은천마을	진안군 진안읍 은천2길 6	
	102	진안군	주천면	장등마을	진안군 주천면 벌뜸길 10	
	103	진안군	성수면	증자마을	진안군 성수면 증자길 20-1	
	104	진안군	성수면	포동마을	진안군 성수면 포동길 13-5	체험마을
	105	진안군	정천면	하초마을	진안군 정천면 하초길 60	
	106	진안군	진안읍	학천1,2마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122	
	107	진안군	부귀면	화신마을	진안군 부귀면 화신길 10	
서 부 권	1	부안군	변산면	모항마을	부안군 변산면 모항해변길 9	
	2	부안군	진서면	왕포마을	부안군 진서면 왕포길 20	
	3	부안군	동진면	장등마을	부안군 동진면 장등안길 41	
	4	부안군	변산면	합구마을	부안군 변산면 합구길 35	
	5	부안군	변산면	격포바람꽃마을	격포중앙길 28-10	격포항시가지
	6	부안군	하서면	구암마을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707-1	
	7	부안군	변산면	궁항마을	부안군 변산면 궁항로 153-7	
	8	부안군	변산면	수락마을	부안군 변산면 수락길 15	
	9	부안군	보안면	신활마을	부안군 보안면 신활길 86	
	10	부안군	하서면	월포마을	부안군 하서면 월포길 49	일반산업단지
	11	부안군	진서면	작도마을	부안군 진서면 청자로 814	
	12	부안군	동진면	장기마을	부안군 고마제로 144-4	
	13	부안군	상서면	장서마을	부안군 장서길 20-1	
	14	부안군	변산면	죽막마을	부안군 죽막길 12	
	15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마을	고창군 고창읍 도산1길 42	정보화마을
	16	고창군	고창읍	교신마을	고창군 고창읍 월곡9길 12	
	17	고창군	아산면	구암마을	아산면 인천강서길 418-7	
	18	고창군	아산면	마명마을	고창군 아산면 인천강변로 658	
	19	고창군	고창읍	매산마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 96	
	20	고창군	아산면	반암마을	고창군 아산면 반암안길 23-5	정보화체험마을
	21	고창군	흥덕면	신덕마을	고창군 흥덕면 신덕길 24-1	
	22	고창군	부안면	안현마을	고창군 부안면 안현길 14	
	23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	고창군 아산면 원평길 24	
	24	고창군	신림면	입전마을	고창군 신림면 입전길 60-4	
	25	고창군	고창읍	죽림당촌마을	고창군 고창읍 죽림길 22	
	26	고창군	아산면	호암마을	고창군 반암호암길 12	
	27	고창군	고창읍	부귀마을	고창군 고창읍 부귀길 78	
	28	고창군	부안면	인촌마을	고창군 부안면 인촌안길 66	
	29	고창군	흥덕면	후포마을	고창군 흥덕면 후포로 258	
	30	김제시	만경읍	주행산마을	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35	
	31	김제시	백구면	마전난산마을	김제시 백구면 마산길 227	
	32	익산시	웅포면	산들강웅포마을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284	
	33	익산시	성당면	성당포구마을	익산시 성당면 승당이길 9	체험마을
	34	익산시	여산면	수은마을	익산시 여산면 수은길 101	
	35	익산시	웅포면	원대암마을	익산시 웅포면 원대암길 79-2	

구분	연번	시군명	읍면동	마을명	주소	비고
	36	익산시	여산면	두여마을	익산시 여산면 용기길 66	
	37	군산시	나포면	등동마을	군산시 나포면 등동길 34	
	38	군산시	나포면	내촌마을	군산시 나포면 서포로 45	
	39	군산시	성산면	성덕마을	군산시 성산면 성덕길 56	
	40	군산시	대야면	신촌마을	군산시 대야면 복교신촌길 34-4	



[그림 1-3] 마을자원 현황

1-2. 탐방자원 목록

1) 공공자원

○ 공공자원은 노선을 걷다 휴식,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우선 선정함

[표 2-2] 공공자원 목록

시군	명칭	주소
군산시	금강시민공원	군산시 성산면 강변로 477
남원시	금지면행정복지센터	남원시 금지면 금지순환길 917-27
완주군	경천면행정복지센터	완주군 경천면 대둔산로 259
	경천생활체육공원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680-3
	봉동울소축구장	완주군 봉동읍 은하울소로 179-51
진안군	부귀체련공원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71
무주군	무주읍 행정복지센터	무주군 무주읍 향학로 49
	부남체육공원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238-20
	적상체육공원	무주군 적상면 구역로 43
임실군	위풍당당권역 다목적 센터	임실군 성수면 도인4길 3
	임신행복나눔센터	임실군 임실읍 봉향로 80
순창군	섬진강군민체육공원	순창군 유등면 유등로 560-22
	섬진강권역복지관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352
	적성면사무소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35

2) 자연자원

○ 자연자원은 노선을 걸으면서 발견되는 우수한 경관 포인트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자원을 중점적으로 선정함

[표 2-3] 자연자원

권역	노선	시군	명칭	주소
동부권	코스01	남원시	지리산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285
	코스02	남원시	공안저수지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43-16
			덕산저수지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7
			바래봉	남원시 인월면 중군리 산131-5
			옥계저수지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산 14
	코스04	장수군_남원시	동화호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654
			봉화산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821
	코스04-1	임실군_장수군	신무산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산 109-1
	코스04-2	임실군	성수산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산 86
	코스04-3	임실군	백이산	임실군 윤암면 학암리 산 109-1
			봉화산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821
			임실천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476
	코스05	장수군	대곡호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132
			덕산계곡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132
			덕산제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산62
			방화폭포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132

권역	노선	시군	명칭	주소
	코스06	장수군	장안산군립공원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산 38-4
			남덕유산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산 35-2
			대곡호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132
			명덕천	장수군 장계면 명덕양지길 24
	코스07	무주군_장수군	구량천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2231-1
			통안천	무주군 안성면 칠연로 608
			용추폭포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1217-3
	코스08	무주군	금평저수지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1944
			덕산저수지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7
	코스10	무주군	금강래프팅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
			남대천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765
			적상산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 117
			향로봉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산 9-1
	코스11	무주군	잠두마을 주변 하천 및 숲길	무주군 무주읍 잠두길 6
	코스12	진안군_무주군	각시바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589
			대문바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593
	코스13	진안군	용담섬바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875-152
	코스14	완주군_진안군	노적봉쉼터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26
			운일암반일암	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1716
	코스15	완주군	과목동천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로 1968
			불명산	완주군 경천면 화암사길 271
			옥계천 계곡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로 1547-3
			천등산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 61-1
	코스16	완주군	경천저수지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873
			대아저수지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516
	코스17	완주군	대아수목원	완주군 동상면 대아수목로 94-34
			대아저수지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516
			동상저수지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672
	코스18	진안군_완주군	용담호 자연생태습지공원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71-4
			정자천	진안군 부귀면 두남리 731
	코스19	진안군	마이산도립공원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366
			사양저수지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663-1
			용담호 자연생태습지공원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71-4
	코스20	진안군	마이산도립공원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366
			섬진강	-
	코스21	임실군_진안군	섬진강	-
	코스23	임실군	옥정호	임실군 윤암면 입석리 808
	코스24	임실군	섬진강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960
	코스25	순창군_임실군	요강바위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814
			용결산 자연휴양림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522
			용결산 치유의숲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산 101-1
	코스26	남원시_순창군	섬진강	-
	코스27	남원시	섬진강	-
서부권	코스01	군산시	서해안	-
			군산호수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 192
			미제저수지	군산시 미룡동 59
			월명호수	군산시 소룡동 1071-4
	코스02	김제시_군산시	군산호수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 192
			만경강	-

권역	노선	시군	명칭	주소
			청암산	군산시 화현면 세장리 산143
	코스03	김제시	만경강	-
			새만금 목재에너지림	-
	코스03-1	전주시_익산시_김제시	만경강	-
	코스04	김제시	새만금 간척지	-
	코스05	부안	고마제	부안군 동진면 내기리 278-6
	코스05-1	정읍_부안-김제	동진강	-
	코스05-2	정읍	동진강	-
			정읍천	-
	코스05-3	정읍	동진강	-
	코스08	부안군	두포해변	부안군 변산로 3210-16
			솔섬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3318
	코스09	부안군	변산반도국립공원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 산252-1
	코스10	고창군_부안군	서해안	-
	코스11	고창군	고창갯벌	-
			선운산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코스12	고창군	병바위	고창군 아산면 영모정길 88-7
			선운산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운곡람사르 습지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71-1
			할매바위	고창군 아산면 계산리 산5
	코스13	고창군	운곡람사르 습지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71-1
	코스14	정읍시_고창군	방장산	고창군 신림면 가평리 산 25
			입암저수지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322-1
	코스15	정읍시	내장저수지	정읍시 쌍암동 484
			오봉산	정읍시 신정동 산 183
			용산저수지	정읍시 용산동 243
	코스16	정읍시	수청저수지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62
			칠보산	정읍시 칠보면 축현리 산 153
	코스17	정읍시_임실군	성옥산	정읍시 산내면 두월리 산 48-1
			옥정호	-
			해공산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산 275
	코스17-1	정읍시	옥정호	-
			장군봉	정읍시 내장동 산 231
			추령천	-
	코스17-2	정읍_임실	옥정호	-
	코스18	전주시_완주군_임실군	구이저수지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117-1
			모악산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1-3
			옥정호	-
	코스19	전주시	전주천	-
	코스20	완주군	만경강	-
	코스21-1	완주군	고산천	-
			만경강	-
	코스22	익산시	금강	-
	코스23	익산시	금강	-
	코스24	군산시_익산시	금강	-
			오성산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산 38-12

3) 역사자원

○ 역사자원은 노선변에서 도보권역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구축이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함

[표 2-4] 역사자원

권역	노선	시군	명칭	주소
동부권	코스01	남원시	광한루원	남원시 요천로 1447
			구룡사	남원시 주천면 구룡폭포길 203-62
			덕치리초가	남원시 주천면 회덕길 25-8
	코스02	남원시	박초월생가	남원시 운봉읍 비전길 7
			운봉향교	남원시 운봉읍 운봉남길 217-28
			운지사	남원시 운봉읍 바래봉길 210-86
			향산대첩비지	남원시 운봉읍 가산화수길 84
	코스03	남원시	흥부골	-
	코스04-2	임실군	성지사	임실군 성수면 성수산1길 14-1
	코스04-3	임실군	3.1운동 기념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851
			안도암	임실군 봉황로 251-28
			운수사	임실군 임실읍 봉황10길 109
			임실향교 대성전	임실군 임실읍 봉황7길 23
			죽림암	임실군 임실읍 호반로 79-53
	코스05	장수군	논개생가지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132
			장안사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132
	코스07	무주군_장수군	정인승기념관	장수군 계북면 양악길 119
	코스10	무주군	복고사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521
	코스13	진안군	와룡암	진안군 주천면 금평1길 10-8
			주천서원	진안군 주천면 금평1길 30-7
	코스14	완주군_진안군	도덕정	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1716
			영불사	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1845-1
	코스15	완주군	천복사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로 1580-59
			화엄사	완주군 경천면 화암사길 271
	코스16	완주군	독립애국지사 공훈기념관	완주군 경천면 만수동길 22
	코스19	진안군	금당사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217
			나옹암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217
			마이산 탐사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367
	코스20	진안군	구산서원	진안군 마령면 임진로 2361-82
			수선루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산57
			영계서원	진안군 원강정1길 54-6
			강정리 전영표가옥	진안군 강정리 248-1
			합미산성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산24
	코스21	임실군_진안군	사선대	임실군 관촌면 사선2길 68-7
			운서정	임실군 관촌면 관진로 61-20

권역	노선	시군	명칭	주소
	코스25	순창군_임실군	임실진구사지 석등	임실군 신평면 용암길 11-12
			구암정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028
			어은정	순창군 적성면 평남길 107-32
			영모재	순창군 유등면 월탄2길 23
			일광사	순창군 적성면 담순로 2168-33
			총양수 이흥길묘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산 115-2
	코스27	남원시	광한루원	남원시 요천로 1447
			금수정	남원시 노암동 566-22
서부권	코스01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산 38-12
			삼일운동기념비	군산시 월명동 34-10
			수시탑	군산시 금동 35-20
	코스03	김제시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10길 94
	코스03-1	전주시_익산시_김제시	새창이다리	김제시 청하면 만경로 1511-1
	코스05	부안군_김제시	부안향교	부안군 부안읍 향교길 25
	코스05-1	정읍-부안-김제	만석보지(萬石湫址)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658
	코스05-2	정읍시	만석보지(萬石湫址)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658
			용화사	정읍시 용신길 88
	코스05-3	정읍시	낙양사	김제시 금구면 청운4길 87-3
			만석보지(萬石湫址)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658
	코스06	부안군	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707-1
			부안향교	부안군 부안읍 향교길 25
	코스08	부안군	수성당	부안군 변산면 적벽강길 54
	코스12	고창군	덕천사	고창군 아산면 인천강변로 308
			삼호정	고창군 아산면 인천강변로 302
			영모정	고창군 아산면 영모정길 88
	코스13	고창군	고창 고인돌 유적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665-9
			고창읍성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25-9
	코스16	정읍시	무성서원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44-12
	코스21-1	완주군	고산향교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47-23
			백운사	완주군 고산면 읍내5길
			충훈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683-1
	코스22	익산시	나바위성당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1길 146
	코스24	군산시_익산시	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산 38-12

4) 문화자원

- 문화자원은 역사적 인물을 기리거나 전설 및 민담 등이 전해 내려오는 곳을 중심으로 지역을 특색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함

[표 2-5] 문화자원

권역	노선	시군	명칭	주소
동부권	코스04-1	임실군_장수군	금강사랑물체험관	장수군 장수읍 물뿌랭이길 10-21
	코스08	무주군	삼향삼색고을권역센터	무주군 덕유산로 709
	코스09	무주군	무주서창향토박물관	무주군 적상면 서창로 89
			삼락플러스센터	무주군 적상면 서창로 70
	코스14	완주군_진안군	운일암휴게소	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1656
	코스15	완주군	병풍바위휴게소	완주군 운주면 금고당로 526
			천등산휴게소	완주군 운주면 대운산로 1358
	코스16	완주군	경천애인	완주군 경천면 오복대석길 43-12
			놀토파아	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416
			완주전통문화체험장	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416
	코스17	완주군	완전전통문화공원	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416
	코스19	진안군	가위박물관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258
			마이돈테마공원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800
			홍삼 한방타운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길 16-10
	코스21	임실군_진안군	신평면사무소 생활사 박물관	임실군 신평면 석등솔치로 369
	코스23	임실군	섬진강댐물문화관	임실군 운암면 강운로 1239
	코스24	임실군	김용택시인문학관	임실군 관촌면 신전4길 33
			필봉문화촌	임실군 강진면 강운로 27
	코스25	순창군_임실군	섬진강미술관	순창군 적성면 평남리 483-1
			섬진강예술인마을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361-26
	코스26	남원시_순창군	남원 무진정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 456-1
			남원 영사정	남원시 금지면 영사정길35-13
	코스27	남원시	남원예촌	남원시 광한북로 17
서부권	코스05-3	정읍시	태산선비문화관	정읍시 칠보면 칠보산로 1507
			향토문화사료관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12-3
	코스05-1	정읍-부안-김제	동진강 석천휴게소	김제시 월죽로 8
	코스21-1	완주군	경천애인활성화센터	완주군 경천면 오복대석길 43-12
			완주문화원	완주군 고산면 읍내7길 43
	코스03	김제시	심포항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666-5
	코스04	김제시	동진강석천휴게소	김제시 죽산면 월죽로 11-19
			심포항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666-5
	코스05	부안군_김제시	부안국악원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54-1
			석정문화관	부안군 부안읍 선은1길 10
	코스05-1	정읍-부안-김제	동진강 석천휴게소	김제시 월죽로 8

권역	노선	시군	명칭	주소
	코스05-2	정읍시	내장산문화광장	정읍시 내장산로 390
	코스05-3	정읍시	태산선비문화관	정읍시 칠보면 칠보산로 1507
			향토문화사료관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12-3
	코스07	부안군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29-7
			부안 해안길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583
			새만금 잼버리전망대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산 142-12
	코스08	부안군	격포항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88-15
			부안 해안길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583
	코스09	부안군	부안 해안길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583
	코스10	고창군_부안군	곰소항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848
	코스11	고창군	미당시문화관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2-8
	코스12	고창군	미당시문학관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2-8
	코스13	고창군	고창 고인돌 박물관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 74
	코스15	정읍시	내장산문화광장	정읍시 내장산로 390
	코스16	정읍시	내장산문화광장	정읍시 내장산로 390
			농경문화체험교육관	정읍시 천변로 838
			칠보물테마 체험전시관	정읍시 칠보면 칠보산로 1555
			태산선비문화관	정읍시 칠보면 칠보산로 1507
			향토문화사료관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12-3
	코스21-1	완주군	경천애인활성화센터	완주군 경천면 오복대석길 43-12
			완주문화원	완주군 고산면 읍내7길 43

5) 관광자원

○ 관광지원은 지정관광지 외 공원 리조트 등 숙박이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표 2-6] 관광자원

권역	노선	시군	명칭	주소
동부권	코스01	남원시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덕음산술향산림욕장	남원시 소리길 122-23
			백두대간여가캠핑장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지리산 둘레권역 홍보관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101-18
	코스02	남원시	운봉서림공원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349-3
			지리산하브밸리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265-4
			흥부골자연휴양림	남원시 인월면 구인월길 125
	코스04-1	장수군	든봉샘 생태공원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산 39-3

권역	노선	시군	명칭	주소
			방화동 자연휴양림	장수군 번암면 방화동로 778
			뜯봉샘 생태공원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산 39-3
	코스04-2	임실군	성수산자연휴양림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산 84
	코스04-3	임실군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코스05	장수군	방화동 자연휴양림	장수군 번암면 방화동로 778
			장수도깨비 전시관	장수군 장계면 논개생가길 31-13
			장안도깨비 동굴	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산45-2
	코스06	장수군	장수논개 수상레저	장수군 장계면 의암로 632-77
			장수도깨비 전시관	장수군 장계면 논개생가길 31-13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장수군 장계면 육십령로 764-5
	코스07	무주군_장수군	무병장수마을체험관	장수군 계북면 토옥동로 114
			무주솔밭펜션캠핑장	무주군 안성면 원통사로 294
			무주홀리데이파크캠핑장	안성면 칠연로 462-3
	코스08	무주군	전망대	무주읍 읍내리 산9-2
	코스10	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무주군 무주읍 무학로 153-36
			서창종합관광안내센터	무주군 적상면 서창로 89
	코스11	무주군	금강래프팅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
			소이나루공원	무주군 무주읍 서면강변로 76
			앞섬체험센터	무주군 무주읍 내도로 174-26
	코스12	진안군_무주군	감동실개천 공원	-
	코스13	진안군	용담가족테마공원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221-6
			주천생태공원	진안군 주천면 신양리 705-2
			진안국제캠핑장	진안군 용담면 와룡리 74번지
	코스14	완주군_진안군	개미공원	진안군 주천면 삼거길 13
			진안국가여가캠핑장	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1996-13
	코스18	진안군_완주군	부귀농원 가족캠프	진안군 부귀면 두남리 88-1
			부귀편백숲산림욕장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산89
	코스24	장수군_남원시	뜯봉샘 생태공원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산 39-3
			방화동 자연휴양림	장수군 번암면 방화동로 778
	코스25	순창군_임실군	채계산 출렁다리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산 30-5
			섬진강향가오토캠핑장	순창군 풍산면 향가로 575
			향가유원지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38-1

권역	노선	시군	명칭	주소
서부권	코스27	남원시	요천생태습지공원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294
	코스01	군산시	바다공원조각	전북 군산시 해망동
			월명공원	군산시 해망동 998-291
			은파호수공원	군산시 은파순환길 9
	코스02	김제시_군산시	청암산생태관광지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 465
	코스03	김제시	만경강 낙조전망대	김제시 만경을 화포리 966-1
	코스05	부안군_김제시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	부안군 동진면 내거리 316-13
	코스05-3	정읍시	동진강생태공원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1016-3
			칠보테마체험전시관	정읍시 칠보면 칠보산로 1555
	코스06	부안군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10
	코스07	부안군	변산 해수욕장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2100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10
	코스08	부안군	고사포 해수욕장	부안군 변산면 노루목길 28
	코스10	고창군_부안군	줄포만갯벌생태공원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코스12	고창군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고창군 원평길 37
	코스13	고창군	용담호 자연생태습지공원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71-4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고창군 원평길 37
	코스15	정읍시	내장산골프리조트	정읍시 첨단과학로 476
	코스17-1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571
			옥정호 수변공원	임실군 순창군
	코스22	익산시	용안생태습지공원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313-13
	코스23	익산시	웅포관광지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25

2. '생태관광' 및 '탐방로' 정책동향 분석

2-1. 정책 동향

1) 이론 : 생태관광¹⁾

(1) 국가적 차원

- 멕시코 도시개발생태부 기술표준국장이면서 환경단체 'PRONATURA'의 회장을 겸하고 있던 세바우스 라스쿠라인(Hector Ceballos-Lascurain)이 1983년 유카탄반도 북부에 위치한 홍학(American Flamingo) 번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셀레스툰(Celestun)강 하구의 마리나 개발계획 반대 운동을 주도하면서 생태관광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함
- 2002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생태관광의 해(IEY)로 유엔에서 생태관광은 그동안 '기념의 해'의 선정한 주제로는 역사가 가장 짧음
- 이처럼 생태관광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내적 요인

- 지역발전과 생태계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생태관광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생태관광은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의 한 유형으로 경제적 효과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큼

■ 외적 요인

-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전 지구적인 패러다임으로 부각하여 정책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 특히 접두어 '생태-(Eco)'를 유행시키고 자연지역의 관광객이 증가하게 만들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온 인류가 지향하고 실천해야 하는 행동강령이 됨
- 관광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하였고 생태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부상함

1) 김성진. 생태관광 진흥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재정리

■ 주요 국가의 생태관광 정의

- 주요국가별 생태관광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핵심 요소 및 추진 방법에 대한 내용은 차이를 보이거나 ‘지속가능성’, ‘자연보전’ 및 ‘자연친화’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표 2-7] 주요 국가의 생태관광 정의

구분	정의
호주 생태관광 국가 전략	· 자연환경 교육과 해설을 포함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자연관광
호주생태관광협회	· 환경과 문화의 이해와 감상, 보전을 촉진하며 자연지역 경험을 강조하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중국	· 환경의 문화와 자연사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으로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자연자원 보전을 통해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
일본 생태관광 추진협의회	· 자연, 역사, 문화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고, 관광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통해 보호·보전을 촉진하며,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의 새로운 형태로서,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지역 자원의 접촉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자원이 보전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광
대한민국	·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
캐나다	· 문화와 자연 역사를 이해하게 하고 생태계를 온전하게 보호하며,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여 보전을 촉진하는 의미 있는 여행
벨리즈	·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자연지역으로의 책임있는 여행
브라질	· 자연 및 문화 유산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보전을 촉진하며, 환경해설을 통해 생태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 관광
말레이시아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정의 채택 - 자연(과거와 현재의 관련 문화자원 포함)을 즐기고 감상하기 위해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자연지역으로의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여행이나 방문으로서, 보전을 증진하고, 부정적 이용 영향을 유발하지 않으며, 지역주민에게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관광
멕시코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정의 채택
에콰도르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정의 채택

출처 : 김성진. 생태관광 진흥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재정리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및 생태관광자원 정의²⁾

-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은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환경 체험·교육을 통하여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키고 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자원, 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함
- 생태관광자원과 연계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체험과 교육, 생태숙박, 생태형 먹거리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

2) 김보국, 김형오, 조하진.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사업 중간점검 및 발전방향 연구. 2020. 전북연구원

- 생태관광자원은 생물자원과 무생물자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생물자원은 동식물 등, 무생물자원은 지질, 경관 등이 될 수 있음
 - 생태관광자원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보전 개념의 자원과 복원이 가능한 훼손 자원으로 구분됨
 - 생태관광지원은 보전가치가 높은지 이용가치가 높은지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음. 보전가치가 높다면 자원을 중심으로 핵심, 완충, 전이지역을 설정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가치가 있다면 자원을 육성시키고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훼손된 자원을 생태관광자원으로 선정하였거나 연계 필요성이 있는 자원이 훼손된 경우 복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생물자원의 경우 서식지 회복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무생물자원의 경우 자원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관리 및 복원이 이루어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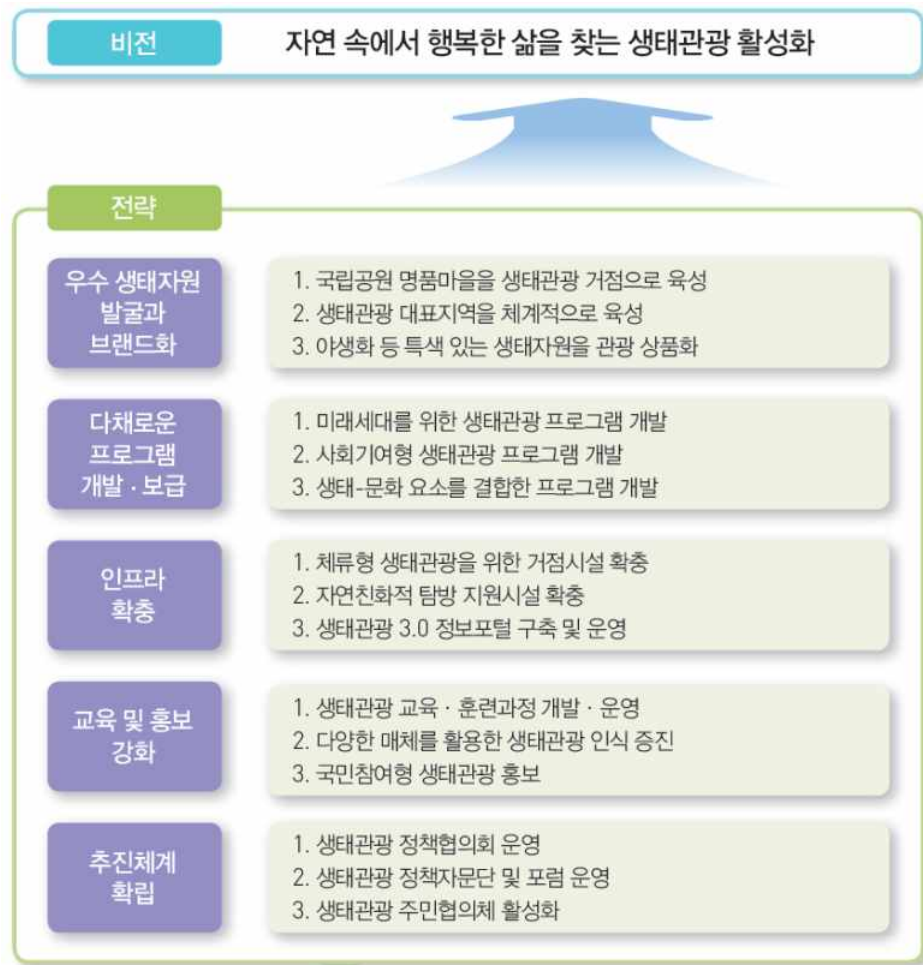
2) 환경부 정책동향³⁾

(1) 생태관광 근거법 및 정책 방향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 방향 제시'

- 생태관광의 개념은 2014년 처음 등장하여 개념적으로 사용되어 오다 2019년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는 '자연 속에서 행복한 삶을 찾는 생태관광 활성화'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5개 전략을 정리하여 전략별 15개의 세부과제를 발굴하고 수립함
- 생태관광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제55조의2(한국생태관광협회)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중장기발전방안을 마련함(2013)
- 생태관광 자원 확보를 위해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생태관광지역 26개소 확대 지정함
 - 지정된 생태관광지역 운영 지원(1개소 당 평균 1억원, 국고 50%)
-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
 - 생태관광 거점 확보 : 국립생태원, 밀양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등
 - 체류형 생태관광을 위한 시설 확충 : 국립공원 생태탐방 연수원, 생태관광지 에코촌 등
- 국립공원 생태관광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도입 등 생태탐방로 등 탐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있음

3) 환경부.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2019. 재구성



[그림 2-1]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 방향의 비전 및 전략

출처 : 환경부,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2019

주요 추진 사업

■ 명품마을 조성사업

- 국립공원에 존치하는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생태관광으로 소득증진을 기하는 ‘명품마을 조성 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국립공원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해 자연생태와 문화 다양성을 살려 지정하는 국립공원지역 내에 입지하는 마을이 사업 대상임
- 2017년까지 명품마을 18개소 조성을 목표⁴⁾로, 주민을 도와 홈페이지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할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마을별 특성을 살린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 거리를 개발함으로써 주요

4) 명품마을은 당초 18개소가 지정되었으나, 19년 현재 덕유산국립공원의 신선마을이 명품마을에서 지정 취소되어 17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생태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23년 현재 17개소를 운영중⁵⁾

■ 생태관광 바우처 제도(생태 나누리 사업)

- 기업과 MOU체결을 통해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 계층에게 유료로 운영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쿠폰을 제공하는 제도임
-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환경단체)는 후원기업 선정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기업은 후원경비 지원 및 홍보 추진 역할을 함
- '일반바우처'와 '수학여행 바우처'로 나뉘어 신청 및 이용 가능함

[표 2-8] 생태관광 바우처 유형

구분	정의
일반 바우처 제도	사회복지시설 보육자(장애인, 아동, 노인), 다문화가정아동, 저소득층(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아동)가정에 한하여 지원 서비스 대상연령과 생태관광 장소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선택
수학여행 바우처 제도	생태체험 중심의 수학여행 유도 및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위해 '수학여행 생태관광 바우처 제도' 운영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이 포함된 생태체험 중심의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의 저소득층 청소년에 한하여 지원

자료: 국립산림과학원(2017), 산촌생태관광 도입에 의한 산촌진흥 방안 연구. 재정리

- 생태관광 바우처 제도 운영 프로그램은 19개의 국립공원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생태, 자연복원, 문화, 웰빙 등 4개 유형 50여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2) 국가생태문화탐방로와 생태관광지역

국가생태문화탐방로

■ 정의 및 활용

-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중심의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훼손지역을 동시에 복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근거법이며 2008년 3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36개소의 국가생태문화탐방로가 지정되어 있음
- 생태관광지역을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 생태문화권을 지정하고 탐방이 가능한 루트를 설정하여 이를 걷게 하는 방식을 말함

5) <https://www.knps.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7020121>

■ 전북자치도 국가생태탐방로 지정 현황

○ 전북자치도 내에 국가생태탐방로는 고창, 군산, 부안, 완주 4개 시군에 지정되어 있음

- 고창 : 고창선사문화 탐방로, 운곡습지, 노동저수지 둘레길
- 군산 : 금강생태문화탐방로
- 부안 : 해안생태문화탐방로, 위도 고슴도치 길
- 완주 : 만경강상류 강변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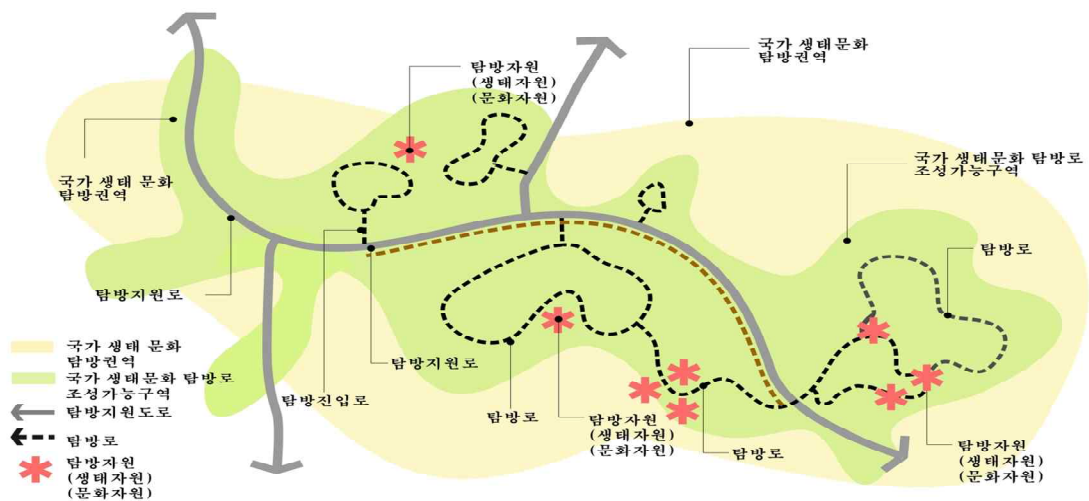
🌿 국가생태관광지역

■ 정의 및 활용

○ 환경부가 2013년부터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사업이 걷기 중심의 선 단위 사업이었다면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사업은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사업을 여러개 묶어 면으로 확장시킨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 환경부가 지정한 전국의 생태관광지는 총 35개소가 있으며 이 중 전북에는 3개소가 있음
- 고창의 고인돌 운곡습지, 정읍의 월영습지와 솔티숲, 남원 지리산정령치습지와 운봉백두대간 임



출처: 환경부

[그림 2-2] 국가생태관광지역과 생태문화탐방로와의 관계

3) 문화관광체육부 정책동향⁶⁾

(1) 지역관광 및 생태테마관광

지역관광 및 생태테마관광 육성도모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 근거하여 지역관광과 생태테마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2-9] 관광진흥법 제48조

구분	정의
48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자료 : <https://www.law.go.kr/>

- 제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⁷⁾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 운영지침」을 발표하여 (DMZ), 전통문화, 생태자원, 산림자원 등 고유 콘텐츠를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함
- 제2차 국가관광 전략회의⁸⁾에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한 4대 추진과제와 지역특화 콘텐츠 세부과제인 농촌·산림·생태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함
 - 농촌·숲·산림 등을 새로운 생태·휴양·체험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 가치 제고
 - 산림휴양·복지형 등 명품숲 50개소 발굴·지정(~'22) 및 전문가 육성
 - 인문학 스토리를 접목 시킨 생태테마 프로그램 발굴, 노후화된 생태관광시설 재생

■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 육성 도모에 초점을 두고 지역관광 육성

-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강화, 글로벌 시각에서 국제적인 지역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주도 관광정책 추진 및 지역 관광일자리 창출 필요성 제시

■ 지역의 특색 있는 생태자원에 스토리텔링을 입혀 관광 상품화하는 '생태 테마 관광' 육성 사업 추진

- 인문학적 이야기를 접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공모 후, 전문가 컨설팅과 홍보·마케팅, 예산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함
- 생태체험프로그램과 인력양성,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필요함

6) 환경부.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2019. 재구성

7)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7.12.18.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8)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8.7.11.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 지역 관광 육성에서 찾겠습니다.

🌿 생태관광 10대 모델⁹⁾

-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은 습지, 철새도래지, DMZ 등 우리 고유의 생태자원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임
- 문화부와 환경부는 연안습지, 내륙습지, DMZ, 철새도래지, 산/강, 섬, 해안, 화석·동굴 등 8개 자원 유형을 고려하여 10개 지역을 선정함
- 생태계 보전계획,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예산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자원별로 차별화된 생태관광지 그룹으로 육성하고 있음

[표 2-10] 생태관광 10대 모델지

유형	소재지	주요 자원 현황
해안사구	충남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 내륙과 해안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완충기능을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구
연안습지	전남 순천시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대중관광지)	· 세계 5대 습지 중 하나로 흑두루미 등 철새 등의 주요 서식지
내륙습지	경남 창녕군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람사르 협약)	· 약 1억 4천만 년 전에 생성되어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원시 늪
철새도래지	충남 서산시 천수만(동북아 철새 중간기착지)	· 가창오리,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300여종 400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는 동북아 최대 철새도래지
화석·동굴	강원도 평창군 마하 (마하생태관광지, 백룡동굴)	· 지표운동과 지하수·석회수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백룡동굴과 생태계의 보고인 동강이 있음
산/강	영주시 소백산 자락길	·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교문화를 엿 볼 수 있는 소백산 자락길
	진안군 고원 마실길, 데미샘	· 진안 데미샘과, 아름다운 산천을 걸으며 지역별 특성을 느낄 수 있는 고원 마실길
DMZ	경기도 파주시 서부 DMZ	· 지구의 마지막 갈라파고스로 일컬어지며 희귀 야생동식물은 물론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가 산재함
	강원도 화천군 동부 DMZ	
섬	제주도 거문오름과 서귀포 생물권 보전지역	· UNESCO 생물보전지역이며, 세계자연유산

자료 : <https://www.law.go.kr/>

9)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0.2.24.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 창출을 위한 발걸음을 떼다

관광두레¹⁰⁾

- 기존 지역관광 개발 사업이 시설과 인프라 조성 중심으로 추진되어 준공 이후 운영 저조, 주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수혜가 미흡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새롭게 출범한 사업

■ 사업 목적

- 주민 주도의 관광사업체 창업 및 육성 지원
 -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식음, 여행알선, 운송, 오락과 휴양 등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체를 성공 창업하고 자립 발전하도록 지원
- 관광두레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의식 제고 및 지역관광 활성화
 - 관광두레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관광두레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

■ 추진주체별 역할 분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PD, 관광두레기업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로 사업추진

[표 2-11] 추진주체별 역할 분담

구분	주요 역할 및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관광두레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 관광두레 조직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관광두레PD 추천, 근무공간 지원 등
문화관광연구원	· 자원조사와 지역진단, 지역특화관광사업 모델 개발 · 지역역량강화(관광두레PD 육성, 교육·훈련, 멘토단 운영 등) · 사업 추진 성과 분석 및 모니터링
한국관광공사	· 홍보·마케팅, 지역대학생 인턴 운영 · 관광두레 교류(네트워킹) 지원
관광두레PD	· 관광두레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주민 인식 증진 및 조직화 · 부처별 각종 지원사업 연계,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지역주민 (관광두레기업)	· 관광두레 구성(출자 및 조합구성 등) 및 실행계획 수립 참여 · 교육훈련·컨설팅 참가 및 관광사업 운영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정책, 2014.04. 2014 관광두레 조성사업 추진 현황

10)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정책, 2014.04. 2014 관광두레 조성사업 추진 현황.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691&pDataCD=0417000000&pType=05

[표 2-12]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목표	사업내용
1차년도	관광두레PD 교육, 지역진단, 관광두레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 지역선정 및 PD선발, 교육 · 자원조사 및 지역진단 ·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계획 수립 ·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멘토링
2차년도	창업예비사업의 시범운영을 통한 관광두레기업 창업	· 관광두레포럼 개최 · 기업별 맞춤형 멘토링 및 역량강화 · 창업 파일럿 사업 운영 지원 ·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3차년도	관광두레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자립 발전 기반 구축	· 관광두레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지원
↓	평가(사업추진 성과 평가, 2년 추가 지원)	
4,5차년도	지속 성장 및 모범사례 육성	· 경영 다각화 및 수익 확대 지원 · 관광두레 네트워크 지속 운영 · 홍보마케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정책, 2014.04. 2014 관광두레 조성사업 추진 현황

(2) 코리아 둘레길

■ 개요

- 문체부는 우리나라 외곽을 하나로 연결하는 초광역 걷기길 4,500km를 지정 및 운영하고 있음
- 2023년 9월 DMZ 평화의길이 최종 개통함에 따라 강화 평화전망대에서 시작하여 해남 땅끝탑,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고성 통일전망대를 거치는 순환형 둘레길이 완성됨

■ 내용

- 비전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며 함께 걷는 길’
목표는 ‘평화, 만남, 치유, 상생’의 가치 구현
- 코리아 둘레길은 10개 광역지자체, 78개의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음

■ 전북도와의 관계

- 군산~김제~부안~고창 4개 지역에 서해랑길 43코스 ~ 56코스, 총 14개 코스가 설정되어 있음



[그림 2-3] 코리아 둘레길

2-2. 관련법 검토

1)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제정됨
- 생태관광을 정의하고 있으며, 생태관광 육성 및 협의회를 명시하고 있음

[표 2-13]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관광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2조 (정의)	18.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제41조 (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5조의2 (생태관광협회)	① 생태관광 사업자, 생태관광 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생태관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의 조사·연구 2. 생태관광 관련 국제협력업무 3.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태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태관광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10조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영농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관광의 촉진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방안에 관한 사항

출처 : <https://www.law.go.kr/>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이 목적
- 숲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숲길기본계획수립 등을 명시하고 있음

[표 2-1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숲길에 대한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2조 (정의)	16.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2조의2 (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2.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가.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나.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3.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 4.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이하 “탐방”이라 한다)을 하는 길 5.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제22조의3 (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등산·트레킹·산림레포츠·탐방 및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의 종류별로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이하 “숲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숲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숲길에 관한 수요와 여건 및 전망 3. 숲길 조성 추진체계 및 관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숲길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숲길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숲길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지역적·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숲길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숲길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할 산림(「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숲길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이하 “숲길연차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숲길기본계획 및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의 수립·변경 및 제6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구분	내용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① 숲길관리청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노선선정·조성계획의 적절성,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숲길관리청은 효율적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 ②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의견 수렴 결과 숲길의 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숲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된 노선의 변경, 지정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 ③ 제2항에 따라 숲길의 노선이 지정·고시되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타당성 평가의 절차, 숲길 명칭의 부여, 숲길 노선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그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 (숲길의 운영·관리)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숲길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당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의4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3.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제24조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숲길에 대하여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등산로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 3. 역사·문화 유적지와 연계되거나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트레일·탐방로 또는 옛길 4.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산림레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레포츠길
제27조 (등산·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하여 등산·트레킹교육을 실시하는 등산·트레킹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산·트레킹학교 운영을 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또는 등산·트레킹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산·트레킹학교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산·트레킹학교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개설하는 등산·트레킹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 <https://www.law.go.kr/>

3) 관련 조례

- 관련 조례는 「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를 검토하였으며 걷는 길 관련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를 검토함

(1)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표 2-15]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2조 (정의)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란 도내 시·군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생태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의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5조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의 기능)	1.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한 기획 조정 2.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운용 및 관리 3. 생태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컨설팅 4. 생태관광 마을사업화 지원 5. 생태관광 전문인력 육성, 주민 경영능력 강화 6. 생태관광지 마케팅, 홍보 7. 생태관광지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육성 8. 생태자원 조사, 모니터링 및 용도지역 관리 9.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관광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센터의 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이 센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조성)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시·군에서 실행할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이 경우 원활한 실행을 위해 시·군과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이 생태관광지 조성과정에서 생태탐방객의 안내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생태관광방문자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의 조성 재원에 있어서 국비(지역발전특별회계)와 도비, 시·군비가 일정비율로 협의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출처 : <https://www.elis.go.kr/>

(2)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자치도는 조례에 따라 5년마다 ‘걷기 길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음

[표 2-16]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역사·문화·자연자원 등을 연계한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등의 건강 및 행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걷는 길”이란 도민 및 관광객(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조성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위치한 길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걷는길 조성·관리 원칙)	①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살릴 수 있도록 걷는 길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적으로 걷는 길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걷는 길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 2.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강원자치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4. 보행자 안전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걷는 길 정보망 구축)	① 도지사는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등)	도지사는 걷는 길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내 걷는 길 조성·운영·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강원자치도 내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출처 : <https://www.elis.go.kr/>

3. 국내외 사례

3-1. 국내 사례

1) 운탄고도¹¹⁾

(1) 운탄고도 개요

■ 출범 및 코스 구분

- ‘운탄고도1330’은 2020년 강원도가 추진한 사업으로 2년 후 시점인 2022년에 영월~정선~태백구간 1단계 사업이 준공됨
 - 추진 시점에서부터 최초 준공까지 소요된 시간이 2년 이내로 짧게 걸린 이유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한 재원이 기 확보 되어 있었기 때문임
- 운탄고도 1330의 노선은 장기트레킹을 위해 새롭게 조성한 길이기보다는 기존 영월, 정선, 태백 각 지자체에 있던 특화 길을 연결시킨 개념임. 순환코스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음

■ 운탄고도 1330 명칭 및 코스 설정

- ‘운탄고도 길’은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 리조트 주변의 백운산 주변에 기 활성화 되어 있던 길로 ‘운탄고도’ 고유명사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강원랜드가 가지고 있는 상태임
- ‘석탄을 운반하던 길’ 본연의 가치가 높은 운탄고도 코스는 4코스~5코스가 대표적이며 나머지 길은 우수한 자연자원을 잇는 산악트레킹 길임

■ 운탄고도 1330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운탄고도 1330은 영월군 출자 기관인 (재)영월산업진흥원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강원도 출자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영월 외 정선, 태백에 운탄고도 1330 센터가 조성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에는 정선 거점센터만 운영되고 있음. 강원도와 시군간 행정 절차를 조율하고 있는 상태임
- 운탄고도 1330 통합지원센터는 노선 관리를 첫 번째 업무로 삼고 있으며 다음으로 방문객 응대, 프로그램 기획 관리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탐방길이 현장 검증이 부재한 채 행정 처리가 완료된 시점에 개통한 한계를 보임.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민원을 센터가 받고 있음

11) 연구진이 ‘운탄고도 1330’을 사례답사 한 후의 보고서를 정리한 내용임

- 국유림지 이용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기존 설치된 화장실도 철수하는 등 시설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자전거로 국유림지에 진입하는 것이 불법인 일부 구간이 존재하나 센터에서 저지할 근거가 없음
- 홈페이지에 다양한 정보를 게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민원 업무량이 과중함. 민원 응대를 위한 매뉴얼 마련을 고려하고 있음
- 예산을 투입하여 BI 개발, 굿즈를 제작 해 놓고 정작 판매를 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함. ‘운탄고도’의 사용 권한이 강원도가 아닌 ‘강원랜드’가 가지고 있기 때문임



[그림 2-4] 운탄고도 1330 통합자원센터

(2) 주요 거점 특성

■ 모현동 벽화마을

- 모현동 벽화마을은 3구간을 통과하는 주요 거점으로 1990년대까지 번성했으나 석탄산업의 쇠퇴와 함께 쇠퇴한 마을임
 - 운탄고도1330 개통과 함께 ‘운탄고도 마을호텔’ 예능프로그램이 방영되어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한 지역임
- 채광업소, 기숙사 등 마을역사 자원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한채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방문객을 위한 상시 시설이 부재함
- 마을 입구는 운탄고도 관련 외 이정표가 여러 개 세워져 있음. ‘운탄고도’ 길 안내를 위해 기존 이정표를 정비하지 않고 추가로 설치함

■ 엽기적인 소나무, 타임캡슐 공원

- 운탄고도 4코스 변에 위치하고 있는 명소로 주차장과 카페,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으며 타임캡슐 체

힘이 가능함

-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차량과 도보 이용이 가능하고 산림과 고원 경관의 심미성이 높음
- 특히 정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타임캡슐 심기’ 행사는 연인, 아이 동반 가족에게 큰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음

■ 도롱이 연못 지역 명소 방문

-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를 거치는 4코스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입 경사가 급해 도보로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
- 4코스 주변 산 진입로는 인위적으로 수종을 통일시킴(자작나무). 가로변 위치하고 있는 안내사인은 하이원이 제공하고 관리하여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



[그림 2-5] 운탄고도 3코스 4코스 주변 경관

■ 5코스(정선 만향재 ~ 화절령)

- 만향재에서 화절령에 걸친 운탄고도1330 5코스는 완만한 경사의 임도길로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조성된 길을 활용한 것으로 하이원 하늘길과 대부분 중첩되어있어 운탄고도1330통합관리센터에서 뿐 아니라 하이원에서도 관리하고 있음
- 운탄고도 5코스 표식은 잘 되어 있어 하이커들이 걷기에 편안한 길 이며 표식의 종류는 5종류(메인 안내판, 종합안내판, 방향표지판, 기동형 심볼, 리본) 외에 대형 사인표지판이 발견됨
- 5코스에는 도롱이 연못과 1777깡도가 있어 하이킹 하는 중간에 볼거리를 제공함
- 5코스와 4코스에는 편의시설이 쉬는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으나 화장실이 전무한 상태이고 인근 마을도 없어 장거리 하이커들에게 불편한 부분이 있음



[그림 2-6] 운탄고도 5코스 변 시설물

(3) 시사점

■ 현장 점검이 꼼꼼히 이루어진 길 필요

- 미완의 노선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4계절, 밤낮의 세밀한 현장 실사가 필요함. 또 이용객 입장에서 겪는 문제점이 수렴될 수 있도록 가 개통, 시범운영 기간이 필요함

■ 전문성을 갖춘 삼천리길 통합 운영센터 필요

- 운탄고도 통합센터는 고유 업무와 운영 방식이 고도화 되지 못한 문제가 대두됨
- 노선을 통합 운영하는 한 개 기관이 민원, 노선관리, 홍보 등 고유의 업무를 맡아야 함. 또 삼천리길 자체의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채용이 필요함

■ 지자체, 산림청 등과 유연한 업무협업 체계 필요

- 산림청과 업무 협의를 맺었다고는 하나 기 설치된 화장실을 철거하는 등 현장에 필요한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삼천리 길에서도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산림청, 환경청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상표등록을 통한 수익사업의 필요성 검토

- 센터의 자립을 위해 수익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숙박 및 굿즈 판매를 통해 가능하며 상표출원에 문제가 없도록 브랜드 네이밍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함

■ 시종점 마을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 운탄고도의 지도는 시종점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숙박, 식당을 모두 표시하고 있는 상태임
- 노선의 만족도는 안내, 서비스, 음식, 숙박 등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시종점 마을에 대한 협업 구조가 필요함

2) 제주 올레길

(1) 개요¹²⁾

- 올레길은 제주도의 트레일로 올레란 제주 방언으로 좁은 골목이란 뜻이며, 통상 큰길에서 집의 대문까지 이어지는 좁은 길을 말함
- 언론인 '서명숙'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했으며, 사단법인 제주올레를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 걷기 사례중 대표적인 민간 주도 사례로 손꼽힘
- 2007년 9월 8일 제1코스(시흥초등학교에서 광치기 해변, 총 15km가 개발된 이래, 2012년 11월까지 총 21개의 코스가 만들어져 제주도 외곽을 한 바퀴 걸을 수 있도록 이어져 있으며 추가적인 알파코스 5개가 존재하고 있음
- 각 코스는 1km 정도이며, 평균 소요시간이 5~6시간, 총 길이는 약 425km로, 주로 제주의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들길, 해안길, 오름 등을 연결하고 있음

(2) 코스별 특성¹³⁾

■ 제 1코스 시흥-광치기 올레



[그림 2-7] 제주올레 1코스

12) <https://ko.wikipedia.org/wiki/%EC%98%AC%EB%A0%88%EA%B8%B8>

13) 제주올레. <https://www.jejuolle.org/trail#/>



[그림 2-8] 제주올레 1코스 주요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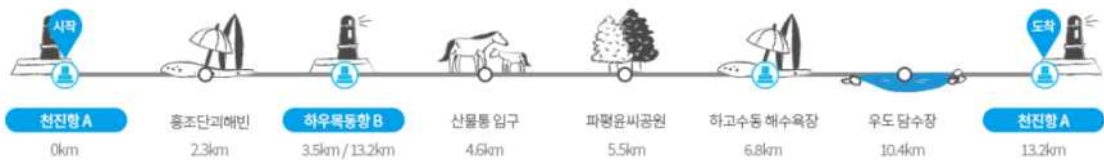
- 제 1코스는 총길이 15.1km, 소요시간 4~5시간으로 난이도 중간 정도이며, 휠체어 가능한 구간이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가 많이 찾는 장소임
- 제주올레에서 가장 먼저 열린 길로서 오름과 바다가 이어지는 '오름-바당 올레'라 부름
- 푸른 들을 지나 말미오름과 알오름에 오르면 성산일출봉과 우도, 조각보를 펼쳐놓은 듯한 들판과 바다가 한눈에 보임
- 제주올레가 생겨난 첫 코스인 만큼 풍광이 뛰어나며 전 구간이 포장돼 있어 쉽게 걸을 수 있음. 특히 종달~시흥 해안도로는 제주도 해안도로 중에서 뛰어난 심미성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2-9] 제주올레 1코스 주변 관광지

■ 제 01-1코스 우도 올레

- 제주 올레 1-1코스는 총길이 11.3km, 소요 시간 4~5시간으로 난이도 중간 정도임
- 소가 드러누운 모습으로 떠 있는 우도는 푸른 초원과 검은 돌담 그리고 등대가 가장 제주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음
- 우도 올레는 제주도에 딸린 62개의 섬 가운데 가장 크고 일년 내내 쪽빛 바다색을 자랑하는 우도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
- 우도는 지역 특산품인 '땅콩'을 활용한 '땅콩 아이스크림'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친환경 여행을 위하여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림 2-10] 제주 올레 1-1코스 및 주요 거점



[그림 2-11] 제주올레 1-1코스 주요 전경

(3) 시사점

- 우리나라 걷기 사례 중 가장 우수한 사례로 꼽히는 곳으로 행정의 아니라 민간의 제주도 장거리 걷기 길의 특성과 한계를 발견할 수 있음
- 초기 숙박, 먹거리, 소비 등이 지역의 특성과 연결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올레패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 단체와 점포들이 함께하고 있어 지역 성장 측면에서 시사점이 많음
-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하되, 사람 방문으로 인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 캠페

인을 병행하고 있으며 코스 휴식제를 운영하고 있음

- 코스를 운영 유지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후원과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노선과 지역 주민을 1:1로 연결한 ‘올레지기’가 인상 깊음
- 산티아고, 규슈 올레 등 지역 걷기 활성화를 넘어 세계 걷기 문화와 함께하기 위한 글로벌 사업을 함께 병행하고 있음

3-2. 국외 사례

1) 뉴질랜드 워크웨이(Walkways)

(1) 개요¹⁴⁾

- 1975년 제정된 ‘뉴질랜드워크웨이법’(The New Zealand Walkway Act)에 근거해 야외에서 자연을 향유하고, 역사·문화 체험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교외 지역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된 도보 중심의 길을 의미함
- 국토의 약 30%가 보호구로 설정된 뉴질랜드에서 약 1,200km에 이르는 125개 이상의 워크웨이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은 국토 면적의 약 1/3에 해당
- 공유지와 사유지를 포괄하고 도시에서의 접근성이 비교적 좋다는 것이 특징



[그림 2-12] 뉴질랜드 9대 Great Walk

출처 : <https://korean.jinhee.net/66>

14) 오마이뉴스 부설 도보 여행길 답사연구팀. 고양누리길 이용자 편의성 개선 방안

- 워크웨이는 노선의 연장길이 이용의 난이도 등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쇼트 워크(Short Walk)
 - 오지 여행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워킹 트랙 (Walking Track)
 - 산악지대를 가로지르는 트램핑 트랙 (Tramping Track)
 - 오지여행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루트(Route) 등
- 워크웨이 트레킹을 통해 길게 쪽 뻗은 해변과 거친 해안 트랙, 고산 목장, 그리고 빙하와 산맥, 울창한 원시 우림 등 다채로운 경관을 만날 수 있음
- 뉴질랜드에는 ‘그레이트워크스’(Great Walk)라 불리는 9개의 대표적인 하이킹 트랙이 있음
 -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피오르드랜드(국립공원)의 밀포드 트랙(Milford Track) 으로 총 길이는 53km임

(2) 밀포드 트랙(Milford Track)¹⁵⁾

밀포드 트랙

-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트램핑 루트로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의 우림에 위치하고 있으며 트랙은 4일 동안 54km를 걸을 수 있음
- 테아나우 호수 입구에서 시작해서 밀퍼드 사운드의 샌드플라이 포인트(Sandfly Point)가 끝점임
- 코스의 종착지인 테아나우 호수는 페리나 플퍼드 사운드 로드의 도어 패스 등반으로 도달할 수 있으며, 샌드플라이 포인트는 바다로 접근할 수 있으며, 바다 카약이나 또는 시즌에는 정기 페리편이 트램퍼 운영
- 10월에서 4월 말에 이르는 여름 성수기에는 등반로의 접근은 아주 통제
- 등반객은 트랙을 4일 만에 완주해야 하며, 북쪽 방면으로만 여행이 허용
- 등반로에서 캠핑은 금지되며, 개별적으로 하이킹을 하거나 비용이 더 비싼 가이드 회사 소속의 가이드를 동반한 하이킹을 할 수 있음



[그림 2-13] 밀포드 트랙(Milford Track) Elevation profile

출처 : <https://www.newzealand.com/kr/feature/milford-track/>

15) 연구진이 ‘밀포드 트랙’을 사례답사 한 후의 보고서를 정리한 내용임

❧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

-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방문자센터는 밀포드 트랙을 비롯한 다양한 트레킹 코스와 피오르드, 빙하, 원시림, 산악경관을 보유한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면적 약 12,500km²)인 Fiordland National Park의 비지터 센터 중 하나로 테아나우에 위치하고 있음
-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의 공식 탐방로인 케플러(Kepler) 트랙, 밀포드(Milford) 트랙, 루터번(Routeburn) 트랙, 그리고 캠프장과 헛(Hut), 사냥 구역을 관리하고 있음
- Hut 숙박티켓 및 노선 패스 예약·판매, Great Walks 시즌(11~5월) 예약, 자연보전활동 안내, 휴양체험 안내, 수렵 허가, 낚시 면허, 시청각 프로그램 운영, 국립공원 박물관, 기상정보 운영, 정보 집 및 기념품 판매,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음

❧ 케플러(Kepler) 트랙

- 테아나우 시에서 출발하여 Hanging 밸리, Rocky Point 대피소 등을 거쳐 돌아오는 순환형 코스로 중간 난이도(intermediate)이며, 한 방향으로만 도는 다른 코스와는 달리 양방향으로 걸을 수 있음
- 3~4일, 총 60.1km 코스로 10월~4월까지가 성수기이며, 테아나우와 가깝고 입장객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누구나 쉽게 방문하여 뉴질랜드 온대다우림(너도밤나무림 및 고사리 등 양치식물)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음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태보전 프로그램인 'Kids Restore the Kepler' 프로젝트를 Kids Restore NZ, Community Trust of Southland, Distinction Hotels NZ의 민간 자금 지원으로 Department of Conservation(이하 DOC)와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Fiordland 보전 트러스트를 운영하고 있음

❧ 카와라우 번지센터 - 연계 관광지 사례

- 세계 최초의 상업적인 번지점프 장소로 유명한 카와라우(Kawarau) 번지센터는 카와라우강에서 1988년 11월, A.J. Hackett에 의해 조성되기 시작함
- 1880년에 건축한 역사적인 현수교에 위치한 번지 체험장은 43m높이로 비교적 낮아 초보자, 어린이, 여성, 커플들에게 인기가 많아 하루 약 100여명이 뛰어 내리고 있음(연간 약 3.8만명)
- 체험비는 220뉴질랜드달러(약 17.6만원)로 고가이나 번지점프 및 익스트림 스포츠 마니아들의 성지로 인기가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100달러가 추가되는 기념사진을 찍는 경험도 고려할 만함
- 번지센터에는 번지점프를 뛰는 사람들 이외에 방문객들을 위한 기념품 판매, 식음시설, 영상자료 시

청이 가능함

- 퀸스타운과 이어지는 트레일 구간이 현수교를 통과하고 있어 번지점프 외에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연계 탐방활동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창출함



[그림 2-14] 밀포드 케플러 트랙 및 카와라우 연계 관광 현황

✚ 밀포드 트랙 시종점 답사

- 밀포드(Milford) 트랙은 세계 3대 트레킹 코스의 하나로 4일, 53.5km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 난이도이며, 원시림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하루에 90명의 입장객 제한이 이뤄지고 있음
- 성수기(Grate Walk Season) 시즌 밀포드 트랙을 걷는 방법은 총 2가지로 첫째, DOC가 운영하는 Hut에서 숙박하는 방법과 둘째, 민간 기관인 Ultimate Hike에서 운영하는 Lodge에서 숙박하는 방법으로 구분됨
 - 첫째, DOC사이트 예약자는 Hut에 숙박하며, 모든 준비물을 챙겨서 가이드 없이 직접 전 코스를 완주하는 개념임. 모든 음식물을 개인이 준비하고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며(기본취사도구 비치), 취식 후 모든 쓰레기를 회수해야 함
 - 둘째, Ultimate Hike 예약자는 Lodge에 숙박하며, 기본 준비물을 챙겨서 가 드와 함께 걷는 개념으로, 고급 침구류가 구비된 침대, 뷔페식 식사 제공, 이동거점간 교통수단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함
- 테아나우 다운에서 보트를 타고 Glade Wharf로 이동하고, 이곳에서 신발에 묻어있는 흙을 털어내고 트레킹을 시작함. 이는 타지의 유해 생물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임
- Hut 사이 약 2시간 거리마다 대피소(Shelter) 또는 화장실이 위치하며, 트랙커의 편의를 위해 중점인 Sandfly Point에서 밀포드 사운드까지 보트를 타고 이동함. 밀포드사운드에서는 거점도시인 퀸스타운 또는 테아나우까지 버스가 운영되고 있음
- 종점인 밀포드사운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피오르드 협곡 보트 투어(중식 포함)가 운영되며, 대부분의 관광객이 보트를 활용한 탐방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육상에서의 탐방 활동에 따른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루터번 트랙 답사

- 루터번(Routeburn) 트랙은 33km의 2~3일 코스로 중간 난이도이며 밀포드사운드로 향하는 도로의 중간에서 시작되어 루터번 대피소에서 끝나는 코스임
- 산악지방을 많이 통과하는 코스로 저지대의 다우림에서 고지대의 초원지대, 빙하경관 등 다양한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음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두 국립공원인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과 아스파이어링 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코스로 이 지역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인기가 높음

🌿 퀸즈타운 : 와이타키 화이트스톤 지질공원 방문

- 와이타키 화이트스톤 지질공원은 '23년 5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 될 예정으로 오타고 및 뉴질랜드 남서부 지역의 주요 지질명소 역할을 하고 있음
 - 원주민 문화와 지질학적 특이성, 주변의 자연경관을 접목하여 다양한 지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 이곳은 명소인 코끼리 바위(Elephant Rocks)를 거쳐가는 사라진 세계 트레일(Vanished World Trail), 캠핑장과 연결한 Duntroon 습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화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라진 세계 전시관, 마오리족의 암석화를 체험하는 Maori Rock Art 체험장으로 구성됨



[그림 2-15] 밀포드 루터번 트랙 및 지질공원 현황

🌿 Ultimate Hikes - 밀포드 트랙 민간 운영기관 방문

- Ultimate Hikes는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의 밀포드 트랙, 루터번 트랙에 대한 가이드 트레킹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임
- 밀포드 트랙과 루터번 트랙을 활용, 상기 개별 코스들에 대한 트레킹 프로그램 이외에도 두 코스를 연계한 그랜드 트래버스(Grand Traverse), 더 클래식(The Classic) 트레킹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총 4개의 트레킹 프로그램 운영)

- DOC에서 운영하는 Hut와 별도로 식사와 샤워 등 편의를 더한 Lodge를 운영 하며, 전문 트레킹 가이드가 동행하여 트레킹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밀포드 트랙 프로그램의 경우 4일 걷기 이후에 1일 일정으로 밀포드사운드에서 피오르드 유람선 체험을 연계하여 탐방객의 다양한 체험 경험 제공함

퀸스타운 방문자 센터 방문

- 퀸스타운 방문자 센터는 DOC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퀸스타운 지역과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지역의 트레킹 프로그램을 운영함
-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이 높고 야생 생태계가 우수한 곳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DOC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생태계 모니터링 및 보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유해야생동물 트랩 설치 등 자연환경 보전 활동과 탐방 시설 관리·점검에 지역 주민을 고용하여 지역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주요 시사점

■ 생태·환경자산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장거리 트레킹 경험 제공

-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밀포드 트랙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DOC에서 선정한 10개의 Gate Walks를 운영하고 있음. 이외에도 산악, 해변, 습지, 고산초원, 평원초지, 강, 도시 등 다양한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총 85개의 다양한 장거리 걷기길 코스를 운영하고 있음(북섬 46개, 남섬 39개)
- 어린이와 일반인에 대한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무장애 탐방 코스 및 시설 등이 운영되어 누구나 쉽게 장거리 탐방을 통해 뉴질랜드의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
- 정상 정복 위주의 우리나라 트레일 코스와 달리 저지대 걷기, 경사지는 지그재그길을 활용한 경사도 완화로 구성되며, 7~8부능선 및 중간 높이의 산지에서 계곡과 고산지역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됨. 이는 탐방객들에게 등산이 아닌, 트레킹 경험에 집중할 수 있게 함

■ 생태·환경자산의 적극적인 보전을 위한 개발 제한 및 지역사회 참여·협력

- 밀포드 트랙과 같이 특별하게 생태계가 우수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탐방인원 제한이 이뤄지고 있으며,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에서는 신규 도로 개설 제한, 캠핑 불가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짐
- 뉴질랜드의 다양한 야생생물(Kea 등 지역 고유종 등)을 보전하고, 유해야생생물을 퇴치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다양한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연계 관광지 조성 및 민간 기업 참여

- 퀸스타운, 테아나우 등의 연계 거점에서는 번지점프,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루지, 보트타기 등 다양한 산악 및 하천을 활용한 익스트림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음
- 밀포드사운드는 피오르드 식사가 제공되는 유람선 관광을 통해 다양한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에 다양한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2) 프랑스 랑도네

(1) 개념 및 유형¹⁶⁾

🌿 개념

- 1155년부터 ‘빨리 뛰기’라는 개념에서 시작하여 ‘사냥에 서 내몰린 짐승이 한 곳에서 빙빙 돌기’라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1896년부터 지금까지 ‘긴 산책로를 빨리 걷는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 랑도네는 걷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전거, 스키, 말, 요트 등으로 여가의 범위로 랑도네를 즐기는 방법으로 포함되고 있음

🌿 랑도네 유형 구분

- 연맹이 제시한 성격에 따른 랑도네 구분은 다음과 같음

[표 2-17] 프랑스 랑도네 유형구분

구분	성격 및 역할	코스 및 소요시간
GR (Grande Randonnée)	프랑스 전역의 지역자원공원 및 여러 지역을 통과하는 광역코스	- 프랑스 전역의 랑도네길을 의미하며 GR는 약 61,000km 서로 연결되어 있음 - 10일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GRP (Grande Randonnée de pays)	주로 순환형 코스 (지방 통과코스)	- 약 4만km 정도 형성되어 있음 - 한 코스가 160km, 2-3일 소요
PR (Petite Randonnée)	도시 외곽의 숲과 언덕, 국공립 공원 등 비교적 도시에서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 도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하여 도시속의 유적지와 유명 건축물을 둘러보는 코스 - 약 10~20km 정도의 하루 일정
E (Itinéraire Européen)	유럽 국가들을 잇는 코스 등이 현재 개발되어 운용	

출처 : 프랑스문화연구 제28집 2014. pp. 259~288. 파리 랑도네 안내서(Tope-Guides)를 통한 도시문화 탐방의 조형적 고찰

16) 프랑스문화연구 제28집 2014. pp. 259~288. 파리 랑도네 안내서(Tope-Guides)를 통한 도시문화 탐방의 조형적 고찰

(2) 프랑스 랑도네 협회¹⁷⁾

프랑스 랑도네 협회

■ 협회의 주요 임무

- 협회에는 현재 50명의 상근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자원봉사 인원들이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Madeleine Lebranchu (vice president) 는 비상근 자원봉사 임원임
- 협회의 주요 임무는 3가지로 요약됨
 - 1) 체육부와 연계를 통한 국민의 스포츠, 건강 및 웰빙 향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구성, 홍보
 - 2) GR® 및 GR® de Pays 트레일의 생성 및 유지 관리를 통한 개발 및 홍보, 자연 및 문 유산의 향상
 - 3) 합리적 활용을 촉진하는 녹색 및 지속 가능한 관광의 실천. 지역의 경제적 이익 증대에 기여

■ FFRandonnee 회원

- 회원 프로필을 보면 지역과 데파르트망의 110개의 위원회와 3,500개 클럽이 있고 221,653명의 회원이 있으며 28년까지 회원수를 50만명으로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음
-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다시 반등하고 있음. 회원의 93%가 50세 이상이며 여성이 65%, 남성이 35%로 여성의 비율이 크게 높은 특성을 보임

■ 국가와의 협력

- FFRandonnee 에서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노르망디 지역의 역사자원을 활용한 길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음
 - Memory of Randonnee 라는 주제로 세계대전의 유적지를 연계하는 길을 만들어 군인 뿐 아니라 국민에게 역사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음
 - 길 만드는 과정은 1) 지역이나 단체에서 길 만들기 사업 요청 -> 2) 5명정도의 연구진이 구성되고 사전 조사와 답사를 통해 길에 대한 제안 -> 3) 지역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후 길 확정 -> 4) Randonnee 협회에서 길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숙박, 관광 등은 유관기관에서 담당

■ 코스 구분 및 프로그램

- Hiking과 Tracking 개념의 명확하게 정의 함. 하이킹은 1일 이내에서의 걷기 활동이며 트레킹은 2일 이상의 걷기활동을 말함
- 에두알 프로그램을 운영함. 전 코스를 다 걷지 못하는 하이커들을 위해 거점 숙소를 정하고 그 인

17) 프랑스 랑도네(Randonnée) 연구진 사례답사 결과 보고서를 요약 정리함.

근에서 20km 정도의 하이킹 코스를 걷고 또 다른 거점 숙소를 정하고 인근에서 20Km를 걷는 형태로 운영함

- 시점과 종점에 통일된 마크를 통해 트래커들이 쉽게 시종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Randonnee 대부분이 기차역을 중심으로 분할되어 있어 기차를 이용하여 시점에 회귀할 수 있도록 함
- 건강을 위한 Randonnee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이 나쁘거나 건강제한자들에 대해 재화에 초점을 맞추어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함
- Unesco 자연자원 및 각 나라별로 동식물 보호종, 자연보호지역, 보존지역 등에 대한 범위가 다르므로 나라의 특성에 맞추어 길을 조성하고 있음

■ 코스 난이도 구분 및 관리

- 트레일의 난이도는 3가지로 나누는데 경사도, 지형적 난이도, 위험요소 등으로 측정함
 - 경사도의 난이도는 개별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난이도 측정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지형적 난이도 및 위험요소는 현장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난이도를 측정함
- Validation 은 중요한 요소로 1년에 3회 정도 하고 있으며 사용되는 페인트도 엄격히 규격을 정하고 있음
 - 친환경적이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을 사용함. Validation은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자원봉사자가 담당을 하며 이들에 대한 Validation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숙박 등에 관해서는 협회가 관여하지를 않고 관광공사 지역지부가 관여하고 있음. 숙박과 관광서비스를 병행하여 진행하며 숙박은 3등급으로 나누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음
 - 협회는 관광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협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고자 함

🌿 FFRandonnee 인포센터(지역 정보센터)

- 정보센터가 기존에 14Rue Riquet, 75019, Paris에 소재하였으나 최근에 FFRandonnee 협회 건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 정보센터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근인력이 있으며 랑도네 관련 자료를 판매하고 트레킹에 대한 계획도 지원함
- 토포가이드 작성은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며 많은 트래커들이 토포가이드를 활용하여 트레킹을 하고 있음.
- 티셔츠, 캡, 물병, 토트백 등 트레킹 관련 다양한 굿즈가 있음

FFRandonnee 인포센터



[그림 2-16] FFRandonnee 인포센터 현황

✚ 주요 사례지 및 도입시설 벤치마킹

- 퐁텐블로 지역은 파리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의 중요한 명소인 퐁텐블로 성(Chateau de Fontaineble)이 있어 성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함
 - 퐁텐블로 성은 12세기에 왕들의 사냥용 별장으로 지어졌지만 16세기 프랑수아 1세가 복원을 하여 현재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으며 앙리 2세, 앙리4세, 그리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가장 좋아했던 성으로 알려져 있음
- 퐁텐블로 지역은 걷기 트레일이 잘 발달되어있고 걷기 뿐 아니라 자전거 트레일도 잘 발달되어 있음. 다만 트레일이 대부분 흙길이어서 말들이 다니는 트레일을 이용하는 자전거 탐방을 하는 경우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퐁텐블로 지역은 세계 최고의 볼더링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트레 흐 피농 (Trois Pignon)은 다양한 볼더링 사이트가 집적되어 있는 지역임
- 구역 전체에 유명한 볼더링 사이트가 집적해 있으며 트레 흐 피농 북동부의 사이트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호인 및 개인들이 볼더링을 즐기고 있음
- 또한 퐁텐블로에는 실내에서 볼더링을 연습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있고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모두 볼더링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음. 특히 볼더링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전북지역에도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산악지형이 많고 볼더링을 즐길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볼더링 사이트를 개발하여 증가하는 볼더링 사이트의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상시 볼더링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레벨의 볼더링 훈련수요에 부응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볼더링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그림 2-17] 파리 근교 트레 흐 피농 (Trois Pignon) 볼더링 사이트 현황

출처 : 프랑스 랑도네(<https://www.ffrandonnee.fr/la-federation/qui-sommes-nous/notre-organisation>)

GR1 기반시설 및 운영상황

- GR 1은 총 540km로 프랑스 파리 il-de-france 지역을 원형으로 트레킹할 수 있는 지역임. 벤치마킹에서는 일부 구간인 GR®1 De Rambouillet à Feucherolles (Yvelines) 구간을 탐방함
- 전반적으로 구간 시작인 Rambouillet 지역부터 마크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으며 길은 쉼터에서 일부 구간 서행하는 자동차 길을 통과하고 숲길을 지나는 형태로 되어 있음
- GR 표식인 적색/백색의 표지는 눈높이 보다 약간 높게 되어있어 인식하기에도 쉽게 되어있으며 나무, 지형지물, 도로표지판, 가로등 등을 활용하여 안내를 하고 있음
- 중간에 GR 1과 GR 655번과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으며 이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있었음. 표식은 모두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임. 이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전북에 길명, 길 표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3) 주요 시사점

- 노선 자체가 걷기 좋은 길이어야 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며 길을 안내하는 표식은 단순하면서 직관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도입 시설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고 거점마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임
- 노선을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지역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길 사업은 단일부처 사업이 아니라 다부처 사업이며 Randonnee에서와 같이 길에 집중하는 기관, 숙박 및 관광에 집중하는 기관, 이를 연계하는 기관 등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지속가능한 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노선의 명칭 등은 국가적 확장성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 확장을 위한 광역 협력이 필요함. 전북은 Randonnee 시스템 상에서 GRP 개념, 스위스 시스템에서는 Regional Trail 개념으로 설정하고 향후 타 지역과 연계하는 광역시스템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생태탐방 수요자 인식조사

4-1. 개요

1) 조사 방법

- 생태탐방 수요자 인식 조사는 현장 설문 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짐
- 총 1,004명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트레킹 수요자가 580명으로 가장 많으며, 자전거 수요자 277명, 캠핑 수요가 147명임

[표 2-18] 생태탐방 수요자 인식조사 개요

구분	현장 설문 조사	온라인 설문 조사
조사 일시	2023.10.~2023.12. (약 2개월)	2023.11.~2023.12. (약 1개월)
조사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웹 기반 배포
조사 대상	트레커 / 라이더(자전거) / 캠퍼	전북특별자치도 트레킹·자전거·캠핑 동호회 구성원
조사 방법	1:1 면접조사	웹 설문지 링크 배포
조사 결과	총 1,004부(트레킹 580, 자전거 277부, 캠핑 147부)	

2) 분석 방법

- 각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에는 SPSS 25.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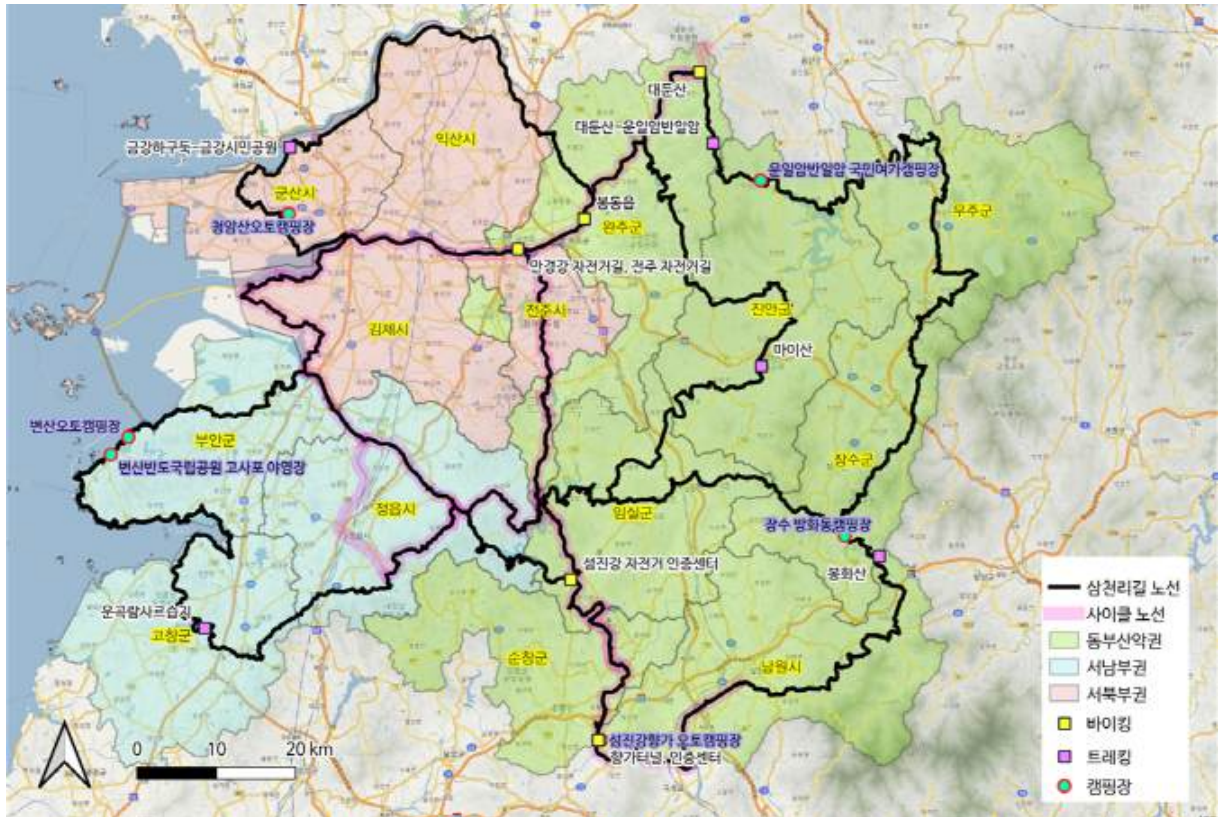
3) 주요 설문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및 서부권 62개 노선 중 트레킹, 바이킹(자전거), 캠핑 이용객이 많은 장소를 주요 설문 장소로 선정함
- 웹 사이트 리뷰 수, 램블러 커뮤니티 노선 인증, SNS 태그 및 게시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함

[표 2-19] 현장 설문 조사 주요 장소

연번	구분	권역	지역	명칭
1	트레킹	동부산악권	완주군	대둔산-운일암반일암
2	트레킹	동부산악권	남원시	봉화산
3	트레킹	동부산악권	진안군	마이산

연번	구분	권역	지역	명칭
4	트레킹	서북부권	군산시	금강하구둑-금강시민공원
5	트레킹	서남부권	고창군	운곡람사르습지
6	바이킹(자전거)	동부산악권	전주시	만경강 자전거길, 전주 자전거길
7	바이킹(자전거)	동부산악권	순창군	향가터널, 인증센터
8	바이킹(자전거)	동부산악권	임실군	섬진강 자전거 인증센터
9	바이킹(자전거)	동부산악권	완주군	봉동읍
10	바이킹(자전거)	동부산악권	완주군	대둔산
11	캠핑장	동부산악권	장수군	장수 방화동캠핑장
12	캠핑장	동부산악권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13	캠핑장	동부산악권	순창군	섬진강향가 오토캠핑장
14	캠핑장	서북부권	군산시	청암산오토캠핑장
15	캠핑장	서남부권	부안군	변산오토캠핑장
16	캠핑장	서남부권	부안군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 야영장



[그림 2-18] 생태탐방 수요자 인식조사 주요 설문 지점

4) 설문 문항

(1) 트레킹 수요자 설문 구성

- 전북자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레킹의 실태 및 장기 트레킹에 대한 의식을 중점적으로 파악함

[표 2-20] 트레킹 수요자 설문지 구성

구분	조사항목	문항
트레킹	트레킹 실태 (8)	이동(계획)구간
		방문 이력
		목적 및 코스 선정
		소요시간
		동반자
		전반적 만족도
		불만족 요인
		만족 요인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 (3)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 필요성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 효과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 시 중요 요인
	응답자 일반사항 (3)	성별 / 연령 / 거주지
합계		14

(2) 자전거 수요자 설문지 구성

- 전북자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전거타기 실태 및 장기 트레킹에 대한 의식을 중점적으로 파악함

[표 2-21] 자전거 수요자 설문지 구성

구분	조사항목	문항
자전거	자전거 타기 실태 (9)	이동 구간
		방문 이력
		선정 목적
		소요 시간
		동반자
		자전거 운반 방법
		전반적 만족도
		불만족 요인
		만족 요인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 (3)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 필요성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 효과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 시 중요 요인
	응답자 일반사항 (3)	성별 / 연령 / 거주지
합계		15

(3) 캠핑 수요자 설문지 구성

- 전북자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캠핑 실태 및 장기 트레킹에 대한 의식을 중점적으로 파악함. 추가로 불을 사용하지 않는 노지 캠핑장에 대한 의식을 조사 함

[표 2-22] 캠핑 수요자 설문지 구성

구분	조사항목	문항
캠핑	캠핑 실태 (7)	캠핑의 목적
		체류 기간
		동반자
		방문 이력
		전반적 만족도
		불만족 요인
		만족 요인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 (4)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 필요성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 효과
		불을 사용하지 않는 노지 캠핑장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 시 중요 요인
	응답자 일반사항 (3)	성별 / 연령 / 거주지
	합계	14

4-2. 트레킹 그룹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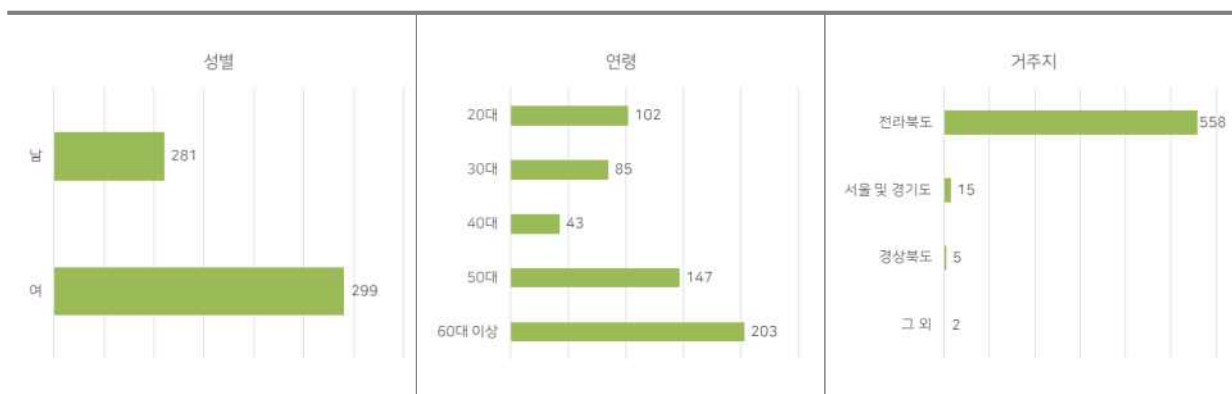
1) 응답자 일반사항

-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51.6%, 남성 48.4%로 나타남
- 연령은 60대 이상 35.0%, 50대 25.3%, 20대 17.6%, 30대 14.7%, 40대 7.4%로 집계됨
- 거주지는 전북특별자치도 96.2%, 서울 및 경기도 2.6%, 경상북도 0.9%, 그 외 0.3%로 나타남

[표 2-23] 트레킹 그룹 일반사항

구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빈도(명)	281	299	102	85	43	147	203
%	48.4	51.6	17.6	14.7	7.4	25.3	35.0

구분	전북특별자치도	서울 및 경기도	경상북도	그 외
빈도(명)	558	15	5	2
%	96.2	2.6	0.9	0.3



[그림 2-19] 트레킹 그룹 일반사항

2) 트레킹 실태

(1) 이동구간 방문 경험

-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이동구간 방문 경험은 3~4번째 방문 41.1%, 두 번째 방문 26.8%, 첫 번째 방문 20.9%, 기타 11.2%로 나타남

[표 2-24] 트레킹 그룹 이동구간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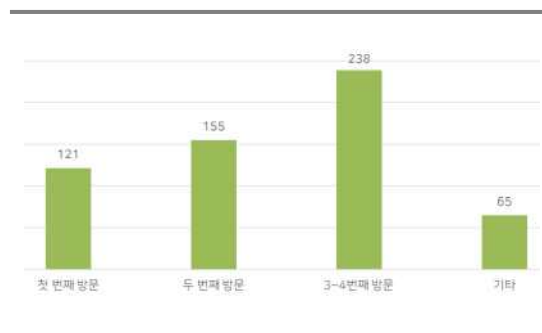
구분	첫 번째 방문	두 번째 방문	3~4번째 방문	기타
빈도(명)	121	155	238	65
%	20.9	26.8	41.1	11.2

(2) 트레킹 목적 및 코스 선정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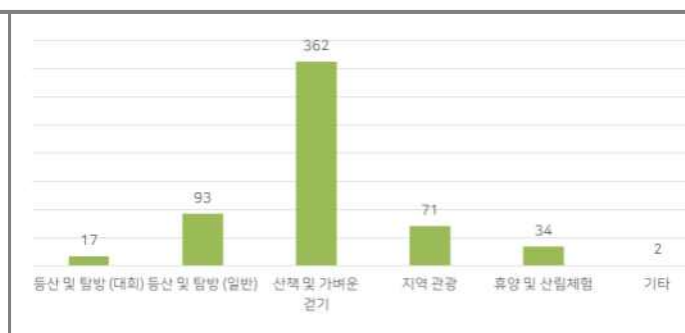
-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트레킹 목적 및 코스 선정 이유는 산책 및 가벼운 걷기 62.5%, 등산 및 탐방(일반) 16.1%, 지역 관광 12.3%, 휴양 및 산림체험 5.9%, 등산 및 탐방(대회) 2.9%, 기타 0.3%로 나타남

[표 2-25] 트레킹 그룹 목적 및 코스 선정 이유

구분	등산 및 탐방 (대회)	등산 및 탐방 (일반)	산책 및 가벼운 걷기	지역 관광	휴양 및 산림체험	기타
빈도(명)	17	93	362	71	34	2
%	2.9	16.1	62.5	12.3	5.9	0.3



[그림 2-20] 트레킹 그룹 이동구간 방문 경험



[그림 2-21] 트레킹 목적 및 코스 선정 이유

(3) 트레킹 소요 시간

○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트레킹 소요 시간은 당일 96.9%, 1박 2일 2.4%, 기타 0.7%로 집계됨

[표 2-26] 트레킹 그룹 소요 시간

구분	당일	1박 2일	기타
빈도(명)	561	14	4
%	96.9	2.4	0.7



(4) 트레킹 동반자

○ 트레킹 동반자는 친구·연인 46.7%, 가족(부부) 17.9%, 가족(그 외) 11.4%, 없음(혼자) 18.1%, 동호회 및 단체 4.1%, 가족(어린이 및 청소년 동반) 1.6%, 기타 0.2%로 집계됨

[표 2-27] 트레킹 그룹 동반자

구분	없음(혼자)	친구·연인	가족(부부)	가족 (어린이 및 청소년 동반)	가족(그 외)	동호회 및 단체	기타
빈도(명)	105	271	104	9	66	24	1
%	18.1	46.7	17.9	1.6	11.4	4.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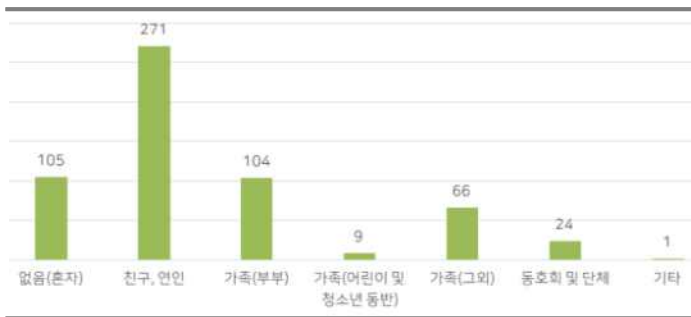
(5) 트레킹 전반적 만족도

○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트레킹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 45.3%, 보통 36.4%, 매우 만족 16.6%, 불만족 1.7%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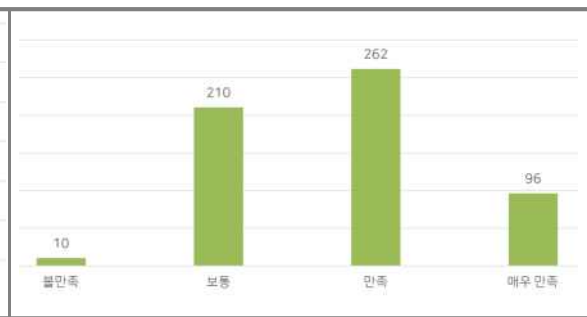
○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평균은 3.77로 나타남

[표 2-28] 트레킹 그룹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빈도(명)	0	10	210	262	96	3.77
%	0	1.7	36.4	45.3	16.6	



[그림 2-22] 트레킹 그룹 동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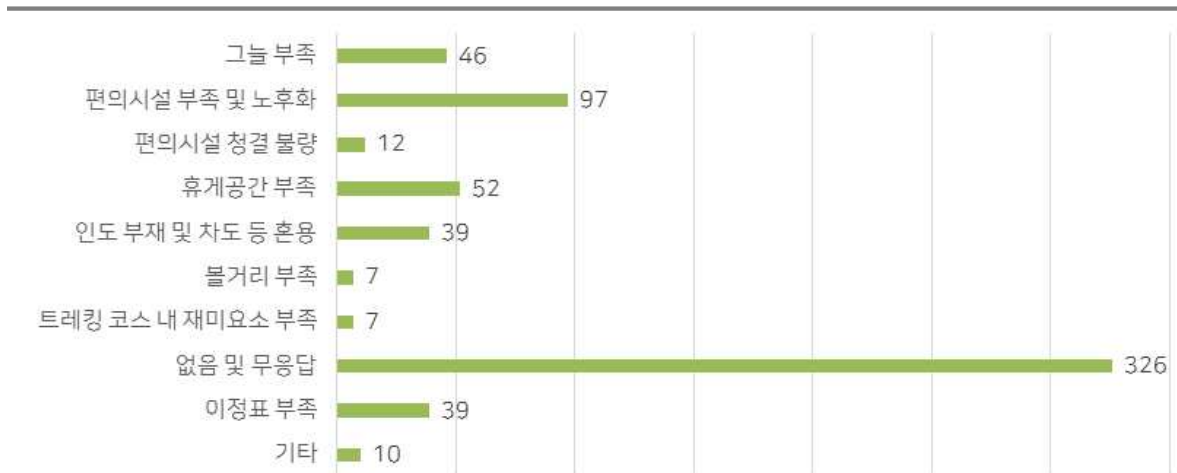
[그림 2-23] 트레킹 그룹 전반적 만족도

(6) 트레킹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

- 트레킹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은 없음 및 무응답은 56.2%, 편의시설 부족 및 노후화는 16.7%, 휴게공간 부족은 9.0%, 그늘 부족은 7.9%, 인도 부재 및 차도 등 혼용이 6.7%, 이정표 부족이 6.7%, 편의시설 청결 불량은 2.1%, 기타는 1.7%, 볼거리 부족은 1.2%, 트레킹 코스 내 재미요소 부족은 1.2%로 나타남

[표 2-29] 트레킹 그룹 불만족 요소

구분	그늘 부족	편의시설 부족 및 노후화	편의시설 청결 불량	휴게공간 부족	인도 부재 및 차도 등 혼용
빈도(명)	46	97	12	52	39
%	7.9	16.7	2.1	9.0	6.7
구분	볼거리 부족	트레킹 코스 내 재미요소 부족	없음 및 무응답	이정표 부족	기타
빈도(명)	7	7	326	39	10
%	1.2	1.2	56.2	6.7	1.7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으로 설문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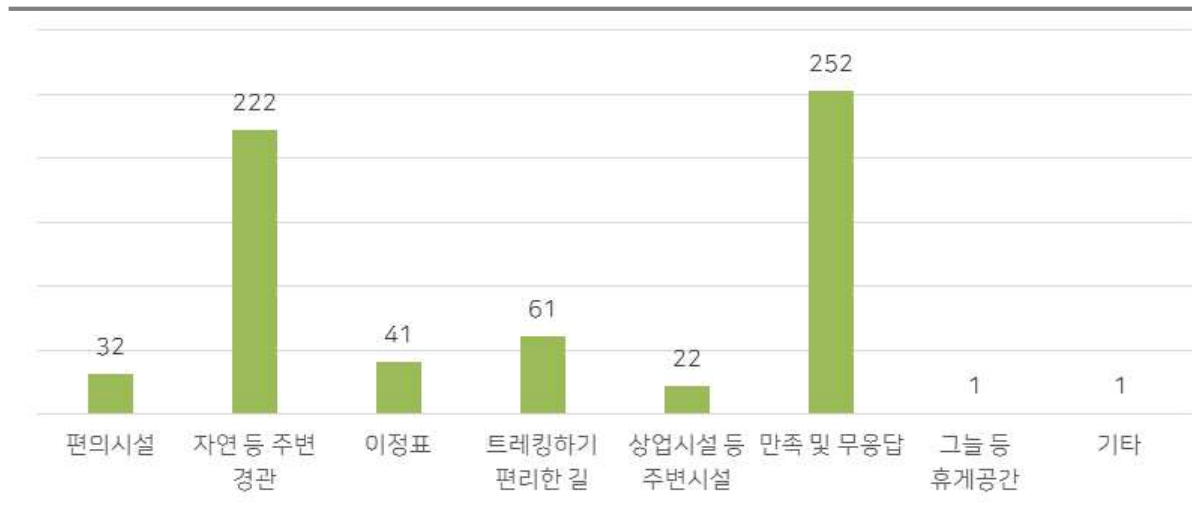
[그림 2-24] 트레킹 그룹 불만족 요소

(7) 트레킹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트레킹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만족 및 무응답 43.4%, 자연 등 주변 경관 38.3%, 트레킹하기 편리한 길 10.5%, 이정표 7.1%, 편의시설 5.5%, 상업시설 등 주변시설 3.8%, 그늘 등 휴게공간 0.2%, 기타 0.2%로 나타남

[표 2-30] 트레킹 그룹 만족 요소

구분	편의시설	자연 등 주변 경관	이정표	트레킹하기 편리한 길
빈도(명)	32	222	41	61
%	5.5	38.3	7.1	10.5
구분	상업시설 등 주변시설	만족 및 무응답	그늘 등 휴게공간	기타
빈도(명)	22	252	1	1
%	3.8	43.4	0.2	0.2



[그림 2-25] 트레킹 그룹 만족요소

3) 트레킹 그룹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

(1)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의 필요성

-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의 필요성은 매우 필요하다 42.6%, 필요하다 40.2%, 보통이다 9.7%, 필요하지 않다 4.7%, 전혀 필요하지 않다 2.8%로 나타남

[표 2-31] 트레킹 그룹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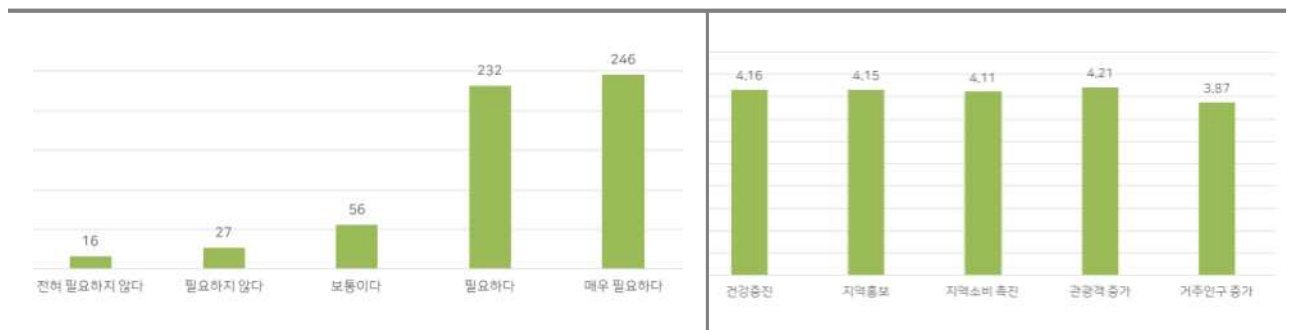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빈도(명)	16	27	56	232	246
%	2.8	4.7	9.7	40.2	42.6

(2)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효과

-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효과는 각 항목별 5점 만점 척도로 이루어짐. 그 결과 관광객 증가가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 건강증진 4.16, 지역홍보 4.15, 지역소비 촉진 4.11, 거주인구 증가 3.87 순을 보임

[표 2-32] 트레킹 그룹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효과

구분	건강증진	지역홍보	지역소비 촉진	관광객 증가	거주인구 증가
평균값	4.16	4.15	4.11	4.21	3.87



[그림 2-26] 전북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의 필요성(트레킹 그룹)

[그림 2-27] 전북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효과(트레킹 그룹)

4-3. 사전거 그룹 응답 결과

1) 응답자 일반사항

■ 응답자 일반사항

-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60.3%, 여성 39.7%로 나타남
- 연령은 40대 28.9%, 30대 23.1%, 50대 22.0%, 20대 20.9%, 60대 이상 5.1%로 나타남
- 거주지는 전북특별자치도 98.2%, 서울 및 경기도 1.0%, 경상북도 0.4%, 그 외 0.4%로 나타남

[표 2-33] 사전거 그룹 일반 사항

구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빈도(명)	167	110	58	64	80	61	14
%	60.3	39.7	20.9	23.1	28.9	22.0	5.1

구분	전북특별자치도	서울 및 경기도	경상북도	그 외
빈도(명)	272	3	1	1
%	98.2	1.0	0.4	0.4



[그림 2-28] 사전거 그룹 일반 사항

2) 자전거 타기 실태

(1) 이동구간 방문 경험

-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이동구간 방문 경험은 두 번째 방문 33.0%, 처음 방문 28.6%, 3~4번째 방문 25.7%, 기타 12.7%로 나타남

[표 2-34] 자전거 그룹 이동구간 방문 경험

구분	처음 방문	두 번째 방문	3~4번째 방문	기타
빈도(명)	79	91	71	35
%	28.6	33.0	25.7	12.7

(2) 자전거 타기 소요 시간

-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자전거 타기 소요 시간은 당일 91.7%, 1박 2일 6.2%, 기타 1.4%, 2박 3일 0.7%로 나타남

[표 2-35] 자전거 타기 소요 시간

구분	당일	1박 2일	2박 3일	기타
빈도(명)	253	17	2	4
%	91.7	6.2	0.7	1.4

(3) 본 구간 선정 목적

-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본 구간 선정 목적은 여가 및 휴식 32.6%, 지역 관광 및 체험 27.5%, 동호회(친목활동) 22.1%, 우수한 자연경관 10.9%, 기타 5.1%, 전국 자전거길 완주 1.1%, 자전거 대회 준비 0.7%로 나타남

[표 2-36] 자전거 그룹 구간 선정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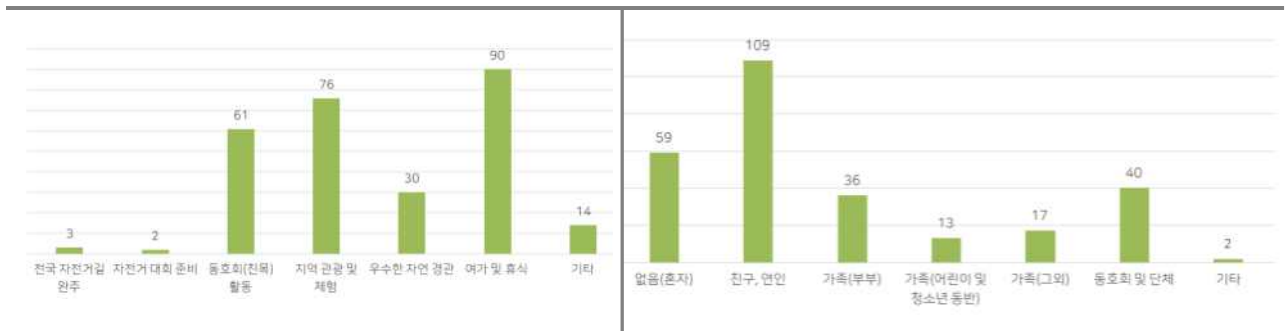
구분	전국 자전거길 완주	자전거 대회 준비	동호회 (친목활동)	지역 관광 및 체험	우수한 자연경관	여가 및 휴식	기타
빈도(명)	3	2	61	76	30	90	14
%	1.1	0.7	22.1	27.5	10.9	32.6	5.1

(4) 자전거 타기 동반자

○ 자전거 타기 동반자는 친구·연인 39.5%, 없음(혼자) 21.4%, 동호회 및 단체 14.5%, 가족(부부) 13.0%, 가족(그 외) 6.2%, 가족(어린이 및 청소년 동반) 4.7%, 기타 0.7%로 나타남

[표 2-37] 자전거 타기 동반자

구분	없음(혼자)	친구, 연인	가족(부부)	가족(어린이 및 청소년 동반)	가족(그 외)	동호회 및 단체	기타
빈도(명)	59	109	36	13	17	40	2
%	21.4	39.5	13.0	4.7	6.2	14.5	0.7



[그림 2-29] 자전거 그룹 구간 선정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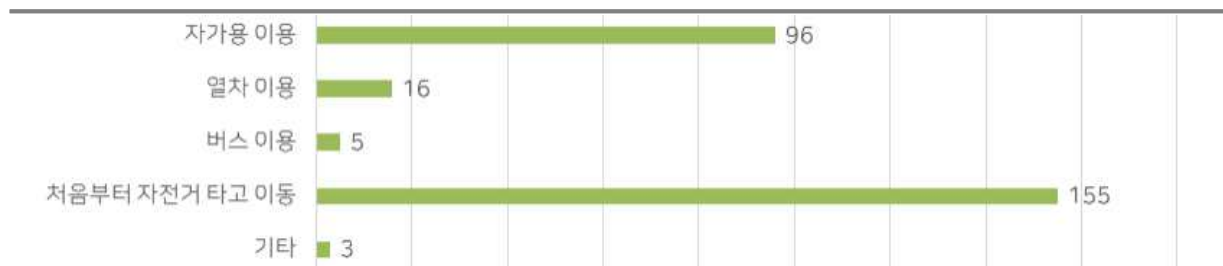
[그림 2-30] 자전거 타기 동반자

(5) 자전거 운반 방법

-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자전거 운반 방법은 처음부터 자전거 타고 이동 56.4%, 자가용 이용 34.9%, 열차 이용 5.8%, 버스 이용 1.8%, 기타 1.1%로 나타남

[표 2-38] 자전거 운반 방법

구분	자가용 이용	열차 이용	버스 이용	처음부터 자전거 타고 이동	기타
빈도(명)	96	16	5	155	3
%	34.9	5.8	1.8	56.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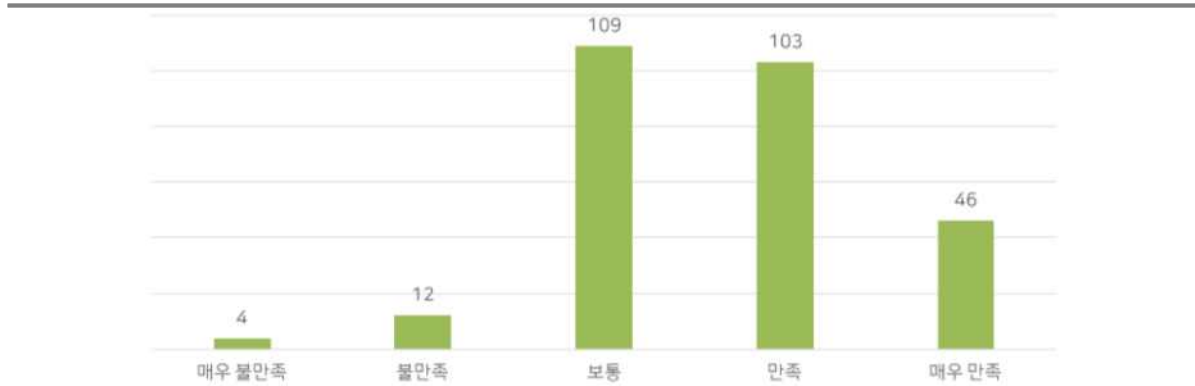
[그림 2-31] 자전거 운반 방법

(6) 자전거 구간 전반적 만족도

-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자전거 구간 전반적 만족도는 보통 39.8%, 만족 37.6%, 매우 만족 16.8%, 불만족 4.4%, 매우 불만족 1.4%로 집계됨
-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평균 3.64로 나타남

[표 2-39] 자전거 구간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빈도(명)	4	12	109	103	46	3.64
%	1.4	4.4	39.8	37.6	16.8	



[그림 2-32] 자전거 구간 만족도

(7) 자전거를 타는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

- 자전거를 타는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은 없음 및 무응답 54.9%, 도로포장 등 노면 노후화 18.8%, 편의시설 부족 및 노후화 11.2%, 이정표 등 노선표시 불량 9.0%, 차도 혼용 5.4% 그늘 부족 2.2%, 기타 1.1%, 좁은 도로 0.7%로 나타남

[표 2-40] 자전거를 타는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

구분	그늘 부족	이정표 등 노선표시 불량	도로 포장 등 노면 노후화	좁은 도로
빈도(명)	6	25	52	2
%	2.2	9.0	18.8	0.7
구분	차도 혼용	편의시설 부족 및 노후화	없음 및 무응답	기타
빈도(명)	15	31	152	3
%	5.4	11.2	54.9	1.1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으로 설문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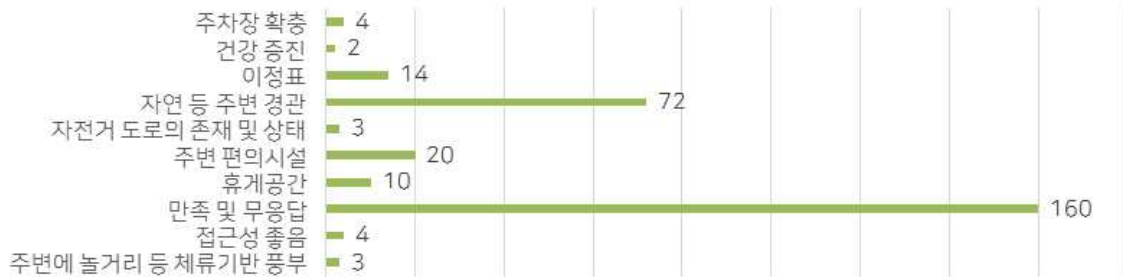
[그림 2-33] 자전거를 타는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

(8) 자전거를 타는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 자전거를 타는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만족 및 무응답 57.8%, 자연 등 주변 경관 26.0%, 주변 편의시설 7.2%, 이정표 5.1%, 휴게공간 3.6%, 주차장 확충 1.4%, 접근성 좋음 1.4%, 자전거 도로의 존재 및 상태 1.1%, 주변에 놀거리 등 체류기반 풍부 1.1%, 건강증진 0.7%로 나타남

[표 2-41] 자전거를 타는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구분	주차장 확충	건강 증진	이정표	자연 등 주변 경관	자전거 도로의 존재 및 상태
빈도(명)	4	2	14	72	3
%	1.4	0.7	5.1	26.0	1.1
구분	주변 편의시설	휴게공간	만족 및 무응답	접근성 좋음	주변에 놀거리 등 체류기반 풍부
빈도(명)	20	10	160	4	3
%	7.2	3.6	57.8	1.4	1.1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으로 설문이 이루어짐

[그림 2-34] 자전거를 타는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3) 자전거 그룹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

(1)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필요성

-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필요성은 필요하다 40.8%, 매우 필요하다 35.7%, 보통이다 14.4%, 필요하지 않다 7.6%, 전혀 필요하지 않다 1.5%로 나타남

[표 2-42] 자전거 그룹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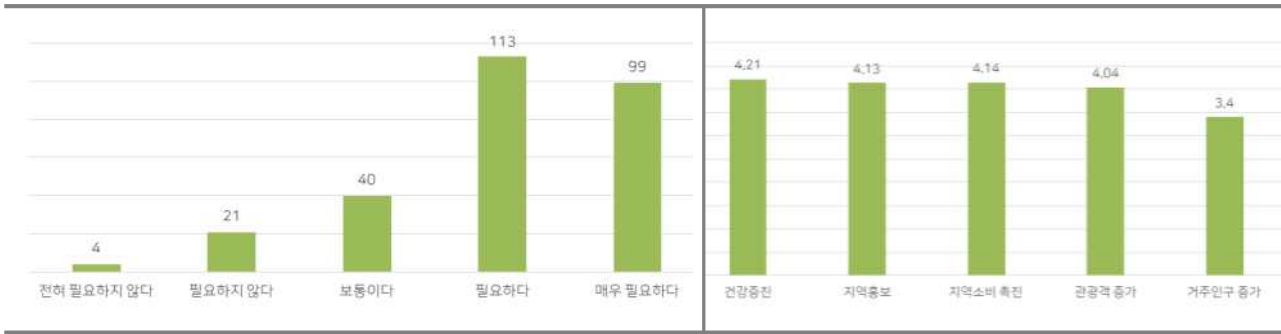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빈도(명)	4	21	40	113	99
%	1.5	7.6	14.4	40.8	35.7

(2)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효과

-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효과는 5점 척도로 이루어짐. 건강증진 4.21, 지역소비촉진 4.14, 지역홍보 4.13, 관광객 증가 4.04, 거주인구 증가 3.40로 나타남

[표 2-43] 자전거 그룹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효과

구분	건강증진	지역홍보	지역소비 촉진	관광객 증가	거주인구 증가
평균 점수	4.21	4.13	4.14	4.04	3.40



[그림 2-35] 전북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의 필요성(자전거 그룹)

[그림 2-36] 전북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효과(자전거 그룹)

4-4. 캠핑 그룹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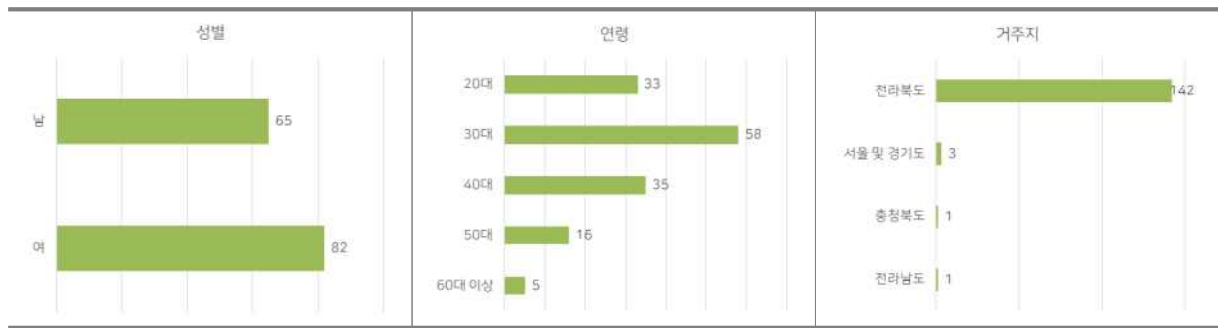
1) 응답자 일반 사항

-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55.8%, 남성 44.2%로 나타남
- 연령은 30대 39.5%, 40대 23.8%, 20대 22.4%, 50대 10.9%, 60대 이상 3.4%로 집계됨
- 거주지는 전북특별자치도 96.6%, 서울 및 경기도 2.0%, 경상북도 0.7%, 그 외 0.7%로 나타남

[표 2-44] 캠핑 그룹 일반 사항

구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빈도(명)	65	82	33	58	35	16	5
%	44.2	55.8	22.4	39.5	23.8	10.9	3.4

구분	전북특별자치도	서울 및 경기도	경상북도	그 외
빈도(명)	142	3	1	1
%	96.6	2.0	0.7	0.7



[그림 2-37] 캠핑 그룹 일반 사항

2) 캠핑 그룹 실태

(1) 캠핑 목적

- 캠핑의 목적으로는 가족 및 친구와의 교류 42.2%, 여가 및 휴식 36.7%, 동호회(친목)활동 9.5%, 우수한 자연 경관 9.5%, 지역 관광 및 체험 2.1%로 나타남

[표 2-45] 캠핑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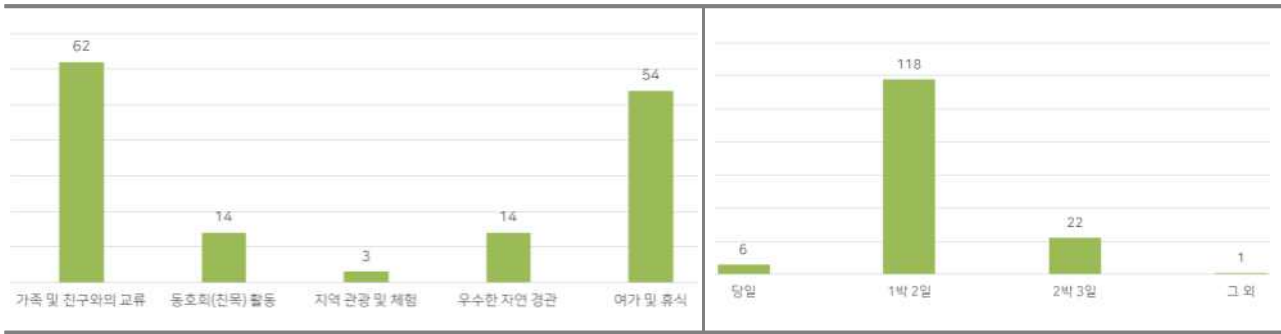
구분	가족 및 친구와의 교류	동호회(친목)활동	지역 관광 및 체험	우수한 자연 경관	여가 및 휴식
빈도(명)	62	14	3	14	54
%	42.2	9.5	2.1	9.5	36.7

(2) 캠핑 체류 기간

-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캠핑 체류기간은 1박 2일 80.3%, 2박 3일 14.9%, 당일 4.1%, 그 외 0.7%로 나타남

[표 2-46] 캠핑 체류 기간

구분	당일	1박 2일	2박 3일	기타
빈도(명)	6	118	22	1
%	4.1	80.3	14.9	0.7



[그림 2-38] 캠핑 목적

[그림 2-39] 캠핑 체류 기간

(3) 캠핑 동반자

-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캠핑 동반자는 친구·연인 40.1%, 가족(부부) 27.2%, 가족(어린이 및 청소년 동반) 10.9%, 동호회 및 단체 8.8%, 가족(그 외) 7.5%, 없음(혼자) 5.5%로 나타남

[표 2-47] 캠핑 동반자

구분	없음(혼자)	친구, 연인	가족(부부)	가족 (어린이 및 청소년 동반)	가족(그 외)	동호회 및 단체
빈도(명)	8	59	40	16	11	13
%	5.5	40.1	27.2	10.9	7.5	8.8



[그림 2-40] 캠핑 동반자

(4) 해당 지역 방문 경험

- 해당 지역 방문 경험은 처음 방문 52.4%, 두 번째 방문 29.9%, 3~4번째 방문 12.9%, 그 외 4.8%로 나타남

[표 2-48] 캠핑 그룹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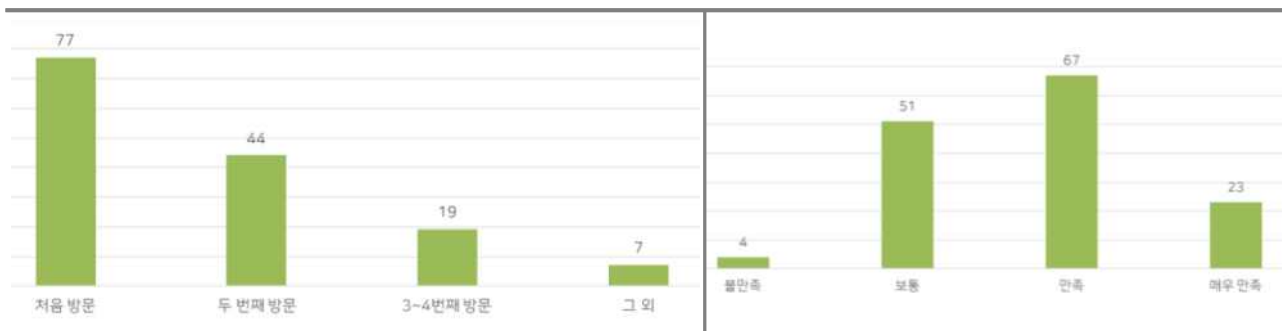
구분	처음 방문	두 번째 방문	3~4번째 방문	그 외
빈도(명)	77	44	19	7
%	52.4	29.9	12.9	4.8

(5) 캠핑 만족도

-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자전거 구간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 46.2%, 보통 35.2%, 매우 만족 15.9%, 불만족 2.7%로 집계됨
-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평균 3.75로 나타남

[표 2-49] 캠핑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빈도(명)	0	4	51	67	23	3.75
%	0	2.7	35.2	46.2	15.9	



[그림 2-41] 캠핑 그룹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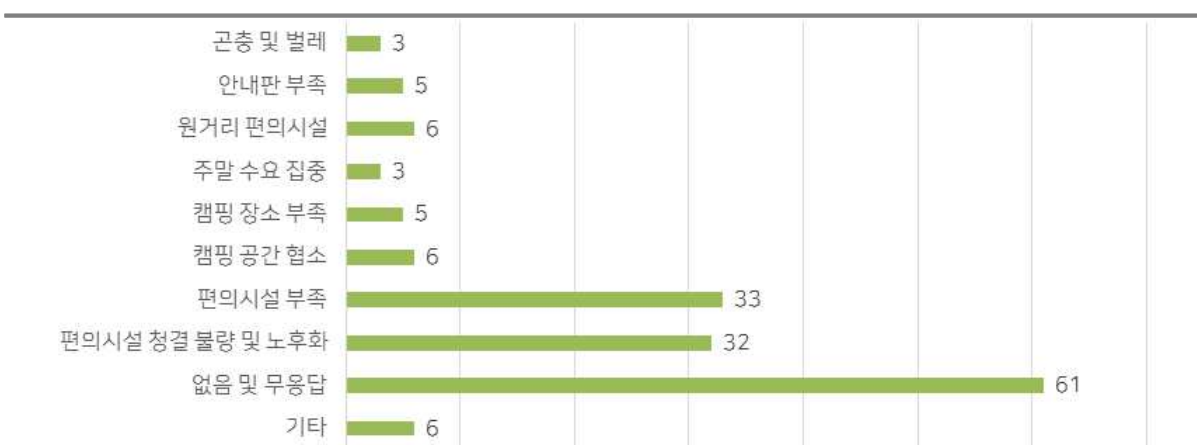
[그림 2-42] 캠핑 만족도

(6) 캠핑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

-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캠핑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은 없음 및 무응답 41.5%, 편의시설 부족 22.4%, 편의시설 청결 불량 및 노후화 21.8%, 원거리 편의시설 4.1%, 기타 4.1%, 캠핑 공간 협소 4.1%, 안내판 부족 3.4%, 캠핑 장소 부족 3.4%, 곤충 및 벌레 2.0%, 주말 수요 집중 2.0%로 나타남

[표 2-50] 캠핑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

구분	곤충 및 벌레	안내판 부족	원거리 편의시설	주말 수요 집중	캠핑 장소 부족
빈도(명)	3	5	6	3	5
%	2.0	3.4	4.1	2.0	3.4
구분	캠핑 공간 협소	편의시설 부족	편의시설 청결 불량 및 노후화	없음 및 무응답	기타
빈도(명)	6	33	32	61	6
%	4.1	22.4	21.8	41.5	4.1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으로 설문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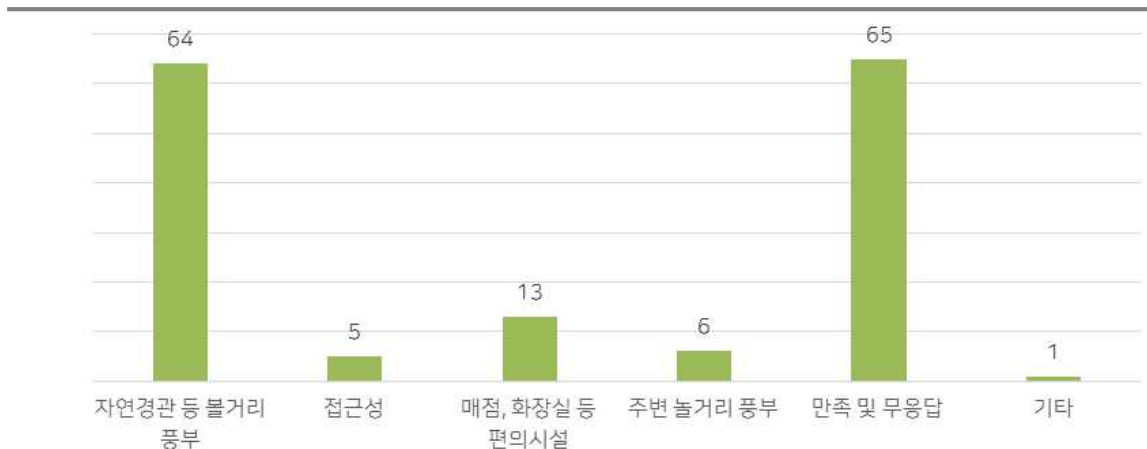
[그림 2-43] 캠핑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

(7) 캠핑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 설문에 응답한 캠핑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만족 및 무응답 44.2%, 자연경관 등 볼거리 풍부 43.5%, 매점·화장실 등 편의시설 8.8%, 주변 놀거리 풍부 4.1%, 접근성 3.4%, 기타 0.7%로 나타남

[표 2-51] 캠핑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구분	자연경관 등 볼거리 풍부	접근성	매점, 화장실 등 편의시설	주변 놀거리 풍부	만족 및 무응답	기타
빈도(명)	64	5	13	6	65	1
%	43.5	3.4	8.8	4.1	44.2	0.7



주. 본 문항은 중복응답으로 설문이 이루어짐

[그림 2-44] 캠핑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3) 캠핑 그룹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

(1)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필요성

-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의 필요성은 필요하다 53.7%, 보통이다 23.1%, 매우 필요하다 20.4%, 필요하지 않다 2.1%, 전혀 필요하지 않다 0.7%로 나타남

[표 2-52] 캠핑 그룹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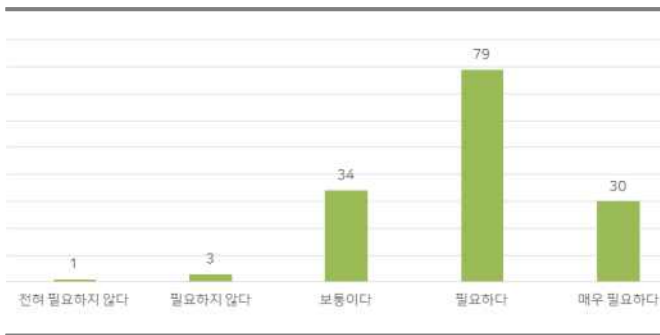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빈도(명)	1	3	34	79	30
%	0.7	2.1	23.1	53.7	20.4

(2)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효과

-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효과에 대한 의견은 관광객 증가 4.18, 지역홍보 4.12, 건강증진 4.10, 지역소비 촉진 4.02, 거주인구 증가 3.43로 나타남

[표 2-53] 캠핑 그룹 전북특별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효과

구분	건강증진	지역홍보	지역소비 촉진	관광객 증가	거주인구 증가
평균 점수	4.10	4.12	4.02	4.18	3.43



[그림 2-45] 전북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의 필요성(캠핑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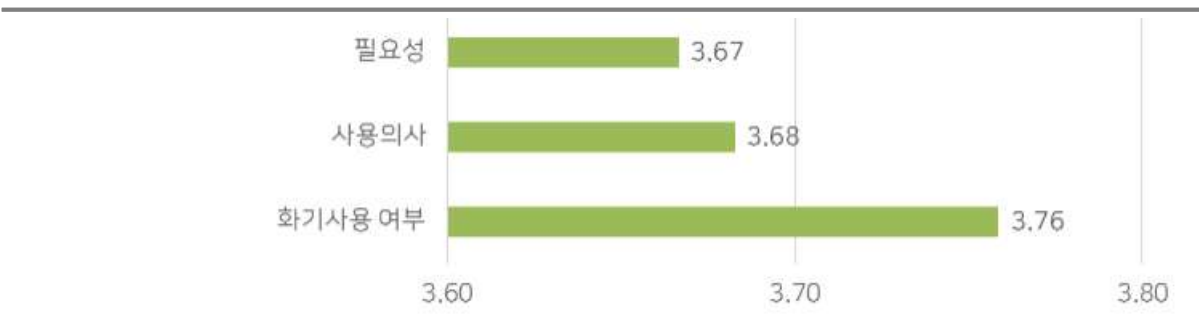
[그림 2-46] 전북자치도 장기 트레킹 노선 효과(캠핑 그룹)

(3) 노지캠핑장 계획에 대한 생각

- 노지캠핑장의 필요성은 5점 만점 중 3.67(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이며 노지캠핑장의 사용 의사는 3.68(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로 나타남. 불을 사용하지 않는 화기를 사용하겠냐에 대한 질문에는 3.76(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남

[표 2-54] 노지캠핑장 계획에 대한 생각

구분	필요성	사용 의사	화기 사용 여부
평균 점수	3.67	3.68	3.76



[그림 2-47] 노지캠핑장 계획에 대한 생각

4-5. 주요 시사점

🏕️ 걷기·자전거 타기·캠핑 그룹별 다른 방문 목적을 나타냄

- 걷기, 자전거 타기, 캠핑을 위해 전북자치도를 방문하는 목적은 각 다르게 나타남. 걷기 그룹은 가벼운 운동(62.5%)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 '장거리 걷기'에 대한 특성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보임
- 자전거 타기 그룹은 여가 및 관광을 위해(32.6%) 캠핑 그룹은 여가 및 휴식(42.2%)을 위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은 전북에 여가의 기능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개 그룹 모두 '시설'에 대한 사항에 가장 불만족 함

- 세 그룹 모두 하드웨어 시설에 대한 수량 부족 및 노후화를 가장 큰 불만족으로 지적함
 -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소에 대해 걷기 그룹은 편의시설 부족 및 노후화(16.7%) > 휴게공간 부족(9.0%) > 그늘 부족 (7.9%) 순을 보임. 자전거 타기 그룹은 노면 및 시설 노후화(18.8%) > 편의시설 부족 및 노후화(11.2%), 캠핑 그룹은 편의시설 부족(22.4%) > 편의시설 청결 불량 및 노후화(21.8%) 순을 보임

🏕️ '장기 노선'에 대한 필요성은 세 그룹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남

- 전북자치도에 장기 걷기 노선에 대한 필요성과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응답함. 다만 장기 노선에 대한 효과는 3개 그룹별로 차이를 나타냄
- 장기 노선에 대한 필요성은 걷기 그룹 매우필요(42.6%) > 필요(40.2%) 순, 자전거 타기 그룹은 필요(40.8%) > 매우필요(35.7%) 순, 캠핑 그룹은 필요(53.7%) > 매우필요(20.4%) 순을 보여 걷기 그룹이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거리 걷기 길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걷기 그룹이 관광객 증가(4.21점) > 건강증진(4.16) 순을 보여 유일하게 외부 인력이 지역에 유입될 것이라고 응답함
- 반면 자전거 그룹은 건강증진(4.21점) > 지역소비촉진(4.14점), 캠핑 그룹은 건강증진(4.18점) > 지역홍보(4.12점) 순을 보여 개인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응답함

🏕️ 노지캠핑장 계획에 대한 생각

- 에코캠핑 삼천리길에서 고려하고 있는 노지캠핑장에 대한 의견은 필요성 3.67, 노지캠핑장의 사용의사는 3.68로 나타나 '보통' 수준의 응답 특성을 보임(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 노지캠핑장에서 '불을 사용하지 않는 화기를 사용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3.76(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나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캠핑장에 대한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해석됨

Ⅲ. 노선 및 거점마을 선정

1. 노선 선정
2. 거점마을 선정

Ⅲ. 노선 및 거점마을 선정

1. 노선 선정

1-1. 노선 선정 과정

1) 1단계 : 이론분석, 걷기길 전수조사

기존 걷기길 및 자원의 분석

- 삼천리길은 ‘신규 노선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길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존 전북특별자치도에 조성되어 있는 걷기 길을 전수조사함
- 문체부·산림청·환경부 등 중앙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탐방로(걷기길),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천리길’,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걷기 길 등 모든 자원을 조사하여 목록화 함

전문가 의견 수렴

- 14개 시군을 연결하는 삼천리길의 개념을 잡기 위해 지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 특히 ‘천리길’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파악함
- 의견은 숲길, 생태관광, 문화관광, 농산어촌 마을만들기 등 ‘장거리 걷기길’과 관련한 여러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

노선 선정 기준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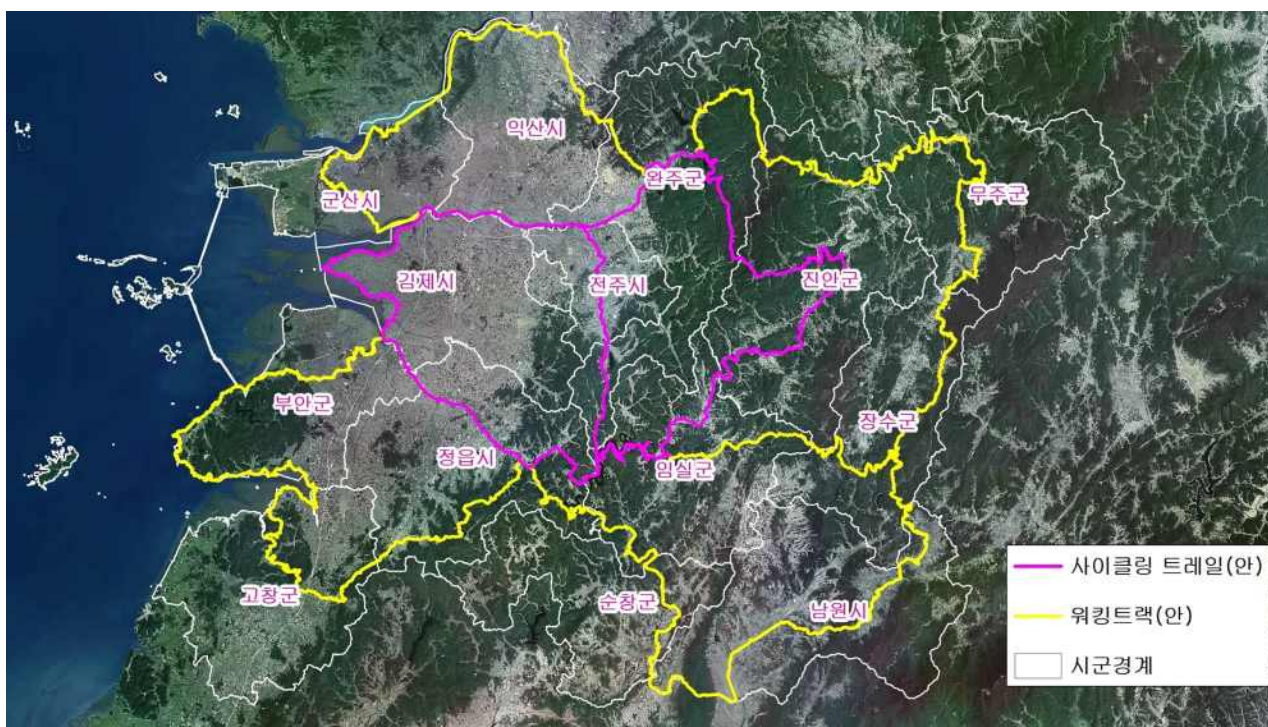
- 기존의 길 최대한 수렴하여 신설 길을 최소화 함
-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을 선택함
- 길 단절구간은 도로를 선택하여 우회하기 보다는 임도, 논두렁 등 기존 길을 활용해 연결시킴
- 서부권 광활한 평야지를 통과하기 위한 ‘자전거’ 이동을 검토함
- 타 사례를 검토하여 하루 걸을 수 있는 거리를 15km ~ 20km로 설정하고 분절시킴

최적 노선경로 추출(1차 안)

- GIS를 통해 기존 길을 최대한 중첩하여 14개 시군의 연결성을 확인하고 미연결 구간을 파악함
- 미연결 구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최적의 노선을 GIS를 통해 분석함
- 동부권 중 행정경계가 중첩되는 산악지역에 단절된 곳이 많으므로 현장확인이 필요함

자전거 노선

- 자전거 노선은 기존 활성화되어 있는 만경강, 섬진강, 금강을 중심으로 옥정호와 용담댐 등 동부권의 수려한 자원으로 이동이 가능한 순환형 노선을 고려
- 다만 현장 상황과 노선을 관리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부권 자전거 노선의 설정이 가능한지 최종 결정하기로 함
- 자전거 노선은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노선이 아니라 보행과 자전거가 혼용할 수 있는 개념의 길을 의미함



[그림 3-1] 삼천리길 구상안(1차 안)

2) 2단계 : 노선안 도출

위성영상, 접근성, 인접 마을 분석

- 위성영상을 통해 노선 연결의 가능성을 높이고 노선 주위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자원·생태자원 등을 파악하여 최적의 경로를 파악함
- 노선 시종점에 위치하는 마을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소개하고 있는 ‘생생마을’을 1차적으로 반영하여 마을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세세하게 수정함

🌿 최적 노선경로 추출(2차 안)

- 장애 요소, 자원의 접근성, 노선 시종점에 위치할 마을을 고려하여 최종의 노선을 확정함

3) 3단계 : 시군협의

🌿 시군설명회 개최

- 전북특별자치도 장거리 걷기길 조성의 필요성과 GIS를 통해 분석된 '삼천리길(2차 안)'을 시군에게 전달하기 위해 시군설명회를 개최함
- 시군은 동부권 - 서남권 - 서북권 순으로 권역을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삼천리길' 유지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의 쟁점사항을 추가로 논의함

🌿 거점마을 및 대표사업(동부권) 협의

- 노선은 시군 시군의 대표자원을 최대한 거치는지 중점적으로 파악하였으며 노선 설정에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한 시군정 사업이 있는가를 판단함
- 특히 동부권은 삼천리길 조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선에 인접한 대규모 연계사업의 테마를 발굴함. 시군과는 기본 방향과 실현가능성을 함께 논의함

🌿 수정 노선 도출(3차 안)

- 거점마을, 시군대표자원, 추가 확장 가능성에 대한 시군 의견을 반영하여 GIS 노선을 수정함

[표 3-1] 삼천리길 노선 확정을 위한 시군설명회

권역	시군	날짜	장소	주요 의견
동부권	임실군	'23.02.13	임실군청	· 자전거 이용 구간의 위험도 높음. 옥정호 주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중 · 임실치즈테마파크를 거치도록 조정 필요 등
	무주군	'23.02.15	무주군청	· 적상산 구간은 산림청과 협의가 필요해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내도리 - 무주읍 - 용추폭포로 이어지는 노선 제안
	장수군	'23.02.15	장수군청	· 삼천리길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으나 승마길 반영이 필요함 · 장수군에서 임실 성수산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단절되어 있음
	완주군	'23.02.16	완주군청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도로'의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대둔산에 많은 관광 인프라가 있으므로 가까울 수 있도록 조정 필요
	진안군	'23.02.16	진안군청	· 자전거이용은 도로폭이 좁아 많이 위험할 것으로 염려됨 · 진안고원길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남원시	'23.02.21	남원시청	· 백두대간생태교육장과 - 트리하우스 - 허브밸리를 거쳐가도록 노선 조

				정이 필요함 · 현재 많은 길들이 있어 운영주체의 일원화가 필요함
	순창군	'23.02.21	순창군청	· 섬진강 주변은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를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음
서남권	정읍시	'23.05.31	정읍시청	· 기존길을 통합하는 방안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 · 정읍시 중심부를 관통할 수 있도록 노선 조정이 필요함
	부안군	'23.05.31	부안군청	· 서해랑길이 지나가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노선변에 위치한 주요 거점과의 연계성이 부각될 필요가 있음
	고창군	'23.06.01	고창군청	· 정읍에서 고창으로 넘어 오는 길이 현재 막혀있음. 현장확인이 필요함 · 연안-습지-생태관광광이 유입이 용이하도록 노선 조정이 필요함
서북권	익산시	'23.07.06	익산시청	· 코리아둘레길 성당포구와 나바위성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광활한 평야만 있는 단조로운 길로 설 곳이 없어 걷기 쉽지 않음
	김제시	'23.07.06	김제시청	· 김제시에 활성화되어 있는 걷기길이 부재하고 있는 실정 · 그늘이 없어 걷기 쉽지 않음. 자전거이용시 시설물 보완이 필요함
	군산시	'23.07.07	군산시청	· 노선이 주요한 자원을 거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거점마을을 찾기가 쉽지 않음
	전주시	'23.07.10	전주시청	· 삼례에서 시작하여 삼천으로 빠져나가는 일직선 형태를 뒀고 있어 매력성이 떨어짐 · 전주천으로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음

4) 4단계 : 현장조사

길 연결 여부 파악

- 시군의 의견을 받아 보완된 노선(3차 안)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전 구간 현장검증을 실시함
- 노선 연결성 외, 노선의 난이도 설정을 위한 표고, 경사도를 측정하였으며 걷기 및 자전거 혼용 노선은 실제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확인하여 쟁점사항을 도출함
- 현장확인 결과는 모두 GIS를 통해 DB화하여 기록함

노선변 자원 및 쟁점사항 도출

- 노선을 걸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기존 시설물의 특이사항과 노선을 걸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주요 체류 지점에 대한 쟁점사항을 추가 도출함
- 특히 삼천리길의 필수 인프라인 주차장, 화장실, 안내시설, 숙박시설, 휴식시설은 전수조사하여 GIS를 활용해 DB화 함
- 노선을 걸으면서 발견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규모, 자원, 마을공동사업 현황, 유흥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DB화 함

현장조사 결과

○ 현장조사 결과 총 156건의 우회 필요 및 단절 구간이 발생함

- 동부권은 포장정비 등 노선정비 필요지점 14건, 대안노선 설정 구간 24건, 우회 노선이 부재하여 연결이 필요한 지점 59건으로 나타남
- 서부권은 포장정비 등 노선정비 필요지점 13건, 대안노선 설정 구간 18건, 우회 노선이 부재하여 연결이 필요한 지점 8건으로 나타남



터널 위험구간 우회노선 지정(진안)



[그림 3-2] 삼천리길 현장조사 결과(노선 우회, 시설물 DB 현황)

5) 5단계 : 시군확정

시군 최종 의견수렴

- 현장조사 후 한나절 걸을 수 있는 노선의 길이(15km~20km), 시종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을 검토하여 코스를 분절함
- 최종 도출된 코스를 시군에 전달하여 최종 결정함

1-2. 노선 선정 결과

1) 전체 노선

■ 총 길이 : 1,037.8km(100.0%)

○ 동부권 : 508.1km, 전체 노선의 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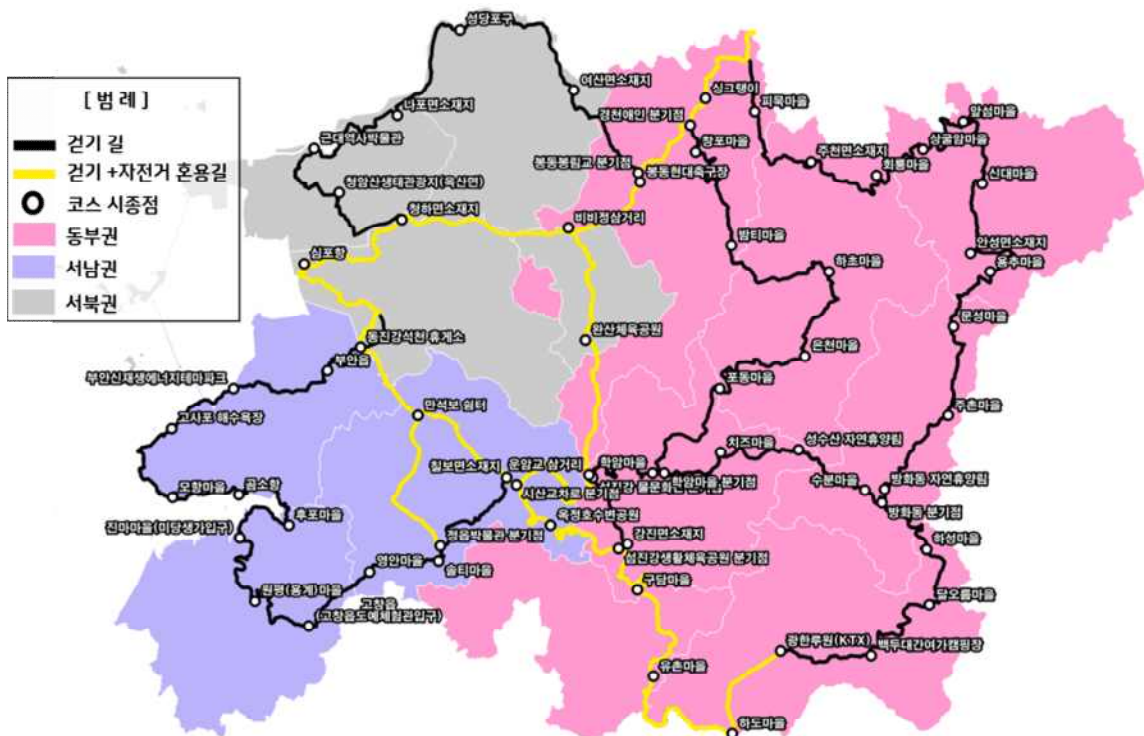
○ 서부권 : 529.7km, 전체 노선의 51.0%

- 서남권 : 232.9km, 전체 노선의 22.4%

- 서북권 : 296.8km, 전체 노선의 28.6%

* GIS에서 계산된 길이로 실측 길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걷기 및 자전거 혼용길 : 326.9km(전체 노선의 31.4%)



[그림 3-3] '삼천리길' 전체 노선 현황

■ 걷기 및 자전거 혼용 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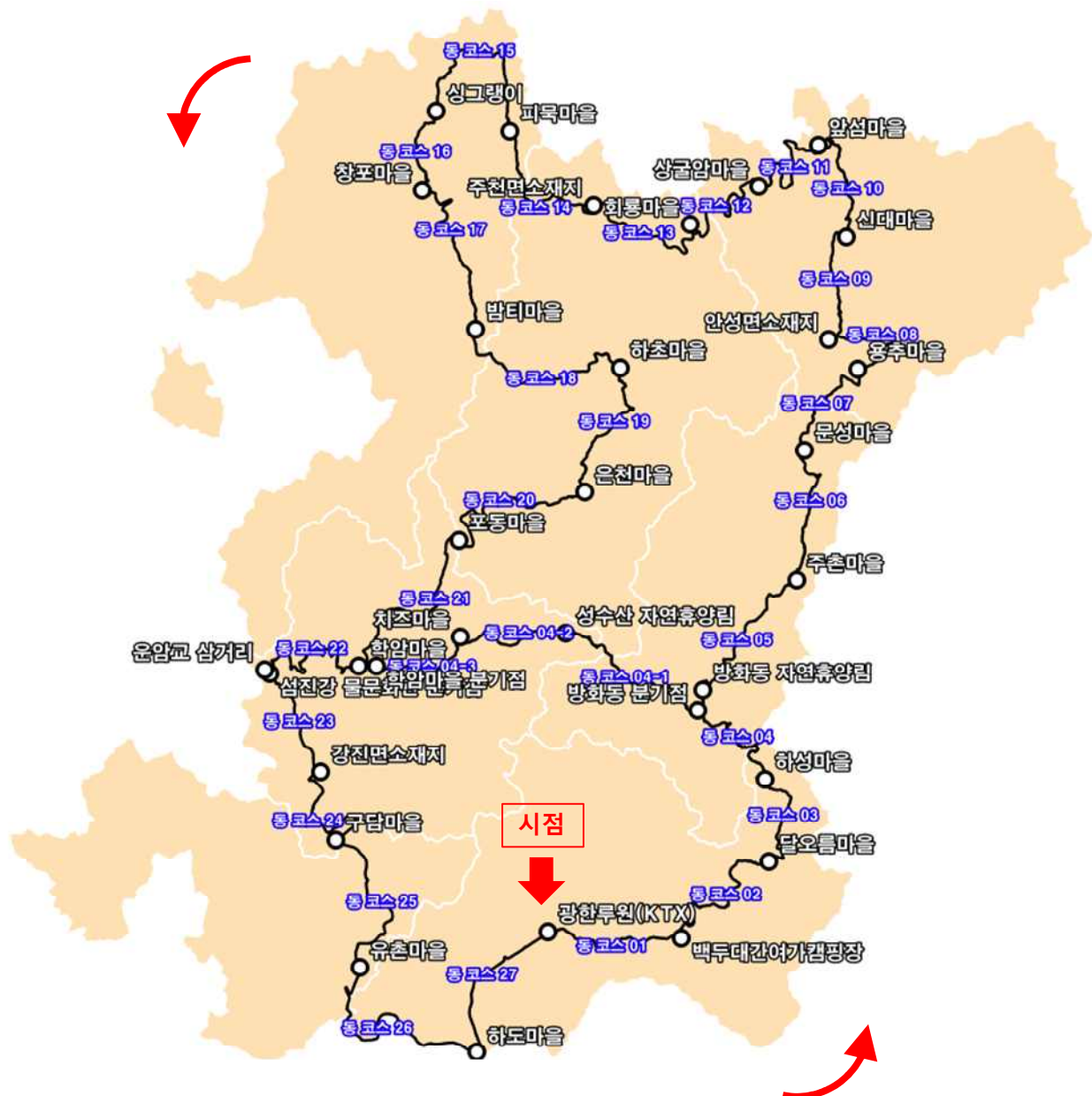
○ 현장조사 결과 완주 ~ 진안 ~ 임실 구간 자전거 이용시 차량과 충돌되어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도로 폭을 넓힐 수 없는 구간이 많음

○ 기존 활성화된 자전거 노선 구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자전거 노선을 변경함

2) 동부권 노선 현황

■ 노선번호

- KTX로 접근이 가능하고 걷기, 자전거 이용 모두가 가능한 남원시 중심을 코스 시작점으로 설정함
- 남원~무주의 시범운영 구간을 반영하여 남원 광한루원(KTX)에서 시작하여 무주방향, 즉 반시계 방향으로 번호체계를 부여함
- 반시계 방향을 중심으로 동일한 시점에 코스가 갈라지는 경우 1-1 등 서브 노선 번호체계를 부여함



[그림 3-4] 동부권 노선 현황

III.

노선 및 거점마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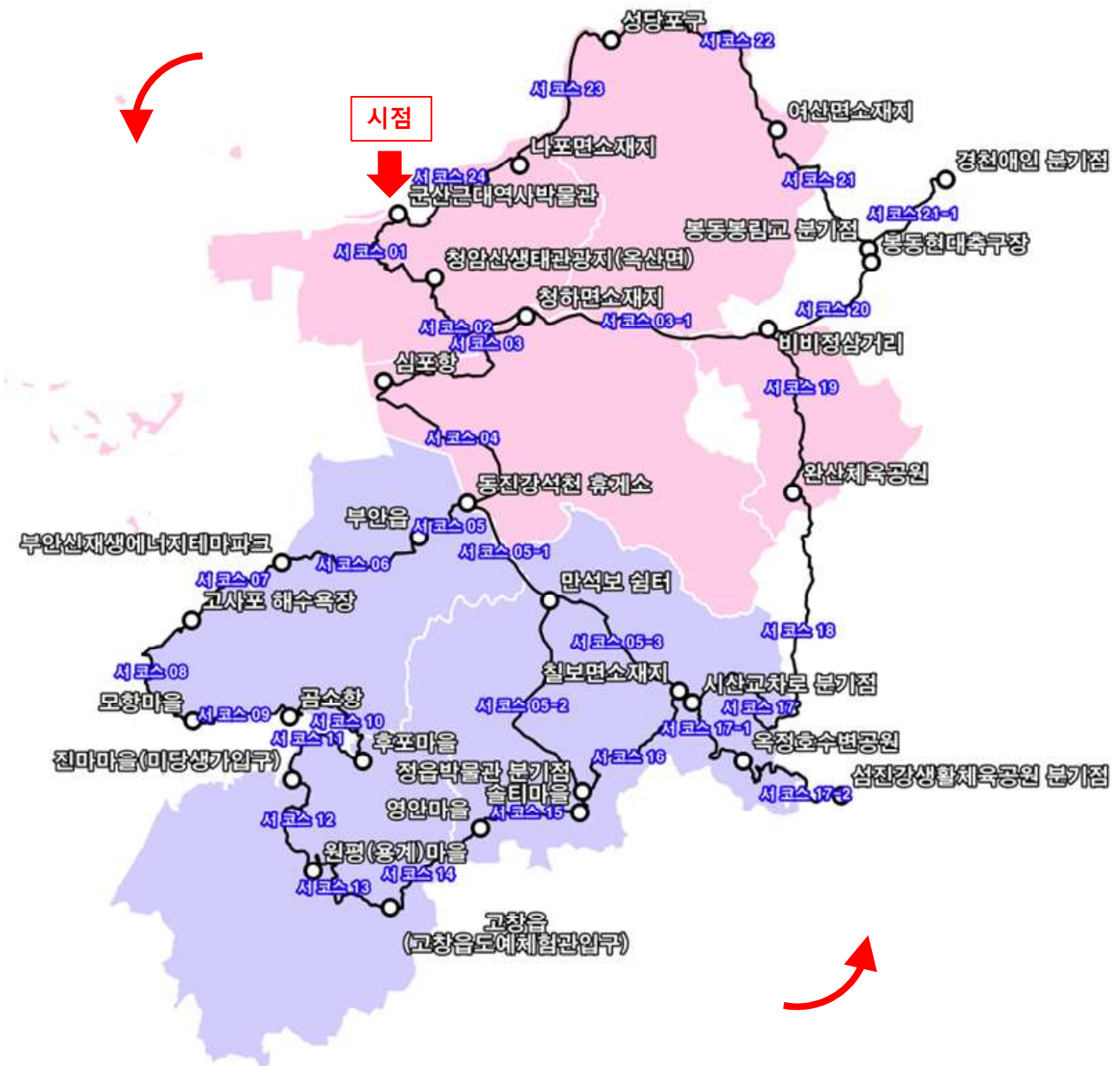
[표 3-2] 동부권 노선 현황

순	코스 구분	길이(m)	코스 시점	코스 종점	해당 시군
01	동 코스 01	14,894	광한루원(KTX)	백두대간여가캠핑장	남원
02	동 코스 02	20,584	백두대간여가캠핑장	달오름마을	남원
03	동 코스 03	12,122	달오름마을	하성마을	남원
04	동 코스 04	22,773	하성마을	방화동 자연휴양림	장수
05	동 코스 04-1	20,416	방화동분기점	성수산 자연휴양림	장수, 임실
06	동 코스 04-2	13,109	성수산 자연휴양림	치즈마을	임실
07	동 코스 04-3	11,239	치즈마을	학암마을 분기점	임실
08	동 코스 05	18,102	방화동 자연휴양림	주촌마을	장수
09	동 코스 06	15,907	주촌마을	문성마을	장수
10	동 코스 07	15,133	문성마을	용추마을	장수, 무주
11	동 코스 08	12,228	용추마을	안성면소재지	무주
12	동 코스 09	12,842	안성면소재지	신대마을	무주
13	동 코스 10	15,007	신대마을	앞섬마을	무주
14	동 코스 11	17,580	앞섬마을	상굴암마을	무주
15	동 코스 12	13,901	상굴암마을	회룡마을	진안, 무주
16	동 코스 13	14,356	회룡마을	주천면소재지	진안
17	동 코스 14	17,673	주천면소재지	피목마을	진안, 완주
18	동 코스 15	19,175	피목마을	싱그랭이	완주
19	동 코스 16	10,066	싱그랭이	창포마을	완주
20	동 코스 17	21,964	창포마을	밤티마을	완주
21	동 코스 18	20,414	밤티마을	하초마을	완주, 진안
22	동 코스 19	18,348	하초마을	은천마을	진안
23	동 코스 20	20,463	은천마을	포동마을	진안
24	동 코스 21	22,300	포동마을	학암마을	진안, 임실
25	동 코스 22	25,057	학암마을	섬진강 물문화관 분기점	임실
26	동 코스 23	11,688	섬진강 물문화관 분기점 (운암교 삼거리)	강진면소재지	임실
27	동 코스 24	14,780	강진면소재지	구담마을	임실
28	동 코스 25	17,625	구담마을	유촌마을	임실, 순창
29	동 코스 26	23,214	유촌마을	하도마을	순창, 남원
30	동 코스 27	15,136	하도마을	광한루원(KTX)	남원
총 길이 : 508,096m					

※ 노선길이는 실측거리가 아님. GIS 통해 계산한 거리로 노선 포인트 이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서부권 노선 현황

- 철도 접근이 가능하고 걷기, 자전거 이용 모두가 가능한 군산시 중심부를 서부권 코스 시작점으로 설정함
- 동부권과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번호체계 부여하고 동일한 시점에서 갈라지는 노선은 1-1 등 서브 노선 번호체계를 부여함



[그림 3-5] 서부권 노선 현황

[표 3-3] 서부권 노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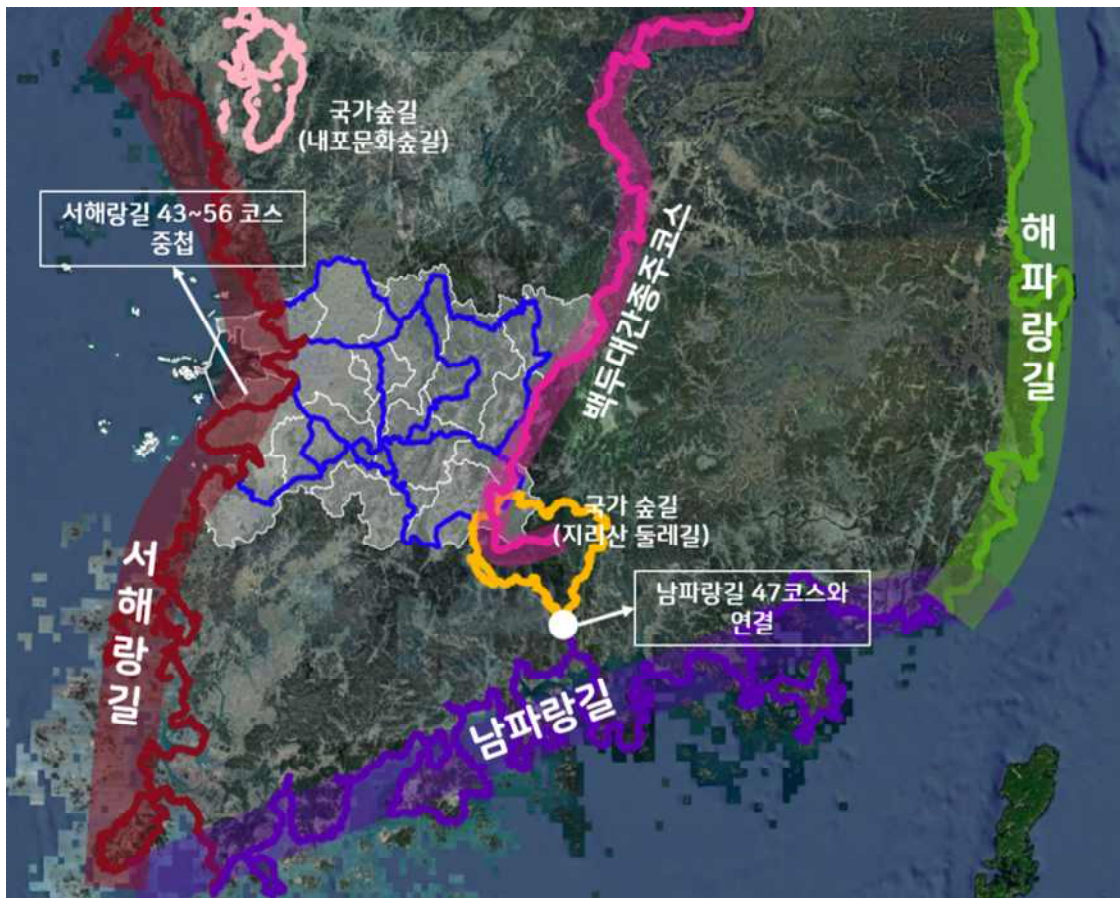
순	코스 구분	길이(m)	코스 시점	코스 종점	해당 시군
01	서 코스 01	15,707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청암산생태관광지	군산
02	서 코스 02	15,497	청암산생태관광지	청하면소재지	군산, 김제
03	서 코스 03	19,586	청하면소재지	심포항	김제
04	서 코스 03-1	23,827	청하면소재지	비비정삼거리	김제, 익산, 전주
05	서 코스 04	23,312	심포항	동진강 석천휴게소	김제
06	서 코스 05	10,994	동진강 석천휴게소	부안읍	김제, 부안
07	서 코스 05-1	12,494	동진강 석천휴게소	만석보쉼터	김제, 부안, 정읍
08	서 코스 05-2	21,768	만석보 쉼터	정읍박물관 분기점	정읍
09	서 코스 05-3	17,202	만석보 쉼터	칠보면소재지	정읍
10	서 코스 06	19,537	부안읍	부안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부안
11	서 코스 07	13,459	부안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고사포 해수욕장	부안
12	서 코스 08	20,323	고사포 해수욕장	모항마을	부안
13	서 코스 09	13,637	모항마을	곰소항	부안
14	서 코스 10	14,779	곰소항	후포마을	부안, 고창
15	서 코스 11	12,868	후포마을	진마마을	고창
16	서 코스 12	16,601	진마마을	원평(용계)마을	고창
17	서 코스 13	16,165	원평(용계)마을	고창읍	고창
18	서 코스 14	14,027	고창읍	영안마을	고창, 정읍
19	서 코스 15	11,171	영안마을	솔티마을	정읍
20	서 코스 16	20,072	솔티마을	칠보면소재지	정읍
21	서 코스 17	22,731	칠보면소재지	운암교삼거리	정읍, 임실
22	서 코스 17-1	10,724	사산교차로 분기점	옥정호수변공원	정읍
23	서 코스 17-2	17,490	옥정호수변공원	섬진강생활체육공원 교차점	정읍, 임실
24	서 코스 18	21,950	운암교삼거리	완산체육공원	정읍, 임실, 전주
25	서 코스 19	17,982	완산체육공원	비비정삼거리	전주, 완주
26	서 코스 20	12,953	비비정삼거리	봉동현대축구장	완주
27	서 코스 21	19,346	봉동현대축구장	여산면소재지	완주, 익산
28	서 코스 21-1	11,224	봉동봉림교 분기점	경천애인분기점	완주
29	서 코스 22	24,617	여산면소재지	성당포구	익산
30	서 코스 23	18,296	성당포구	나포면소재지	익산, 군산
31	서 코스 24	19,432	나포면소재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군산
총 길이 529,771m					

※ 노선길이는 현장 실측거리가 아니라 GIS 통해 계산한 거리로 노선 포인트 이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3. 노선 특징

1) 국가 탐방길과 관계

- 삼천리길은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둘레길’ 서해랑길 43코스 ~ 56 코스와 중첩됨
 - 서해랑길은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숲길 - 내포문화숲길과 연계되므로 경기권의 광역길과 추가 연계성이 내포되어 있음
- 삼천리길은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 숲길-지리산둘레길’을 통해 남파랑길 47코스와 맞닿음
 - 삼천리길 동부 01코스, 02코스, 03코스가 지리산둘레길 7코스, 15코스, 18코스, 19코스와 연결
- 무주군, 장수군, 남원시에 위치한 동부권 삼천리길은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백두대간종주코스’와 연계되며 특히 남원시는 지리산둘레길과 백두대간종주코스가 교차함
 - 백두대간종주코스는 환경부가 전국 주요 생태관광지와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광역 연결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차후 삼천리길과 국가 주요 탐방로와의 연계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그림 3-6] 국가 탐방길과 삼천리길과의 관계

2) 지역 탐방로와 관계

■ 전북특별자치도 천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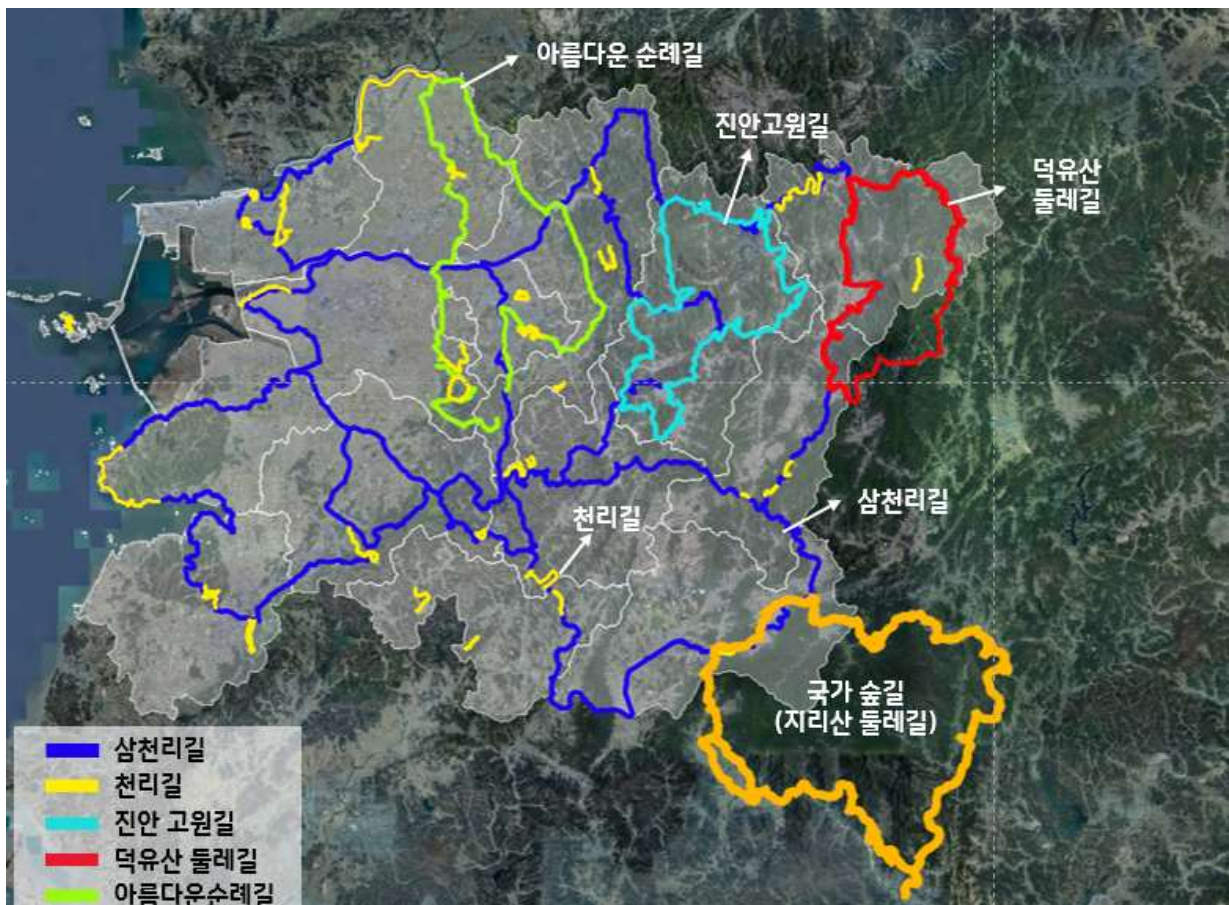
- (천리길) 전북자치도는 현재 총 44개의 천리길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순창, 무주, 완주, 전주, 김제의 천리길 8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천리길이 연결됨

■ 덕유산 둘레길

- (덕유산 둘레길)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두고 있는 무주, 장수군에 형성된 덕유산 둘레길을 그대로 수용하여 동 7코스 ~ 10코스 코스와 연결 되도록 계획됨

■ 진안고원길, 아름다운순례길

- (진안고원길) 진안군 전체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진안고원길은 1코스 ~ 14코스 모두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시군간 연결이 수월하도록 중간 분절 길을 지정함
- (아름다운순례길) 아름다운순례길은 서 18코스, 19코스, 21코스, 21-1코스, 서 22코스와 연결됨



[그림 3-7] 지역 탐방길과 삼천리길과의 관계

2. 거점마을 선정

2-1. 거점마을 선정 방법

1) 거점마을 개요

(1) 선정 목적

- 삼천리길 노선과 연계하여 탐방객 편의 및 안전 지원과 탐방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노선의 구간별 거점공간 마련이 필요함
- 거점마을은 삼천리길 노선 및 인근(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마을로 탐방객에게 휴식과 힐링, 다채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마을을 의미함
- 거점마을은 탐방객에게 휴식과 정비를 위한 숙소 및 식음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캠핑, 교통편의, 먹거리, 워케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연계사업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됨
- 삼천리길 조성사업과 연계한 거점마을을 선정하여 탐방객 등 관계인구 유입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마을의 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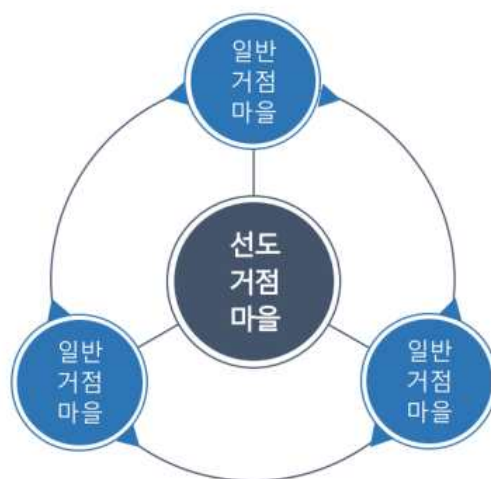
(2) 핵심 요건

- 노선 선정과정에서 도출된 시종점에 입지하거나 또는 시종점에 인접한 마을(1km 이내)을 거점마을 후보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후보마을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거점마을로 선정함
- 거점마을은 장거리 걷기 노선인 삼천리길을 이용하는데 있어, 대중교통 및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이 핵심적인 요건으로 작용함
- 또한 마을 주변으로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의 연계와 함께 마을사업 참여 경험과 조직 구성 등이 주요한 요건임
- 거점마을의 부족한 부분은 삼천리길 사업 추진을 통해 지원하여 개선이 가능하므로, 이를 위한 인적자원 및 지자체 지원 의지 등도 필요한 요건이 될 수 있음

2) 거점마을 역할과 기능

- 거점마을은 역할과 기능에 따른 “선도거점마을”과 “일반거점마을”로 구분함
- 선도거점마을은 삼천리길 탐방 관련하여 광역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편의제공의 거점으로 활용되며, 특히 시 또는 군지역 내 거점마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허브 기능을 수행함

- 선도거점마을은 1시군 1개소를 기준으로 하며, 행정복지센터 주변 등 읍면소재지를 대상으로 선정함
- 특히, 선도거점마을은 장거리 걷기 길인 삼천리길의 이용과 관련된 광역적 기능 및 시설의 집적화와 함께 시군의 거점마을 운영을 총괄을 통해 거점마을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와 허브 역할을 수행함
- 이를 위해 전체 노선 및 거점마을에 대한 종합안내, 교통편의, 숙박, 회의실, 비즈니스(마을기업), 위케이션 공간, 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의 역할을 수행함
- 주요 시설로 방문자센터, 운영 및 관리센터, 주차장, 복합정류장, 캠핑장, 자전거 쉼터 등이 입지할 수 있음



[그림 3-8] 거점마을별 관계

- 일반거점마을은 삼천리길 탐방 관련 필수 기능(휴식, 숙박 등) 중심의 탐방객 지원을 목적으로 휴게 기능을 수행함
- 시군별 약 3~5개소를 기준으로 하며, 노선의 시종점을 기준으로 접근성 및 발전가능성 등이 중요한 요소
- 노선간 중간 경유지로서 노선 및 거점마을 정보안내와 숙박, 생태/문화 탐방 등의 기능 제공
- 주요 시설로는 마을정원, 화장실, 안내판, 간이쉼터, 소형 캠핑장 등이 입지

[표 3-4] 거점마을의 역할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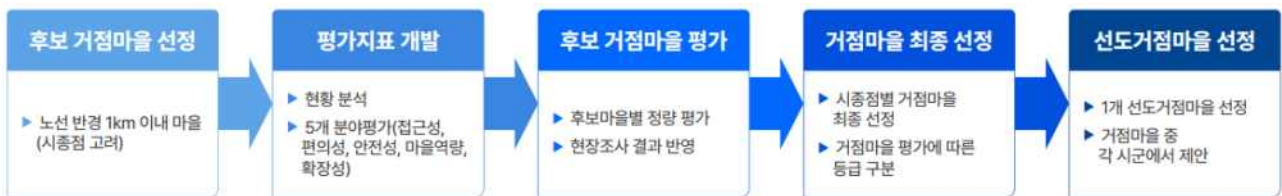
구분	선도거점마을	일반거점마을
정 의	삼천리길 걷기 체험의 시작점으로서 마을 비즈니스의 중심지	노선간 중간경유지로서 숙박 및 정보 제공, 마을체험을 위한 거점
규 모	시군별 1개소	시군별 약 3~5개소
역할/기능	종합안내(전체 노선 등), 교통편의, 주차, 숙박, 탐방프로그램, 회의, 세탁, 비즈니스, 위케이션 등	정보안내(노선 및 거점마을), 휴식, 숙박, 마을 생태/문화 탐방 등
주요 시설	방문자센터, 운영센터, 주차장, 복합정류장, 캠핑장, 자전거쉼터 등	마을정원(거점마을 랜드마크), 화장실, 안내판, 간이쉼터, 캠핑장(소형) 등

3) 거점마을 선정 절차

(1) 거점마을 선정 체계

○ 거점마을 선정 체계는 총 5단계에 걸쳐 진행함

- 1단계 : 후보 거점마을은 노선반경 1km 이내에 입지하고 있는 마을로 주로 시종점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을 전체를 후보군으로 설정
- 2단계 : 거점마을이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마을역량, 확장성 등 총 5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를 개발
- 3단계 :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주요 현황(통계 등) 및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후보 거점마을별 정량평가를 실시
- 4단계 : 평가결과(5개 등급)를 바탕으로 각 노선의 시종점 인근의 마을 중 거점마을을 최종 선정
- 5단계 : 선정된 거점마을을 대상으로 지자체 추천 등을 통해 각 시군별 1개 거점마을을 선도거점마을로 선정



[그림 3-9] 거점마을 및 선도거점마을 선정 체계

(2) 거점마을 선정 평가지표

- 거점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장거리 걷기 길인 삼천리길 탐방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과 관련하여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및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설정함
- 평가지표 도출에 있어 핵심 분야로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마을역량, 확장성 등 총 5개 분야를 도출함
 - 접근성 : 광역접근성과 관련하여 철도 또는 차량 이용 용이함 및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 편의성 : 호텔, 모텔, 민박, 캠핑장 등 숙박시설 유무 및 시장, 편의점 등 판매시설 유무
 - 안전성 : 병원, 보건소, 약국 등 의료시설 유무 및 파출소, 지구대 등 치안시설 유무
 - 마을역량 : 마을사업 추진 경험 여부 및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 여부
 - 확장성 : 마을 주변 확장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 여건 여부와 지자체 추천 여부

- 거점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인 5개 분야 10개 지표는 아래와 같이 종합하여 제시

[표 3-5] 거점마을 선정 평가지표

분 야	지 표	세부지표
접근성	교통시설	철도(KTX), 고속도, 국도 등 인접 유무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등 유무
편의성	숙박시설	호텔, 모텔, 여관, 민박, 캠핑장 등 숙박시설 유무
	판매시설	시장,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로컬푸드 등 판매시설 유무
안전성	의료시설	병원, 의원, 보건소, 약국, 119안전센터 등 의료시설 유무
	안전시설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방범대 등 치안시설 및 조직 유무
마을역량	마을사업	마을사업 추진 경험 유무
	마을조직	마을운영 등 관련 조직 유무
확장성	연계발전	주변 연계가능 시설 유무(관광지, 관공서, 주민센터, 유관기관, 타마을 등)
	지자체 의지	지자체 추천 여부

(3) 거점마을 선정 평가 방법

- 거점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는 앞서 도출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통계자료 및 공간정보와 함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후보 거점마을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함
 - 삼천리길의 일부노선의 경우 인접한 마을이 드문 경우가 일부 확인되어,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한 비교 평가보다는 평가지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유무 여부만을 적용
 - 구체적으로 각각의 평가지표에 대한 유무 판정을 통하여 유(有)일 경우 1점 부여(총 10점 만점)
- 이와 함께 각 거점마을별 비교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A : 9 ~ 10점, B : 7 ~ 8점, C : 5 ~ 6점, D : 4점 이하
 - 각각의 등급은 추후 거점마을별 시설 및 기능 보완을 위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 가능
- 선도거점마을 선정은 시군별 1개소를 원칙으로 적용하여 선정된 일반거점마을 중에서 각 지자체의 추천을 우선하였으며, 필요시 연구진의 제안을 통해 선정함
 - 선도거점마을의 경우 각 시군의 일반거점마을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함께 상위 기능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탐방 지원과 추후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우선 추천 거점마을 등으로 최종 선정

2-2. 거점마을 선정 결과

1) 동부권 : 7개 선도거점마을, 30개 일반거점마을

(1) 일반거점마을

- 코스 시점을 기준으로 선정된 거점마을은 다음과 같음. 모두 도보권 500m 이내 위치한 마을로 접근성은 우수하나 인프라 수준은 달리 나타남

[표 3-6] 동부권 일반거점마을 선정 결과

번호	시군	코스		거점마을 마을명	등급	분야별 지표									
		코스명	시점 명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마을역량		확장성	
						교통 시설	대중 교통	숙박 시설	판매 시설	의료 시설	안전 시설	마을 사업	마을 조직	연계 발전	지자체 의지
1	남원	동 코스 01	광한루원(KTX)	남원예촌	B	●	●	●	●	●	●			●	
2		동 코스 02	백두대간여가캠핑장	백두대간여가캠핑장	D	●	●	●		●					
3		동 코스 03	달오름마을	달오름마을	A	●	●	●	●	●	●	●	●	●	●
4		동 코스 04	하성마을	하성마을	D	●	●								
5	장수	동 코스 04-1	방화동 분기점	수분마을	C	●	●		●			●	●		●
6		동 코스 04-2	성수산 자연휴양림	방화동 자연휴양림	D	●	●	●	●						
7	임실	동 코스 04-3	치즈마을	치즈마을	A	●	●	●	●	●		●	●	●	●
8	장수	동 코스 05	방화동 자연휴양림	방화동 자연휴양림	C	●	●	●	●						
9		동 코스 06	주촌마을	주촌마을	C	●	●	●	●						●
10		동 코스 07	문성마을	문성마을	A	●	●	●	●	●	●	●	●	●	
11	무주	동 코스 08	용추마을	용추마을	B	●	●	●	●	●		●	●		
12		동 코스 09	안성면소재지	안성면중심마을	C	●	●	●	●	●	●				
13		동 코스 10	신대마을	신대마을	B	●	●	●	●		●	●	●	●	
14		동 코스 11	앞섬마을	앞섬마을	C	●	●	●	●					●	●
15	진안	동 코스 12	상굴암마을	상굴암마을	C	●	●	●				●	●		
16		동 코스 13	회룡마을	회룡마을	B	●	●	●	●			●	●	●	
17		동 코스 14	주천면소재지	주천면중심마을	C	●	●	●	●	●	●				
18		동 코스 15	피목마을	피목마을	D	●		●	●						
19	완주	동 코스 16	싱그랭이	요동(원용복)마을	C	●		●	●			●	●		
20		동 코스 17	창포마을	창포마을	B	●		●	●	●		●	●		●
21		동 코스 18	밤티마을	밤티마을	B	●	●	●	●			●	●		●
22	진안	동 코스 19	하초마을	하초마을	D	●	●	●	●						
23		동 코스 20	은천마을	은천마을	B	●	●	●	●	●		●	●		
24		동 코스 21	포동마을	포동마을	C	●	●	●	●			●	●		
25	임실	동 코스 22	학암마을	학암마을	B	●	●	●		●		●	●		●
26		동 코스 23	삼천강물문화분기점	마암마을	C	●	●	●	●	●				●	
27		동 코스 24	강진면소재지	강진면중심마을	C	●	●	●	●	●	●				
28		동 코스 25	구담마을	구담마을	C	●	●	●				●	●	●	
29	순창	동 코스 26	유촌마을	유촌마을	D	●	●	●	●						
30		동 코스 27	하도마을	하도마을	D	●	●		●			●			

(2) 선도거점마을

- 시군과 합의된 동부권 7개 시군의 선도거점마을 및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개발 여건에 따라 선도 거점마을의 위치와 기능은 달라질 수 있음

[표 3-7] 동부권 선도거점마을 선정 결과

구분	시군	선도거점마을	주요 사항
동부권	남원시	백두대간여가캠핑장	지리산,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완주군	밤티마을	동상계곡
	진안군	은천마을	마이산, 진안C
	무주군	앞섬마을	향로산자연휴양림, 내도리휴양지
	장수군	주촌마을	논개생가마을, 도깨비전시관(연구진 추천)
	임실군	성수산자연휴양림	성수산자연휴양림
	순창군	유촌마을	섬진강, 섬진강군민체육공원, 향가유원지



[그림 3-10] 동부권 시종점과 선도거점마을

2) 서부권 : 7개 선도거점마을, 30개 일반거점마을

(1) 일반거점마을

○ 코스 시점을 기준으로 선정된 거점마을은 다음과 같음. 모두 도보권 500m 이내 위치한 마을로 접근성은 우수하나 인프라 수준은 달리 나타남

[표 3-8] 서부권 일반거점마을 선정 결과

번호	시군	코스		거점마을 마을명	등급	분야별 지표									
		코스 명	시점 명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마을역량		확장성	
						교통 시설	대중 교통	숙박 시설	판매 시설	의료 시설	안전 시설	마을 사업	마을 조직	연계 발전	지자체 의지
1	군산	서 코스 01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장미동	B	●	●	●	●	●	●			●	
2		서 코스 02	청암산생태관광지	옥산면중심마을	B	●	●	●	●	●	●			●	
3	김제	서 코스 03	청하면소재지	청하면중심마을	C	●	●		●	●				●	
4		서 코스 03-1	청하면소재지	청하면중심마을	C	●	●		●	●				●	
5		서 코스 04	심포항	심포드리마을	A	●	●	●	●	●	●	●	●	●	
6		서 코스 05	동진강 석천휴게소	장동마을	D	●	●								
7		서 코스 05-1	동진강 석천휴게소	장동마을	D	●	●		●	●	●			●	
8	정읍	서 코스 05-2	만석보쉼터	신태인읍중심마을	B	●	●	●	●	●	●			●	
9		서 코스 05-3	만석보쉼터	신태인읍중심마을	D	●			●						
10	부안	서 코스 06	부안읍	부안읍중심마을	B	●	●	●	●	●	●			●	
11		서 코스 07	부안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부안읍중심마을	B	●	●	●	●	●	●			●	
12		서 코스 08	고사포 해수욕장	변산면중심마을	C	●	●	●	●					●	
13		서 코스 09	모항마을	모항마을	B	●	●	●	●			●	●	●	●
14		서 코스 10	곰소항	진서면중심마을	C	●	●	●	●	●	●				
15	고창	서 코스 11	후포마을	후포마을	C	●	●		●	●					●
16		서 코스 12	진마마을	진마마을	B	●	●	●		●		●	●	●	●
17		서 코스 13	원평(용계)마을	용계마을	B	●	●	●	●			●	●	●	●
18		서 코스 14	고창읍	고창읍중심마을	B	●	●	●	●	●	●			●	
19		서 코스 15	영안마을	영안마을	B	●	●	●	●	●	●			●	
20	정읍	서 코스 16	솔티마을	솔티마을	B	●	●	●	●			●	●	●	
21		서 코스 17	칠보면소재지	칠보면중심마을	B	●	●	●	●	●	●			●	
22		서 코스 17-1	시산교차로 분기점	평천마을	B	●	●	●	●	●		●	●	●	
23		서 코스 17-2	옥정호수변공원	평천마을	B	●	●	●	●	●		●	●	●	
24	임실	서 코스 18	운암교삼거리	마암마을	C	●	●	●	●	●				●	
25		서 코스 19	완산체육공원	하봉마을	C	●	●	●	●	●				●	
26	완주	서 코스 20	비비정삼거리	삼례면중심마을	B	●	●	●	●	●	●			●	
27		서 코스 21	봉동현대축구장	봉동마을	D	●	●		●						
28		서 코스 21-1	봉동봉림교 분기점	봉동마을	D	●	●		●						
29	익산	서 코스 22	여산면소재지	여산면중심마을	C	●	●	●	●	●	●				
30		서 코스 23	성당포구	성당포구마을	B	●	●	●	●			●	●	●	
31		서 코스 23	나포면소재지	나포면중심마을	C	●	●		●	●	●				

(2) 선도거점마을

- 시군과 합의된 서부권 7개 시군의 선도거점마을 및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개발 여건에 따라 선도 거점마을의 위치와 기능은 달라질 수 있음

[표 3-9] 서부권 선도거점마을 선정 결과

구분	시군	선도거점마을	주요 사항
서부권	전주시	하봉마을	완산체육공원, 모악산 등산로 입구
	군산시	장미동	군산 근대역사문화지구
	익산시	성당포구마을	용안생태습지공원
	김제시	심포드리마을	심포항, 망해사, 새만금
	정읍시	솔티마을	정읍박물관, 내장산조각공원, 내장산단풍생태공원
	고창군	고창읍중심마을	고창군청, 고창모양성(고창읍성)
	부안군	변산면중심마을(격포마을)	변산면사무소, (격포마을)



[그림 3-11] 서부권 시종점과 선도거점마을

IV. 기본구상

1. 핵심가치
2. 실현수단
3. 비전과 목표
4. 노선 및 거점마을 디자인
5. 에코캠핑 삼천리길 BI
6. 연계 대표사업

IV. 기본구상

1. 핵심가치

1-1. 개념

디지털 노마드

- 최근 생태관광을 포함한 관광분야 트렌드 중하나로 코로나-19 이후 자연공간에서,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걷거나 자전거 타기, 캠핑 등을 통해 힐링과 휴식을 경험코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특별히 디지털노마드(Digital Nomad)로 대표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자연 속에서 힐링하면서 일을 영위하는 워크케이션(Work + Vacation의 합성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에코캠핑 삼천리길에서는 이러한 디지털노마드 관점에서 걷기, 캠핑, 힐링, 워크케이션 등의 다양한 생태관광 수요를 전북특별자치도의 걷기길과 거점마을로 유입하여 다채로운 생태관광 경험을 제공하고자 함

루리티지

- 유럽에서 UNESCO 주관으로 EU자금을 받아 시작된 루리티지(Ruritage: Rural과 Heritage의 합성어) 사업¹⁸⁾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으로 농촌이 가진 경관, 역사, 문화, 먹거리, 축제 등을 활용하여 농촌의 가치를 살리고자 하는 시도임
- 순례(pilgrimage), 로컬푸드(local food), 이주(migration), 예술과 축제(art & festival), 회복성(resilience), 경관(landscape)의 6개 영역을 통해 지역마을의 재생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개념임
- 에코캠핑 삼천리길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유입된 생태관광객들이 걷기 노선과 거점마을을 거쳐가거나 체류하면서 지역이 보유한 고유의 생태·환경자산과 역사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전북의 14개 시·군의 경제적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18) RURITAGE, 2022.11.10. (<http://www.ruritage.eu>) ; 안필균·엄성준·김용균·김상범, 2021, 「농촌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RURITAGE 개념 도입 연구 - 농업유산 및 역사마을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32(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 733쪽.

IV. 기본구상



[그림 4-1] 루리티지(Ruritage)의 6개 영역 개념도

출처 : <https://www.ruritage.eu/>



[그림 4-2] 전북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 핵심가치

2. 실현수단

2-1. 장거리 걷기길

🌿 기본개념

- 전북에 흩어진 자연생태와 역사, 마을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서로 연결하는 장거리 걷기길
- 자연과 사람이 서로 공존하며, 지역을 다시 살리는 선순환 기능을 가진 길

기본개념 : 연결(network) → 소생(recover) → 활성화(activation)



[그림 4-3] 에코캠핑 삼천리길 기본개념

🌿 위계

- 에코캠핑 삼천리길의 위계는 프랑스 랑도네길과 같이 광역-지역-마을 단위의 3단계 위계를 가짐
- 가장 상위는 레벨(1)의 광역길로서 삼천리길 본선을 의미하며 전북자치도의 핵심적인 거점지역과 생태·환경자산을 거치면서 도시와 도시, 광역과 광역(경남, 충남, 충북, 전남 등)을 연결하며, 총괄 관리는 전북자치도(통합지원센터)에서 담당
- 다음으로 레벨(2)의 지역길로 시·군에서 주도하여 조성·운영하는 길로 선도거점마을 및 일반거점마을,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관리주체는 시·군에서 담당
- 기초 단계는 레벨(3)의 마을길로 읍·면·리·동 단위에서 특정 활동(산악레포츠, 역사체험, 지질생태체험, 마을체험 등)에 특화된 기능을 하며, 시·군에서 관리를 담당

[표 4-1] 에코캠핑 삼천리길 위계

단계	길 명	역할	관리주체	비고
레벨 1	광역길 (삼천리길)	지역 내 핵심 지역을 거치면서 도시와 도시, 광역과 광역을 연결	통합지원센터 (전북자치도)	지역길, 마을길 정보제공 필요
레벨 2	지역길	한 개 시군 내에서 거점마을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길(천리길 연결구간, 국가 탐방로 연결구간, 지역등산로 등)	시군	광역길과 길 연결 필요
레벨 3	마을길	하나의 읍·면·리 단위에서 특정 활동에 특화된 기능을 하는 길	시군	



[그림 4-4] 전북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 위계 개념도

☞ 유형

- 삼천리길의 코스는 산악형, 수변형, 평야형, 도심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삼천리길은 가족과 함께 걷는 길로 경사도 25° 이하의 길로 조성



[그림 4-5] 삼천리길 코스 유형

- 삼천리길의 주요 이용 방법은 걷기(트레키)와 자전거타기(바이커)를 통해 이뤄짐
- 코스별 거리는 걷기의 경우 하루에 걷기 적당한 약 15km 내외로 구성되며, 자전거타기는 코스별로 약 30km의 거리로 구성됨



[그림 4-6] 삼천리길 이용 방법

☞ 이용자

- 삼천리길은 가족을 구성하는 모든 연령층이 누구나 쉽게, 함께 전북의 산악과 하천, 습지, 해안 등 자연생태를 체험하고, 지역마을이 보유한 역사와 문화, 먹거리를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친구 또는 동호회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강, 산, 바다를 자원으로 하여 삼천리길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산악레포츠 등의 시·군별 대표사업을 체험토록 함

2-2. 거점마을

✻ 기본개념

- 삼천리길 노선에 위치한 마을로 탐방객에게 휴식과 힐링, 다채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마을
- 방문객들에게 캠핑, 교통편의, 먹거리, 위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연계사업을 창출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 역할을 수행함

✻ 선도거점마을과 일반거점마을

- 역할과 기능에 따라 “선도거점마을”과 “일반거점마을”로 구분하며, 선도거점마을은 시군별로 1곳씩 선정하며, 거점마을은 나머지 마을로 선정함

[표 4-2] 거점마을 정의 및 역할과 기능

구분	선도거점마을	일반거점마을
정의	삼천리길걷기 체험의 시작점으로서 마을 비즈니스의 중심지	중간경유지로서 숙박과 정보제공, 마을 체험 경험 제공
위치	시군별 1개소	시군별약 3~5개소
역할/기능	종합안내, 교통편의, 주차, 숙박, 탐방프로그램, 회의, 세탁, 비즈니스, 위케이션	정보확인, 휴식, 숙박, 마을 생태/문화 탐방
시설	방문자센터, 주차장, 정류장, 캠핑장, 자전거쉰터등	마을정원, 화장실, 안내판,간이쉰터, 캠핑장등

- 아래 그림과 같이 선도거점마을과 일반거점마을을 주로 삼천리길의 시종점에 위치하며 선도거점마을은 각 시·군에서 중심이 되는 거점지역에 위치하고, 시·종점을 중심으로 일반거점마을이 위치함



[그림 4-기] 선도거점마을과 일반거점마을 개념도

2-3. 권역

기본개념

- 장거리 걷기길과 거점마을, 시·군별 연계사업을 묶어 동부권, 서남부권, 서북부권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관광, 문화, 스포츠, 먹거리 등을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 수행

동부권

- 무주, 장수, 남원, 임실, 순창, 남원, 완주의 7개 시·군으로 구성되며, 산악관광과 산악스포츠를 테마로 길 스토리텔링과 생태체험 및 연계사업을 추진함

서남부권

- 고창, 부안, 정읍의 3개 시·군으로 구성되며, 갯벌, 해안, 섬, 암석 등 생태·지질체험을 테마로 길 스토리텔링과 연계사업을 추진함

서북부권

- 전주, 군산, 익산, 김제의 4개 시·군으로 구성되며, 종교, 문화, 역사 체험을 테마로 길 스토리텔링과 연계사업을 추진함



[그림 4-8] 전북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 권역 설정 및 권역별 컨셉

3. 비전 및 목표

3-1. 비전과 목표

■ 비전

- 에코캠핑 삼천리길의 비전은 “자연과 사람, 마을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에코힐링 1번지’로 함

■ 목표

- 목표는 ‘낙후에서 락휴로’, ‘단절에서 연결로’, ‘보존에서 융합으로’의 3가지로 구성됨
- 낙후(落後)에서 락휴(樂休)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낙후되었던 지역 마을을 즐거움과 휴식, 힐링을 체험하는 장소로 변화시킴
- 단절(斷絶)에서 연결(連結)로: 기존의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 마을이 지역간 단절이 고착화되고 인구 및 산업의 축소·소멸이 가속화된 곳이었다면 삼천리길 사업을 통해 다시 지역이 연결되고,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곳으로 변화시킴
- 보존(保存)에서 융합(融合)으로: 생태·환경자산을 원상태로 유지하는 보존과 행위제한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봤다면 삼천리길의 추진을 통해 생태환경과 역사문화, 자연과 사람을 연계·융합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핵심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함



[그림 4-9] 전북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 비전과 목표

🌱 추진전략

■ 길 복원

- 삼천리길 사업을 통해 삼남대로, 통영대로와 같은 기존의 옛 길과 시군별로 별도로 추진되었던 천리길, 마을간 도로 등을 서로 연결하여 걷기 길로 활성화 시킴

- 삼천리길 노선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14개 시군이 보유한 다양한 생태와 환경, 역사와 문화가 결합

■ 마을 활성화

- 삼천리길 시종점에 선도거점마을과 일반거점마을을 두어 방문객 유입에 따른 지역의 관계인구 증가에 기여함
- 삼천리길을 통해 유입된 방문객이 생태와 역사, 문화, 먹거리, 숙박, 워크이션 등을 체험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통합 관리

- 삼천리길의 노선과 거점마을 육성,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와 시·군, 중간지원조직, 마을협의체와 일반시민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는 거버넌스 기반 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운영
- 삼천리길의 일관된 브랜드 육성과 노선 안내체계 지원 등을 위해 Brand Identity 등 브랜드를 개발하여 운영

추진전략

- | | |
|----------|-------------------------------|
| 01 길 복원 | 옛 길, 생태·환경, 역사문화가 결합된 장거리 걷기길 |
| 02 마을활성화 | 시종점에 마을을 연결하여 관계인구 증가, 지역활성화 |
| 03 통합관리 | 길 총괄 관리체계 구축, 거버넌스 구축, 브랜드 구축 |

[그림 4-10] 전북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 추진전략

3-2. 주요사업

■ 길 조성사업(Hardware)

- 기존 노선(옛길, 천리길, 시·군별 자체 조성 길, 마을길, 임도 등)의 복원과 신규 노선(시·군간 경계 부에 위치한 산길, 등산로 등) 조성
- 시종점 거점마을(선도거점마을 및 일반거점마을)에 휴식과 마을 체험, 먹거리 및 숙박, 워크이션, 주차 및 교통편의를 위한 마을 체류 공간을 조성

■ 길 활용사업(Software)

- 노선과 지역의 생태·환경자산, 역사문화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노선별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탐방지원시설 및 탐방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픽업, 주차 등 교통 연계 서비스, 숙박, 세탁, 굿즈(goods) 등 마을비즈니스 사업을 운영하고 시·군 및 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
- 삼천리길 노선 및 거점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하여 홍보 효과 및 관계인구 증가에 기여
- 시·군의 자원봉사자와 해설사들이 참여하여 삼천리길의 스토리텔링과 자원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탐방프로그램 개발·운영

■ 길 관리사업

- 삼천리길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권역별, 시·군별 관리체계 구축·운영
- 삼천리길의 60여 개 거점마을의 지역주민이 삼천리길의 제도개선과 운영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 통합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를 중심으로 삼천리길 통합 홍보 및 브랜드 구축, 지역특화사업 등 마케팅 사업 추진, 삼천리길 노선 및 거점마을 육성현황 모니터링 등 지원서비스 개발·운영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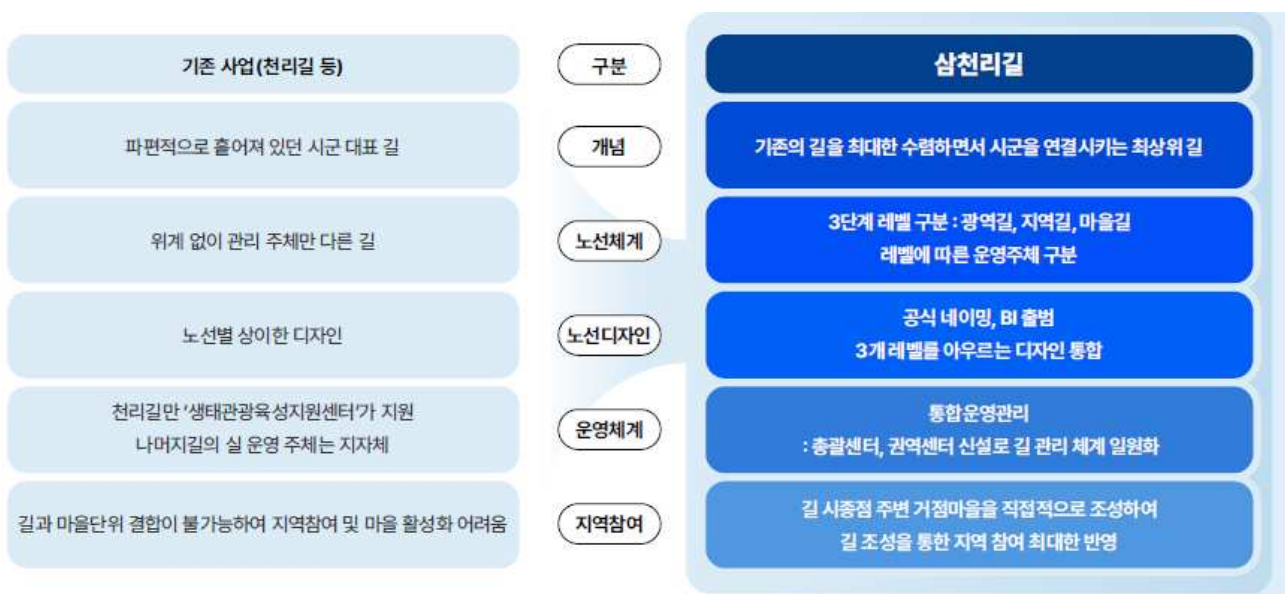
01 길 조성	기존 노선 복원, 신규 노선 조성, 시종점 마을 체류공간 조성
02 길 활용	스토리텔링, 마을 비즈니스, 축제 및 탐방프로그램 확충
03 길 관리	통합 및 권역별 관리체계, 마을참여, 통합 지원서비스

[그림 4-11] 전북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 주요사업

3-3. 차별성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 (개념) 삼천리길 사업은 기존에 개별적, 파편화되어 추진되던 시·군 자체 걷기 길, 도에서 추진되었던 천리길 등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서로 연결하여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의 통합된 최상위 위계의 걷기 길을 조성하는 데에 기존 사업들과의 차별성이 있음
- (노선체계) 기존 걷기 길은 위계 없이 관리 주체가 다원화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삼천리길은 광역길-지역길-마을길의 3단계 위계에 따라 관리주체와 역할, 기능을 구분하고, 도와 시군 및 마을이 함께 관리하도록 함
- (노선디자인) 삼천리길의 공식 명칭을 개발하고 위계별 걷기 길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BI를 개발하여 노선에 따른 안내와 표식체계의 혼선을 방지함
- (운영체계) 총괄센터-권역센터-마을센터의 단계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도와 시군 및 마을의 역할과 운영을 체계화하며, 기존의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관-중간지원조직-민으로 이어지는 거버넌스 기반의 삼천리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함
- (지역참여) 노선 주변에 위치한 거점마을을 조성하여 숙박, 캠핑, 먹거리, 굿즈, 시군별 대표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비즈니스 사업을 추진토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그림 4-12] 전북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의 차별성

4. 노선 및 거점마을 디자인

4-1. 노선 디자인

1) 기본방향

(1) 환경성

- 기존에 있던 노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신규 조성을 최소화 함
- 생태적·민감한 지역과 법정보호동·식물 서식지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조성해야 함
- 생태적으로 민감한 숲길이나 옛길 등의 구간은 기존 길의 폭을 최대한 유지함
- 과도한 시설의 설치 및 탐방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함

(2) 안전성

- 자연재해, 낙석, 실족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계획하여 탐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
- 평지 또는 완만한 경사를 갖는 노선을 이용·개발하고 급격한 경사로의 노선은 지양함
- 가급적 위험지역은 노선에서 우회하며,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위험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함
- 위험 예상지역에는 탐방객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주의표시를 설치함

(3) 이용성

- 주변 관광자원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해 다양한 목적의 탐방이 가능하도록 조성함
- 숙박 및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거점마을을 통과하도록 조성함
- 이용 편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적정 위치에 각종 이용 안내시설을 설치함
- 주변 지역마을,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조성하고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함

(4) 지속가능성

- 경관, 환경, 기능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설계함
-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운 장소나 운영관리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노선은 배제함
-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과다한 비용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설계는 배제함
- 조성 이후 정비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함

- 지역의 거점마을을 통해 연계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탐방객의 체험을 지원함

2) 조성원칙

- 기존에 있던 길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과도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노선 조성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함

3) 노선 디자인

(1) 걷기 노선

- 보도, 임도 등 기존에 있던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걷기 노선을 조성함
- 걷기 노선의 폭원은 최소 1.2m 이상을 확보하고 탐방객의 안전과 보행 편의를 위해 2.0m까지 할 수 있음
- 기존 임도의 경우 노선 폭원이 1.2m 미만인 경우에는 벌개제근 등을 통하여 노선 폭원을 확보함
- 과도한 하드웨어 시설의 도입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노선으로서 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함
-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노선이 단절되거나 걸을 수 없는 노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
- 신규로 조성하는 걷기 노선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소재로 설계함
- 걷기 노선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황토길 또는 맨발 걷기길 등을 조성할 수 있음
- 산지나 경사지 등은 데크 등을 설치하여 길을 연결하고 위험구간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함
- 휴게시설, 안내시설 등을 설치할 때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함
- 도로 건너나 횡단하는 걷기 노선의 경우 반드시 안전시설을 설치함

[표 4-3] 걷기 노선 디자인 방향

구분	걷기 노선	
	기존 노선 활용	신규 조성
내용	노선 폭원 확보를 위해 벌개제근 등의 조치 후 친환경소재 포장 적용	친환경소재 포장 적용 및 경사지 극복을 위해 데크, 안전시설 등 설치
		

(2) 걷기 및 자전거 혼용노선

- 보도, 자전거도로 등 기존에 있던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노선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가급적 친환경소재로 설계함
- 걷기 및 자전거 혼용노선은 최소 2.0m 이상의 폭원을 확보하여 탐방객과 자전거 이용자의 충돌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함
- 걷기 및 자전거 혼용노선은 일정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절 없이 연속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자전거 이용자와 탐방객 모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함
- 걷기 및 자전거 혼용노선은 자전거 등의 교통 및 이용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설계함
- 걷기 및 자전거 혼용노선은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함
-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탐방객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함

[표 4-4] 걷기 및 자전거 혼용노선 디자인 방향

구분	걷기 및 자전거 혼용노선	
내용	기존 보도, 자전거도로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노선을 확보하고 친환경소재 포장 적용	

4) 공공시설물 디자인

(1) 기본방향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없는 경우 신규 설치함
- 신규 공공시설물의 경우 색채, 재료, 형태 등 일관성을 고려한 동일한 디자인 적용을 권장함

로고

- 공공시설물의 통일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BI를 사용함
- 삼천리길을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함

색채

- 공공시설물은 색채는 전북특별자치도 BI(로고) 개발에서 제시한 전용 색상을 사용함

MAIN COLOR	C83 M54 Y0 K0	
POINT COLOR	C5 M21 Y85 K0	
SUB COLOR	C0 M0 Y0 K30 / C0 M0 Y0 K85 C5 M21 Y85 K0 / C80 M62 Y22 K30 C100 M90 Y41 K4 / C0 M72 Y88 K0	

[그림 4-13] 전용 색상 규정

재료

- 경관의 연속성 확보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함
- 친환경적이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 사용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함
- 유지관리 및 보수가 유리한 재질로 사용함
- 공공시설물의 재료는 친환경소재를 원칙으로 하며 목재, 석재, 스틸 사용을 권장함
- 목재는 무색도료(오일스테인)로 표면 처리하며, 무색도료 처리에 따른 색채변화를 고려함
- 스틸은 내구성이 있는 무광도료로 표면 처리 및 녹방지 처리함

정보 표시

- 정보의 전달성 및 가독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색채가 그래픽의 사용을 지양함

✚ 유니버설디자인

- 연령, 성별, 신체 능력,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함
- 모든 탐방객이 편리하도록 인체 공학적 치수로 설계하고 규격화 된 크기로 탐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 적용함
- 안내시설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다국적 정보표기 및 픽토그램(Picture + Gram)을 적용함

✚ 유지관리

-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표준화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함
- 공공시설물이 보행 및 이동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함
- 유사한 기능의 공공시설물은 통합하여 설치함

(2) 휴게시설

- 휴게시설은 탐방객의 휴식을 위한 소규모 쉼터로 제한함
- 휴게시설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함
- 크기 및 구조는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함
- 휴게시설 설치시 주변 시설물과의 연계성 및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여 설치함
- 휴게시설은 목재 사용 및 조명과 인접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함

✚ 파고라

- 탐방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와 재료 및 위치를 선정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함
- 모든 탐방객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인체공학적 치수로 디자인함
- 콘크리트와 인조목 및 유색페인트 도장 등의 사용을 금지함

■ 형태 및 구조

- 최소한의 구조와 개방성이 확보되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함
- 우천시 배수가 용이하도록 지붕 기울기를 주어야 함

■ 설치 및 배치

- 통일감 있는 의자를 함께 설치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함

- 지붕면 등을 활용하여 조명 등의 부속시설을 매입할 수 있도록 디자인함
- 결합부위를 정교하게 마감처리하고 고정되는 하부구조는 눈에 띄지 않도록 지면과 동일하게 마감함

■ 재질 및 색채

- 자연소재는 재료 그대로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함
- 지붕은 자외선 및 열에 의한 변색이나 형태 변화가 크지 않은 재료를 사용함
- 탐방객과 접촉이 많은 표면은 오염에 강하고 청소가 용이한 재료로 마감함



[그림 4-14] 파고라 사례이미지

✚ 의자

-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함
- 모든 탐방객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인체공학적 치수로 디자인함
- 보행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간격 또는 필요한 위치에 알맞은 수량으로 설치함

■ 형태 및 구조

- 신체와 접촉하는 모든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함
- 다른 시설물과 같이 배치시 형태와 색채 등 통일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함
- 한국인의 치수를 적용하여 좌판의 높이는 $400 \pm 50\text{mm}$ 내외로 디자인함
- 고정형으로 설계하되 설치 및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함
- 좌판은 빗물이 고이지 않고 건조가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함
- 좌판 및 등받이는 목재 사용을 권장하며, 목재 사용시 나뭇결 방향이 좌판과 등받이의 장방향과 일치하도록 디자인함

■ 설치 및 배치

- 경사면에 설치하는 경우 의자의 좌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해야 함
- 외관상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하며 접합 부분이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함

- 폐쇄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착석 방향을 고려해 설치함
- 하부의 고정용 볼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함

■ 재질 및 색채

- 좌판은 목재 등 부드럽고 안전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함
- 파손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내구성이 높은 재료와 도료를 사용함
- 자연 재료의 재질감과 색채를 사용하고 고채도의 원색 사용을 지양함



[그림 4-15] 의자 사례이미지

(3) 안내시설

- 안내시설은 통합디자인으로 설계하고 문자방식 보다는 그래픽을 사용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아이콘(픽토그램)을 적용하여 시인성을 높임
- 전체 안내시설의 규격, 색채, 정보 내용은 탐방객의 속도와 행위패턴을 고려하여 적정거리에서 알아 보기 쉽게 하고 불필요한 색채나 그래픽은 적용하지 않음
- 안내시설의 일괄설계 및 통합배치를 통한 형태적 통일성으로 효과적 정보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표시는 정면과 배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방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되 방향성을 고려해 적용함
- 친환경소재를 주로 사용하고 삼천리길 BI를 준용하여 디자인함
- 연속적 안내시설의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함

■ 설치 및 배치

- 공공시설물이나 수목 식재가 시각적으로 방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함
- 하부의 결합부는 기존의 포장재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마감처리함

■ 재질 및 색채

- 지정된 색채를 기본으로 적용함
- 반사성이 강한 스틸 위주의 재질보다는 분체도장 및 무광태 소재를 사용함
- 바탕색과 문자와 기호 등은 서로의 색채를 대비해 알기 쉽게 함

🔗 종합안내판

- 거점마을 및 시·종점에 설치하며 가독성과 사용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함
-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문자와 픽토그램을 함께 명기하고 불필요한 색채나 그래픽 사용은 자제함
- 설치 변경이나 이동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함



[그림 4-16] 종합안내판 사례이미지

🔗 시설(공간)안내판

- 시설(공간)안내판은 종합안내판을 기본으로 하고 정보패널의 수량 변경 및 구조체의 가로폭에 변화를 주어 디자인함
- 시설(공간) 안내를 위한 단순 명료한 안내판을 설치하며 규모를 최소화하여 디자인함
- 정보체계의 일관성으로 가독성을 높임
- 주요 시설이나 자원, 마을 입구, 결절부 집객지점 등에 설치함
- 탐방객의 눈높이를 고려한 크기로 디자인 및 설치함



[그림 4-17] 시설(공간)안내판 사례이미지

방향안내판(이정표)

- 기 설치된 다른 지주 시설물(기존 방향안내판 등)과 통합 설치하고, 지주 시설물이 없는 경우 추가 설치함
- 일관성 있는 디자인과 정보체계의 수립, 간결한 구조로 디자인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높임
-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며 누구나 정보를 읽기 쉽게 디자인함
- 방향 지시 정보가 명확해야 하며, 지장물 등에 가려지지 않게 설치함
- 최소한의 규격으로 시인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함



[그림 4-18] 방향안내판(이정표) 사례이미지

위험(응급/우회)안내판

-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사용하며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을 적용함
-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위험지역에 설치하며 응급 상황시 응급처치 절차, 주요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연락처, 대피공간,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 등을 기입할 수 있도록 디자인함



[그림 4-19] 위험(응급/우회)안내판 사례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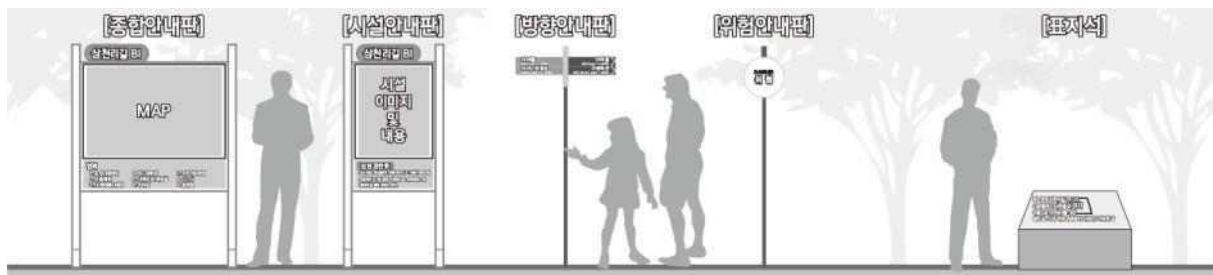
표지석

- 삼천리길 각 노선의 시작과 끝을 알릴 수 있도록 노선의 시·종점에 석재를 사용하여 디자인함
-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사용하며 각 노선의 전체 경로와 주요시설 위치 등을 표기함



[그림 4-20] 표지석 사례이미지

안내시설 예시



[그림 4-21] 안내시설 예시

(4) 안전시설

- 안전상 교량 통과지역, 보행로와 차로의 분리가 필요한 곳,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출입으로 사고가 우려되는 곳 등 보행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에는 가급적 안전시설을 설치함

안전웬스

- 안전웬스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디자인함
- 안전웬스는 보행자, 자전거, 차량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디자인함
- 시각적으로 답답한 느낌을 주거나 단절되는 디자인을 금지함

■ 형태 및 구조

- 노선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기능성을 충족시키며 부피감을 최소화하여 디자인함
- 설치공간의 환경(단 차이, 경사 등) 변화에 따라 시공과 유지관리가 쉽도록 디자인함
- 형태를 모듈화하여 다양한 길이로 연장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함
-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용접방식을 지양하고 볼트 등을 이용하여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함

- 지지대와 앵커볼트 등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함

■ 설치 및 배치

- 바닥면의 기울기와 상관없이 수평 또는 수직을 이루도록 설치함
- 지면의 마감을 정교하게 처리하여 돌출되는 면이 되도록 디자인함

■ 재질 및 색채

-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스틸을 주재료로 권장함
-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무채색 사용을 권장함
- 야간에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밝은 색채를 적용하거나 야광 표지판 등을 부착할 수 있음
- 주행에 방해할 수 있는 유광재료를 지양하고, 표면은 내구성이 있는 도장(무광)으로 마감처리함



[그림 4-22] 안전휀스 사례이미지

(5) 노면 정비 및 목재데크

- 노면 정비란 훼손된 노면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는 것을 말함
- 걷기 노선, 걷기 및 자전거 혼용노선의 노면 정비는 친환경소재 및 투수성 포장재를 권장함
- 훼손된 지면이나 경사지, 토양 유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 노면 세굴이 심화되어 지형복원이 어려운 지역 등에는 목재데크를 설치하여 노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함
- 미끄럼이 예상되는 위험구간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처리하여 탐방객의 안전을 고려함

🌿 노면 정비

- 주변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탐방객의 안전과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함
- 평탄성을 유지하며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부위를 미려하게 마감처리함

■ 보도블록포장

- 기존 보도블록과 같거나 유사한 보도블록으로 정비하고 보도블록 간 틈새가 치밀하도록 설치함

- 탐방객의 보행 동선을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함
- 결합 부위는 도출되는 면이 없도록 정교하게 마감처리하고 블록간 틈을 최소화 함
- 보도블럭 설치 후 잉여공간의 시멘트 마감처리는 지양함
- 과도한 패턴 및 색채의 사용 등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는 지양함

■ 보도블럭포장 외 포장재

- 자연상태의 토양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친환경소재의 포장재를 권장함

🌿 목재데크

- 목재데크는 대상지 여건을 고려하여 천연목재, 합성목재 등을 비교 검토하고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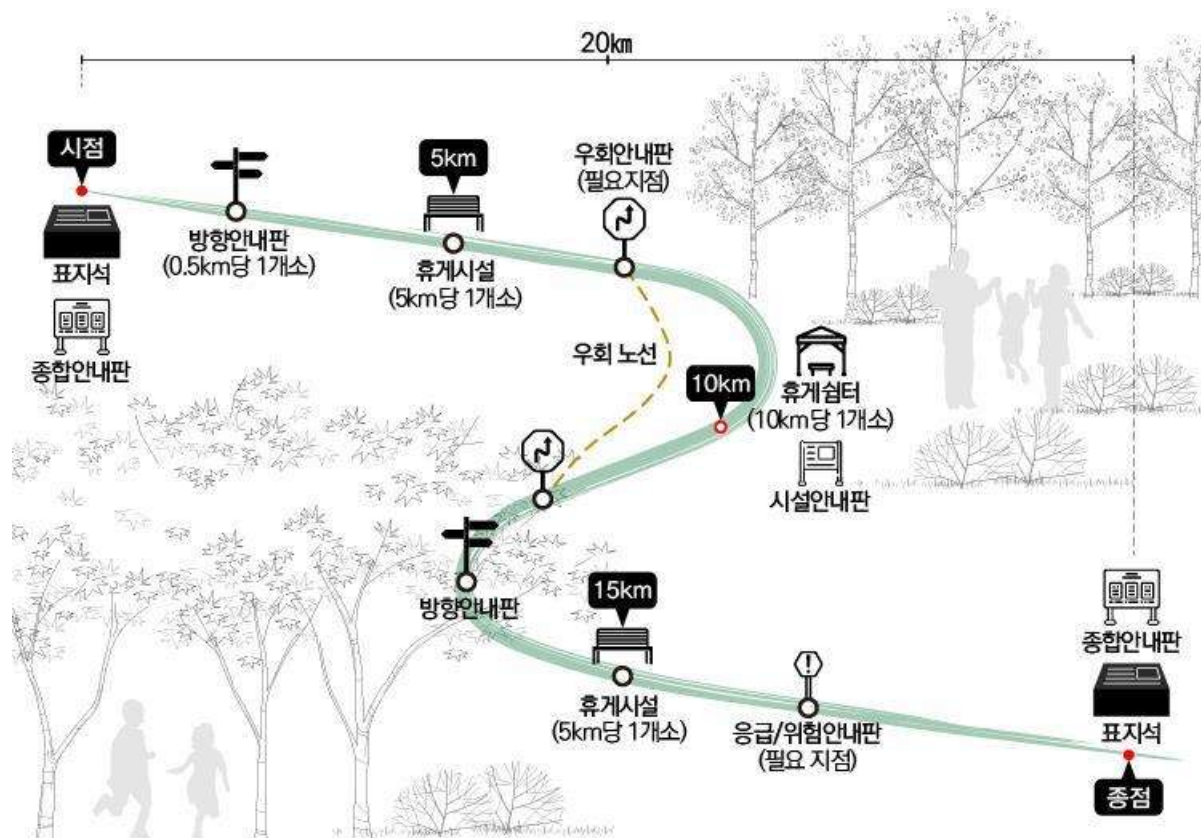
[그림 4-2] 노면 정비 및 목재데크 사례이미지

5) 노선 조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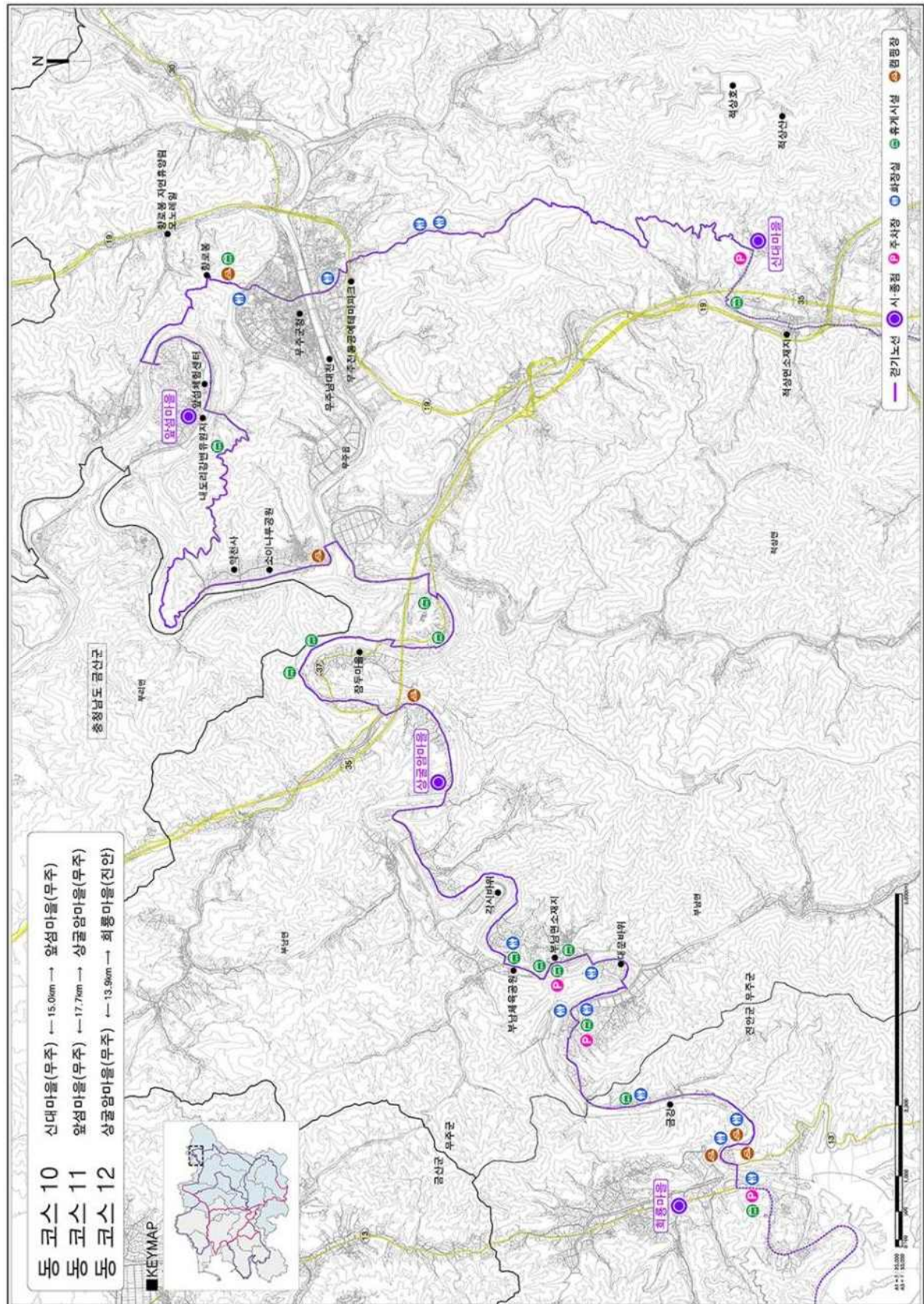
- 탐방객이 쉴 수 있도록 5km를 기준으로 의자, 10km를 기준으로 파고라와 의자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노선 여건상 필요한 지역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노선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지석에는 노선의 경로와 경유지, 화장실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함
- 노선의 시·종점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주변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등 정보를 제공함
- 시설안내판은 주요 시설, 자원, 마을 입구, 결절부 집객지점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설치함
- 기 설치된 방향안내판, 이정표 등 지주시설물을 이용하여 방향안내판을 설치하고 지주 시설물이 없는 경우 갈림길 또는 0.5km를 기준으로 노선 안내를 위한 방향안내판을 설치함
- 일시적으로 우회해야 하는 곳에는 우회로 경로와 소요시간, 거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우회 표지판을 설치함

IV.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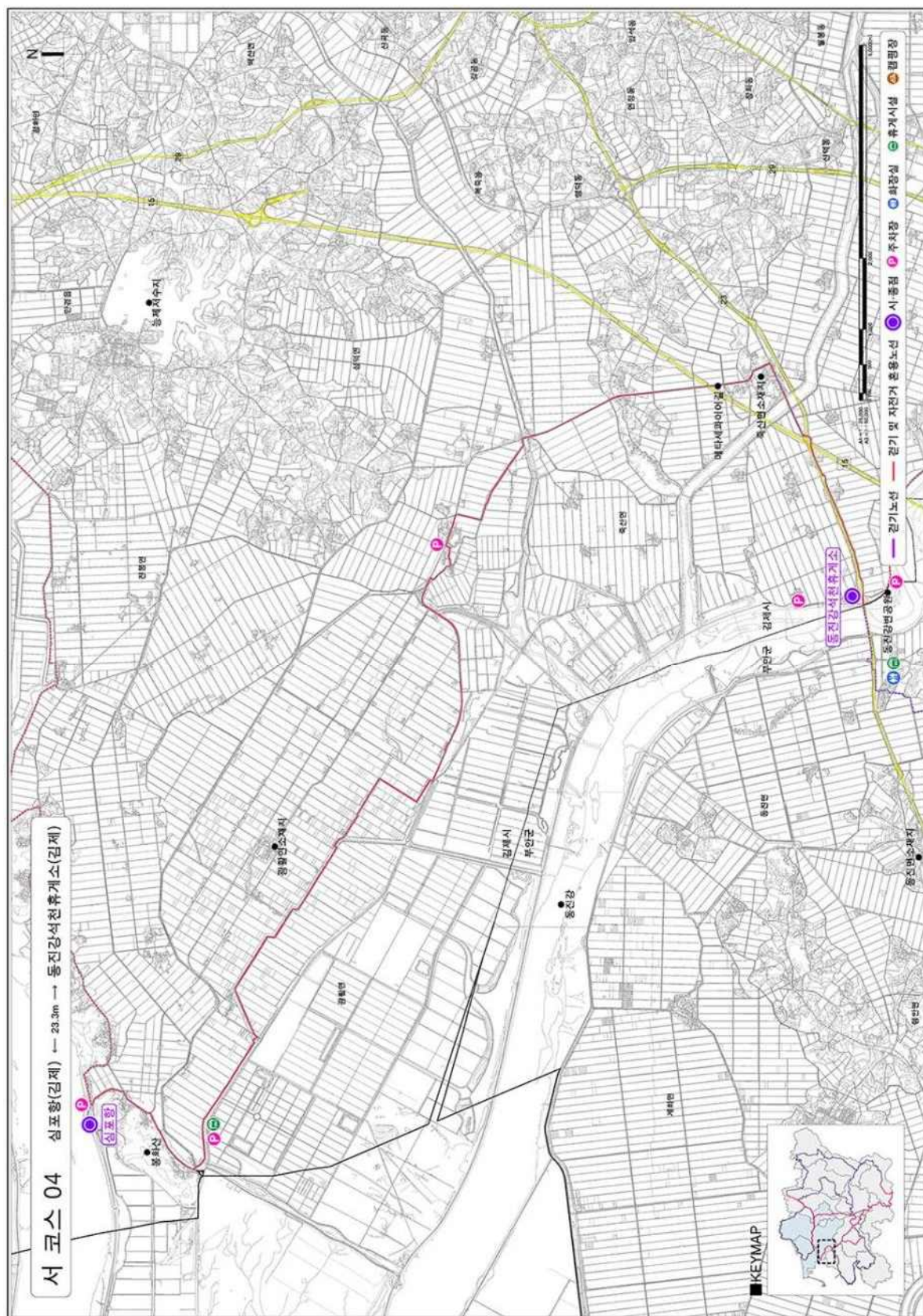
- 위험지역, 응급사항 대처 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위험 및 응급 표지판을 위험지역 등 필요한 지역에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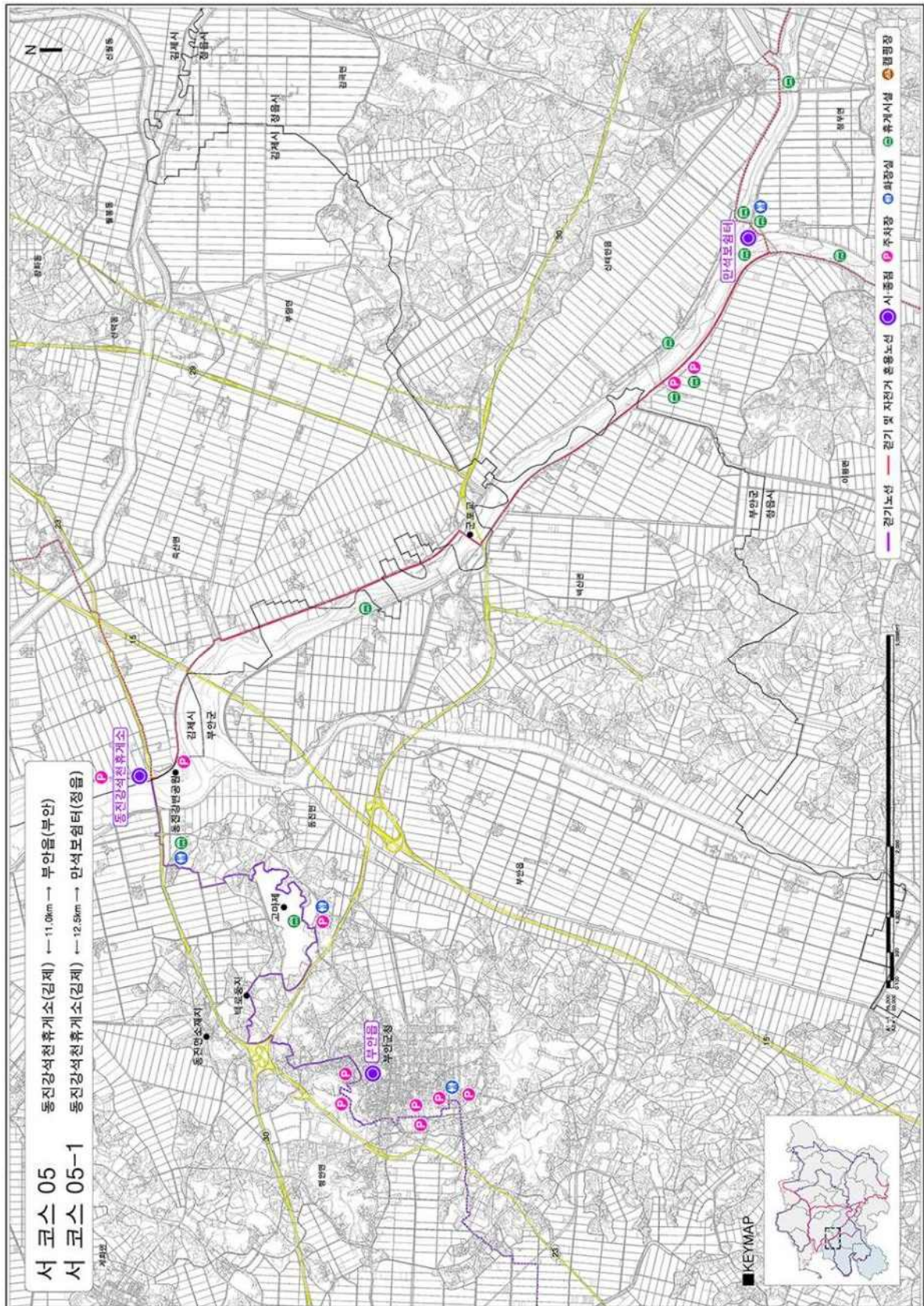
[그림 4-23] 노선 조성 예시 모식도



[그림 4-24] 걷기 노선 (동 코스 10/11/12)



[그림 4-25] 걷기 및 자전거 혼용노선 (서 코스 04)



[그림 4-26] 경기 노선 / 경기 및 자전거 혼용노선 (서 코스 05/05-1)

4-2. 마을디자인

1) 기본방향

- 거점마을은 마을로 탐방객에게 휴식과 힐링, 다채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마을로 '선도거점마을'과 '일반거점마을'로 구분함
- '선도거점마을'은 거점마을 중 각 시·군에서 제안한 마을로 시·군별 1개소를 선정함
- '일반거점마을'은 중간 경유지로서 숙식과 정보 제공, 마을 체험 경험 등을 제공할 수 마을로 시·군별 3~5개소를 선정함
- 선정된 거점마을은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마을 내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 및 연계한 공간계획으로 과도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함

2) 선도거점마을 디자인

(1) 설계 방향

- 삼천리길 걷기 체험의 시작점으로서 마을 비즈니스의 중심지이며, 시·군별 거점마을 총괄하여 운영하며 지원 기능을 집적화시킨 마을임
- 시·군별 거점마을을 지원 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 등 기존 자원 활용 가능한 지역이나, 신축 또는 증축이 가능한 공간이 있는 지역에 방문자센터 등을 설계함

■ 도입시설

- 삼천리길에 대한 종합안내, 교통편의, 주차, 숙식, 탐방 프로그램, 회의, 세탁, 비즈니스, 워크ेशन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문자센터, 주차장, 정류장, 캠핑장, 자전거플랫폼 등을 디자인함
- 시·군별 주요 노선의 시·중점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교통과 연계하고 기존 버스정류장을 활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버스정류장을 설치함
- 차량 이용 탐방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 및 가벼운 탐방 활동을 위한 차량 픽업공간을 조성함
- 걷기 및 자전거 혼용노선을 이용하는 탐방객을 위해 자전거플랫폼을 설치하여 자전거 보관 및 정비 기능을 확보함
- 워크ेशन센터, 게스트하우스 등은 시·군별 여건에 따라 방문자센터와 통합으로 설계할 수 있음
- 방문자센터, 숙박시설 외에도 화장실, 목욕탕 등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계할 수 있음
- 탐방객의 안전 및 방법을 위해 CCTV 및 조명시설 등을 설계할 수 있음

(2) 권역별 선도거점마을 설계 예시

- 동부권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7개, 서부권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정읍, 고창, 부안 7개의 선도거점 마을은 다음과 같음

[표 4-5] 14개 시군선도거점마을

구분	시군	선도거점마을	주요 사항
동부권	남원시	백두대간여가캠핑장	지리산,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완주군	밤티마을	동상계곡
	진안군	은천마을	마이산, 진안C
	무주군	앞섬마을	향로산자연휴양림, 내도리휴양지
	장수군	주촌마을	논개생가마을, 도깨비전시관(연구진 추천)
	임실군	성수산 자연휴양림	성수산자연휴양림
	순창군	유촌마을	섬진강, 섬진강군민체육공원, 향가유원지
서부권	전주시	하봉마을	완산체육공원, 모악산 등산로 입구
	군산시	장미동	군산 근대역사문화지구
	익산시	성당포구마을	용안생태습지공원
	김제시	심포드리마을	심포항, 망해사, 새만금
	정읍시	솔티마을	정읍박물관, 내장산조각공원, 내장산단풍생태공원
	고창군	고창읍중심마을	고창군청, 고창모양성(고창읍성)
	부안군	변산면중심마을	변산면사무소

IV. 기본구상

동부권 선도거점마을

■ 남원시 백두대간여가캠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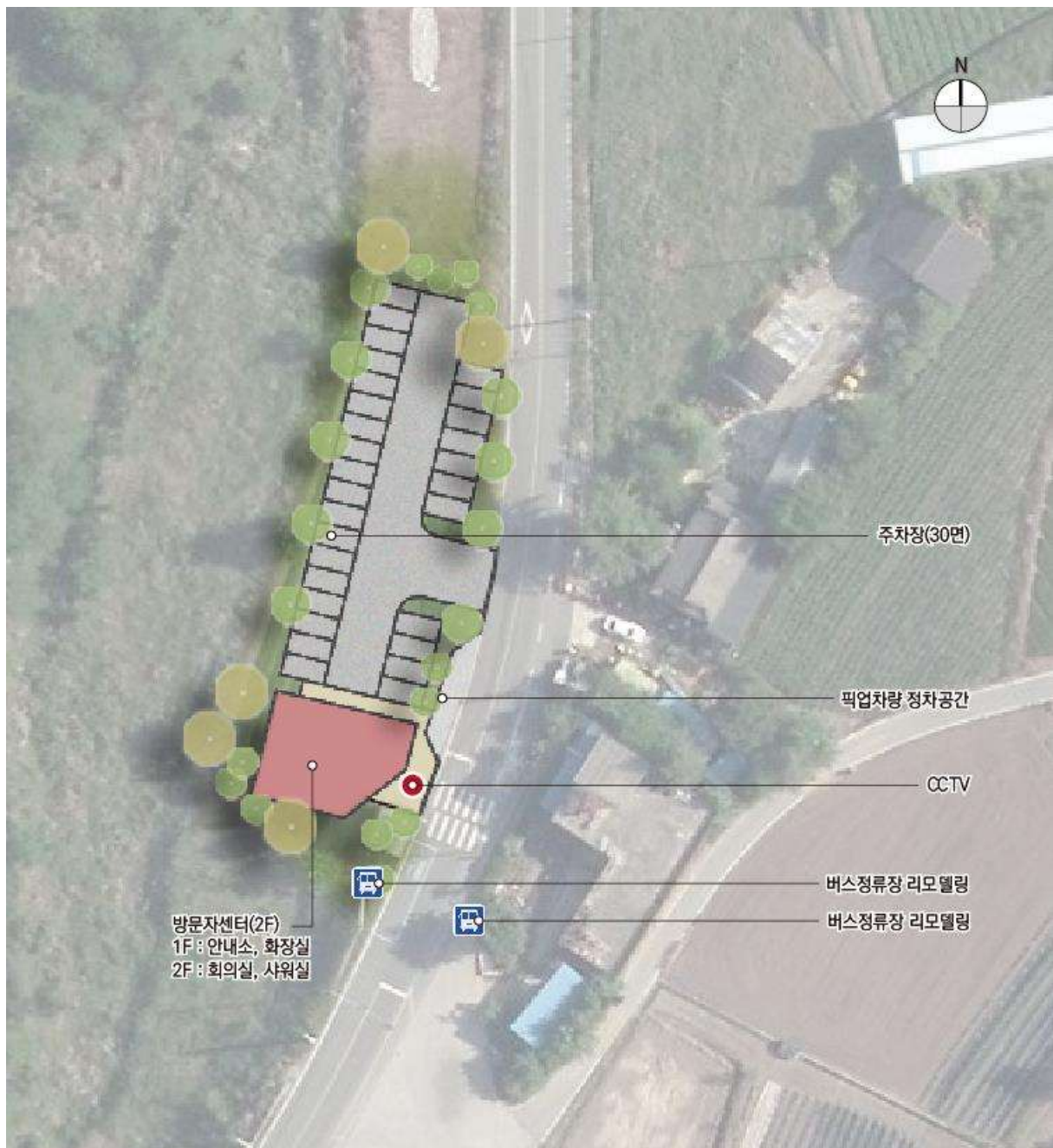
- 기조성 된 백두대간여가캠핑장 내 관리사무소, 캠핑장, 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등을 활용함
- 백두대간전시관을 정비하여 안내소 및 회의실을 조성함



[그림 4-27] 남원시 백두대간여가캠핑장 조성 예시

■ 완주군 밤티마을

- 여유부지를 확보하여 방문자센터(2F)를 신축함
 - 1F : 안내소, 화장실 / 2F : 회의실, 샤워실
- 주차장 30면, 픽업차량 정차공간 조성 및 버스정류장 리모델링, CCTV를 설치함
- 숙박은 마을 안쪽에 위치한 완주 달빛카라반과 밤티 돔 글래핑을 이용함



[그림 4-28] 완주군 밤티마을 조성 예시

IV. 기본구상

■ 진안군 은천마을

- 기존 방문자센터(안내소, 숙박)를 이용함
- 주차장 30면 조성 및 버스정류장 리모델링, CCTV를 설치함



[그림 4-29] 진안군 은천마을 조성 예시

■ 무주군 앞섬마을

- 기존 마을회관과 연계하여 방문자센터(3F)를 신축함
 - 1F : 안내소, 화장실 / 2F : 회의실, 샤워실 / 3F : 게스트하우스
- 주차장 30면, 픽업차량 정차공간 조성 및 버스정류장 리모델링, CCTV를 설치함



[그림 4-30] 무주군 앞섬마을 조성 예시

IV. 기본구상

장수군 주촌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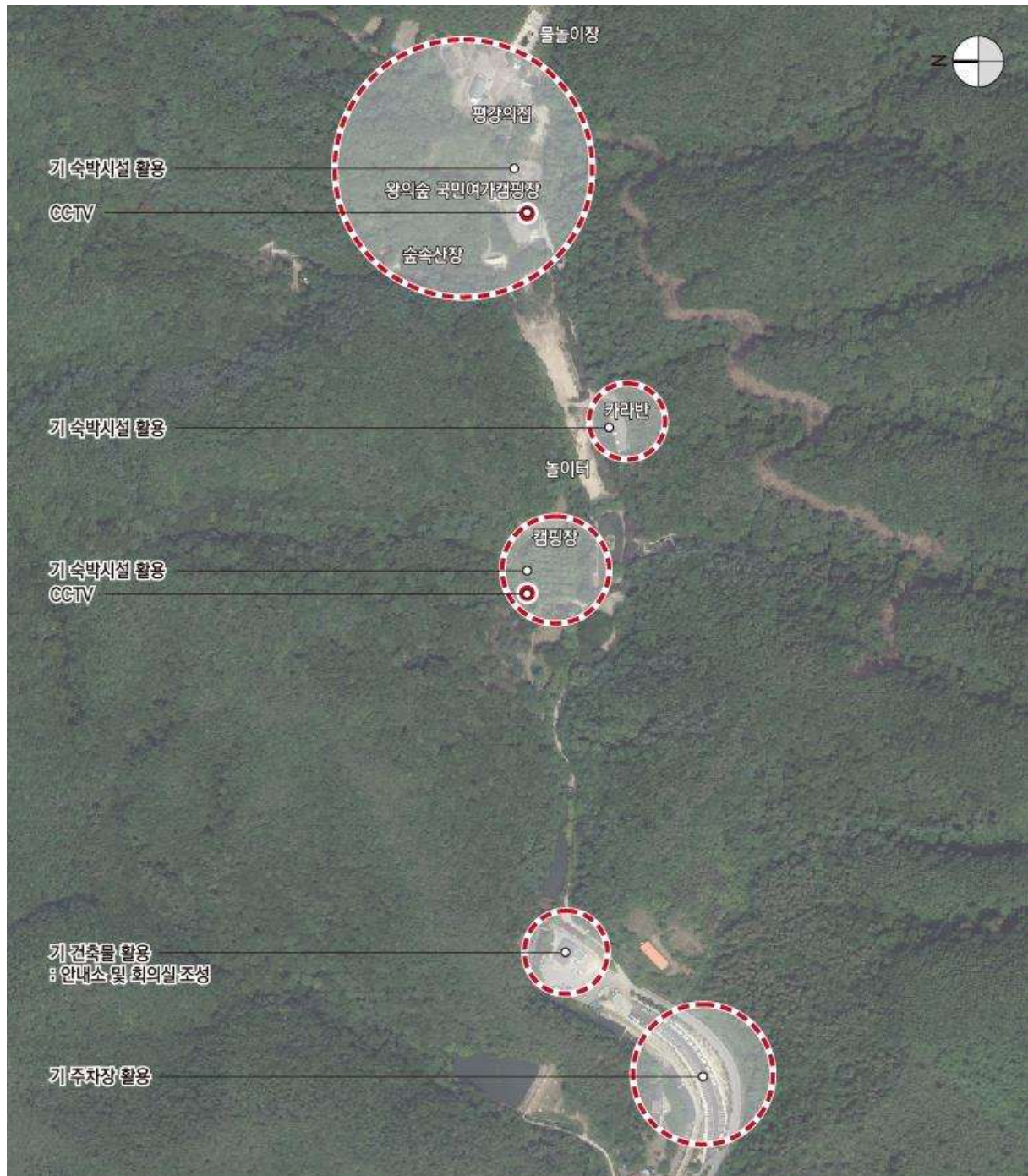
- 기존 장수 도깨비한옥&글램핑, 주차장을 이용함
- 버스정류장 리모델링 및 CCTV를 설치함



[그림 4-31] 장수군 주촌마을 조성 예시

■ 임실군 성수산 자연휴양림

- 기조성 된 방문자센터를 활용하여 안내소 및 회의실을 조성함
- 기조성 된 성수산 자연휴양림 내 캠핑장, 야영장, 숲속산장, 카라반, 주차장 등을 활용함
- 안전 및 방범을 위해 캠핑장 등 필요한 공간에 CCTV를 설치함



[그림 4-32] 임실군 성수산자연휴양림 조성 예시

■ 순창군 유촌마을

- 기존 마을회관, 노인정과 연계하여 방문자센터(2F)를 신축함
 - 1F : 안내소, 화장실 / 2F : 회의실, 샤워실
- 주차장 30면, 픽업차량 정차공간, 자전거플랫폼 조성 및 버스정류장 리모델링, CCTV를 설치함
- 식사 및 숙박은 마을 내 민박을 추천함



[그림 4-33] 순창군 유촌마을 조성 예시

서부권 선도거점마을

전주시 하봉마을

- 기조성 된 완산체육공원 내 관리사무소, 캠핑장, 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등을 활용함
- 기조성 된 관리사무소를 활용하여 안내소 및 회의실을 조성하고 주차장 일부를 캠핑장으로 조성함
- 버스정류장 리모델링 및 안전/방범을 위해 필요한 공간에 CCTV를 설치함



[그림 4-34] 전주시 하봉마을 조성 예시

IV. 기본구상

■ 군산시 장미동

- 기조성 된 근대쉼터를 활용하여 안내소 및 회의실 조성함
- 게스트하우스 등 근대쉼터 주변의 숙박시설과 주차장을 활용함



[그림 4-35] 군산시 장미동 조성 예시

■ 익산시 성당포구마을

- 기조성 된 방문자센터를 활용하여 안내소 및 회의실 조성함
- 기조성 된 캠핑장 및 주차장을 활용하고 안전/방범을 위해 CCTV를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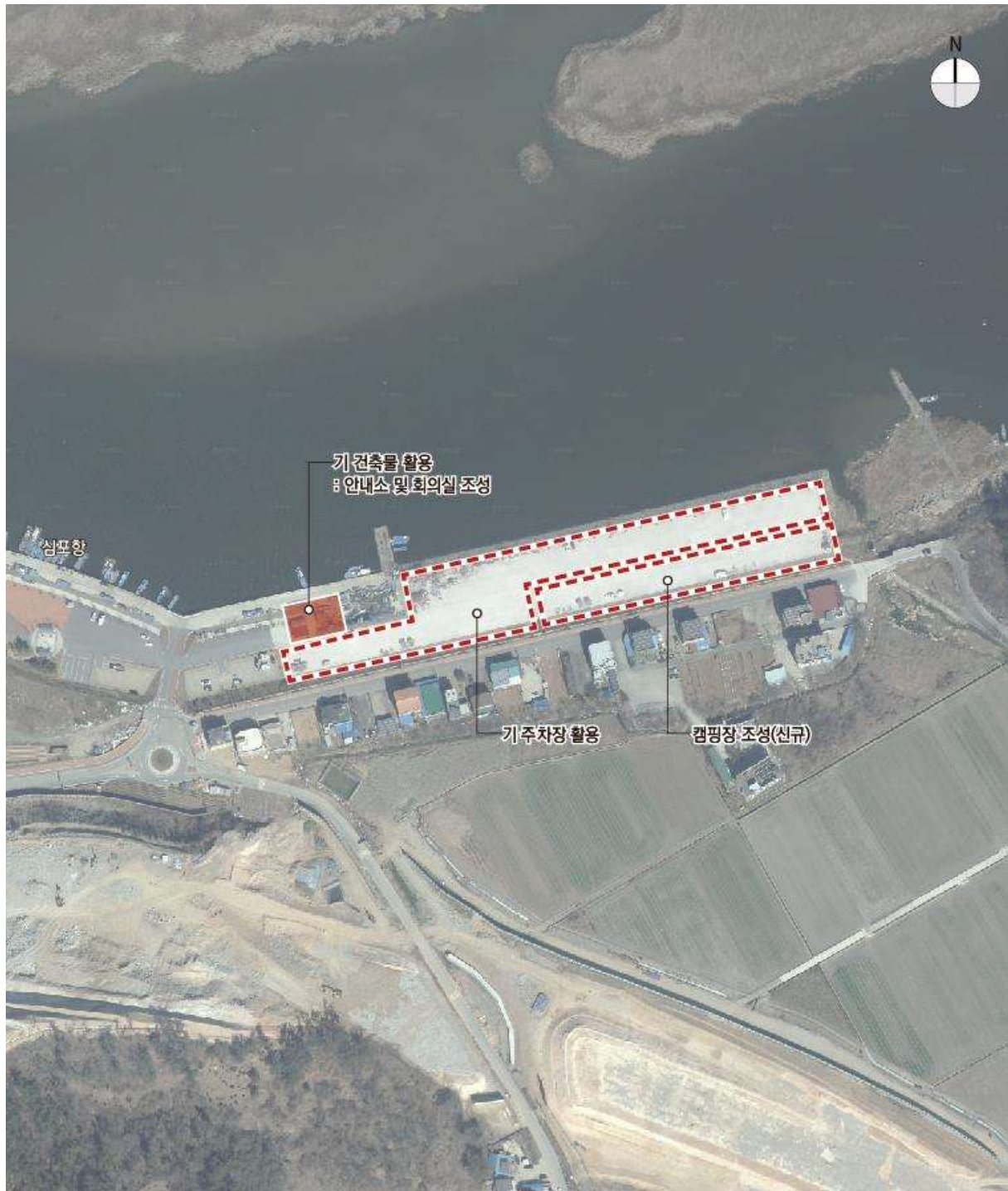


[그림 4-36] 익산시 성당포구마을 조성 예시

IV. 기본구상

■ 김제시 심포드리마을

- 기조성 된 건축물을 활용하여 안내소 및 회의실 조성
- 기조성 된 주차장 활용 및 주차장 일부를 캠핑장으로 조성함



[그림 4-37] 김제시 심포드리마을 조성 예시

■ 정읍시 솔티마을

- 내장산 문화광장 내 기 조성된 건축물 및 시설을 활용함
- 천사하이로즈 건축물 내 안내소 및 회의실 조성하고 캠핑장, 주차장 등을 활용함



[그림 4-38] 정읍시 솔티마을 조성 예시

IV. 기본구상

■ 고창군 고창읍 중심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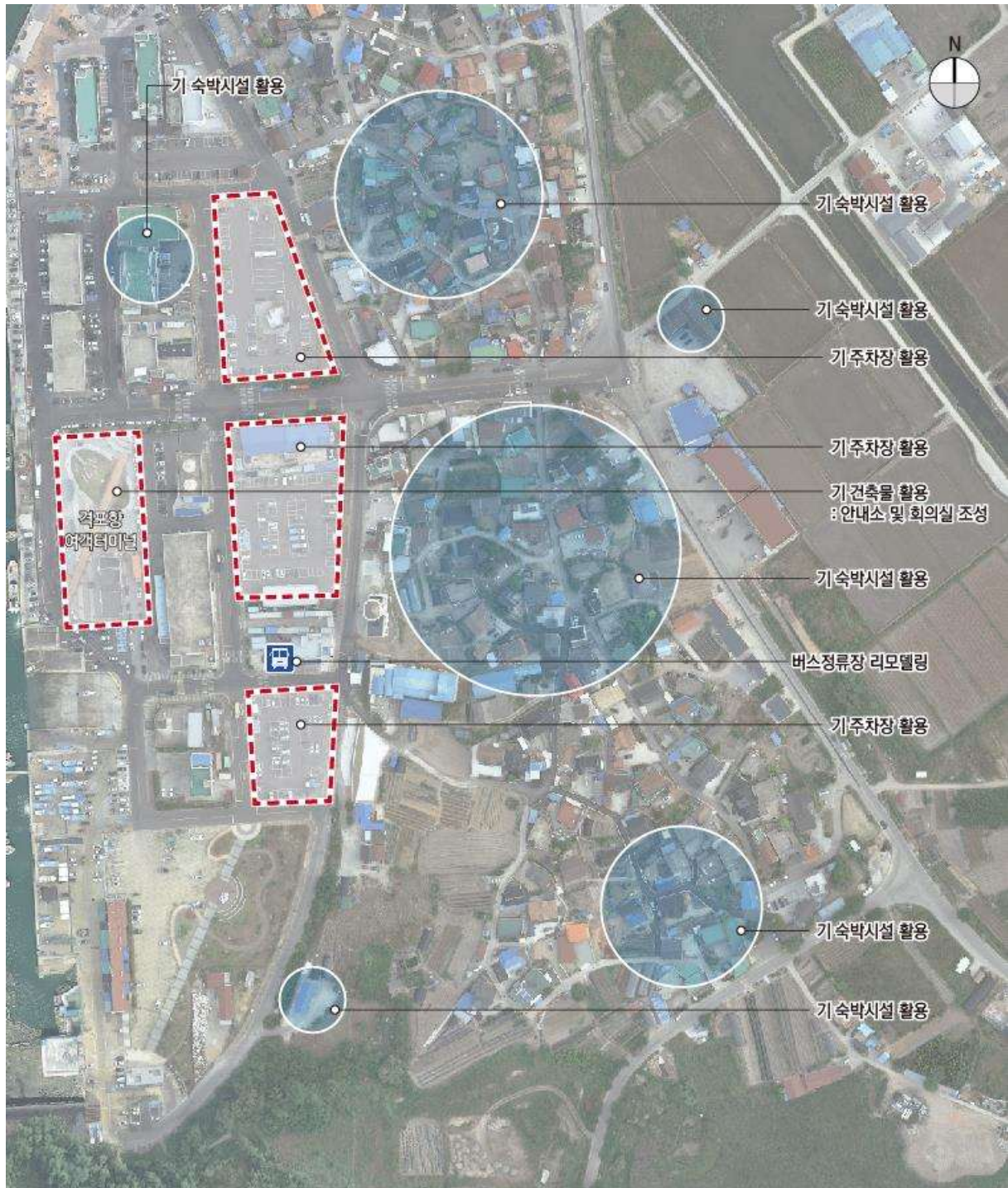
- 기조성 된 고창문화의전당을 활용하여 안내소 및 회의실 조성함
- 기조성 된 고창읍성한옥마을 숙박시설 및 주차장을 활용함



[그림 4-39] 고창군 고창읍 중심마을 조성 예시

■ 부안군 변산면 중심마을

- 기조성 된 격포항 여객터미널을 활용하여 안내소 및 회의실 조성함
- 격포항 주변의 기 조성된 숙박시설 및 주차장을 활용함



[그림 4-40] 부안군 변산면 중심마을 조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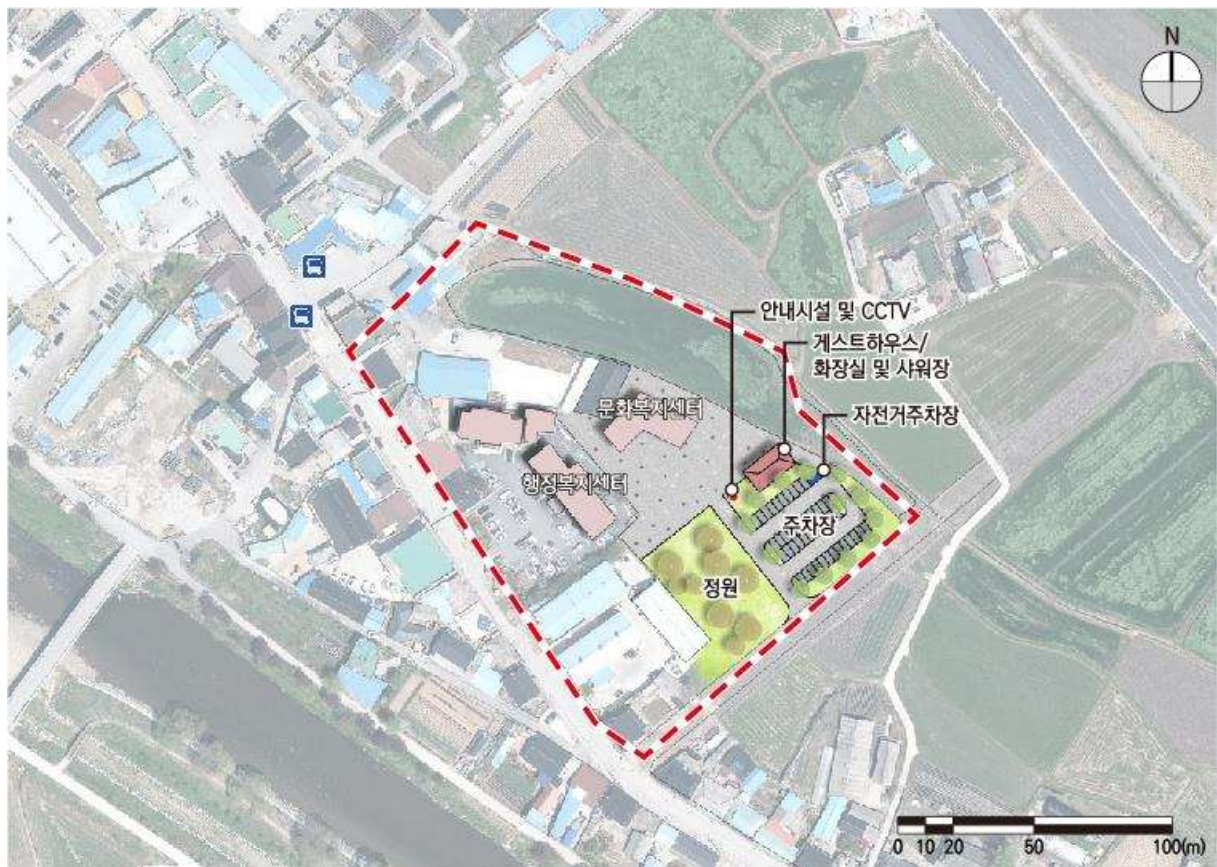
3) 일반거점마을 디자인

- 삼천리길 중간 경유지로서 숙박과 정보 제공, 마을 체험 경험 등을 제공하는 마을임
- 행정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기존 자원과 연계 가능한 지역이나 빈집 활용 가능한 지역, 캠핑장, 샤워장 등을 신축 가능한 공간이 있는 지역에 설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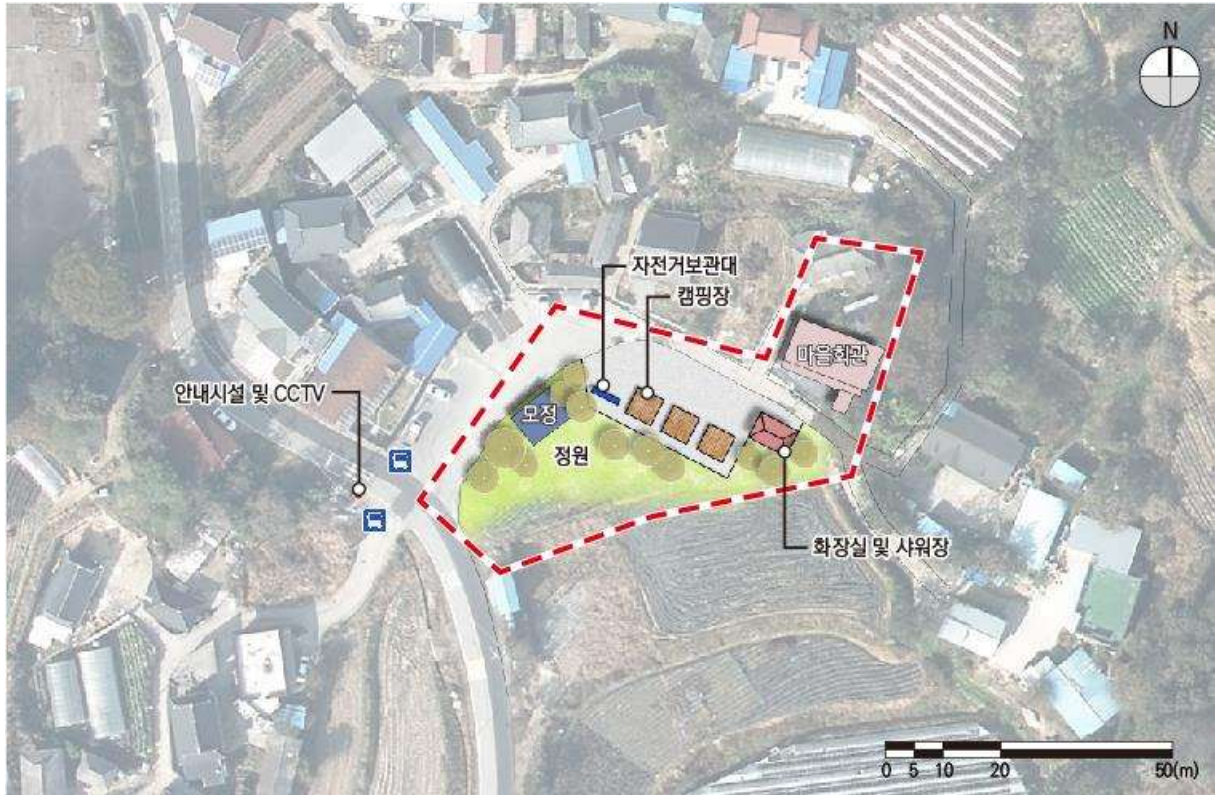
■ 도입시설

- 삼천리길에 대한 정보 확인, 휴식, 숙박, 마을 생태/문화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을정원, 간이쉼터, 캠핑장, 화장실, 자전거보관대 등을 디자인함
- 숙박시설이 없는 거점마을은 게스트하우스나 빈집 리모델링, 캠핑장 등을 조성하여 탐방객의 숙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함
- 숙박시설 외에도 화장실, 샤워장 등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계할 수 있음
- 탐방객의 안전 및 방법을 위해 CCTV 및 조명시설 등을 설계할 수 있음

■ 일반거점마을 조성 예시



[그림 4-41] 일반거점마을 예시 (읍면소재지형)



[그림 4-42] 일반거점마을 예시 (마을형 : 마을회관 인접)



[그림 4-43] 일반거점마을 예시 (마을형 : 빈집 활용)

4) 공공건축물 디자인

(1) 기본방향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신축함
- 신규 공공건축물의 경우 색채, 재료, 형태 등 일관성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을 권장함
- 입면 디자인 계획시 삼천리길에 대한 중심 기능을 담당하는 건축물로서의 인지성을 확보함
- 층별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계획에 따라 세부시설을 연계·분리하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를 수립함
- 주변 건축물 기존 동선과의 독립성 및 주변환경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선 및 주출입구의 위치를 선정함
- 주변경관 및 시설현황 등을 고려한 배치 및 경관계획을 수립함
- 일조, 채광, 조망, 통풍, 시각적 개방감 확보 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함
- 진입공간 및 휴게공간 등 탐방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외부공간을 제시하고 마을정원을 배치함
- 건축물의 규모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함

로고

- 공공시설물의 통일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BI(로고)를 사용함

색채

- 공공시설물은 색채는 전북특별자치도 BI(로고) 개발에서 제시한 전용 색상을 사용함
 - MAIN COLOR : C83 M54 Y0 K0
 - POINT COLOR : C5 M21 Y85 K0
 - SUB COLOR : C0 M0 Y0 K30 / C0 M0 Y0 K85 / C5 M21 Y85 K0 / C80 M62 Y22 K30 / C100 M90 Y41 K4 / C0 M72 Y88 K0

재료

- 공공건축물의 재료는 친환경소재를 원칙으로 하며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경관의 연속성 확보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함
- 유지관리 및 보수가 유리한 재료를 사용함

(2) 방문자센터

- 시·군별 거점마을 지원을 위한 방문자센터는 선도거점마을에 배치함
-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실 및 10여명 이상이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 등을 조성함
- 탐방객을 위한 안내공간 및 휴게공간을 조성함
- 차량 이용 탐방객을 위한 주차장(최소 30면)을 조성함
- 가벼운 탐방 활동을 위해 짐 보관·이동 및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시켜주는 픽업공간을 조성함
 - 예시 : 1F 안내소(50㎡), 자전거플랫폼(250㎡), 화장실(남 소변기4, 양변기2 / 여 양변기6)
 - 2F 워크ेशन룸(100㎡), 사무실 및 회의실(250㎡), 화장실(남 소변기2, 양변기2 / 여 양변기4)
 - 3F 게스트하우스(5실, 150㎡), 목욕탕(200㎡)

(3) 워크ेशन센터

- 시·군별 특성 및 탐방객의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함
- 장기 탐방객의 사무 업무를 위한 공간을 설계함
- 방문자센터 내 워크ेशन센터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음

(4) 숙박시설

- 게스트하우스는 탐방객의 이용성을 고려하여 방문자센터 내부 또는 외부공간에 설계함
- 마을별 특성에 따라 민박, 빈집 활용, 캠핑장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설계함

(5) 화장실

- 방문자센터, 워크ेशन센터, 숙박시설 등 건축물 내 설계함
- 외부공간에 별도의 화장실을 신축할 수 있음
 - 채광, 환기 등 최대한 자연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실의 높이, 형태, 색채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내부 환기를 위한 강제 배기팬을 설치하되 외부로 노출되는 관련 시설물은 측면을 향하도록 설계함
 - 내부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실외기는 배기팬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계함
 - 출입구 상부에는 캐노피를 두어 채광 및 눈·비가 내릴 경우 정체공간을 배려함

- 탐방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외벽 상부에 화장실 픽토그램 사인과 조명을 반영해 설계함
- 내구성이 강하며 조립식 구조로 설계할 수 있는 알루미늄과 스틸을 주재료로 설계함
- 바닥은 배수를 고려하여 자기질 타일을 설치하며 미끄럼이 적은 엠보싱 타일의 적용을 권장함
-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여 보도와 화장실 바닥과의 단차 변화를 주지 않음. 단, 단차 변화가 불가피한 경우 경사로를 설치함
-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선과 시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출입로를 설계함
- 안전을 고려하여 진입로와 출입구 주변에 조명을 설치함

(6) 샤워장

- 방문자센터, 위케이션센터, 숙박시설 등 건축물 내 설계함
- 외부공간에 별도의 샤워장을 신축할 수 있음
 - 남·녀 샤워장을 구분하고 개별 탈의 및 샤워가 가능하도록 설계함
 - 내부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실외기는 배기팬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계함
 - 내구성이 강하며 조립식 구조로 설계할 수 있는 알루미늄과 스틸을 주재료로 설계함
 - 바닥은 배수를 고려하여 자기질 타일을 설치하며 미끄럼이 적은 엠보싱 타일의 적용을 권장함
 -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여 보도와 화장실 바닥과의 단차 변화를 주지 않음. 단, 단차 변화가 불가피한 경우 경사로를 설치함

(7) 자전거플랫폼

- 자전거 이용자가 예상되는 지역에 방문자센터와 연계하여 설계함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자전거 보관 및 정비, 휴게공간을 조성함

[방문자센터]



[게스트하우스 / 빈집 활용]



[화장실]



[그림 4-44] 공공건축물 사례이미지

5) 공공시설물 디자인

(1) 캠핑장

- 마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함
- 자연배수가 잘 되고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에 설치함
- 텐트 1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소 15㎡ 이상을 확보하고, 텐트 간 이격거리를 6m 이상 확보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할 것을 권장함
-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시설 중 일부는 장애인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함

(2) 버스정류장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설치함
- 행정복지센터 등 기존 자원과 연계 또는 신규 조성한 선도거점마을 인근의 버스정류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로 설치함
- 버스정류장 고유의 기능에 충실하며 간결하고 단순한 디자인을 추구함
- 보행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고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함
- 개방감 있는 디자인으로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도와 접하는 면을 최소화함
- 가변성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여 승객과 탐방객 간의 혼잡을 방지함
- 기둥·벽체·지붕으로 구성되며, 보도 내 점유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자, 안내시설 등의 기능시설은 벽체와 일체형을 권장함
- 지붕은 눈비를 고려하여 적정 경사각을 적용하고 조명 등의 부속시설을 매입할 수 있도록 설계함
- 파손이나 훼손시 부분적인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함
- 삼천리길에 대한 정보 및 안내시설은 벽체의 유리면을 활용하여 픽토그램을 적용하며, 안내 정보 외의 그래픽정보는 표기하지 않음
- 목재 등 친환경소재를 활용하여 탐방객에게 안정감 및 친근감을 줌
-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출입구의 위치 및 크기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음

(3) 자전거보관대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설계함
- 자전거주차장은 원형과 사각형 링을 기본으로 설계함
- 자전거주차장은 일관성을 고려한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함
- 구조체를 최소화하여 재료의 사용을 줄이고 공간에 개방성을 부여함
- 탐방객의 편의성, 핸들의 폭 등을 고려하여 보관대간 간격을 설계함
- 자전거와 접촉시 상호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내구성이 강한 도장으로 표면처리(무광)를 함
- 보도폭이 1.5m 이하인 지역에는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금지함

(4) 조명시설 및 CCTV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설계함
- 거점마을 시·종점 부근에 설치하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함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되 통일성을 이루며 간결하게 디자인함
- 조명시설과 CCTV, 교통표지 등은 통합설치를 고려함
- 지주 시설물이나 기존 시설물에 조명시설과 CCTV 등을 통합 설치함
- 지주 시설물에 부가적인 시설물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 조명시설의 재료는 스틸을 주재료로 사용함
- 야간 운전자 등을 고려하여 고풍택 금속재료의 사용을 지양하며 반사도가 적은 무광처리함
- 조명시설 램프의 색상에 주의하며 눈부심이 적고 광효율이 높은 LED를 사용함

[캠핑장]



[버스정류장]



[자전거보관대]



[그림 4-45] 공공시설물 사례이미지

5. 에코캠핑 삼천리길 BI

5-1. 네이밍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장거리 걷기 길을 상징성과 지역적 특이성, 대중성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불릴 길 명칭을 발굴함
- 길 명칭은 전문업체와 함께 1차 ~ 4차 시안을 발굴하고 도민공모를 통해 최종 후보군을 결정함

[표 4-6] 네이밍 발굴 개요

구분	내용
전문업체	· 기간 : 2023. 11. ~ 2024. 03 · 내용 : 네이밍 발굴 방향 결정, 1차~4차 시안 도출(방언활용, 지명활용 등)
공모	· 기간 : 2024. 03 ·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장거리 걷기 길 명칭 · 방법 : SNS 온라인 홍보 + 전북연구원 모니터링단 홍보 · 시상 : 총 5개 선정, 선정작 당 상금 20만원

- 최종적으로 선정된 네이밍 후보 15건은 아래와 같음

[표 4-7] 길 이름 '네이밍 최종 후보군'

순	이름	의도	비고
1	전북 까락(까락)길	전북의 방방곳곳을 모두 아우르는 길 (까락 : 방방곳곳을 뜻하는 전북 방언)	공모
2	전북 산천리길	전북의 매력적인 산과 하천, 그리고 마을이 있는 길	공모
3	전북 에움길(에움길)	전북의 아름다움을 천천히 음미하며 걷는 길(에움 : 지름길의 반대말)	공모
4	전북 두발로(길)	두 발로 여유롭게 천천히 걷는 길	공모
5	전북 숨길	전북의 숨길 수 없는 매력 만점의 길, 전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길	공모
6	전북 얼썩길	전북의 맛과 멋이 있어 저절로 흥이나는 길	공모
7	전북 아우름길	전북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길	공모
8	전북 새미길	자연 그대로, 언제나 변함없는 '온새미로'에서 착안. '새로운 미래'의 축약	공모
9	전북 유랑길(유람길)	전북을 자유롭게 유랑하는, 유람하는 길	공모
10	전북 솔찬한길, 전북 솔찬길	전북의 역사, 자연, 문화가 솔찬한 길 (솔찬 : '대단하다', '상당하다'의 전북 방언)	공모
11	전북 이음길	전북의 자연, 지역, 사람을 잇는 길	개발
12	전북 누빔길	전북 방방곳곳을 누빌 수 있는 길 (누빔 : 두 겹의 천 사이에 솜을 넣고 출지게 박는 바느질)	개발
13	전북 오운길	전북 5(오)개 천혜의 운해가 있는 길 (5운해 :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금강, 낙동강)	개발
14	전북 온비길	온전(완벽)한 비단길(온전 : 전북의 어원 / 비단 : 비단 같은 평야, 강줄기)	개발
15	전북 삼천리길	총 길이 약 삼천리(1,200km)로 전북을 연결하는 길 ※ 삼천 : 문학적 과장 표현으로 '많다, 높다,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수식어'로 사용	기존

5-2. 삼천리길(가칭) BI

■ 개요

- 삼천리길은 광역과 광역을 잇는 최상위 위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길과 구분되면서 삼천리길 노선의 특성이 노출되는 통합 BI가 필요함
- 통합 디자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도목인 ‘은행나무’를 기본 베이스로 미래적 희망과 자연경관이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이미지를 구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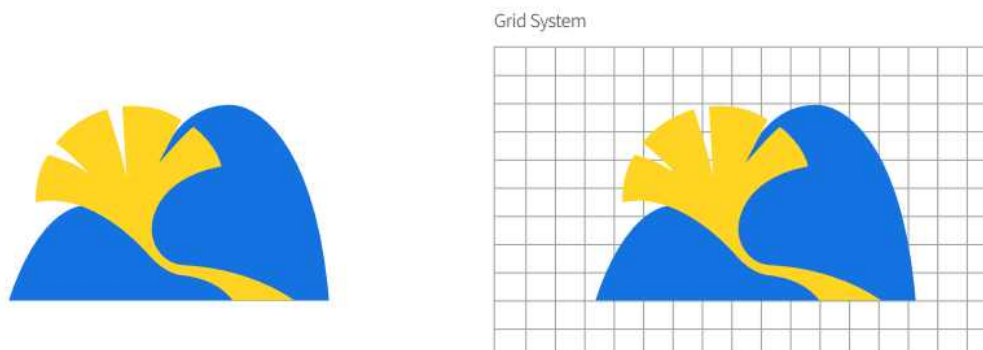
■ 통합 BI 구상 기준

- 통합 BI는 다음 세 가지를 반영함
 - 첫째. 길 위계 구분
 - 둘째. 길 방향성 표시
 - 셋째. 길 난이도 표시



[그림 4-46] 에코캠핑 삼천리길 BI 기본 방향

■ 최종 시안



[그림 4-47] 에코캠핑 삼천리길 BI(안)

■ 위계 구분

○ 레벨 1 ~ 레벨 3단계 위계 맞게 색깔로 구분함

- 광역길 : 녹색
- 지역길 : 파란색
- 마을길 : 주황색

[표 4-8] 에코캠핑 삼천리길 위계에 따른 색상 구분

단계	길 명	역할	관리주체	BI 적용
레벨 1	광역길 (삼천리길)	· 지역 내 핵심 지역을 거치면서 도시와 도시, 광역과 광역을 연결	통합지원센터	
레벨 2	지역길	· 한 개 시군 내에서 거점마을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길(천리길 연결구간, 국가 탐방로 연결구간, 지역등산로 등)	시군	
레벨 3	마을길	· 하나의 읍·면·리 단위에서 특정 활동에 특화된 기능을 하는 길	시군	



[그림 4-48] 에코캠핑 삼천리길 BI(안) 위계 구분

■ 난이도

○ 직관적으로 난이도가 인식될 수 있도록 점의 숫자로 표기



[그림 4-49] 에코캠핑 삼천리길 BI(안) 길 난이도 구분

■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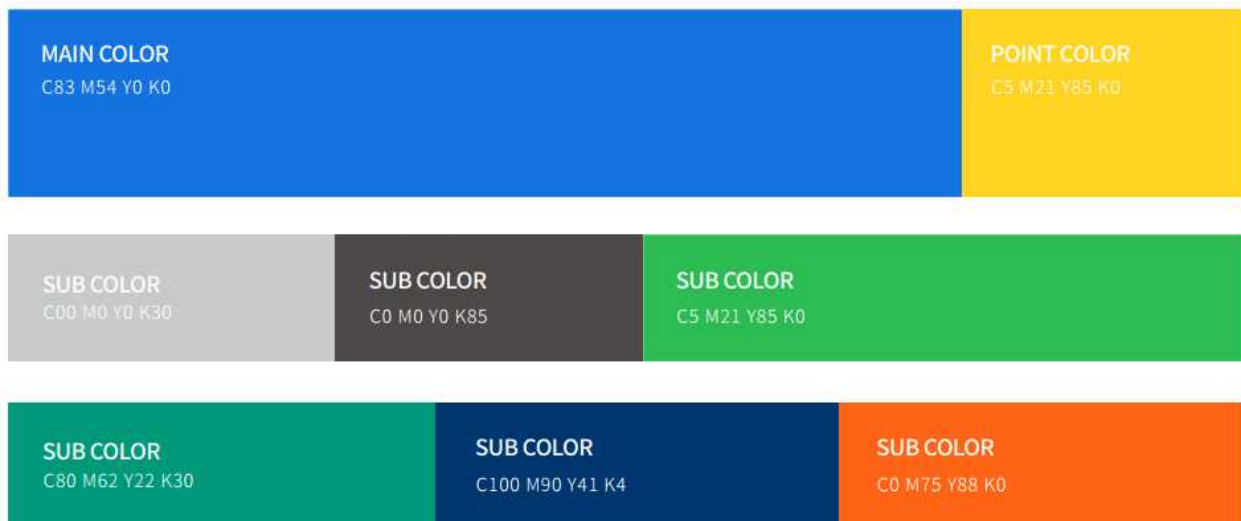
- 직진, 오른쪽, 왼쪽, 통행금지 4가지를 시인성을 반영하여 디자인



[그림 4-50] 에코캠핑 삼천리길 BI(안)_방향성 표시

■ 전용 색상

- 삼천리길 네이밍 및 BI와 조화로운 메인 칼라, 서브 칼라를 지정함



[그림 4-51] 에코캠핑 삼천리길 BI(안)_칼라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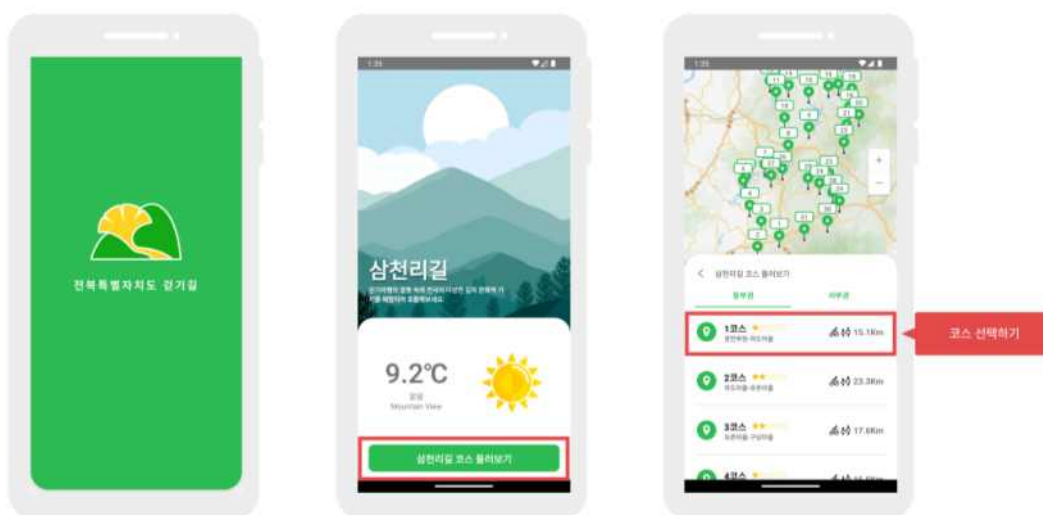
5-3. 통합 길 안내

■ 기본방향

- 삼천리 안내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하나는 현장에 방문하기 전 단계에서 필요한 사전 정보 제공이고 하나는 길을 걷으면서 필요한 실시간 정보 제공임
- 사전 정보 제공은 현재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와 천리길을 중심으로 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편하는 방향이 합리적임
-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휴대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앱(어플리케이션)'이 가장 합리적이며 네비게이션 따라가기, 체류-휴식 정보 제공, 응급상황 대응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추가 기능임

■ '삼천리길' 앱

- 동부권, 서부권으로 구분된 노선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따라가기 기능이 구축된 앱을 개발하였으나 최소한의 기능만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추가 발전이 필요함
- '삼천리길 앱'의 실 주체는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로 삼천리길 개통과 기존 생태관광전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컨트롤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 앱은 삼천리길은 시범운영 기간에 함께 구동 되어 그 결과를 피드백 시킬 필요가 있음
- 제주올레의 사례를 참고하여 차후 활성화 시점에 실시간 예약, 패스(결제), 커뮤니티 형성 등 사용자의 욕구가 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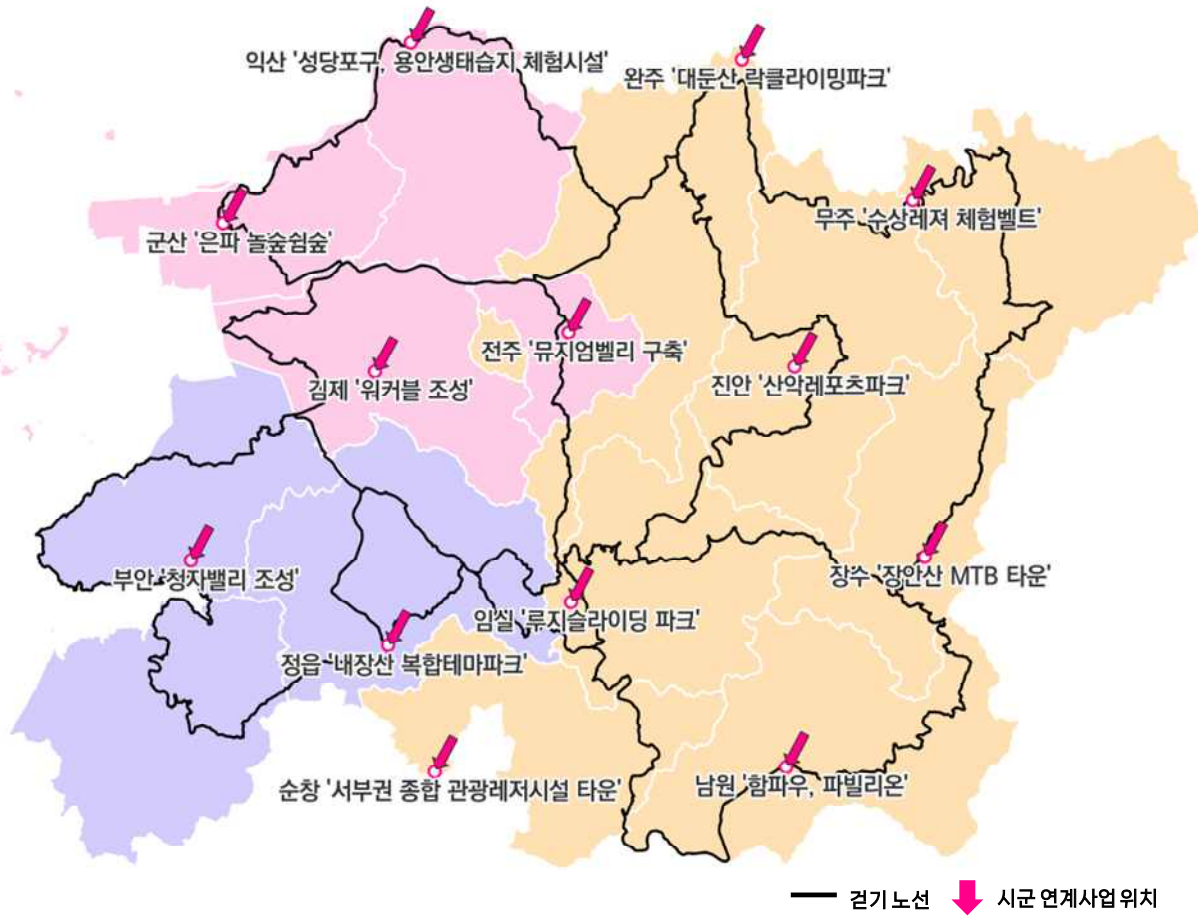
[그림 4-52] 에코캠핑 삼천리길 앱 개발 현황

6. 연계 대표사업

○ 길 조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시군의 대규모 사업과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음

[표 4-9] 삼천리길 연계 사업

구분	시군	사업명	위치	사업비 (억원)	기간	주요 내용
동부권	남원시	함파우 파빌리온	함파우, 운봉	1,000	~ 2033	슈퍼트리, 트리타워 전망대 조성
	완주군	락클라이밍 파크조성	대둔산 일원	200	~ 2027	난이도별 코스 개발, 락클라이밍센터 조성
	진안군	진안고원산악레포츠 파크 조성	용담호, 부귀산 일원	1,500	~ 2033	에코타워, 페러글라이딩, 에코로프웨이 등 조성
	무주군	금강변 수상레저 체험벨트 조성	용담댐 하류	500	~ 2028	레프팅, 수상스키, 체험시설 등
	장수군	장안산 K_MTB 타운 조성	장수누리파크 , 장안산	500	~ 2030	국제 MTB코스, 방문자 센터 조성
	임실군	루지슬라이딩 익스트림파크 조성	임실군 신덕면	300	~ 2028	루지체험 파크, 스카이라이더, 방문자 센터
	순창군	서부권 종합 관광 레저시설 단지 조성	북흥면 일우너	300	~ 2034	루나 포레스트(야영장), 솔라포레스트(유아시설), 페스티벌 등
서남권	정읍시	내장산복합테마파크 조성	내장산 문화광장	100	~ 2033	익스트림스포츠 및 동화마을 테마공간 조성, 순환열차 도입
	고창군	유네스코 역사문화특구 조성사업	고인돌, 운곡습지 일원	465		지방정원조성, 수상레저, 고인돌 생태공원 등
	부안군	부안청자밸리 조성사업	보안면 유천리 일원	250	~ 2033	폐요업 공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서북권	군산시	은파관광지 놀숲 임숲	미제저수지 (은파관광지)	120	~ 2028	커뮤니티 존, 액티비티 존, 뷰티가든 존
	익산시	성당포구 친환경 체험시설 조성	용포리, 성당면	260	~ 2029	성당포구 및 용포관광지 수상관광 도입, 캠핑 및 자전거 기반 개선
		용안생태습지 방문자센터 및 체험시설 도입	용안면 난포리 일원	150	~ 2027	캠핑장 설치, 방문자센터, 수생식물 도감정원, 조류 체험관 등
	김제시	김제 워커블(Walkable) 조성사업	도심권 일원	100	~ 2030	랜트마크 브릿지, 도보인프라 정비 등



[그림 4-53] 삼천리길과 연계 사업과의 관계

V. 노선·거점마을 활성화 방안

1. 노선 스토리텔링
2. 마을 비즈지스의 방향성과 비즈니스 모델
3. 운영관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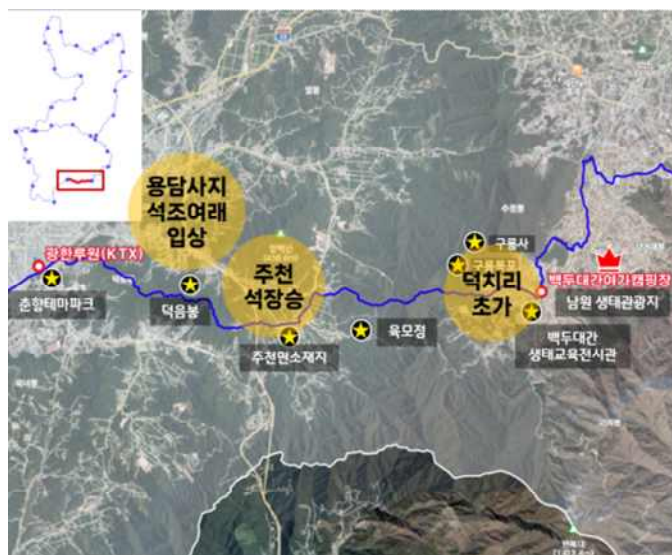
V. 노선 · 거점마을 활성화 방안

1. 노선 스토리텔링

1-1. 동부권

 동 코스 01

- 코스테마 : “시간여행의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초가. 시골을 상징하는 단어이자 이제는 시골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주택. 회덕마을 덕치리 초가는 시골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곳 그리고 마을을 지키는 석장승
 - 남원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덕음봉
 - 고려시대를 상징하는 거대 석불입상은 남원을 내려다본다
- 코스 슬로건
 - “남원의 역사와 문화를 길라잡이하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덕치리초가 : 새 풀로 지붕을 이은 새 집으로, 조선시대 일반가옥의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주천 석장승 : 시기를 알 수 없는 입석. 19세기 중반 논 속에 있던 것을 발견하여 지금의 자리에 세움. 마을에서는 미륵, 미륵정이라고도 부름
 -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 용담사는 용담천의 이무기를 벌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며 오늘날에는 고려초기의 거대석불입상이 위치하고 있음
- 해시태그 : #남원의 역사와 문화 패키지 #이제 곧 춘향이를 만난다



[그림 5-1] 동 코스 01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02

○ 코스테마

- “두 영웅의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그리고 가난한 소작농의 자화상 홍부. 태생은 다르지만 그 끝은 왕조의 개창과 부자가 되는 공통점
- 역사 속의 영웅과 한 가족의 영웅의 이야기가 한자리에 있는 곳 남원 ‘두 영웅의 길’
-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꿈’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트레킹 코스

○ 코스 슬로건

- “나라를 흥하게 하거나, 가족을 흥하게 하거나”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황산대첩비 : 선조 10년에 세워진 황산대첩을 기념하는 비. 이성계를 국가적인 영웅으로 발돋움하게 한 황산대첩
- 남원 홍부골 : 춘향전과 더불어 남원이 그 모티브가 되었다는 홍부전의 배경 남원 아영면

○ 해시태그

- #내가 왕이 될 상이오? #내가 부자가 될 상이오? #놀부의 여동생 이름은 놀순, 그러면 남동생의 이름은?



[그림 5-2] 동 코스 02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03

○ 코스테마

- “세계유산 가야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가야는 김해? 가야는 고령? 가야는 전북!
-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당당하게 등재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통해 느껴보는 가야문화의 정수
- 가장 가야다운 가야가 남아있는 곳. 남원 세계유산 가야길

○ 코스 슬로건

- “어딜 가야 가야를 볼까? 남원으로 가자!”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아막성 : 백제의 아막성, 신라의 모산성으로 불린 백제-신라의 격전지에 위치한 산성
- 남원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세계유산)
- 남원 월상리, 청계리 고분군(가야고분)

○ 해시태그

- #유네스코 세계유산 #일당백 전북 가야문화



[그림 5-3] 동 코스 03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04

○ 코스테마

- “새로운 도전의 길”
- 이며 걷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뜬봉샘은 금강의 발원지이며,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는 곳
- 백일기도 이후 하늘로 날아오르는 봉황을 본 이성계의 스토리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코스
- 110m에 이르는 방화폭포와 금강사랑물체험관 등은 이러한 도전을 응원하는 마음의 여유를 줄 것

○ 코스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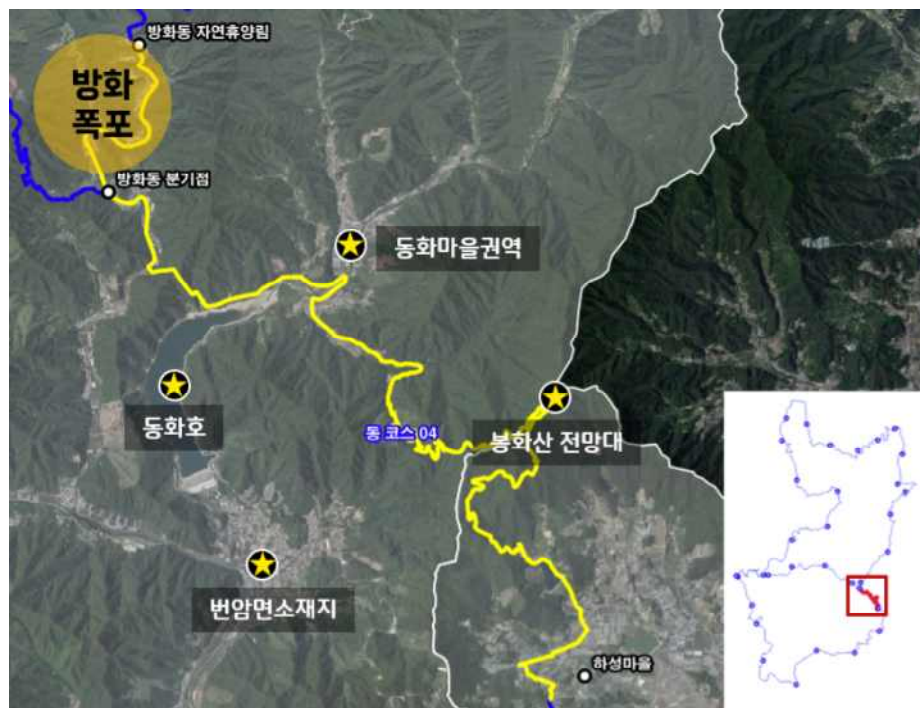
- “내 마음 속 봉황이여 날아오르라”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뜬봉샘 : 금강의 발원지이자 이성계 조선건국 설화가 전해지는 곳
- 방화폭포 : 110m 규모의 인공 폭포

○ 해시태그

- #내 안의 봉황 #도전정신, 죽지 않아!



[그림 5-4] 동 코스 04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04-1

○ 코스테마

- “장수 봉화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무대인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 봉화
- 가야가 가지는 문화교류의 이미지는 고대사의 최첨단 소통기술인 봉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가야 그리고 가야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장수 봉화길

○ 코스 슬로건

- “너의 목소리가 보여”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신무산과 합미성 : 후백제 군사들이 먹을 식량을 모았다하여 ‘합미성’이라는 지명이 붙었으며, 맞은편 신무산은 허수아비로 군사를 만들어 적을 기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짐
- 장수 오성리 봉화 : 전북 동부지역에는 120여개가 넘는 봉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오성리 봉화는 장수 지역의 가야고분을 축조했던 가야세력의 관방유적으로 판단됨
- 상이암 부도 : 부도는 고명한 스님의 사리를 봉안한 곳으로 상이암 부도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임. 일제강점기 의병장 이석용이 상이암을 근거로 항일운동을 전개

○ 해시태그

- #장수 가야 #봉화를 따라 걷는 길



[그림 5-5] 동 코스 04-1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04-2

○ 코스테마

- “임실 위풍당당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성수산 상이암은 고려 태조 왕건의 건국(백일기도)과 태조 이성계가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짐
- 특히 이성계는 왜구를 섬멸하는 큰 공을 세우고 복귀하던 길이었으며 이는 위풍당당길의 테마에 어울림
- 하나의 성공을 이루고 다음의 더 큰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위풍당당의 길

○ 코스 슬로건

- “하늘의 목소리, 너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성수산 상이암 :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승려 도선국사가 창건한 암자. 태조 이성계가 “앞으로 왕이 되리라”는 소리를 들어 상이암이라는 이름으로 고쳤다고 함
- 임실치즈 테마파크 외

○ 해시태그

- #킹 메이커 #하늘의 목소리 #로또 당첨번호



[그림 5-6] 동 코스 04-2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04-3

○ 코스테마

- “임실 치즈 앤 크래커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치즈 앤 크래커’는 서양에서 매우 흔한 음식을 뜻하는 말로, 우리말로로는 “세상에!”라는 관용구로 쓰임. 임실의 치즈문화를 보여주는 관용어
- 치즈는 ‘뭔가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을 의미’. ‘누가 내 치즈를 훔쳤을까?’는 누군가는 잃어버린 가치에 좌절하지만, 누군가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 떠난다는 의미
- 임실의 달콤 짭짤한 치즈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면 잃어버린 치즈가 아닌 내게 다가올 새로운 치즈를 생각해보며 걷는 길

○ 코스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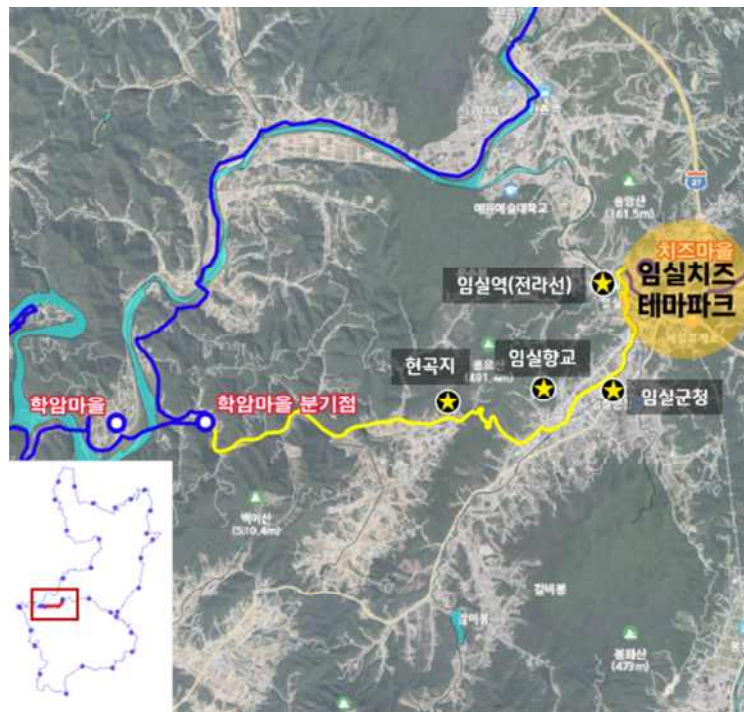
- “치즈가 나온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임실 치즈테마파크 외

○ 해시태그

- #누가 내 치즈를 훔쳤는가 #하늘은 치즈를 구하는 자를 돕는다



[그림 5-기 동 코스 04-3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05

○ 코스테마

- “장수 도깨비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우리나라 전통의 도깨비는 기존의 ‘괴물’ 이미지보다는 유쾌하고 망측하며, 쾌활한 이미지
- 오래된 물건이 도깨비가 된다고 하며, 오늘날 뿔이 달린 도깨비의 전신은 일본의 ‘오니’임
- 유쾌한 시간, 명랑한 사람들과 익살맞은 장난을 치며 걷기 좋은 도깨비 길

○ 코스 슬로건

- “한국의 요정, 도깨비를 만나러 가는 길”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장안도깨비동굴 : 도깨비축제 등의 무대가 되는 천연동굴, 도깨비와 도깨비불에 대한 많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음
- 장안산 군립공원 및 장수생태관광지

○ 해시태그

-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길이 좋았다



[그림 5-8] 동 코스 05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06

○ 코스테마

- “논개의 길, 여성의 길”
- 이며 걷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논개. 임진왜란 당시 적장을 안고 남강에 투신한 여성의 이미지에서 진취적이며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간 오늘날 여성상을 엿보다.
- 코스에 위치한 논개생가지는 오늘날 여성인권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곳

○ 코스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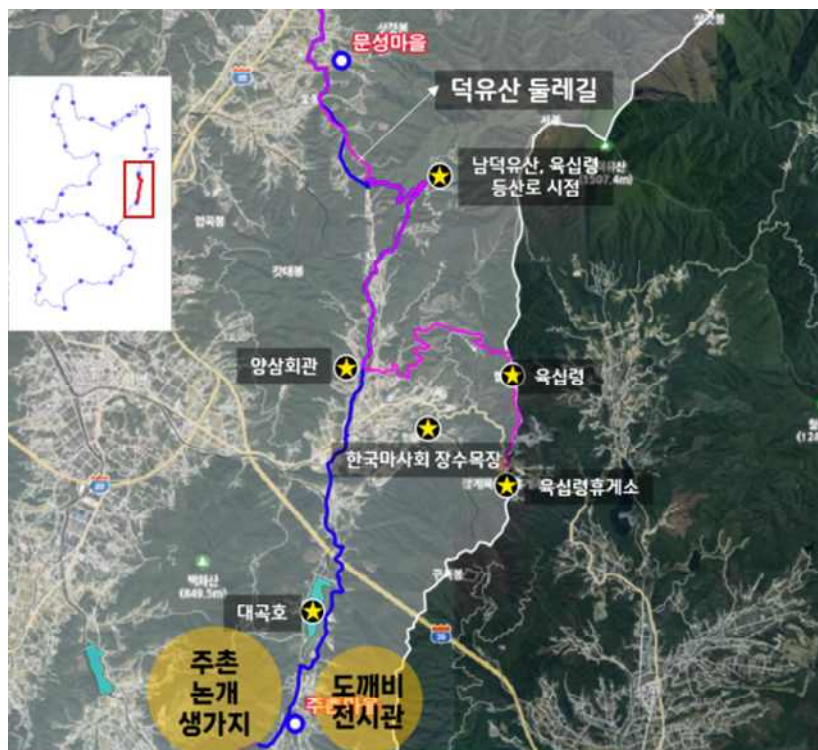
- “21세기 여성형, 논개를 생각하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주촌 논개생가지: 논개가 어린시절을 보냈다고 전해지는 마을
- 도깨비전시관 : 논개생가지 인근. 대한민국 도깨비를 테마로 하는 이색 박물관

○ 해시태그

- #진취적인 여성 #능동적인 여성 #삶에 정면으로 맞선 여성



[그림 5-9] 동 코스 06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07

○ 코스테마

- “말과 글을 되뇌이며 걷는 길”
- 이며 걷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남덕유산 자락에 위치한 양악호와 명천호는 산고수장(山高水長)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장수의 자연을 만끽하게 해줌
- 일제강점기 우리의 얼, 말 글을 지키려고 노력한 건재 정인승 기념관

○ 코스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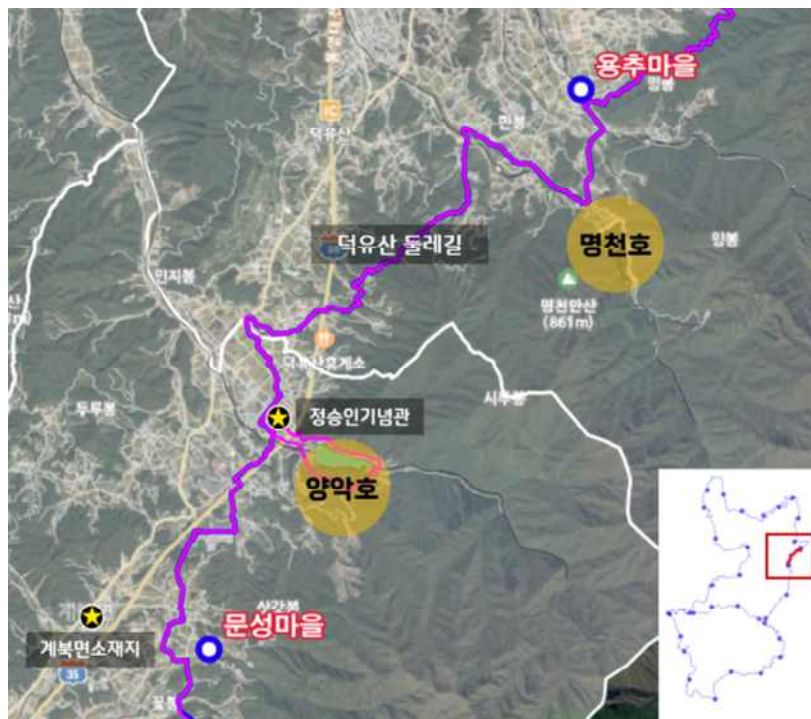
- “가나다라 걷는다. 마바사 걷는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양악호와 명천호
- 건재 정인승 : 장수군 출신의 국어학자,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으며 광복 후 큰사전 편찬에 참여

○ 해시태그

- #말과 글과 길 #대자연의 벗삼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본다



[그림 5-10] 동 코스 07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08

○ 코스테마

- “분분한 낙화의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두문마을, 집집마다 글 읽는 소리가 그칠 날이 없고, 훌륭한 선비를 많이 배출한 마을(말글마을의 한자어)
- 두문마을에서 유래한 낙화놀이는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문화에 기반을 둔 놀이
- 떨어지는 불꽃을 보며 하늘과 땅, 음양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다.
- 분분한 낙화는 일제에 대항하다 스러져간 의병장 신명선과 의병들의 소리없는 아우성과 겹쳐진다

○ 코스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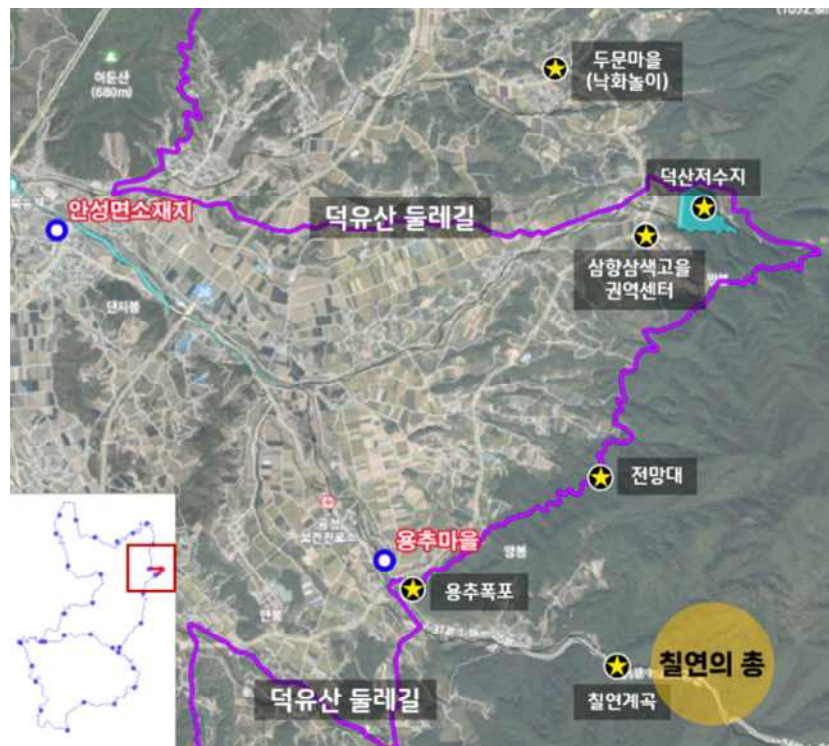
- “꽃잎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는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두문동 낙화놀이
- 칠연의총 : 일제와 싸우다 숨을 거둔 의병장 ‘신명선’과 그의 부하들이 묻힌 곳

○ 해시태그

- #분분한 낙화 #떨어지는 꽃잎을 생각하며 걷다



[그림 5-11] 동 코스 08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09

○ 코스테마

- “반딧불따라 걷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적상면과 안성면(진도리)은 무주에서도 대표적인 반딧불 서식지
- 적상면에서 안성면으로 걷는 길은 하천(적상천)과 노고봉, 탕전바위 등의 경관이 펼쳐진 아름다운 곳
- 어려움을 극복하는 고사 ‘형설지공’처럼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길

○ 코스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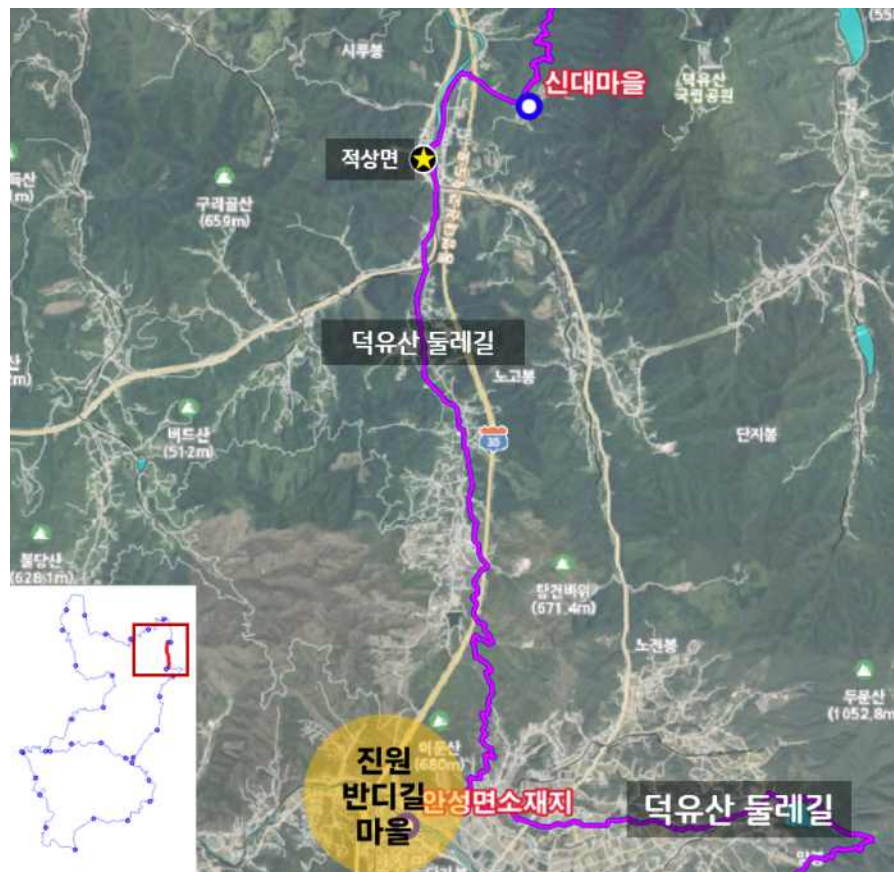
- “반딧불 따라 걷다 보면...”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진원 반디길 마을 : 반디길을 브랜드로 한 농촌체험마을

○ 해시태그

- #형설지공 #어려움을 이겨내다



[그림 5-12] 동 코스 09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10

○ 코스테마

- “사랑한다면 이룰처럼, 무주와 한풍루의 사랑길”

○ 스토리텔링 라인

- 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누각. 한풍루. 그리고 그 한풍루를 지켜낸 무주사람들의 노력(일본인에의 해 1936년 영동군으로 매각되었다가 1971년 재매입. 한풍루 복구 추진 위원회 결성)
- 시련을 겪었지만 과거의 기억과 흔적을 고스란히 지닌 채 복구된 한풍루
- 무주의 대표 축제인 반딧불 축제의 중심 무대
- 신대마을로 가는 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적상산사고지는 역사를 오롯이 품고 있는 곳

○ 코스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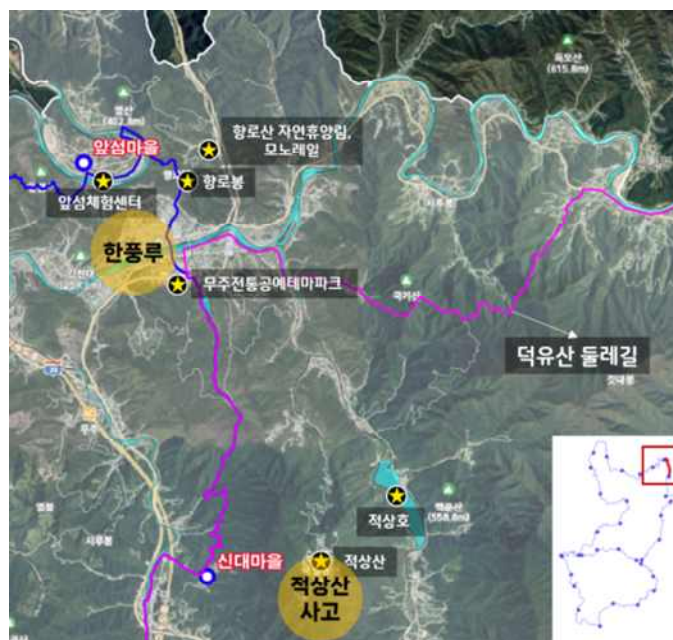
- “대자연 속에서 역사를 지켜온 무주와 무주사람들의 길”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한풍루 : 조선 전기의 정자로 호남 제일의 아름다움과 무주인의 애환이 담겨있는 정자
- 적상산 사고 : 임진왜란 이후 설치된 묘향산 사고가 적상산으로 옮겨지며 건립된 사고. 1910년 국권피탈 후 실록이 규장각으로 옮겨지며 폐기. 현재 선원전은 안국사 경내로 이전

○ 해시태그

- #지킬 것은 지킨다 #무주가 자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 5-13] 동 코스 10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11

○ 코스테마

- “역사의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조선왕조 실록의 봉안 역사가 살아숨쉬는 소이진(소이나루)
- 산벚꽃길과 벼루길을 중심으로 자연과 하나되는 크래킹 코스 잠두마을
- 내도리를 중심으로 꾸며진 최신 래프팅 문화공간
- 역사는 흐르고 금강도 흐른다

○ 코스 슬로건

- “조선왕조 실록의 길을 걷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소이진(소이나루) : 조선왕조 실록 봉안과 관련한 사관과 관리들의 행차가 이어진 나루. 오늘날 대차리의 지명인 대촌과 차산의 유래가 된 곳
- 잠두마을 : 금강변에 만들어진 자연과 하나되는 산책코스

○ 해시태그

- #자연과 역사 그리고 금강. #역사는 흐르고 금강도 흐른다



[그림 5-14] 동 코스 11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12

○ 코스테마

-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유독 바위가 많은 길. 그리고 바위가 담고 있는 이야기가 많은 길
- 대문바위는 지금도 의젓이 버티고 서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 그 곳에서 선녀를 만나거나,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 코스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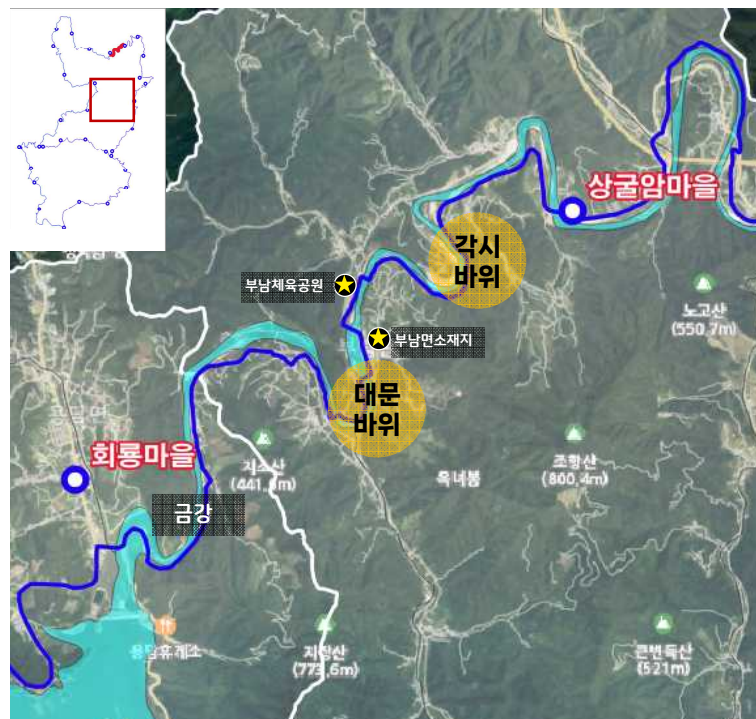
- “바위는 이야기를 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대문바위 : 옛날 대문을 달았다는 바위.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전설
- 섬바위 : 강 가운데 섬처럼 떠있는 바위. 영험한 기운으로 영재와 학자배출에 영향을 준다고 함
- 각시바위 : 선녀 이야기, 조선판 고부갈등 등 많은 이야기가 서린 바위

○ 해시태그

- #이야기를 품은 바위 #말이 많은 바위 #아들 셋인 분, 시어머니 동반 출입 금지



[그림 5-15] 동 코스 12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13

○ 코스테마

- “The Dragon Road”

○ 스토리텔링 라인

- 다섯 마리의 용을 품고 있는 길, 이들을 찾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
- 내 안의 잠든 와룡, 그리고 용을 품고 있는 용담호
- 꿈을 꾸는자, 떠나라. The Dragon Road로!

○ 코스 슬로건

- “다섯 마리 용을 찾아 떠나자”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와룡암(臥龍庵) : 조선시대 문신 금구당 김중정이 은거한 곳
- 용담댐과 용담호: 전복을 책임지는 용담댐과 그 애환
- 회룡마을 : 용이 굽이치는 마을의 형국
- 용담면 옥거리 :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마을

○ 해시태그

- #다섯 마리 용 #진안 최고 경관 #7개까지 안 모아도 됨 #유사품에 주의



[그림 5-16] 동 코스 13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14

○ 코스테마

- “구름이 흘러가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사람들에게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길, 오직 구름만이 흘러가던 길
- 오늘 하루는 자연의 하나가 되어 구름이 흘러가는 길을 걸어보자
- 복잡하고 바쁜 삶을 벗어나 구름이 되어 걸어가는 길

○ 코스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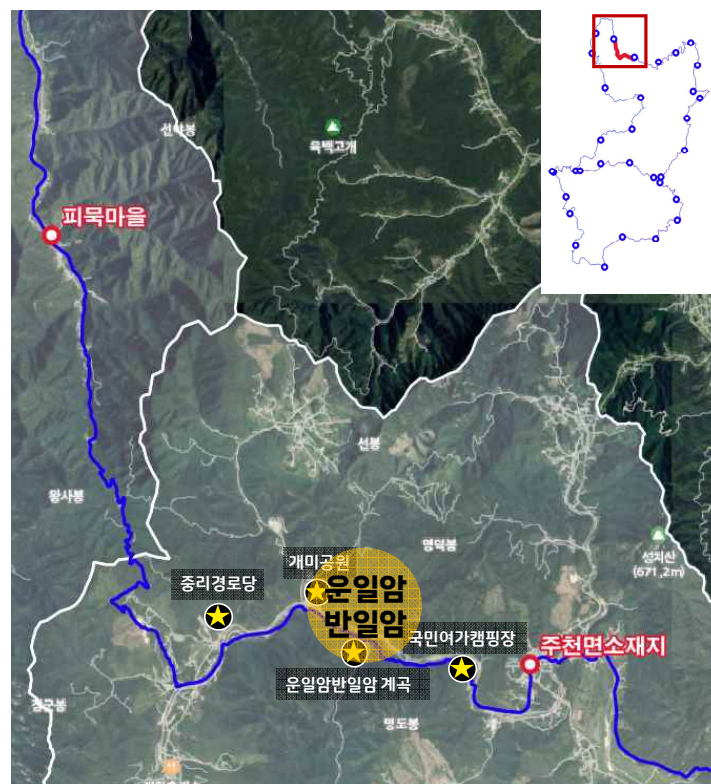
-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 곳으로 가자”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운일암(雲日岩) : 사람이 걷는 길은 없고 오로지 하늘과 돌과 나무와 오가는 구름만 있는 길
- 반일암(半日岩) : 깊은 계곡 반나절밖에 볼 수 없는 해

○ 해시태그

- #대자연이 허락한 길 #Become 구름 위의 신선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림 5-17] 동 코스 14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15

○ 코스테마

- “극락. 이상세계를 향해 가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완주의 자랑, 국보 화암사 극락전. 400여년 역사를 오롯이 품고 있는 고찰과의 만남
- 극락전의 주불은 아미타불, 아미타는 불교의 이상세계인 서방극락정토를 관장하는 부처
- 대둔산 케이블카를 타고 서방정토에 비견되는 대둔산의 전경을 살펴다

○ 코스 슬로건

- “극락왕생, 이상세계로!”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화암사 극락전 : 2011년 국보로 지정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형태의 사찰. 아미타불을 본존으로 모시고 있음
- 대둔산 케이블카 : 927m 길이로 호남의 소금강인 대둔산을 굽어볼 수 있는 시설물

○ 해시태그

- #극락왕생합시다. #그리운 사람들이 있는 극락을 느껴보자



[그림 5-18] 동 코스 15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16

○ 코스테마

- “모든 가족이 낚날이 행복한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아이들의 천국 놀토피아, 어린이 모험가들에게 최고의 공간
- 자연을 공경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애인 오복 휴양마을
- 돌아가는 집까지, 우리 가족 꿈을 이룰 때까지 ‘발병 나지 않게 해주세요’ - 싱그랭이 요동마을

○ 코스 슬로건

- “엄빠도, 아이도 행복한 시간”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놀토피아 : 심신발달형 모험놀이 시설(클라이밍 등)인 석등
- 경천애인 오복마을 : 자연체험(자연과 문화, 음식 등 3대 감성)
- 싱그랭이 마을 :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갈 때 쉬어가던 길목. 오늘날은 넓게 경작된 콩밭과 정원이 경관을 이룸

○ 해시태그

- #오늘은 모두 행복하자 #잠시 쉬었다 가도 좋습니다



[그림 5-19] 동 코스 16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17

○ 코스테마

- “그 길의 끝에 금낭화가 그리고 내 앞에는 당신이”

○ 스토리텔링 라인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저수지(댐) 대아 저수지의 절경
- 국내 최대 규모의 금낭화 군락지 - 대아수목원(금낭화의 꽃말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 머느리 뱀풀꽃 전설이 내려오는 곳 - K고부갈등

○ 코스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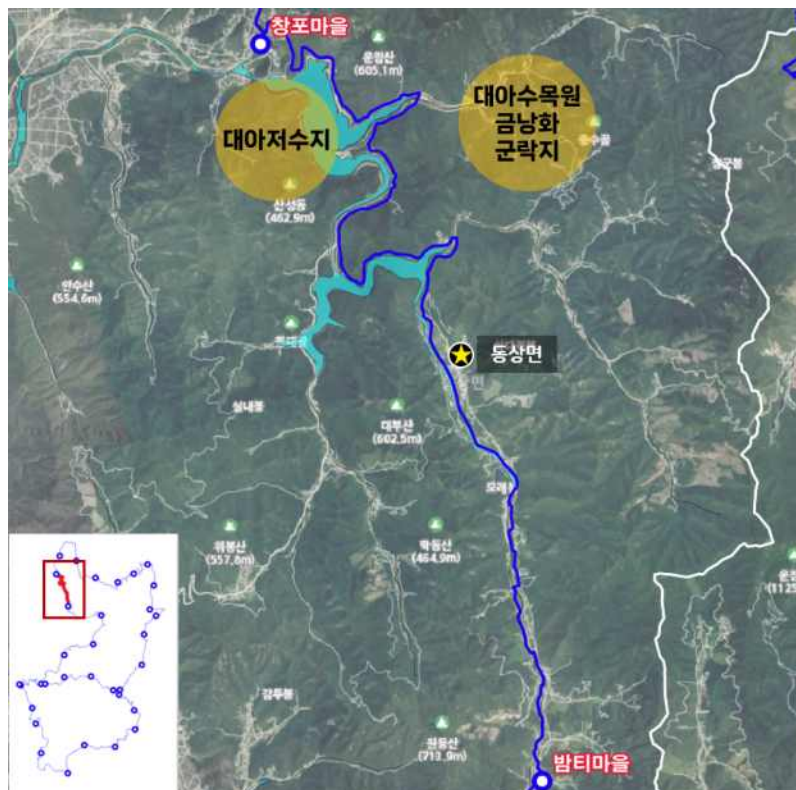
-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대아저수지 : 국내 최초(1920) 근대식 댐과 수려한 경관(대아정 : 운암산 등산로 입구)
- 대아수목원의 금낭화 군락지(4~5월 개화)

○ 해시태그

- #사랑하는 사람의 등을 보며 걷자 #머느리 뱀풀꽃 #고부갈등 안녕...



[그림 5-20] 동 코스 17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18

○ 코스테마

- “대인 군자의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진안의 진산인 부귀산은 대인군자를 닮았고,
- 그 산을 보며 이 길을 걷는 당신 역시 ‘대인군자’ 다!
- ‘스마트’가 진리고, ‘빠름’이 헤게모니인 현대사회에서
- 느린 걸음과 세상을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을 누려보자

○ 코스 슬로건

-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 군자의 길의 세 가지 즐거움”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1락 - 진안의 진산 부귀산 ‘대인군자의 품모’(『신증동국여지승람』)
- 2락 - 명품 편백숲 ‘부귀 편백숲 산림욕장’
- 3락 - 중국의 현인인 정자(程子)의 이름을 딴 정자천

○ 해시태그

- #천천히 걷는 군자 #미세먼지 안녕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 길



[그림 5-21] 동 코스 18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19~20

○ 코스테마

- “새로운 시작의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223.86km를 도도히 흐르는 섬진강
- 500여년을 흘러간 조선왕조
- 223km의 여정도, 500여년의 역사에도 미약하지만 뜨거운 시작의 순간이 있었다.

○ 코스 슬로건

-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길”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인근 데미샘에서 발원하여 ‘포동마을’을 거쳐 흐르는 섬진강 상류
- 마이산(금척산)과 태조 이성계의 건국 스토리
- 긴 여정의 쉽표가 되어 줄 풍혈냉천

○ 해시태그

- #새로운 시작 #섬진강 발원지 #조선의 건국과 이성계 그리고 마이산



[그림 5-22] 동 코스 19~20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21

○ 코스테마

- “부처의 진리가 봄을 부르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석등, 부처의 진리(불빛)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 석등을 통해 우리의 마음도 비추는 길
- 개나리로 봄의 문을 열고, 가침박달나무 꽃으로 봄을 만끽하는 봄의 향연
- 일제강점기에도 맥이 끊기지 않은 아름다운 한반도의 정자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살펴보는 임실의 봄

○ 코스 슬로건

-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봄이 오는 길”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진구사지 석등(보물) : 통일신라시대 석등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석등
- 덕천리 산개나리 군락 및 가침박달 군락
- 운서정 : 윤초 김양근의 아들 김승희가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일제강점기(1928)에 건립한 누정. 아버지의 호를 따 아버지의 뉘이 쉬어가는 공간으로 명명

○ 해시태그

- #봄이 오면 걷자 #봄을 부르는 개나리 #합격기원(비로자나불)



[그림 5-23] 동 코스 21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22

○ 코스테마

- “자연이 만들고 사람이 만든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아름다운 섬진강과 옥정호, 신이 만든 대자연에 인간의 삶을 더하다
- 물고기가 되어버린 산능성이. 붕어섬. 티 없이 맑은 호수 옥정호를 품다
- 물안개가 가득 마음을 감싸 안아주는 길, 물을 사랑하는 지식인의 길(지자요수의 길)

○ 코스 슬로건

- “섬이 되어버린 산, 옥정에 잠기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붕어섬과 옥정호
- 양요정 : 인자요산 지자요수(仁者樂山 智者樂水)의 정자
- 해시태그
- #붕어섬빵 개발 요망 #자연에 던지다 #똑똑해지는 산책길



[그림 5-24] 동 코스 22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23

○ 코스테마

- “上善若水の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노자가 말하길 ‘물은 최고의 선’이라 하였다.
- 물은 겸허하고 부쟁한 존재. 길을 걷다 걷다 만나는 물 이야기
- 옥정호가 들려주는 물 이야기

○ 코스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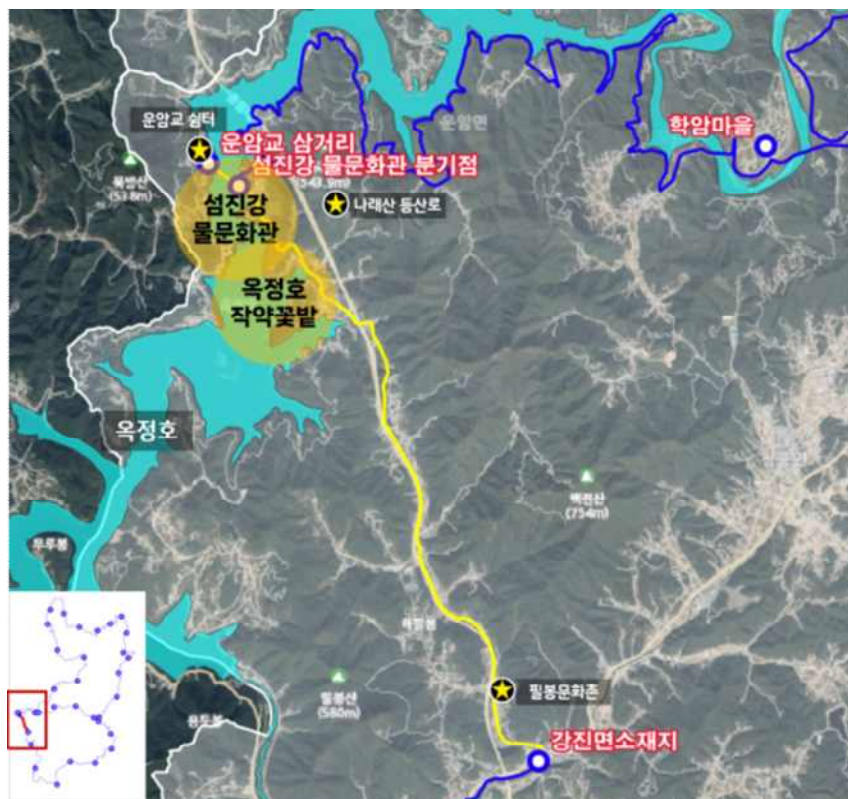
- “우리 인생도 물처럼”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섬진강 물문화관
- 옥정호 작약꽃밭 - 꽃의 재상

○ 해시태그

- #물처럼 삼시다 #꽃 중의 꽃 작약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림 5-25] 동 코스 23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24

○ 코스테마

- “맵-단-짬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한국 음식은 고추장맛, 길을 걷다 잠시 들리는 고추장 마을
- 월파정에 올라 달빛을 바라보며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을
- 임실=치즈, 치즈의 대명사 임실 강진면

○ 코스 슬로건

- “맵고 달고 짜고...그것이 인생길”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만일사 : 이성계와의 인연이 있는 고추장 맛
- 순창 구림 고추장 익는 마을
- 월파정 : 섬진강에 비춘 달빛이 아름다운 정자
- 강진시장 : 치즈에 진심인 먹거리 한가득

○ 해시태그

- #맵단짬 로맨스 #완벽한 조화 #우리도 이들처럼...



[그림 5-26] 동 코스 24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25

○ 코스테마

- “예술과 치유의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조선시대 이야기를 지닌 정자들을 지나 만나는 예술인 마을
- 그리고 나를 치유해 줄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 길을 걸으면 가장 아름다움, 가장 나다운 모습을 만나다.

○ 코스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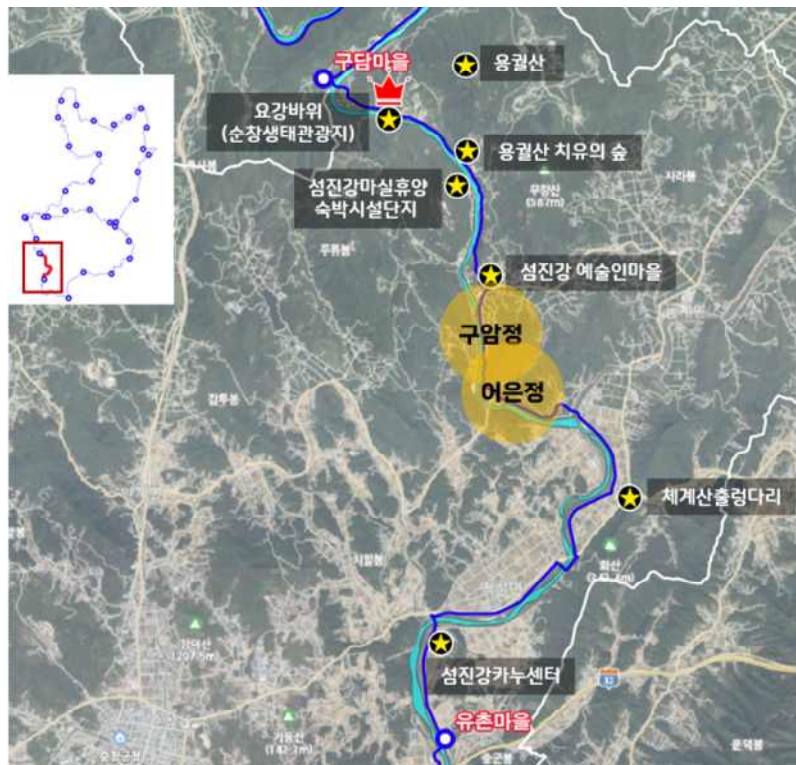
- “아름답다는 말은 가장 나답다는 말이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구암정 : 정치를 벗어나 자연을 벗삼은 선비 귀암 양배와 그의 아우의 이야기를 품은 정자
- 어은정 : 임진왜란의 숨은 영웅 ‘어은 양사형’이 세운 정자

○ 해시태그

- #아름답다, 나답다 #예술과 치유 #길목길목 숨은 이야기



[그림 5-27] 동 코스 25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26

○ 코스테마

- “섬표가 있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약 300년 전부터 섬진강을 지켜온 섬터, 무진정에서 바라보는 섬진강
- 아름다운 산 옥출산이 굽어보는 향가, 우리도 조선의 시인이 되어 수려한 경관을 만끽하자

○ 코스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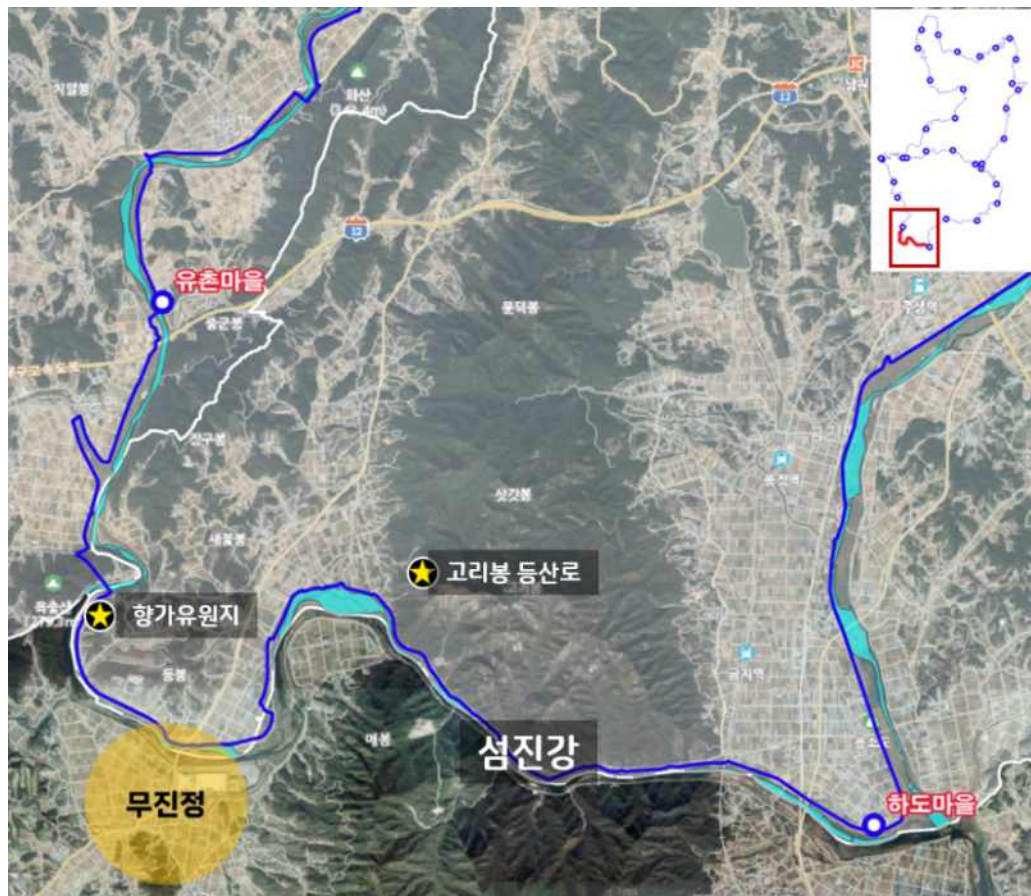
- “한걸음 한걸음에 의미가 있는 것은 섬의 순간에 느낄 수 있는 희열 때문이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무진정 : 조선 영조대 무진(無盡)이 지은 정자, 섬진강의 섬터

○ 해시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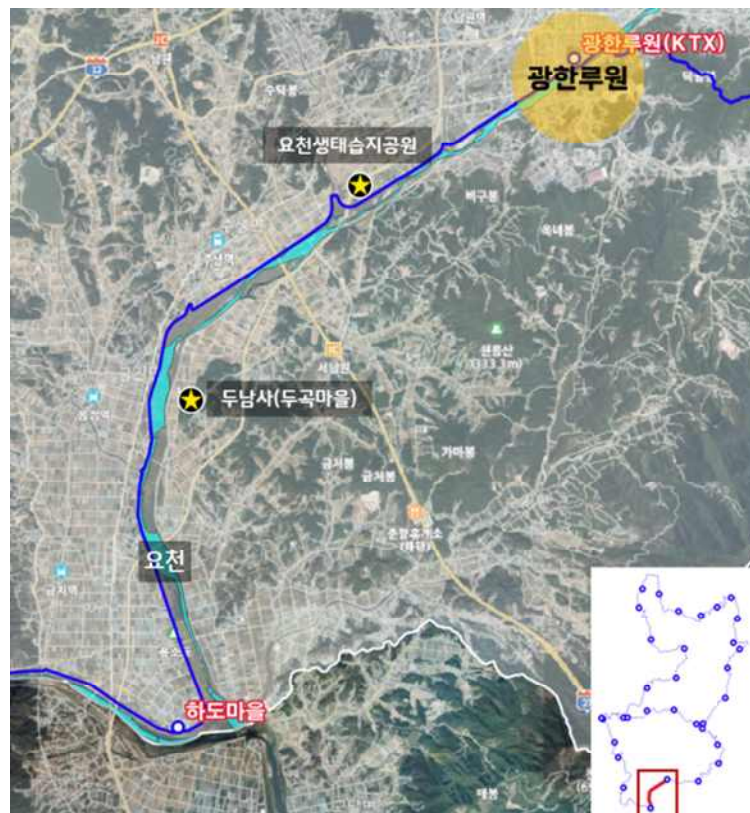
- #어느덧 섬표 #섬진강뷰 맛집 #옥출산과 향가



[그림 5-28] 동 코스 26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동 코스 27

- 코스테마
 - “사랑을 한다면 그들처럼”
- 스토리텔링 라인
 - 한반도 최고의 로맨스 스토리, 춘향전
 - 사랑하는 사람과 섬진강 자락을 걸으며 보는 특별한 풍경
 - 가족들이 이 길을 걷는다면, 엄빠의 사랑이야기를 들어보자
- 코스 슬로건
 - “이리 오너라, 업고 걷자!”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광한루원 : 우리나라 누각의 대명사, 춘향전의 무대
- 해시태그
 - #사랑한다면 걷자 #엄빠의 사랑이야기



[그림 5-29] 동 코스 27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2. 서부권

서 코스 01

○ 코스테마

- “다양한 생각과 목적이 있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빵순이 빵돌이는 이성당을 향해 걷고 / 천재의 이야기에 반한 사람은 자천대를 향해 걷고
-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찾는 이들은 동국사와 신흥동 일본식 가옥등 군산 구도심을 향해 걷고
- 힘들면 은파 호수공원에서 쉬자

○ 코스 슬로건

- “21세기 여성형, 논개를 생각하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이성당 : 근대, 기회의 땅 군산에 전개된 새로운 맛.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제과점
- 자천대 : 근대기에 재건립된 누정. 최치원과 관련된 일화가 남아 있음
- 동국사 : 우리나라에 몇 개 남지 않은 일본식 사찰. 사찰 내부 평화의 소녀상과 일본 불교 종단인 조동종의 참회비가 인상깊다
- 신흥동 일본식 가옥 : 일본식 주택으로 일제강점기 부유층이 거주하던 건물. 군산에는 이외에도 명산동, 월명동, 장미동, 영화동 등에 일본식 가옥군이 밀집되어 있다.
- 은파 호수공원 : 조선 시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미제지(米堤池)”라는 기록이 남아있음
- #단팥빵. 야채빵 취향준중 #전북에 남겨진 천재의 이야기 #근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림 5-30] 서 코스 01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02

○ 코스테마

- “적당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청암산은 푸른 산이라는 뜻으로 오르막과 내리막의 조화가 있어 트레킹 코스로 각광받는 곳
- 드넓은 들판을 걷다 만나는 과하지 않은 산의 정취

○ 코스 슬로건

- “길을 걷다 산을 만나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청암산 : 전북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 만경강 하류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

○ 해시태그

- #길을 걷다 만난 친구, 산 #오르막과 내리막



[그림 5-31] 서 코스 02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03

○ 코스테마

- “타임캡슐을 묻으러 떠나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망해사 매향비, 1,000년뒤에 꺼낼 것을 기약하며 향나무를 묻고 복과 미륵의 출현을 기대하는 불교의식 매향. 조선시대 타임캡슐이자 행복을 바라던 민중들의 마음
- 망해사 팽나무는 정자나무 중 느티나무 다음으로 많이 심는 나무이며, 팽나무 밑에는 매향비가 세워져 있음
-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또는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망해사 팽나무를 향해 걸어가자.

○ 코스 슬로건

- “소원을 묻자. 땅속에, 마음속에”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망해사 매향비와 팽나무
- 매향비 : 1,000년 뒤에 꺼낼 것을 기약하며 바닷물과 계곡수가 만나는 곳에 향나무를 묻어 복을 빌고 미륵불이 출현하기를 기원하는 불교 의식, 이를 기록한 비석

○ 해시태그

- #누구나 소원은 있다. #떨어지는 별똥별 대신 향나무를 묻자



[그림 5-32] 서 코스 03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04

○ 코스테마

- “영원한 친구와 함께 걷는 메타세쿼이아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넉넉한 농촌의 풍경과 장관을 이루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 메타세쿼이아의 꽃말은 ‘영원한 친구’
- 때로는 친구와 함께 걷는 길도 좋다.

○ 코스 슬로건

- “완연한 농촌, 장엄한 메타세쿼이아 그리고 친구”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죽산면 메타세쿼이아 길

○ 해시태그

- #친구와 걷는 길 #남사친, 여사친과도 좋다 #길을 다 걸으면 친구가 아닐지도...



[그림 5-33] 서 코스 04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05

○ 코스테마

- “깨끗함과 순수함의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선비의 상징인 백로의 서식지인 동진면 상리마을의 백로떼 장관
- 고된 일상을 하얗게 리셋해주는 백로둥지
- 말발굽 모양을 닮은 고마제에서의 천연 힐링

○ 코스 슬로건

-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상리마을 백로 둥지 / 고마제

○ 해시태그

- #하얀마음 하얀길 #일상에서 벗어나



[그림 5-34] 서 코스 05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05-1

○ 코스테마

- “동학, 그 위대한 울림의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동진강변공원에서 시작하여 한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동학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만석보
- 풍요로움의 이면에 있는 가혹한 수탈, 그리고 민중의 소리
- 동학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 코스 슬로건

- “작은 걸음이 큰 걸음으로, 작은 목소리가 큰 목소리로”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만석보 : 동학의 고부 농민봉기의 시점이 된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 그리고 만석보

○ 해시태그

- #반봉건반외세, #반독재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시대 정신



[그림 5-35] 서 코스 05-1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05-2

○ 코스테마

- “민중을 구한 두 명의 영웅을 만나러 가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말목장터와 감나무.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일상과 소소한 자유. 배부르고 행복한 권리 그리고 전봉준.
- 전북의 유일한 이순신 장군 사당 유애사. 정읍 현감으로 지낸 1년 4개월. 장군이 아닌 위정자 이순신을 만나는 곳

○ 코스 슬로건

- “시대와 뜻은 다르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백성이었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말목장터와 감나무 : 녹두장군 전봉준이 첫 기치를 일으킨 장소. 지금도 이 감나무의 감은 따지 않는다.
- 유애사 : 충무공 이순신의 유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사당

○ 해시태그

- #전북에 이순신? #전북에 이순신! #두 명의 영웅



[그림 5-36] 서 코스 05-2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05-3

○ 코스테마

- “비운의 천재, 최치원을 기리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최치원,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의 정신문화 형성에 큰 족적을 남긴 천재 중의 천재
- 최치원의 이야기가 전하는 피향루는 호남 제일 정자로 소문난 곳
- 절경과 씬. 그 속에서 만나는 비운의 천재 이야기

○ 코스 슬로건

-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 이 길로 오라”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피향루 : 조선 중기 호남 제일의 정자로 최치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짐(보물)
- 태인향교 : 오늘날까지 유학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조선시대 교육시설

○ 해시태그

- #비운의 천재, 최치원 #세상을 바꾸다



[그림 5-37] 서 코스 05-3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06

○ 코스테마

- “이화우(梨花雨) 흠뻑리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허균도 인정한 조선시대 여류 시인 이매창의 사랑 이야기
- 한 남자(유희경)를 그리워하는 이매창의 시, 그리고 이화우 흠뻑리는 길
- 세상을 조롱하며 당당한 여인의 모습이었던 황진이와 수동적일 수 밖에 없었던 조선시대 여성의 감정을 그리움과 시로 승화시킨 이매창

○ 코스 슬로건

-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라”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이매창묘 : 조선 시대의 여류 시인 이매창의 묘 시와 글씨가 뛰어나 황진이에 버금갔다고 하며, 유희경과의 짧은 만남 긴 그리움의 여운이 문학작품에 남아 있음
- 부안향교 : 조선 전기에 창건된 교육시설로 조선시대 유교적 가치관을 지방에 전하기 위한 시설. 오늘날에도 부안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음

○ 해시태그

- #이화우(梨花雨) #짧은 만남, 긴 그리움 #조선시대 여성상



[그림 5-38] 서 코스 06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07

○ 코스테마

- “전북자치도의 과거, 그리고 미래를 걷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전북자치도의 미래성장원동력 ‘새만금’ 그리고 그 새만금 간척의 역사가 켜켜이 쌓아올린 새만금간척박물관
- 제주도의 상징 발담 그리고 그 발담의 아버지 부안 지포 김구 선생
- 선사인들의 보물창고 대항리 패총

○ 코스 슬로건

- “전북자치도의 역사와 미래, 부안에 자리잡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새만금간척박물관 : 새만금간척사업과 우리나라 간척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
- 지포 김구 선생 묘역 : 고려말 전북 부안 출신 판관 지포 김구 선생의 묘역. 제주에 발담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 대항리 패총 : 신석기에서 청동기시대에 걸치는 서해안지역의 전형적인 조개더미 유적. 단순한 폐기물 유구가 아닌 당대의 유물들이 발견되는 고고학계의 보물창고라 불림

○ 해시태그

- #전북의 중심 부안 #부안의 중심 변산 #과거와 현재를 걷다



[그림 5-39] 서 코스 07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08

○ 코스테마

- “달을 건지려 걷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변산의 채석강(명승)은 당나라의 시인 이태백이 술을 마시며 물에 뜬 달을 잡으려 했다면 채석강의 이름을 본떠 만든 곳
- 변산 팔경(邊山八景) 중 채석범주(彩石帆舟)에 해당하는 명승 채석강은 1.5km에 이르는 해식 절벽으로 지구의 역사를 간직한 지질학적 명소이자 일몰경관으로 유명한 곳
- 함께 볼 수 있는 부안 죽막동 유적(수성당)은 백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바다에 대한 사람들의 경이로운 시선을 엿볼 수 있는 곳

○ 코스 슬로건

- “자연이 주는 신비,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격포리 후박나무 군락 : 천연기념물 / 채석강 : 명승 / 죽막동 유적(수성당) : 사적

○ 해시태그

- #사람과 바다와 자연 #자연을 경외하다



[그림 5-40] 서 코스 08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09

- 코스테마
 - “모항으로 가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시인 안도현의 ‘모항으로 가는 길’에 등장하는 낭만
 - 생명과 조화의 깃별이 움트고 있는 곳
 - 호랑이 등굣개, 천연기념물 호랑가시나무를 만나러 가는 길
- 코스 슬로건
 - “너, 문득 떠나고 싶을 때 있지?”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시인 안도현 ‘모항으로 가는 길’
 - 산내면 도청리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호랑가시나무군락’
 - 국립변산 자연 휴양림
- 해시태그
 - #바다는 그 자체로 시 #안도현 #연탄 발로 차지마



[그림 5-41] 서 코스 09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10

○ 코스테마

- “바다는 소금, 흙, 청자 그리고 얼리어답터를 낳았다.”

○ 스토리텔링 라인

- 줄포만의 명소 생태공원과 드넓게 펼쳐진 곰소염전, 부안의 대자연
- 고려청자의 핵심지 부안, 그리고 그 모습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부안의 고려시대 요지
- 바다는 소금을 낳고, 흙은 청자를 낳는다.
- 실학의 비조, 시대를 앞서간 천재 반계 유형원.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반계관련 유적지

○ 코스 슬로건 - “바다가 우리에게 준 모든 것”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곰소 염전 : 우리나라의 희소한 천일염 생산지. 과거에는 바닷물을 끓여만든 소금인 화염이 생산
- 줄포만생태공원 : 노을빛 정원으로 알려진 내륙 습지
- 부안 요지 : 유천리와 진서리에 위치한 고려시대 요지, 부안 청자박물관과 연계한 청자 코스
- 반계 선생 유적지 : 조선 후기 실학자 유형원의 유적지. 한국사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한 번은 들어봤을 부안 최고의 아웃풋

○ 해시태그

- #바다의 선물 소금 #흙이 준 선물 청자 #세상이 준 선물 ‘나’ #세상을 앞서간 천재 반계 유형원



[그림 5-42] 서 코스 10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11

○ 코스테마

-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미당 서정주 시인의 고향, 바다는 그리움의 친구
-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오롯이 보여주는 인촌 김성수 선생(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의 생가

○ 코스 슬로건

- “시는 그리움을 부르고, 걸음은 그리움을 덮는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미당생가 : 한국 문학계가 나온 문호, 미당 서정주 시인의 생가
- 인촌생가 :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이자 교육자, 사업가인 고창의 인물 김성수의 생가

○ 해시태그

- #시와 그리움 #걸음과 치유 #바다가 들려주는 그리움



[그림 5-43] 서 코스 11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12

○ 코스테마

- “구름에 머물 듯이 걷는 고창 명승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오묘한 지혜의 경계인 구름[雲]에 머무르면서 갈고 닦아 선정[禪]의 경지를 얻는 사찰”, 선운사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선운사 동백나무 숲과 명승인 선운사 도솔계곡 일원
- 유문암이 풍화 및 침식되어 만들어낸 절경, 명승 병바위

○ 코스 슬로건

- “걷는 곳, 닿는 곳, 보는 곳마다 명승이요, 절경이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선운사 : 전북의 명승고찰, 보물 7점을 비롯하여 천연기념물, 명승 등을 품고 있는 고창의 보물
- 병바위 : ‘금 소반과 옥 술병’을 뜻하는 ‘ 금반옥호(金盤玉壺)’의 명당이자, ‘신선이 취해 누웠다’는 뜻의 ‘선인취와(仙人醉臥)’의 명당

○ 해시태그

- #눈이 쉬질 못한다 #다리가 쉬질 못한다 #하지만 마음은 쉬고 있다 #십승지를 아는가



[그림 5-44] 서 코스 12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13

○ 코스테마

-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고, 자연 앞에 고개 숙이다”

○ 스토리텔링 라인

-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고창 고인돌 / 마한과 백제의 역사를 품은 봉덕리 고분군
- 왜구의 침범, 그리고 조상들의 지혜. 고창 읍성 / 전북의 정신, 동학의 정신, 전봉준 장군 생가터
- 유구한 인간의 역사, 그리고 이를 굽어보는 자연의 모습 운곡람사르 습지

○ 코스 슬로건

- “인간의 역사, 자연의 품에 안기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고창 고인돌 : 세계유산 남방식 고인돌의 대표 유적 / 봉덕리 고분군 : 마한의 전통을 가진 백제시대 분구묘
- 고창읍성 : 행정과 군사시설이 합쳐진 형태의 조선시대 읍성
- 고창 전봉준 생가터 : 동학의 정신 그 자체, 전봉준 장군 생가터
- 운곡람사르 습지 :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생태계의 보고

○ 해시태그

- #대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느끼다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곳 #자연과 역사, 세계가 인정한 고창



[그림 5-45] 서 코스 13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14

○ 코스테마

- “신선들이 사는 산, 신선들이 걷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코스에 위치하고 있는 방장산은 중국 삼신산 전설에서 온 것으로 그 정상에 선인들이 살며, 불로불사의 과일나무가 있는 곳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이름임
- 진시황이 불로장생의 명약을 구하기 위해 동남동녀 수천명을 보낸 곳이 해동에 있다는 이야기
- 이 길을 걸으며 아픈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길

○ 코스 슬로건

- “불로장생의 비결은 걷기에 있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방장산 : 호남지역의 삼신산인 방장산, 무등산 지리산 중 한 곳. 중국 삼신산의 하나인 방장산을 닮았다는 이유로 이름을 방장산이라 불림

○ 해시태그

- #불로장생의 명약은 걷기 #사랑하는 사람과 걷고 싶다 #진시황을 만날지도...



[그림 5-46] 서 코스 14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15

○ 코스테마

- “어머니에게 아들이 바치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코스의 남쪽에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내장산은 국내에서도 단풍의 정취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짐
- 내장산 단풍나무에는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아들의 효심에 감동한 산신령이 내장산에서 가장 많은 수종인 단풍나무를 붉게 만들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내장산에 붉게 물든 단풍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경관임

○ 코스 슬로건

- “어머니와 함께 걷는 단풍길”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내장산 단풍나무 : 내장산 단풍나무 경관은 예로부터 신중동국여지승람에 조선 8경의 하나라고 기록되는 대표적인 아름다운 경관

○ 해시태그

- #어머니가 보고 싶다. #어머니와 걷고 싶다 #단풍길



[그림 5-47] 서 코스 15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16

○ 코스테마

- “세계유산, 무성서원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호남의 대표 서원이자, 세계의 인정을 받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성서원이 위치한 코스
- 서원은 조선시대 유학의 가르침을 지방에 전달한 교육시설이자 조선의 수많은 선비들을 길러내고 지역에 유교적 가치관을 전달한 사립교육기관임
- 특히 무성서원은 서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유학이 어떻게 발전해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방대한 자료와 함께
- 전북자치도 지역과 큰 인연을 가지고 있는 최치원을 모신 것으로 유명함
- 과거 선조들의 지혜 속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혜를 엿보는 코스

○ 코스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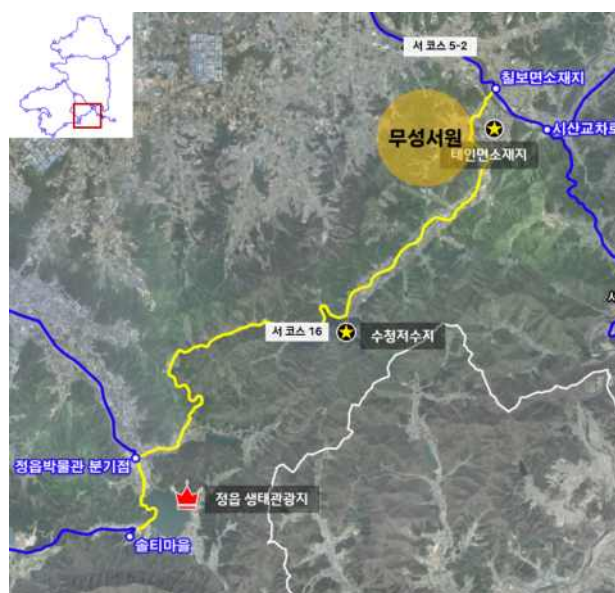
- “보편적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무성서원 : 신라 후기의 학자였던 고운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申潛)을 모신 서원으로 호남의 수많은 선비를 길러낸 장소.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남아있던 47개소 중 한 곳으로 수많은 서원자료가 보존되어 있는 곳

○ 해시태그

- #유네스코 세계유산 #천재 최치원과 전북자치도 #500년전 인문학의 향기



[그림 5-48] 서 코스 16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17

○ 코스테마

- “전북자치도의 아고통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아고통은 전북의 사투리로 ‘힘의 우열 관계에서 열세인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굽히지 않는 모습이나 성격을 뜻하는 전라도 텃말’임
- 옥정호의 대자연을 지나 산외면을 향해 걷다보면 정읍의 7광 10현이 모여 풍월을 읊던 송정을 만날 수 있음
- 7광 10현은 광해군 폐모사건에 항소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낙향하여 자연과 세월을 보낸 조선시대 전북의 인물들임
- 불의, 그것도 권력을 가진 불의에 대항하는 전북정신이 깃들어있는 코스
- 길을 걸으며 느끼는 카타르시스

○ 코스 슬로건

- “눔 참 아고통허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송정 : 무성리 원촌마을 성향산 중턱에 있는 누각. 조선 광해군 7광 10현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곳

○ 해시태그

- #전북의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의 카타르시스



[그림 5-49] 서 코스 17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17-2

○ 코스테마

- “위정척사의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호남의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을 이끈 돈헌 임병찬 선생이 그 가치를 내건 창의유적지를 인근에서 만날 수 있는 코스
- 기울어져가는 국가와 이에 따른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목도한 선생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진 길
- 옥정호의 풍광과 나라를 걱정하던 선비의 마음이 어우러진 곳

○ 코스 슬로건

- “아름다운 풍광을 보며 국가와 백성을 걱정하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돈헌 임병찬 창의유적지 : 대한제국기 의병장 임병찬 선생이 의병을 모아 훈련시켰던 장소. 도끼상소로 이름이 알려진 최익현의 제자로 을사조약 이듬해 무성서원에서 의병 창

○ 해시태그

- #호남은 구국의 땅 #약무호남 시무국가야



[그림 5-50] 서 코스 17-2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18

○ 코스테마

- “모악산 자락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양의 바위가 있어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는 모악산. 모악산은 전주 뿐만 아니라 전북인들의 어머니와 같은 산임
- 3월부터 5월까지 피어나는 진달래와 철쭉으로 유명한 산으로 옥정호로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

○ 코스 슬로건

- “모악산을 걷다보면 옥정호가 나온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남계정 : 조선시대 건립된 누정

○ 해시태그

- #모악산과 모주 #전북자치도를 품은 모악산



[그림 5-51] 서 코스 18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19

○ 코스테마

- “전주의 색다른 모습을 보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전주의 대표 관광지 한옥마을은 전주의 동쪽에 치우쳐 있음. 이 코스는 전주시민들이 사랑하는 전주천변을 중심으로 관광지에서 보지 못한 전주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코스
- 전주 이씨의 문중서원인 황강서원을 비롯하여 전주 원도심의 중심지 서신동,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거듭나고 있는 팔복동(옛날 과거시험에 한 번에 8명이 붙어서 붙여진 이름), 전주의 젊음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는 도청 앞 신시가지 등을 두루 보며 걸을 수 있는 코스

○ 코스 슬로건

- “팔색조 전주의 또 다른 매력”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황강서원 : 조선후기 이문정 등 4인의 선현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 전주이씨 문중서원으로 오늘날에도 향사를 지내고 있음

○ 해시태그

- #전주의 또 다른 매력 #관광지에서 볼 수 없는 전주



[그림 5-52] 서 코스 19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20

○ 코스테마

- “봉황이 따라오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완주는 유독 봉황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보이는 곳(봉동, 봉실, 봉비 등)
- 봉황의 기운을 등지고 걷다보면 만나는 완산 팔경 비비정에서 보는 낙조
- 전북자치도의 마한 역사를 잘 보여주는 상운리고분군은 깊은 역사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음

○ 코스 슬로건

- “태평성대한 마음과 걷기 그리고 봉황”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후정리 비비정 : 조선시대 누정으로 완산 팔경의 한 곳
- 상운리 고분군 : 청동기~삼국시대 고분군으로 전북자치도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마한세력이 위치했음을 보여주는 유적

○ 해시태그

- #봉황이여 #날아오르라 #태평성대한 걷기



[그림 5-53] 서 코스 20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21

○ 코스테마

- “가람이 머무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국문학자이자 시조시인인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가와 기념관이 위치한 코스
- 일제강점기 국문학 특히 시조 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스스로 제자복·화초복·술복이 있는 ‘삼복지인(三福之人)’이라고 자처할 만큼 훈훈한 인간미의 소유자
- 코스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는 세계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미륵사지가 위치하고 있음

○ 코스 슬로건

- “나에게 있는 삼복을 찾아서”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이병기 선생 생가 : 국문학자이자 우리나라의 20세기 시조 중흥에 기여한 시조시인 이병기의 생가
- 미륵사지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 해시태그

- #나의 삼복은? #음주 트레킹은 노노!



[그림 5-54] 서 코스 21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21-1

○ 코스테마

- “만경강 길 따라”

○ 스토리텔링 라인

- 호남평야의 젓줄 만경강을 따라 건다보면 잘 정비된 수변생태공원과 유학의 전통이 서려있는 고산향교를 만날 수 있음
- 눈이 다 모자라 다 볼수 없는' 평야 그리고 만경강이 가지는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

○ 코스 슬로건

- “만경강, 전복을 적시고, 트래커를 적시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고산향교 : 완주지역의 유학의 전통을 이어온 교육시설

○ 해시태그

- #호남평야의 젓줄 #대지를 적시는 강 #마음을 적시다



[그림 5-55] 서 코스 21-1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22

○ 코스테마

- “성스러운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김대건 신부가 첫 발을 내딛은 나바위 성지에서 조선을 지키기 위해 삼대가 목숨을 바친 것을 기리는 삼세오충렬유적까지
- 전형적인 농촌경관에 아로새겨진 한반도를 움직인 모습을 보다

○ 코스 슬로건

-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다”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삼세오충렬유적 : 정유재란과 병자호란때 목숨을 바쳐 국가를 지켜낸 3대의 해주오씨를 모신 사당
- 나바위 성당 : 한국인 최초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사제 서품을 받고 귀국하여 첫 발을 디딘 상징적인 곳. 일제강점기 애국계몽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함
- 해시태그 #천주교 신자 필수 코스 #해주 오씨 필수 코스



[그림 5-56] 서 코스 22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23

○ 코스테마

- “금강의 꿈을 만나러 가는 길”

○ 스토리텔링 라인

- 웅포 지명은 금강의 물을 마시는 형상에서 유래. 금강은 유독 곰과 관련된 지명(고마나루, 공주 등)이 보임
- 웅포관광지에 위치한 곰개나루는 강에서 낙조를 볼 수 있는 몇 안되는 장소로 서해 5대 낙조 관람지
- 조선시대 세곡을 관리하던 성당창이 위치했던 성당포구 마을에서는 오늘날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코스 슬로건

- “낙조와 너와 곰 그리고 강”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곰개나루 / 성당포구 마을

○ 해시태그

- #금강과 곰과 당신 #금강과 낙조



[그림 5-57] 서 코스 23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서 코스 24

○ 코스테마

- “근대로 이어진 길 그리고 백제멸망의 흔적”

○ 스토리텔링 라인

- 군산의 근대를 보여주는 근대역사박물관에서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일어난 군산 3.1운동 역사공원까지 군산이 가진 근대도시의 이미지를 갖춘 길
- 오성산은 백제 멸망 당시 다섯명의 선인과 소정방의 이야기가 전해짐. 이는 백제멸망 당시 군산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코스 슬로건

- “금강하구가 가진 필연적인 역사”

○ 관련 문화유산 및 스토리

-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 아프지만 꼭 기억해야하는 우리의 역사를 간직한 곳
- 3.1운동 역사공원 : 1919.3.5. 한강 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상징적인 지역
- 오성산 : 백제멸망 당시 당나라 장군 소정방을 막으려 했던 5명의 선인 이야기가 전해지는 산

○ 해시태그

- #일제부터 백제까지 #금강하구 무엇이든 들어오는 곳 #대한독립만세



[그림 5-58] 서 코스 24 문화유산 및 스토리자원

1-3. 광역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1) 광역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기획 배경 및 개념

(1) 광역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의 기획 배경

■ 점에서 점, 선에서 선을 넘어 면적인 노선 및 거점마을에 대한 활성화

- 각각의 노선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요소들은 지자체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형과 문화권이라는 각각의 설정권역을 가지고 있음
- 이에 각각의 노선 활성화와 더불어 노선들을 관통하는 광역 스토리텔링을 통한 면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됨
- 특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인 ‘스토리텔링’의 기법상 행정구역 내지는 물리적인 코스에 국한되지 않고,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적용되는 지점을 광역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이에 광역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은 각각의 노선의 활성화에 더해 다양한 노선들과 그 노선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연계점을 중심으로 점에서 점, 선에서 선을 넘어 면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제시됨

■ 전북자치도를 아우르는 광역길 그리고 다양한 관광콘텐츠와의 연계

- 보고서의 서두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본 사업의 주목적은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생태관광지 및 천리길 간의 상호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에 있음
- 또한 단기간 경유형 관광형태를 장기간 체류형 관광형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지자체를 상회하는 단위의 연계방안이 요구됨
- 이를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을 넘어 연계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광역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이를 통한 다양한 관광콘텐츠와의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에코 캠핑 삼천리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1회성 방문이 아닌 다회성 방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 흡인요소가 요구되고 있음

(2) 광역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의 개념

■ 노선 스토리텔링의 기반인 ‘역사’, ‘문화유산’, ‘설화’, ‘관광자원’의 연계

- 광역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은 각각의 기초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 ‘문화유산’, ‘설화’, ‘관광자원’ 등의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연계성에 주목하여 2개 이상의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고 상위 기관

인 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연계프로그램을 의미함

- 가야문화권 ‘남원+장수’, 이성계 관련 콘텐츠 ‘전주, 남원, 완주, 정읍,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전북 일원의 동학 관련 콘텐츠, 최치원 콘텐츠 등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공유하고 연계하는 기초 지자체의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

2) 광역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축제) 개발

(1) 광역-순환형 축제 개발 및 추진

- 지역과 지역을 잇는 연계성을 가진 삼천리길의 특성을 활용
- 동시다발적인 축제가 아닌 순환형 축제를 통해 삼천리길 ‘완주’ 모멘텀 부여
- 개별 코스 또는 지역, 지역간 연계가 가능한 스토리텔링 모델을 중심으로 순환형 축제 개발
- 지역의 대표성과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순환형 축제

(2) 광역-순환형 축제 예시

■ 제주올레걷기축제

- 매년 2~3개 ROUTE를 중심으로 축제 진행
- 지역 관광자원 및 지역민과의 연계를 통한 올레길 활성화 추진

걷기축제

2023 제주올레걷기축제



일시 2023.11.02(목) - 11.04(토)

장소 11월 02일(목) 11코스(정방향)
11월 03일(금) 12코스(정방향)
11월 04일(토) 13코스(역방향)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사단법인 제주올레

문의 제주올레 콜센터: 064-762-2190
jejuolle@jejuolle.org / festival1@jejuolle.org
공식홈페이지 www.jejuolle.org

[그림 5-59] 순환형 축제 예시

(3) 삼천리길 광역-순환형 축제 개발(안)

■ (가제) 방방곡곡 삼천리길 ‘까락까락’ 축제

■ 1년에 2~3개 대표 코스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축제 추진

■ 축제 예시

○ 예시 #1. 진안 : ‘새로운 시작의 길 -> ‘삼천리길, 시작이 반’ 축제

- 진안이 가지고 있는 데미샘(금강 발원지), 마이산(금척산)과 태조 이성계의 건국 스토리 등과 연계한 광역-순환형 축제

○ 예시 #2. 무주 : ‘부남면 바위가 들려주는 이야기’ 축제

- 무주 부남면의 대문바위(옛날 대문을 달았다는 바위.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전설), 섬바위(강 가운데 섬 처럼 떠있는 바위. 영험한 기운으로 영재와 학자배출에 영향을 준다고 함), 각시바위(선녀 이야기, 조선판 고부갈등 등 많은 이야기가 서린 바위) 등을 콘텐츠로 한 축제

○ 예시 #3 남원-무주-전주-임실 : ‘왕이 되려는 자, 이 곳을 오라’ 축제

- 남원의 황산대첩, 무주의 덕유산 산신령, 전주의 오목대, 임실의 상이암 등 이성계와 관련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광역-순환형 축제 개발

○ 예시 #4 남원-장수 : ‘어딜 가야 가야를 만나지?’ 전북가야 대축제

- 남원의 세계유산 남원 유곡리·두락리 및 장수의 가야 봉화 등을 콘텐츠로 한 광역-순환형 축제 개발

○ 예시 #5 남원-부안-장수 : ‘시와 사랑, 그리고 희생’ 조선시대 여성을 만나다 축제

- 남원의 춘향, 부안의 이매창, 장수의 논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시와 사랑 그리고 희생을 주제로 한 축제 개발

○ 예시 #6 순창-임실-전주 : ‘맵-단-짬’ 축제

- 순창의 K-소스 고추장, 임실의 치즈, 전주의 초코파이와 연계한 맵단짬을 소재로 한 축제

○ 예시 #7 군산-정읍 : ‘한반도 최고의 천재를 만나다’ 축제

- 전북지역에서 확인되는 한반도 최고의 천재인 최치원의 흔적을 찾아서 떠나는 축제

2. 마을 비즈니스의 방향성과 비즈니스 모델

2-1. 마을 비즈니스 배경 · 개념 · 정책 동향

1) 마을 비즈니스 배경

(1) 일반원칙

■ 마을 비즈니스는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 활력의 핵심 요소

- 에코캠핑 삼천리길은 기후 위기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현재 점으로 이루어진 지역 관광지와 마을을 선으로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할 것임
-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큰 만큼 지역과 지역, 마을과 마을을 이으며 새로운 문화와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활력소가 될 것임
- 이때 마을 비즈니스는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 활력의 핵심 요소임
- 마을 비즈니스는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 경영적 수법을 차용하고 그 활동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¹⁹⁾이므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시장분석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성적 판단 필요

- 그러나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 가이드라인(2019)²⁰⁾에 따르면 생태관광의 경우, 관련 시장 분석에 필요한 세부적인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나리오분석을 실시하거나 정성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함

(2) 수요분석

■ 관광분야 빅데이터 분석자료로도 세부 정보 파악 곤란

-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 분석자료인 ‘한국관광 데이터랩’²¹⁾에서 본 사업지역은 도내관광객이 주류이며, 숙박 일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보다 적고, 관광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이 약 12% 증가한 데 비해서 약 2% 감소한 상황임

19) 김선기 외(2009). 지역공동체경영사업의 활성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 환경부(2019).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환경부.

21) 한국관광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main/getMainForm.do>

한국관광 Data Lab은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관광통계, 조사연구 등 다양한 관광 빅데이터 및 융합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관광기업, 지자체, 업계, 학계 등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관광정책 수립 및 관광 비즈니스를 수행하도록 지원함

-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지역별 분석’을 위한 항목은 종합분석, 방문자, 관광소비, 소셜미디어, 인기관광지, 유입·유출지역, 유사지역, 지역 집중률 등이나 분석에 활용하는 근거자료가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등이므로 다수가 방문하는 대중 관광지의 이용현황에 국한되며 생태관광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지역별 분석’을 에코캠핑 삼천리길에 대한 시장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움

■ 걷기여행 실태조사는 전국적인 이용행태조사

- ‘걷기여행 실태조사’는 전국민의 걷기여행 경험률 및 한국관광공사 사업 인지도 파악을 위한 전국민 조사와 코리아둘레길 이용행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구성됨²²⁾
- 길 이용행태 이외의 관광 활동 및 이용자 만족도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아 에코캠핑 삼천리길에 대한 시장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움
- 전국의 걷기 여행길 가운데 2022년 한 해 동안 걷기여행자가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해파랑길(24.8%), 제주올레(16.5%), 갈매길(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주올레 등 우리나라 대표 걷기 여행길 방문 비율은 전년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이나 코리아둘레길(해파랑길, 서해랑길, 남파랑길)방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
- 걷기 여행은 당일 여행이 46.7%, 숙박여행이 53.3%로 전년 대비 숙박여행 비중이 크게 증가함
- 걷기 여행길을 한 번 방문할 때마다 평균 3.2시간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임
- 최근 1년 이내에 다녀온 걷기 여행길의 평균 걷기 여행 기간은 1.83일로, 당일 여행 비율은 46.7%, 숙박여행 비율은 53.3%로 조사됨
- 숙박여행 비율이 53.3%로 높게 조사된 결과는 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이 높고 가장 많이 방문한 걷기 여행길이 해파랑길, 제주올레 등 수도권에서 당일 여행이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숙박여행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됨

■ 지리산 둘레길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 지리산 둘레길 이용자 만족도 조사²³⁾에서는 여행 일정 및 숙박 장소, 사용 경비(예산) 및 농산촌 특산물 구매 의향, 개선사항 등이 조사되어 조사 결과의 일부를 본 사업에 활용 가능함
- 여행 일정이 ‘당일’이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박 2일’ 18.6%, ‘4박 5일 이상’ 7.8%, ‘2박 3일’ 5.5%, ‘3박 4일’ 2.0%의 순으로 응답됨

22)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2022), 2022 걷기여행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3) 사단법인 숲길(2023), 2023년 지리산둘레길 순례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 사단법인 숲길.

- 남성은 '1박 2일', 여성은 '당일'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수도권 또는 충청권 거주자는 '1박 2일 이상'의 응답이, 호남권은 '당일'(83.6%)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여행자 수가 6명 이상인 경우 '당일' 여행의 응답이 87.5%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그러나 현재 지리산 둘레길 걷기 프로그램은 당일로만 운영되므로 위의 여행 일정에서 숙박 일수는 전체 여행 일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숙박 장소는 1박 2일 이상 지리산 둘레길을 여행하는 응답자의 63.5%가 '농산촌 마을민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관, 모텔' 25.9%, '지역펜션' 12.9% '캠핑, 야영'(차박 포함) 1.2%로 응답했고 기타 '자연휴양림'(7건), '게스트하우스'(5건), '호텔'(2건)이 있음
- 본인을 포함한 여행자 수는 '2명'이 3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혼자(1명)' 26.9%, '3~5명' 25.9%, '6명 이상' 15.8%의 순임
- 사용 경비는 교통비를 제외한 숙박, 식사, 쇼핑 등 현지 사용 경비로 '5~10만 원 미만'(26.3%)과 '10~15만 원 미만'(23.1%) 구간이 각각 20.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사용 경비의 평균은 18.0만 원이며, 거주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평균이 23.9만 원으로 가장 큼
- 농산촌 특산물 구매 의향은 "지리산 둘레길에서 농산촌 특산물을 구매하거나 구매할 의향이 있다" 42.5%, '보통이다' 40.7%, 의향이 없다 16.8%로 응답됨
- 개선사항으로는 '교통편 개선'(37.8%), '여행자 숙소 개선'(34.1%),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 운영' 20.2%, '인근 관광지 연계 루트 개발' 9.0% 순으로 개선을 희망함

2) 마을 비즈니스 개념

(1) 마을 비즈니스 정의

■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마을공동체

- 마을은 '주민의 생활공간이자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분배하는 상생과 순환의 협동공간이며, 사회적 공동체로 주민의 다양한 관계와 여가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임²⁴⁾
- 한편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특성에 대하여 영국 ODPM(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은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음²⁵⁾

24) 조원지·황영모·배균기·정호중(2022). 전라북도 마을공동체 자립역량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전북연구원.

25) 김영주·박남희(2012).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관점에서 본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가정과 삶의 질 연구, 30(4), 133-146.

- 공동체 활동이 공유되고 응집되어 지역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적이고 포괄적이며 안전한 공동체,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을 대표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공동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공동체, 환경을 배려하는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 등임
- 이처럼 사회자본이 발달한 공동체는 구성원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높은 수준의 ‘지방 민주주의(High-quality local democracy)’를 이룰 수 있으며²⁶⁾, 이를 이상적인 공동체의 상태로 보고 있음

■ 생태관광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생태관광의 주요 전략목표

- 환경부 생태관광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생태관광의 비전은 ‘자연의 풍요로움과 생태공간 확산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이며, 생태관광의 전략 및 이행과제는 ‘자연생태적 지속가능성 향상’,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도모’, ‘지속가능한 법·제도적 뒷받침’임²⁷⁾
-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도모’ 전략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는 ‘생태관광지역 주민역량 강화’,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관광지역 소득향상 및 이익 환원’, ‘생태관광의 가치 증진을 위한 전략적 홍보’이며,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지원사업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음²⁸⁾
- 생태관광지역 주민역량 강화 : 자연환경해설사 운영 개선, 생태관광 디렉터 교육과정 체계화, 생태관광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초·중·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학) 산·관·학 협력 생태관광 교육과정 개설, (종사자) 교육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생태관광 인력의 일자리 기반 마련
- 생태관광지역 소득 향상 및 이익 환원 : 수익성 제고형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역 수익에 대한 이익환원체계 구축, 주민협의회 수익 창출 조직 모델화
- 생태관광의 가치 증진을 위한 전략적 홍보 : 생태관광 인식 증진을 위한 타깃별 홍보, 기존 운영 중인 홍보 채널 선진화, 신규 홍보 채널 확대 및 지역 홍보 맞춤형

■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마을 비즈니스

- 마을 비즈니스는 1970년대 중반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의 유한회사가 ‘Community Business Scotland(CBS)’라는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라는 용어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음²⁹⁾
-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지역공동체가 설립·운영·소유의 주체가 되는 사업조직이자 그 사업을 의미하는데,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고용 문제를 해소하는 등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의 사

26) 김찬동·서윤정(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연구원.

27) 환경부(2019).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환경부.

28) 김보국·김형오·조하진(2020).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사업 중간점검 및 발전방향 연구. 전북연구원.

29) 호소우치 노부타카 편저, 박혜연·이상현 역(2007).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희망제작소..

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영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 버블경제 붕괴 후 구도심 쇠락 현상이 발생하자 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분야 정책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중간지원조직은 일본의 경우, 비영리조직 NPO가 많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종교단체의 결사체 등 주민 주도적 조직이 많고 있음

○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하 마을 비즈니스는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 경영적 수법을 차용하고 그 활동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³⁰⁾

- 마을 비즈니스는 사회성(공공성)·영리성(사업성)·지역성 등 세 가지 특성을 함께 지닌 활동이며, 특히 추진 주체, 활동 영역, 사업목적, 자원 활용, 이익 환원 등의 측면에서 지역성이 매우 두드러짐
- 따라서 마을 비즈니스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음

○ 마을 비즈니스의 3대 개념적 핵심 요소인 사업 주체·사업대상·사업방식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³¹⁾

- 사업 주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주민, 주민단체, NPO, 기업 등)가 사업 주체이며 주민은 지역공동체 경영사업의 이용자인 동시에 경영자의 역할임
- 사업대상: 영리기업과 비영리활동의 중간 영역으로서 지역 만들기, 상가 활성화, 특산물 개발·마케팅, 보육·교육, 환경, 문화, 복지, 시설 운영 등 지역문제 전반을 다룸
- 사업방식: 기업경영방식, 적정이익의 비영리 운영, 이익의 사회 환원이 특징임

(2) 마을 비즈니스 이론

■ 내발적 발전이론에서의 마을 비즈니스

- 내발적 지역발전 이론에서는 사회의 발전은 그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환경하에서 사회구성원이 지닌 활력을 살리고 지역의 제 자원을 이용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주민의 창의와 노력에 의한 자율적·자립적 발전, 주민 참가와 협동, 자치에 의한 발전을 추구함
- 외래 자본이나 보조금에 대해서도 지역경제의 자립성 혹은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중시하여 지역주민이 주체적·계획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요시함
- 또한 독점자본 본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구조로부터의 변혁을 추구함
- 구조 변혁을 기다리거나 구조 변혁을 전제로 해서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실천을 통해 전체 구조를 바꾸려고 함

30) 김선기 외(2009). 지역공동체경영사업의 활성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1) 김선기(2011).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정책 추진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궁극적으로 공생사회의 실현을 추구하는데 이는 인간과 인간의 공생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보전을 통한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을 추구하는 것임
 - 지역개발의 목표는 단순한 경제적 개발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즉, 경제적·사회적·생태적으로 통합된 발전을 추구함
- 내발적 발전에서는 지역개발의 방법으로서 발전의 동력을 원칙적으로 지역 내에서 찾으며 지역 내 자연적·인적·물적·문화적·환경적 자원의 최대한 활용을 통한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의 성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고 보전되도록 함
- 모든 지역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부터 동시에 영향을 받고, 지역 밖과 항상 상호작용을 하므로 외부와의 관계를 중시하여 외래 자본이나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어디까지나 지역의 주체적 계획과 필요성에 의해 외부와의 관계를 설정함
- 내발적 발전에서는 지역발전의 주체가 원칙적으로 지역 자체이므로 따라서 지역 주도의 상향식 발전,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동, 자치에 의한 발전이 중요시됨
- 지역주민, 지역의 기업, 지자체, 협동조합, NGO, NPO 등이 지역발전의 주체이나 지역주민의 자치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주민역량 강화가 중요함
 -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행위자 사이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의 주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함³²⁾

■ 지역순환경제에서의 마을 비즈니스

- 내발적 지역발전(Local Endogenous Development) 측면에서 지역순환경제(Circular Economy)란 '주체로서의 지역이 이윤을 얻기 위해 지역 밖에서 들어온 독점자본을 통제하여 지역에서 생성된 자본이 지역 안에서 순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시민 실천적 전략'임³³⁾
 - 주체적 사회운동의 공간으로서의 지역, '로컬(Local)'이 지자체와 시민사회 간의 연합에 의한 '지역주의적 통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보다 '지역화(Localization)' 하고자 하는 대응이자 운동임
-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은 '지역력 강화', '지역 내 생산 증대', '지역 내 소비증대', '지역 내 재투자력 강화', '지역 간 연대', '전략 간 연계'에 의해 구현됨
 - '지역력'이란 지역의 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의 총체로서 지역발전 거버넌스에 의한 사회적 조정을 통해 강화되며, 지역 내 생산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육성과 지원, 기업 간 수급관계의 강화 및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등이 필요함
 - 지역 내 소비증대에는 특히 공공부문과 주요 기관의 조달력 활용, 즉 행정사업 발주에 의한 공공경제 활

32) 박진도(2011).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33) 2024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홈페이지 <https://knled.org/pages/159>

- 성화가 중요하며,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통한 이윤의 지역 내 재투자력 강화가 필요함
- 지역 간 연대 성공조건은 공동목표의 존재,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내부갈등 해소방안 모색, 성과의 공정한 분배이며, 이를 위해 광역권 조정 기구가 필요함
 - 또한 위의 전략 간 상호 연관성에 유의하여 시너지 효과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략 간 연계가 필요함
- ‘지역자산 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 CWB)은 지역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과 오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지역발전 모델이며, 지자체(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이른바 지역의 앵커기관(Anchor Institution)을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주체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Wealth)를 역외로 유출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순환경제의 방법론임
- 대표적인 사례로 2004년 미국의 연구기관 The Democracy Collaborative(TDC)에 의해 고안되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시행된 ‘클리블랜드 모델’(The Cleveland Model)이 알려짐
 - 클리블랜드에서는 대규모 지역기관에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적기업 Evergreen Cooperatives를 설립하였는데, 산업용 세탁 서비스로 시작하여 현재 5개의 협력사업체를 보유할 정도로 성장했고, 직원들은 협동조합 기업을 소유하며 생활임금과 주택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음³⁴⁾

3) 마을 비즈니스 정책 동향

(1) 마을기업

-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의 지역특산물 가공, 관광 · 체험, 지역 먹거리 유통(로컬푸드), ‘마을 관리형’ 마을기업의 걷기노선 및 마을 캠핑장 운영 등 에코캠핑 삼천리길 참여
-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임³⁵⁾
- 2011년부터 시행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근거로 추진되었으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함
 - 2022년 12월 기준 마을기업 수는 전국적으로 1,770개이며 전북의 경우 113개임
- 마을기업을 구성하는 주체와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지역주민: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4) 마저리 켈라-테드 하워드 저, 홍기빈 역(2021). 모두를 위한 경제-합리적인 공동체의 희망클리블랜드-프레스턴 모델 설명서. 학교재.

35)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mois.go.kr/frt/sub/a06/b06/village/screen.do>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연계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기업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의 운영원칙에 근거하여 지정됨
 - 공동체성: 기업의 구성·운영에 있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 민주적 운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지향하는 공동체로서 5인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출자를 권장함
 - 공공성: 호혜와 협력에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헌 및 상생을 위한 활동을 통해 공익적 및 공공적 가치 창출해야하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 30% 이하,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 사업계획서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필수 이행하여야 함
 - 지역성: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교환·분배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통해 지역활성화에 기여함
 - 기업성: 시장경쟁력이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매출 및 수익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법인체
- 마을기업의 유형은 성장단계별, 사업 성격별로 구분되어 사업고도화 등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³⁶⁾
 -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예) 지역특산물 가공, 관광체험, 지역 먹거리 유통(로컬푸드) 등
 -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 (예) 노인돌봄 및 서로돌봄, 공동육아, 방과후학교, 주거복지 등
 - (마을 관리형) 마을자산 운영, 지역재생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다른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예) 마을주차장 운영, 도시재생사업 수행 등
- 마을기업 지정·운영을 위하여 학습 프로그램과 운영보조금이 지원됨
 - 입문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하며, 마을기업 지정에 따라 최대 3년간 1억 원을 지원하며, 판로지원, 교육·컨설팅 지원, 홍보 및 가치확산 지원, 네트워크 조성 등을 지원함³⁷⁾

(2) 협동조합

■ 협동조합 방식의 마을기업 간 연계, 관광레저분야 업종별 협동조합의 에코캠핑 삼천리길 참여

- 협동조합이란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주인인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공동체’임
 - 2012년에 제정되고 2021년에 일부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며, 협동조합의 소관 부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46개 부처임
 - 협동조합의 수는 전국적으로는 26,030개, 전북은 1,758개 협동조합이 등록되어 있음

36) 행정안전부.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행정안전부.

37)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sehub.net/village-support>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협동조합으로 정의함

■ 관광레저분야 협동조합 현황

- 협동조합은 산업 분야 전체를 망라하고 있으나 관광레저분야 협동조합은 한국산업분류에서 별도로 업종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국내 관광레저분야 협동조합 현황에 대한 초기 조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³⁸⁾에 의하여 30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점 추진사업은 여행상품 개발 및 공정관광, 농산어촌 체험관광, 숙박시설 운영, 관광안내 서비스, 축제·이벤트, 의료관광 및 관광기념품, 복지관광 등이었음
- 이후 권유흥·허문경(2018, 2019)은 국내 관광레저분야 협동조합의 현황을 파악하고 375개 일반협동조합을 특정함
 - 창업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신중년세대에게 관광레저분야 협동조합이 출자금에 대한 위험 분산 효과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활동을 통한 여가욕구도 충족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국내 6개 관광레저분야 협동조합 등에 대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고 ‘일자리 중심형’과 ‘여가중심형’으로 구성된 총 8개의 관광레저분야 협동조합 창업모델을 제시함³⁹⁾
 - ‘관광’ ‘여행’ ‘레저(여가)’ ‘숙박’ 및 ‘컨벤션(마이스)’ 관련 키워드를 사용하여 2018년 12월 말 기준 협동조합 설립현황자료(www.coop.go.kr)를 검색해 296개 협동조합을 발견하였고, 이 가운데 사업내용에 운수업, 기념품제작·유통·공동구매 등만 명시된 104개를 제외하여 192개 1차 리스트를 확보하고, 다음 단계로서 협동조합 명에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은 관광레저분야 협동조합을 찾기 위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록 협동조합들의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176개를 추가함. 여기에 2018년 관광두레 안내책자에 수록된 12개 협동조합을 추가하였고,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세 곳을 더해 총 383개의 관광레저분야 협동조합 리스트를 확보하였으며, 이 가운데 8개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375개 일반협동조합을 특정함⁴⁰⁾

(3) 자활기업

■ 세탁업 등 자활근로사업단의 에코캠핑 삼천리길 참여

-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38)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관광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9) 권유흥·허문경(2018). 50+당사자연구 연구보고서-50플러스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레저분야 협동조합 창업모델개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40) 권유흥·허문경(2019). 국내 관광레저분야 일반협동조합의 특성과 시사점. 한국협동조합연구. 37(3). 한국협동조합학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임
- 2022년 기준 자활기업 수는 전국적으로 1,012개이며 참여자수 10,649명이고, 전북의 경우, 전국자활기업 1개, 광역자활기업 6개, 지역자활기업 84개임
-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활용),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기계설비 및 시설 보강사업비 (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우수자활기업지원 (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선정), 사업개발비,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인건비(최대 5년),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신용보증기금 연계)등을 직접 지원하며, 간접지원 항목은 국공유지 우선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물 우선구매, 사업자금 융자, 전세점포 임대지원임⁴¹⁾

(4) 관광두레

■ ‘관광두레’란 주민공동체 기반,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 관광두레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 7과 제48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며 관광벤처사업, 마을기업 등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부터 ‘관광두레’라는 사업명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숙박·식음·여행·체험·레저·기념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있음⁴²⁾
 -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관광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함
 - 현재 52개 지역, 51명의 관광두레PD, 230여 개 주민사업체, 1,000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음
 - 직접 지원금은 없으며 교육·컨설팅, 컨설팅, 파일럿 상품 운영, 디자인·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함
- 관광두레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을 맡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두레PD의 활동 지원과 관리, 주민사업체의 발굴과 육성(사업화 계획 수립 지원, 역량 강화, 창업과 경영개선 파일럿사업 지원 등), 사업 모니터링, 평가 등 사업을 총괄 운영함
 - 지방자치단체는 관광두레사랑방 제공, 지역자원 연계 지원과 같은 간접 지원을 함
 - 관광두레PD는 관광두레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 주체입니다. 지역 현장에서 주민사업체의 발굴과 조직화에서부터 창업과 경영개선 지원까지 사업을 총괄적으로 진행합니다. 관광두레PD는 총괄기관과 주민, 지자체와 주민, 고객과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에서 중간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획자이자 활동가임

4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https://kdisw.or.kr/menu.es?mid=a10601050000>

42) 관광두레 홈페이지 <https://tourdure.visitkorea.or.kr/home/main.do>

- 주민사업체는 최소 3인 이상의 지역 거주 주민으로 구성된 관광두레 사업 육성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공동체임
- 관광두레 지정현황은 권유홍·황병중·한주형·허문경(2021)⁴³⁾ 조사 결과 2013년 이후 2020년까지 총 606개소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지정함
- 2021년 8월 말 기준 총 606개 사업체 가운데 주민사업체 중 임의단체가 234개소로 가장 많고, 일반협동조합 146개소, 주식회사 104개소, 영농조합 77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지정된 주민사업체는 법 인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임의단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함
- '20년까지 지정받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총 606개 중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거나 채용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사업체를 포함한 사업체는 55.6%인 총 337개임
- 한편 관광 분야에서 설립된 사회적경제 조직 총 1,536개소 중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는 858개로 파악됨

(5) 그루경영체

■ '그루경영체'란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주민공동체 사업

- 그루경영체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5인 이상의 주민공동체'를 일컫음
- 산림자원을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판매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점차 지속가능한 경영주체로 자립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그루매니저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여 그루경영체의 특성과 성장속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사업 설계
- 성장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주민 스스로 갖춰갈 수 있도록 3년간 교육 형태의 간접 지원을 받음
-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등으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존 법인체는 선정을 제한함
- 그루경영체에 대한 '3년간 교육 형태의 간접 지원'은 1차년도 그루경영체 발굴 및 사업계획수립, 2차년도 성공창업과 경영개선 유도, 3차년도 지속 성장 및 모범사례 육성이며,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자생력을 갖춘 경영체를 선정하여 4, 5차년도 추가 지원함
- 선정된 그루경영체에는 창업에 필요한 견학, 자문, 워크숍,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네트워크, 법인화, 홍보, 마케팅, 파일럿 등이 제공되며 사업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선정된 그루경영체가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그루매니저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함
- 그루경영체 활동지역은 2023년 현재 6기 그루매니저가 활동 중인 14개 지역임

43) 권유홍·황병중·한주형·허문경(2021).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두레 협력 네트워크 강화방안. 한국관광공사

- 경기 안성, 강원 고성, 강원 속초, 강원 평창, 충남 당진, 충남 서천, 경북 봉화, 경북 영양, 경북 구미, 경북 영천, 대구 달서, 울산 남구, 경남 통영, 전북 전주
- 한편, 2022년 신규 그루매니저 13명 선발은 경기 용인, 경기 안산, 인천 남동, 충북 제천, 충북 진천, 충남 부여, 충남 금산, 경북 안동, 경북 경주, 경남 진주, 전북 익산, 전북 부안, 전남 광양이다. 기존 지원 사업이 진행되었던 32개 지역과 함께 총 45개 지역에서 그루매니저가 산림일자리발전소와 함께 일함
- 중간지원조직은 ‘산림일자리발전소’로서 지역의 인재를 찾고, 재능과 전문성을 키워내어 지역에서 일자리 즉, 산림비즈니스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조직임
-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혁신적인 사업방식을 실현시켜 나감
- 또한 지역별로 ‘그루매니저’가 산림일자리발전소와 그루경영체, 지자체와 그루경영체, 그루경영체와 그루경영체 사이에서 중간 연결자의 역할을 수행함
- 그루경영체 평가지표 중 공익성, 목적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을 중요시하고 있음
 - 공익성: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지역 상권에 충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편익 제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인가?’- 일자리의 창출 가능한 인원수
 - 목적성: ‘산림자원을 활용하는가?’- 추진하는 사업아이템과 산림자원의 연관성, ‘산림분야의 고유의 목적성에 부합하는가?’- 산림일자리 창출의 저변 확대에 대한 효과 등임

■ 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 한편 산촌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의 사업개발·실행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으며, 산촌생태마을 또는 산촌 주민 5인 이상으로 결성한 조직에 대하여 1개 공동체당 2,00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함⁴⁴⁾

4) 생태관광지역 마을 비즈니스 정책 동향

■ 생태관광은 주민이 관광의 주체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중심형 관광

- 생태관광이란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태환경과 지역문화의 해설, 교육을 통해 자연 자원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주민이 관광의 주체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중심형 관광임⁴⁵⁾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하면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관광을 일컫음
- 세계생태관광협회(TIES)는 생태관광을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고려하여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책임 있는 여행으로 정의함

44)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ofpi.or.kr/service/forestJob_02.do

45)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jb-ecotour.org/page/page4>

(1) 명품마을

■ ‘명품마을’은 국립공원 지역 내 마을 생활환경 개선과 생태관광을 통한 소득증진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

-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존치하는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생태관광으로 소득증진을 기하는 ‘명품마을’ 조성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함
 - 2023년 기준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별 특성을 살린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개발함
 -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국립공원 내 마을 인구가 극히 과소화되고 낙후된 존치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국립공원 자연생태계와 경관·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크게 향상하는 사업임
 - 국립공원과 지역사회와의 성공적인 협력사업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명품마을 조성에 따라 많은 방문객이 유입되어 매년 13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편익)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⁴⁶⁾

(2) 생태관광지역

■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 결과 방문객과 소득이 대폭 증가

-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생태관광의 육성을 근거로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함
 - 생태관광지역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35개 지역임
 - 전북은 고창군 고인돌·운곡습지와 정읍시 월영습지와 솔티숲이 선정되었으며 각각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 솔티마을이 운영체로서 마을 비즈니스를 담당함
 - 인제군 생태마을, 고창군 고인돌운곡습지, 제주 동백동산습지, 신안 영산도 등 4개 지역은 생태관광지역 지정 이전과 비교하여 방문객과 소득이 평균 112%, 79%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음⁴⁷⁾
- 생태관광 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관리방안 마련 차원에서의 지원, 지역 맞춤형 지원, 지역사회 역량 강화(전문성 강화) 차원에서의 지원, 지역사회 경제 기반 확보 차원에서의 지원,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 및 콘텐츠 다양화 차원에서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지원방안으로는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홍보(웹사이트, 브로셔 등), 로고 사용, 생태계 조사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자원관리,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 교육·체험을 위한 기반 시설(해설판, 데크, IT 기반 환경) 조성 컨설팅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음
- 환경부는 ‘생태관광지역’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준비하고 고려할 사항을 안내한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 가이드라인」(2019)⁴⁸⁾을 마련함

46) 국립공원연구원(2018). 국립공원 명품마을사업의 사회 경제적 가치평가.국립공원연구원.

47) 환경부 홈페이지 <https://www.me.go.kr/wonju/web/index.do?menuId=10143>

-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에는 생태관광의 준비, 운영·관리, 성과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에는 다음과 같이 마을 비즈니스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생태관광과 연계한 지역주민 일자리 및 소득 창출방안이 강구되었는가?
 - 지역에서 생산되는 향토음식과 특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하였는가?
 - 음식 네이밍, 포장재 디자인, 브로셔·리플렛 배포 등 브랜드를 창출하여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가?
 - 체류형 생태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사업을 발굴하였는가?
-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에는 지역주민 소득창출 및 고용확대 비즈니스모델이 제시됨
 - 적용 가능한 소득창출/고용확대 항목을 확인하고 가능성 정도를 3등급(상, 중, 하)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개발 가능성을 표시하고, 있을 경우, 현재 수준으로부터의 개선 가능성을 평가함

(3) 숲길/둘레길

■ 산림청은 길 관리조직을 운영·지원하나 길 주변 지역의 마을 비즈니스 지원은 불포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 의해 관리하며 산림청 ‘숲길’은 등산로, 걷기노선, 산림 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로 분류함
 -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등산),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트레킹), 산림에서 하는 레저·스포츠 활동(산악레저스포츠),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탐방),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지정함
 - 금강소나무숲길, 내포문화숲길, 사려니숲길 등이며 전북지역에는 지정되지 않음
- 한편, 산림청은 ‘숲길’ 분류체계 상 걷기노선 안에 ‘둘레길’을 포함함
- ‘트레킹’은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트레킹)’을 하는 길’로서 ‘둘레길’과 ‘걷기노선’이 여기에 해당함
 - ‘둘레길’은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임
 - ‘걷기노선’은 산줄기나 산자락을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임
 - 둘레길에는 지리산둘레길, 편지불둘레길이 있으며 전북지역에는 지리산둘레길 일부 구간이 해당함⁴⁸⁾

(4) 산촌생태마을

■ 산림청은 ‘산촌생태마을’을 지정하고 ‘여행가기 좋은 우수 산촌생태마을 10선’을 홍보

- 산촌생태마을이란 도시나 농촌과 구별되는 지역 개념으로 산림으로 둘러싸인 곳에 터전을 이루고

48) 환경부(2019).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환경부.

49) 산림청 홈페이지 https://www.forest.go.kr/kfswb/kfi/kfs/cms/cmsView.do?mn=NKFS_03_01_10_01_01&cmsId=FC_001194

있는 마을로서 전북에서는 진안군 세동리 웅치골마을이 포함됨⁵⁰⁾

- 친환경 농산물 및 임산물 생산의 중심지이자 전통문화와 유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산촌생태마을은 주거지로서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가치도 뛰어난 곳으로 건강한 휴양과 살아있는 자연학습의 장으로 자연 속 힐링을 추구하는 관광객들로부터 각광 받고 있음
- 계곡물놀이, 한방찜질방 체험, 편백치유의 숲체험, 아로마테라피 체험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됨

(5) 전북 생태관광지

■ 전북 생태관광 정책의 주요 목표는 공동체 조직 발굴·지원, 사회적경제 실현

- 전북은 국내 지자체 최초로 1시군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를 개소함
 - 2015년 생태관광지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조례 제정함
 - 2016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개소함
 - 2018년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 국가생태관광지 지정됨
 - 2020년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주민주도형 경영방식 도입함
 - 2021년 남원, 김제, 완주 주민협의체 구성, 2022년 익산, 진안 주민협의체 구성함
 - 2022년 에코매니저 교육, 고창 람사르습지도시 국제 인증받음
 - 2023년 체류형 관광객 유치 추진하여 지역주민 소득창출 도모함⁵¹⁾
- 전북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는 전북 천리길, 전북 생태관광, 전북 지오파크의 통합 브랜딩을 담당함
 - 전북 천리길은 14개 시군의 대표길 44개 노선, 12개 시군의 생태관광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진안 무주권 지질공원과 전북 서해안권 지질공원을 포함함
-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는 공동체 조직을 발굴·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해 생태관광벨류체인을 구축하는 제4섹터형 광역중간지원조직임
- ‘전북 생태관광 벨류체인’을 통해 단기·중기·장기 정책적 목표와 지향점이 제시됨
 - 마을 비즈니스는 중기 목표인 ‘생태관광 기반시설’과 ‘생태관광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짐
 - 생태관광 기반시설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결합되어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한 모델로 설계됨
 - 생태관광 공동체는 개인-마을-협의체를 포함하며 협동적 의사결정 공동체이자 경제적 공동체임
- 전북 생태관광의 정책적 지향점은 유·무형의 자원관리 시스템임
 - 공기와 물, 토지, 숲과 같은 물질과 지식, 프로그램, 행위 등과 같은 비물질적 자원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

50) 산림청(2018). 여행의 시작 숲 - 여행가기 좋은 우수 산촌생태마을 10선. 산림청.

51) 전라북도(2023). 2023 전라북도 생태관광 시군평가. 전라북도

- 인 커먼즈(common) 즉, 공동자원⁵²⁾에 대한 관리체계로서 생태관광 정책을 추진함
- 전북 생태관광은 장기적, 궁극적으로 국제적 생태복원 연대에 동참하여 글로벌 생태 가치 회복에 기여하고 전북의 생태적 대전환을 도모함
 - 전북 생태관광 차별화를 위해 ‘통합 브랜딩’, ‘현장 고도화’, ‘시장성 강화’ 등 3대 전략이 제시됨
 - 시장성 강화는 ‘마을경제순환체계’, ‘협동플랫폼 구축’, ‘생태계서비스 시장성’ 등 세부 전략에 의해 구현 가능함

■ ‘마을기업화’에 의한 생태관광 서비스품질 고도화

- ‘시장성 강화’를 위하여 ‘전북 생태관광 협동플랫폼’을 설치하며, 협동플랫폼의 구성요소는 ‘에코매니저’, ‘지역협의체’, ‘마을기업화’⁵³⁾
 - 생태자원의 보전·관리책임은 지는 지역활동가 ‘에코매니저’, 비영리조직으로 생태 보전의 역할을 하는 ‘지역협의체’는 개인과 조직의 협동이 축적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임
 - 생태자원의 공간과 민주적 지역협의체의 운영과 더불어 ‘관광’이 강조되고 있음
 - ‘마을기업화’에 의한 관광의 서비스품질 고도화는 경제성 지속가능성 구축에 중요한 요소임
- 전북 생태관광지 마을 비즈니스는 지원사업에 의한 사무국 운영, 프로그램 운영 및 에코푸드 개발로 이어지고 있으나,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 또는 타지원사업에 의해 이미 사업기반이 마련되어 운영 중인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마을기업화’는 기반구축단계임

5)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의 마을 비즈니스 정책 동향

■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강화를 위해 관광객·관광사업자·정부·지역주민 등의 참여 강조

-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에서는 7개 정책과제 중 4번째로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강화가 강조됨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추진 과제로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 ‘저탄소 녹색관광의 실현과 확산’이 제시되고,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을 통해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생태관광명소의 보전과 관리기반이 마련됨
 -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걷기여행길 활성화, 코리아둘레길 구축 등을 통해 친환경 선형관광루트인 걷기여행길이 구축되고 있으며 ‘두루누리(코리아 모빌리티)’로 걷기여행길 관련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제공됨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52)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홈페이지 수록 ‘자원공유·공생 커먼즈, 플랫폼 만나 자본주의 대안으로 도약’ 재인용.

53)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jb-ecotour.org/page/page5>

고려해야 하며 관광객, 관광사업자, 정부, 지역주민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 관광환경의 사회적 변화로서 인구감소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20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으며,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46%에 이르고 있어 대처 방안이 요구됨
- 환경적 변화로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배려의 폭이 넓어지고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기존 관광지 등은 시설 및 구조를 저탄소로 전환해야 하며, 관광교통분야 등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고 타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시범 사례 또는 대상지 조성이 필요하게 됨
- 기업의 재무적 지표보다는 ESG 등 사회적 역할이 중시되면서 MZ세대들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환경을 고려한 관광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 마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직인 ‘지역관광 혁신조직(DMO)’ 설치

- 정책적 변화로서는 지방분권 가속화 및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요 관광개발 사업의 지방 이양이 완료되었고, 국가관광 전략회의 등을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방안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을 추진하게 됨
- 이에 따라 시·도별 거점지역에 ‘(가칭)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시·군·단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관광두레 중심의 마을관광 육성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지역관광활동가를 육성하는 지역관광 혁신조직(DMO)을 설치함
- 또한, 지역 내 다양한 관광기업 양성을 목적으로 업무·교류공간 조성 및 입주기업 대상 경영자문(컨설팅), 관광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전북관광지업지원센터를 비롯한 전국에 8개의 관광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광역단위 관광개발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되었음
- 이를 통해 지역관광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지역사회 자생적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중요하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제안하는 기회가 확대됨⁵⁴⁾

54)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

2-2. 마을 비즈니스 현황분석

1) 마을 비즈니스 문헌조사

(1) 해외 걷기노선 마을 비즈니스 현황

스페인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 마을 비즈니스⁵⁵⁾

■ 매년 전 세계적으로 2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특별 숙소인 알베르게(Albergue)에서 숙박⁵⁶⁾

- 카미노 데 산티아고는 유럽 전역에 뻗어 스페인 북서부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있는 성 야고보(스페인어로 산티아고)의 무덤에서 만나는 고대 순례길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로서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의 론세스바예스에서부터 스페인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 산티아고까지 약 780km 구간으로 완주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됨
- 814년 이베리아반도의 복음주의 사도 성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되고 스페인 왕 알폰소 2세가 성 야고보가 묻힌 자리에 성당을 지은 뒤 서기 1000년을 전후로 기독교인들의 순례가 이어지자 순례길 주변에 병원, 교회, 수도원, 마을이 형성되었고 14세기에는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로 인해 쇠퇴했으나 1960년대 옛길이 복원되어 매년 전 세계적으로 2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관광객에 의한 지역 사회 활성화, 문화자원과 스포츠 자원화로 이어짐
- 마을 비즈니스는 지방정부, 성당,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특별 숙소인 알베르게(Albergue)에서의 숙박이 중심이며 알베르게에서의 숙박은 순례자에게 국한되며 일반 관광객이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순례자들에게는 숙박을 불허함
- ‘Follow the Camino’⁵⁷⁾라는 안내 프로그램은 36일 코스 3,323유로(약 484만 원), 8일 코스 639유로(약 93만 원), 7일 코스 554유로(약 80만 원)로 운영되며 식사 포함 고급숙박시설, 매일 수하물 이동 서비스, 상세지도 제공, 긴급 지원, 여행 및 교통편 조언, 출발 전 온라인 브리핑, 공식 순례자 여권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자전거 및 사이클링 대여, 공항 교통편 등을 제공함
 - 이들 프로그램에는 와인을 포함한 미식이 제공되는 것이 홍보물에 부각됨

뉴질랜드 밀포드트랙(MILFORD TRACK) 마을 비즈니스⁵⁸⁾

55) 카미노 데 산티아고 홈페이지. <https://santiago-compostela.net/>

56) 산림청 홈페이지. https://www.forest.go.kr/kfswweb/kfi/kfs/cms/cmsView.do?mn=NKFS_03_01_10_03&cmsId=FC_001564

57) Follow the Camino 홈페이지.

https://followthecamino.com/?utm_source=santiagocompostela&utm_medium=banner&utm_campaign=SCnet_banner&utm_content=walkthecamino

58)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Fiordland National Park Visitor Centre) 홈페이지.

<https://www.doc.govt.nz/parks-and-recreation/places-to-go/fiordland/places/fiordland-national-park/things-to-do/tracks/mil>

- 뉴질랜드 그레이트워크(The Great Walk) 중 가장 유명한 코스, 매년 전세계에서 약 1만 4천 명 완주⁵⁹⁾
 - 마오리족 원주민이 이용하던 길로 1888년부터 유럽인에게 알려졌으며, 뉴질랜드 남서부에 위치한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중심부에 위치한 테아나우(Te Anau) 호수의 끝에서 밀포드사운드(Milford Sound) 까지 53.5km 구간임
 -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에는 밀포트, 케플러, 루트번 등 총 500km의 걷기노선이 있으며, 난이도는 6단계로 표시되는데 밀포트트랙은 4일이 소요되는 중급 코스임
 -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안에는 마을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근 마을을 포함한 지역의 이용시설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음
 - 국립공원관리공단(Department Of Conservation Te Papa Atawhai)은 밀포드 트랙에서 3개의 오두막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약이 필요함
 - 캠핑은 허용되지 않으며 시즌 동안 운영되는 오두막에는 침대, 매트리스, 난방, 화장실과 기본적인 조리 시설이 제공되며, 태양열로 가동되는 조명, 온수는 제공되지 않는 조건에서 1박 기준 뉴질랜드 거주자 성인 78달러, 17세 이하 무료, 외국인 방문객은 성인 110달러, 17세 이하 55달러임

미국 아팔레치안 걷기노선(APPALACHIAN TRAIL) 마을 비즈니스⁶⁰⁾

- 걷기노선의 보전·관리를 협의체로 일원화하여 기부금에 의해 운영하며 다양한 직군의 운영자가 참여
 - 미국 동부 아팔레치안 산맥의 등산로로서 총거리는 약 3,360km이며,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3,000명 이상이 완주함
 - 14개 주에 걸쳐 8개의 국유림과 6개의 국립공원, 60여 개의 주립공원을 통과하는 역사적·문화적으로 의미가 깊은 등산로이며 1921년 시작되어 1968년 지정됨
 - 길 관리주체로서 The Appalachian Trail Conservancy(ATC)가 1925년에 창립되고 1984년에는 보전·관리가 ATC로 일원화됨
 - ATC는 미국 50개 주와 15개국 3만 명의 회원과 60만 명의 지지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운영하며, 산림청, 주정부, 구간별 관리단체, 사유지 산주, 후원기관, 31개의 지역 ATC조직은 협의체를 이룸
 - 다양한 ‘기업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지역사회기반기업, 가족경영기업 등은 기부금을 ATC에 내고, ATC는 아팔레치안 걷기노선 참가자 대상 프로그램과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함
 - 한편 길 운영조직의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는데 현재 게시된 채용공고는 17개이며 토지관리기술자, 안내자, 베이스캠프 코디네이터, 현장 코디네이터, 관리조직 임원 등임⁶¹⁾

ford-track/

59) 산림청 홈페이지.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3_01_10_03&cmsId=FC_001566

60) Appalachian Trail Conservancy 홈페이지. <https://appalachiantrail.org/>

🌿 일본 큐슈올레(九州オルレ) 마을 비즈니스⁶²⁾

■ 연계 프로그램이 다양하여 이용이 편리하고 마을 비즈니스 활성화 효과가 매우 높음

- 큐슈올레는 일본에서 제주올레의 ‘자매판’으로 큐슈올레 조성의 주체는 큐슈관광기구(九州観光機構)이며 큐슈올레 조성을 위해 제주올레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제주올레에서 코스 개발 자문과 브랜드 사용, 표식 디자인 등을 제공함
- 큐슈올레 코스는 현재 18개이며 다양한 코스이용을 위해 지역별로는 큐슈지역 7개 광역자치단체와 분야별로는 ‘자연경관’, ‘체험·활동’, ‘온천’, ‘미식’, ‘도심걷기’, ‘역사·유적’을 키워드로 검색 가능함
 - 검색에 의해 각각의 모델코스가 제시되고 음식점과 숙박업소, 특산물판매점 정보가 제공됨
- 마을 비즈니스 현황은 ‘체험·활동’, ‘온천’, ‘미식’ 등 키워드 검색으로 제공되는 업체 정보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의식주는 물론 자전거 대여를 포함한 9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함
 - 특산물판매점인 미치노에키(道の駅)는 농수산물가공품 판매 플랫폼이자 식당으로 마을 비즈니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며 큐슈올레에서도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거점시설로 활용되고 있음
 - 이밖에 체험·활동은 계절별로 변동하는 운영 프로그램 검색이 가능하며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이용객의 지역 내 체류시간 연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짐



[그림 5-60] 큐슈올레 체험상품 검색화면 일부

출처: 九州オルレ 홈페이지. <https://www.welcomekyushu.jp/taiken/reserves/?prefs%5B0%5D=kumamoto>

61) Appalachian Trail Conservancy 채용공고.

https://workforcenow.adp.com/mascsr/default/mdf/recruitment/recruitment.html?cid=308869eb-4bf3-4360-a0b8-b26c926a5f77&ccId=19000101_000001&lang=en_US

62) 九州オルレ 홈페이지. <https://kyushuolle.welcomekyushu.jp/>

(2) 해외 마을 비즈니스모델

 스페인 사회연대경제와 관광·레저분야 기업■ 관광·레저분야 사회적포섭기업 ‘일 루니온(ILUNION)’⁶³⁾

- 1938년 설립된 시각장애인 단체 ONCE가 모태인 사회적포섭기업(社会包摂企業)이며 ILUNION 브랜드는 2014년 도입함
- 주요 사업은 세탁 등 생활 서비스, 호텔 및 호스피탈리티(호텔, 케이터링, 스포츠레저클럽), 마케팅, 커뮤니티헬스 및 소셜케어 등 50개 이상의 사업 부문임
- 고용인원은 스페인 내 479개 작업장(46개 세탁공장, 26개 체인호텔, 100개 편의점, 2개 레스토랑 등에서 35,8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14,800명이 장애인임

■ 관광·레저분야 협동조합 ‘라 시우타트 인비지블(La Ciutat Invisible)’⁶⁴⁾

- 바르셀로나 시내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인 sants지구에서 관광 안내를 하는 협동조합으로 2005년 설립되었으며 조합원 7명으로 운영됨
- 주요 사업 분야는 전문서점 운영, 사회경제 관련 콘텐츠 및 프로젝트의 조사·연구·개발, 관광 안내임

■ 시사점

- 사회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지원체계
 - 스페인 중앙정부는 사회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회보장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 대상자의 장애 정도·나이·성별에 따라 연간 4,500~6,300유로의 사회보장세를 감면함
 - 지방정부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각각 다른 조건으로 지원하는데, 바르셀로나에서는 기업이 사회적약자를 고용하면 1인당 최대 30개월간 최저임금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특별고용센터의 장애인 고용에는 마드리드와 동일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50% 보조금을 지원함
- 비숙련직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회적포섭기업
 - 사회적포섭기업이란 스페인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비숙련직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형태의 기업으로 카탈루냐에서는 주법에 의해 2002년, 스페인 전국법은 2007년에 사회적포섭기업을 인정함
 - 2014년 기준으로 카탈루냐주에는 60개, 카탈루냐주 중심도시인 바르셀로나시에는 20개가 있는데 이들 기업의 주식 51% 이상을 비영리단체가 보유해야 하는 요건이 있음
 - 2008년에는 카탈루냐포섭기업연합(FEICAT)이 결성되는데, 이들에게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획득과 더불어

63) 권유홍·황병중·한주형·허문경(2021)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두레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한국관광공사.

64) 상계서

- 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의 맥락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카탈루니아 주법과 전국법 사이에서의 모순을 극복하고, 네트워크화에 의해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등의 과제가 있음
- 직원 41%에 해당하는 14,8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관광·레저분야 기업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 있음
- 한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장애관광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무장애관광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에 특화되거나 장애인을 주로 고용하는 관광·레저분야 기업은 극히 드물어서 이와 같은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이 요구됨

일본 쿠로카와온천관광여관협동조합(黒川温泉観光旅館協同組合)⁶⁵⁾

■ 온천여관업, 사업자협동조합의 성공사례

- 일본에는 대부분의 온천지역에서 ‘온천관광협동조합’ 또는 ‘온천여관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형태는 관광사업체들이 공동시설의 운영이나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등에서 협력하는 방식임
 - 이를 위해 일부 자본을 공동 투자하고 각각의 사업체는 ‘조합원’의 자격을 지니며, 운영조직은 조합원이 취급하는 쿠폰의 발행·공동 정산사업,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협정업무, 경영·기술의 개선 또는 지식보급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업 등을 함
- 1960년 조직된 이후 유명무실했던 ‘쿠로카와온천관광여관협동조합’이 1986년 재결성되어 30개 사업장의 26개 사업자 조합원과 마을안내소를 겸하는 협동조합 사무실 근무자 4~5명 규모를 갖추었으며, 2002년에는 숙박자 수 40만 명, 추정 방문객 수 120만 명에 이르게 됨
- 최근에는 온천마을 주변 지역까지 아우르는 생태관광,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천여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가 성장하는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음

■ 온천공동이용권 ‘테가타(手形)’ 판매 및 판매수익금의 공동체 환원

- 쿠로카와온천관광여관협동조합의 협동 정신과 운영원리는 ‘테가타’에 잘 나타나 있는데, 1986년 재 정비된 협동조합은 여관이 위치한 부지의 제약으로 인해 노천탕을 만들 수 없는 2개소의 여관과의 상생을 위해 모든 노천탕을 이용할 수 있는 온천공동이용권을 고안함
- 판매수익을 협동조합 사무국 운영자금으로 하여 마을 전체의 페인트 작업, 간판 정비, 식수(植樹) 등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하고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함

■ 협력 및 지원체계

- 일본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기부금을 제공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65) 허문경·권유홍(2020). 일본 쿠로카와온천관광여관협동조합 사례연구. 관광학연구 44(6). 97-117. 한국관광학회.

주고 있고, NPO 법인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쿠로카와온천관광여관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협력 및 지원은 보조금 사업보다는 각종 포상제도에 의한 간접 지원이며, 이를 토대로 신뢰 자본을 형성한 결과임

■ 시사점

- 투숙한 여관만이 아닌 그 밖의 노천탕을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권이 고안된 것은 이용 증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지만, 그 기저에는 여관이 위치한 부지의 제약으로 인해 노천탕을 만들 수 없는 자원이 빈약한 조합원과 전체의 이익을 공유하고자 하는 협동의 정신이 바탕이 되고 있음
- 협동조합의 협력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운영자금은 노천온천 공동이용권의 판매수익금, 조합원의 회비, 홈페이지를 통한 여관예약수수료 5%이며, 이것이 각 개별사업체 간의 “경쟁”과 협동조합으로서의 “공동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됨

(3) 국내 생태관광지 마을 비즈니스모델

제주올레⁶⁶⁾

■ 29개 코스별 주변관광지, 주변 숙박, 주변 식당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마을 비즈니스는 29개 코스별로 목록이 홈페이지에 제공된 주변 관광지와 주변 숙박, 주변 식당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 29개 코스별로 해안도로변 식당, 해녀의 집에서 만드는 토속음식 등을 안내함
- 대중교통 안내는 제주올레 콜센터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함
- 홈페이지를 통해 각 구간별 ‘휠체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29개 가운데 10개 코스가 무장애 구간임
- 길안내자인 ‘길동무’는 길동무 양성과정을 수료한 경험 많은 길동무가 안내하며, 국어 길동무와 더불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길동무가 있음
 - 소그룹(최대 15명 이하 참가자 그룹 당 안내자 1인을 배정함)으로 인솔하며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제공함
 - 한국어는 3시간 미만 160,000원, 3시간 이상 180,000원이며 외국어는 7시간 이하 280,000원임
- ‘길동무’의 주요 역할은 새로운 여행수요 창출임
 - 올레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제주의 가치를 더 깊이 더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재미와 감동을 선사함
 - 참가자의 눈높이에 맞춰 ‘제주올레 정보, 제주의 인문·자연자원 등’ 해당 코스에 대한 ‘안성맞춤 지식’과

66) 제주올레길노선 홈페이지. <https://www.jejuolle.org/trail#/>

가치를 전달하며, 참가자의 안전확보 및 응급상황 시 대처는 물론,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여행수요를 창출함

- 도보여행객의 바람직한 탐방 체험, 예절, 후원 등 ‘건강한 도보문화’와 지역 문화유산을 비롯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을 전파함
- ‘간세인형 만들기 체험’은 제주올레 기념품인 간세인형을 직접 만들며 체험하는 공방에서 진행함
 - 체험 공방을 운영하는 업체는 사회적기업이며, 참가비는 15,000원이고, 90분 이상이 소요됨
 - 헌 옷과 버려진 자투리 천을 손바느질해 만들어지는 간세인형은 제주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판매 수익금은 제주올레 길을 유지·보수하는데 사용됨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⁶⁷⁾

■ 생태환경교육 모임을 통해 만난 주민들의 생태관광협동조합

- 2010년부터 생태환경교육 모임을 통해 만나던 주민들이 2012년 협동조합을 설립, 이후 환경부와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음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자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으로 조합원 80여 명은 자연생태·역사문화·예술분야 프로그램 체험처 및 운영자, 생태관광 및 캠프 프로그램 시행, 숙박시설 운영자, 로컬푸드 음식점 운영자 및 로컬푸드 연구가, 문화관광해설사, 자연생태 해설사, 예술가, 에코가이드로 구성됨
 - 고용인원은 사무국장, 교육팀장, 홍보팀 대리, 회계팀장 각 1명, 생태관광 코디네이터 10명, 해설사 6명, 방문자센터 2명, 우음도 에코락 2명 등 총 24명이며 매출액은 년 5억 원 수준임

■ 주요 사업은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생태관광거점시설 운영 등

- 주요 사업은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생태관광거점시설 운영 등이며 일반 조합원이 참여하는 사업은 생태관광안내, 창의체험활동, 농산물직거래, 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등임
- 이 밖의 사업은 코디네이터 교육 및 관리·해설 매뉴얼 작성 및 교재·교구개발 등 주민역량 강화 교육, 홈페이지 관리·뉴스레터 제작·각종 홍보물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성화 작업을 포함함
- 또한 생태관광 선진지 견학·생태관광 아카데미·전문가 모니터링 등의 연구조사와 전문가-지역주민-행정 네트워크의 생태관광 플랫폼 구축이 있음

■ 협력 및 지원체계

-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은 환경부 및 화성시의 지원사업에 의해 초기 자립기반을 마련함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로 선정되어 1억 원 지원(2013), 환경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인건비 및

67) 권유홍·황병중·한주형·허문경(2021).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두레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한국관광공사.

- 컨설팅 지원(2014), 경기도 생태관광마을로 지정되어 사업개발비 지원(2014),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상근자 인력 확보(2014), 화성시 비봉습지공원 개장에 의한 운영사업비로 해설사 양성(2015) 등임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2017) 이후 공공기관·지역사회 조직과 공동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영 안정화함

[표 5-1]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협력체계

구분	주요 내용
중앙정부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 사업비, 예비사회적기업(인건비,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인건비, 컨설팅 지원)
공공기관	수자원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평생교육과·관광진흥과·수질관리과·공원과 화성시환경재단
지역사회	화성창의체험교육 네트워크 화성환경교육네트워크
사회적경제	화성시협동조합협의회 화성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약체	시화호생태관광협약체
기타	공유플랫폼(마을기업 공동체 네트워크) 예정

출처 : 연구자 작성

■ 시사점

-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성장하였으며, 광역단위 교류 네트워크로서 시화호생태관광협약체를 구성한 점이 유효했음
- 지원사업에 의해 초기 자립기반을 마련하기까지 환경운동가들로 구성된 핵심 멤버의 역할이 돋보임

2) 마을 비즈니스 관련 전문가 정성조사

(1) 조사범위

- 조사기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 조사대상: 동부권 소재 조직,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트레킹 프로그램 운영조직, 생태관광 관련 조직, 지역관광추진조직, 관광분야 창업 중간지원조직의 생태관광 및 마을 비즈니스 현황
- 정성조사 대상자
 -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교수진
 - 전북 생태관광 주민 에코매니저

- 진안고원길 사무국장
- 운탄고도 1330 통합안내센터 센터장
- 지리산 둘레길 운영 주체, 사단법인 숲길 사무국장
- 공정여행 풍덩 대표
- 협동조합 공정여행 동네봄 대표
-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 실장
- 장수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운영 주체, 협동조합 이레 이사
-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센터장

[표 5-2] 정성조사 대상자 및 주요 조사내용 등

정성조사 대상자	주요 조사내용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교수진	자연환경연수원 교육프로그램	무주군
전북 생태관광 주민 에코매니저	주민 에코매니저 활동	장수군
진안고원길 사무국장	진안고원길 운영 전반	진안군
운탄고도 1330 통합안내센터 센터장	운탄고도 운영 전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리산둘레길 운영 주체, 사단법인 숲길 사무국장	지리산둘레길 운영 전반	남원시
공정여행 풍덩 대표	공정여행 풍덩 운영 전반	진안군
협동조합 공정여행 동네봄 대표	공정여행 동네봄 운영 전반	경기도 시흥시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공정여행사업 운영 전반	경기도 화성시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 실장	세탁사업단 운영 전반	진안군
장수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운영 주체, 협동조합 이레 이사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운영 경험	장수군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센터장	관광기업지원사업 운영 전반	전주시

출처 : 연구자 작성

(2) 정성조사 결과 및 분석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교육프로그램

■ 설치 목적 및 운영 전반

- 환경교육은 개인단위를 넘어서 지역, 마을공동체가 조직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하는 총체적인 접근, 실천형 탄소중립 교육, 사회교육 분야와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음

- 환경부는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을 통해 국가-국제-광역단위 수준의 환경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광역단위 환경교육공간, 프로그램 정보제공,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 지역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음⁶⁸⁾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사회환경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연수원 교수진 4명, 위촉강사 25명으로 130여 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됨
- 성인 대상의 ‘지역생태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지자체·교육청·지역생태전문가·시민단체·시니어클럽 등을 연계하여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생태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무주와 군산에서 10주 20시간의 기초과정, 전주에서 10주 40시간의 심화과정이 운영되고 있음
 - 지역의 생태계 보전하고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구축하는 시민 과학 프로젝트를 추진함
- 이밖에 전북특별자치도내 14개 시군 생물다양성 탐사, 연수원과 지역의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한 탐구 및 관찰 교육, 환경분야 진로 탐색 및 환경교육, 지역의 단체와 연계하여 자연환경 탐방, 전라북도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 연계를 통한 연수원 홍보 및 탄소중립 교육 등이 진행 중임
- 청소년 대상으로는 지역 환경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더 양성 프로그램,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학교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한 어린이 생태해설사 교육 등이 있음
- 무주군 환경기자단 구성 및 운영, 무주군 생태환경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무주군 기관협력사업 등 자연환경연수원 소재지인 무주군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음

■ 지역상생 프로그램

- 마을의 생태관광자원 보존을 통한 마을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산촌체험마을 활성화 및 마을 수익 창출, 축제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태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함
 - 기관 및 단체를 연계하여 무주지역의 자연생태자원과 연수원 홍보, 사회환경교육 기회 제공함
 - 지역축제의 핵심콘텐츠인 나비와 반딧불이를 활용하여 나비 생태 교육, 반딧불이 관찰 및 생태 설명을 함
 - 봄·가을 2회 진행하며 1일 또는 1박 2일 코스 운영함⁶⁹⁾

■ 시사점

- 자연환경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은 단체 대상으로 가족 단위나 개인 수요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상생 프로그램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산촌체험마을 활성화 및 마을 수익 창출을 표방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임
- 현재의 운영방식은 숙박과 식사가 연수원 내에서 제공되므로 마을 비즈니스로 연계되기 어려우나

68)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 <https://www.keep.go.kr/>

69)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홈페이지. <http://jayeon.or.kr/>

주변 마을에는 숙박시설이 있고 마을주민들은 연수원에서 파생되는 방문객 수요를 기대하고 있음

- 지역상생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가족 단위나 개인 참여자의 마을 방문에 따르는 마을 비즈니스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
- 향후 자연환경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으로서 환경교육과 더불어 생태관광 및 관광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에코캠핑 삼천리길과 전북 생태관광의 수요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판단됨

전북 생태관광 주민 ‘에코매니저’ 활동

■ 전북 생태관광 협동플랫폼 및 생태관광 주체

- 전북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2개 시·군에서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을 추진함
 - 2015년 생태관광지를 선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6년에는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를 설치함
 - 이후 각 지역에서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었고, 2022년에는 ‘에코매니저’ 양성교육이 시행됨
 - 2018년에는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이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되고, 2022년에는 고창군이 랍사르습지도 시 국제 인증을 받음
 - 현재 생태학습원, 에코캠핑장, 생태놀이터, 친환경 에너지 시설, 자연체험공간, 숲체험원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고 총 36개 생태관광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⁷⁰⁾
- 전북 생태관광 협동플랫폼은 ‘에코매니저’-‘지역협의체’-‘마을기업화’의 세 영역으로 구성됨
 - ‘에코매니저’는 전북 생태관광지 마을에서 거주하며 환경보전과 안내, 체험 및 해설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주민 ‘생태활동가’를 뜻하며 전문가와 함께 자원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함
 - ‘지역협의체’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영리조직으로서 생태 보전의 역할이 기대됨
 - 생태관광 지역의 개인과 조직의 협동이 축적되면서 생태관광 서비스품질이 고도화되고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기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것을 목표로 함
- 생태관광지의 안내와 프로그램 진행 역할은 ‘에코매니저’가 담당하는 한편, ‘천리길’에서는 ‘천리길 마스터’가 전북 시·군의 천리길 44개 노선을 안내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밖에 생태관광지를 방문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초록원정대’, ‘청년 초록원정대’를 운영함
 - 생물다양성을 교감하는 생태체험인 ‘초록원정대’ 프로그램을 수행한 참가자들을 인증함
 - ‘청년 초록원정대’는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미래세대 생태활동가로서 활동을 지원함
 - 고창, 정읍의 초록원정대 체험프로그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탄소발자국

70) 전라북도·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2023). 2023 전라북도 생태관광 시군평가. .전라북도·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인증-환경성적표시 인증서'를 받음⁷¹⁾

- 생태관광지의 마을주민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우에 따라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단을 구성함
 - 이들 사업단은 조합의 협력·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 역량강화 사업, 생태관광 교육 기자재·홍보 책자 발행 사업, 조합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촉사업, 조합 및 조합원의 농특산물 판매사업, 농촌생태체험사업, 마을 기념품 등 제작·구입·판매 사업 등을 시행함

■ 시사점

- 에코매니저 활동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가칭 '에코매니저 활동가 협동조합' 설립 등이 바람직함
 - 인터뷰에 응한 장수군 생태관광지 에코매니저의 경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그린리더 활동 등을 거쳤으며, 2015년 생태관광지 사업이 시작되자 해설사 시작하였고, 2017년에는 환경부 소속인 자연환경 해설사 자격증, 숲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에코매니저로서 활동함
 - 현재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유치원생 2시간, 초등학교 2시간 30분의 코스를 운영 중이나 인건비는 4시간 기준 3만 8천 원이고 개인별 능력 차이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참여가 저조함
- 주민 대상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터뷰 참여자가 활동가로 일하게 된 것은 장수군이 지원하는 프리랜서 전문강사 양성과정에 선발되어 1인당 100만 원의 수강비를 장수군으로부터 지원받고 5개월간 직업교육을 철저히 받은 것이 계기가 됨

🌿 진안고원길 운영 전반

■ 진안고원길 연혁

- 진안고원길은 2006년 진안군청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마을문화조사단의 걷기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길 조성을 위한 세부 계획이 추진되고 2010년 전라북도 예향천리마실길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에 선정되며 본격화됨
- 2010년부터 매년 토요일 14주에 걸쳐 210km를 한 개 구간씩 이어 걷는 프로그램으로 회차별 약 100명, 연인원 1,000명 이상의 여행자들이 참여하고 있음

■ 진안고원길 운영

- 2011년 비영리민간단체 진안고원길 창립하여 사무국을 운영하며 사무국에서는 노선관리, 프로그램 개발,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진안고원길 후원회원은 약 150명이며 진안군내 민간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매달 151만 원, 연간 1,800만 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어 사무국 직원 퇴직금으로 적립되고 나머지는 회원에게 환원됨

71)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jb-ecotour.org/page/page63>.

- 한편 제주올레는 후원자 2,000명, 6~7억 원의 기념품 판매수익, 30억 원의 후원금, 활동가 30~40명 규모로 운영됨
- 제주올레를 제외하고 진안고원길을 비롯한 국내의 모든 걷기노선은 행정사업비로 사무국이 운영되며 인건비는 최저수준임
- 진안고원길 노선은 사무국에서 상시 운영관리하며 직원 4명 중 2명은 현장에서 활동함
 - 걷는 길은 풀이 10cm 자라면 제초를 해야 하며 진안고원길은 35km 구간을 연간 4~5번 제초함
- 진안고원길 교통안내는 서울,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왕복버스, 진안군내버스, 개인택시 회사연락처가 제공되며, 프로그램 운영 당일에는 종료 지점에서 출발지점까지 사무국에서 교통편을 제공함
- 마을 비즈니스와의 연계는 토요일 여행 노선상의 마을에서 일부 음식을 제공하거나 특별프로그램에서는 지역 먹거리 음식 배달을 제공함
 - 숙박의 경우, 고원길 14구간 완보를 위하여 14박 수요가 발생하는데 읍내 여관 2개를 추천하고 있음
 - 한편 사무국에서 개발하여 제작을 의뢰한 고원길 기념품을 판매하나 제작업체의 소재지는 진안군 외이며 광고 현수막 등 인쇄물의 경우 전북지역 업체의 진안지점에 의뢰함

■ 시사점

- 관광지와 비교해서 걷기노선은 위험하며 등산로보다 위험하므로 안내표지, 노선관리가 중요함
 - 여행자에게 안내와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안내표지 관리와 제초 관리, 노면 관리, 모니터링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함
- 장거리 걷기노선은 미션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마니아가 먼저 오는 길을 만들어야 함
 - 블랙야크는 100대 명산 정복이라는 미션을 주는 것에 성공했으나 전북 천리길 44구간은 산책 수준이므로 수도권 등에서 오지 않음
 - 전북 천리길 운영 측면에서 군산구불길은 사무국장이 계약직 공무원이면서 민간 활동가였으나 운영 단체가 해체되었고, 변산마실길은 사무국을 두지 않고 이사장만 부안군청 현장직이 안내표지와 제초를 관리함
- 숙박업 마을 비즈니스 모델로서 지리산 둘레길 대동마을의 민박 성공사례, 제주올레 할망민박 성공사례가 있으며, 제주올레 할망민박은 사무국에서 도배, 장판 등 시설보수를 제공하고 침구를 지정함
- 또한 숙박업 마을 비즈니스 모델로서 마을 공공의 마당 또는 옥상, 개인 집의 마당 또는 옥상, 또는 평상을 사업비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평소에는 주민이 쓰고 필요시 백패커에게 1~2만 원에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함
 - 여기에 픽업과 짐운송 서비스, 로컬푸드 판매 비즈니스모델이 결합할 수 있음
 - 제주올레에서 유한회사 풍당이 숙박업과 코스 안내, 기념품 판매를 하고 있음

- 식음료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기존의 음식 배달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읍면 단위의 경우 지역음식점이 들밥 배달 노하우가 축적되어 어느 마을이나 배달 가능함
- 레저스포츠 활동 관련하여서는 진안의 경우, 14구간 운일암반일암이 볼더링 공간이 활용되고 있음

운탄고도 운영 전반

■ 행정사업으로 기획·운영·관리

- 강원도 도비, 영월군 군비 전체 예산 3억 원으로 강원발전연구원과 강원관광재단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영월, 정선, 태백 등 4개 시군에 걸쳐 조성되어 2021년 개통함
- 운탄고도 1330 통합안내센터 운영은 영월군이 영월산업진흥원 운영 재단에 위탁 경영하는 형태임
 - 운탄고도 1330 통합안내센터는 노선관리를 위하여 이정표 설치, 제초, 길보수, 홍보-이벤트, TV프로그램 섭외 등을 함
 - 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패스포드를 발행하였으며, 행사 프로그램 방문자는 2023년 1만 명으로 추정함
 - 안내는 유선상으로 하며, 완주 인증은 센터 방문하여 발급하고, 우편신청 시 상세 안내지도 송부함
 - 스토리텔링은 요청 시 제공하며 팀장, 매니저 5명 근무자가 출장 근무 형태로 설명하는데 주로 모운동 마을호텔 촬영지부터 광부의 길로서 광산에 대한 스토리텔링임
 - 최근 전용앱을 개발하여 보완 중이며 긴급구조 요청 시 지역 경찰서에 연계함
 - 숙박, 교통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으며 이용자들이 주변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화장실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함
- 운탄고도1330통합안내센터는 최근 영월군에 운탄고도1330의 정체성과 부합되지 않는 노선에 대해 변경안을 마련해 제출함
 - 식당과 숙박·교통 등의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거점마을 중심으로 연계하는 방안임
- 마을 비즈니스 관련하여 2023년 영월산업진흥원 운탄고도 “폐광지역 중장년 창업지원사업” 4개 기업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업종은 음식점, 카페를 포함함

■ 시사점

- 운탄고도 1330은 노선 조성 시 기존의 길을 연결만 함으로써 식당·숙박·레저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검토하지 않아 그 결과, 조성 3년 차이지만 노선의 난이도에 문제가 있고 마을과 연계 안 됨
-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일부 걷기 노선 조성 지역의 개발 제한에 대한 규제 해제가 필요함
 - 산림청 관리구역은 화장실 설치가 불법이며 일부 있는 것도 불법 시설물이므로 규제를 해제해야 함
- 걷기 노선 운영조직에서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노선 변경을 제한하더라도 노선 변경의 주체는 해당

노선의 시군이므로 원활한 운영에 한계가 있음

지리산 둘레길 운영 전반

■ 지리산 둘레길 조성 배경

- 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성찰’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국립공원 지역이 아닌 지리산의 둘레를 걸으면서 환경적 실천을 통해 생태를 보전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문화 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개척한 길을 ‘둘레길’로 명명함
- ‘둘레길’의 명칭은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1천 개 이상 조성된 걷기 노선의 시발점이 됨
 - 2000년 ‘지리산 마음으로 세상을 배우자’ 지리산 공부 모임에서 시작됨
 - 2004년 ‘생명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순례길을 조성하자는 제안으로부터 지리산 둘레길이 시작됨
 - 2007년 사단법인 숲길 설립되어 주민동의, 민간위탁보조금, 후원금 사업 시행됨
 - 2008년 산림청, 사)숲길, 남원시,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공동 협약에 의해 첫 구간 완성됨
 - 2012년 전 구간 완성되고 지리산 둘레길 아젠다 선언, 지리산 둘레길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이 진행됨
 - 2020년 산림형 사회적기업 지정 및 2021년 ‘국가숲길’ 지정됨

■ 지리산 둘레길 운영 현황 상세

- 2021년부터 산림청이 ‘국가숲길’을 지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제23조 3에 따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운영·관리함
 - 국가숲길 지정 조건은 산림의 생태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 숲길의 규모, 숲길 조성 적합성, 운영 관리 체계 여부, 연결성, 접근성 등 7가지 기준임
 - 산림청의 지원으로 지리산 둘레길은 6명의 상근인력이 근무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2024년부터 지원이 중단됨
- 당일 프로그램인 ‘토요걷기’, 15박 16일 프로그램인 ‘지리산평화순례단’ 등 고정 프로그램을 운영함
 - ‘토요걷기’는 안착하기까지 2년이 소요되었으며, ‘지리산평화순례단’은 소수의 이용자가 드물게 이용함
 - 지리산 둘레길 조성 취지에 맞는 순례를 위해서는 약 100km를 걷게 되는 3박 4일 이상의 체험(프로그램명 ‘34순례단’)이 바람직하나 홍보와 운영인력 부족으로 현재는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움

■ 시사점

- 제주올레가 관광목적지로서 조성된 것에 비해 지리산 둘레길은 문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조성되었음
- 제주올레는 연간 6~70만 명이 이용하는 데 비해 지리산 둘레길 이용자는 연간 30만 명 수준으로 국내 제1의 관광지인 제주도와 지리산 주변 지역의 관광 인프라 차이, 수도권과의 접근성의 차이임

- 지리산 둘레길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함양·하동의 지리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295km 길이의 국가숲길로 현재 21개 구간이 조성되어있으며 20개 읍면, 120여 개 마을과 인접하고, 하동, 구례, 남원, 함양, 산청센터 등 6개 안내센터, 3개 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조직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당일 코스만 운영되어 음식 및 숙박 등 마을 비즈니스와 연계되지 않음
- 지리산 둘레길 순례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교통편 개선’(37.8%), ‘여행자 숙소 개선’(34.1%),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 운영’ 20.2%, ‘인근 관광지 연계 루트 개발’ 9.0% 순으로 개선을 희망⁷²⁾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황을 개선하기에는 운영체계의 한계가 있음

공정여행 풍덩 운영 전반

■ 공정여행 풍덩 설립 배경 및 현황

- 2010년 진안군 마을만들기 활동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연구회’는 주 1회 향토사를 공부하며 진안군 11개 읍면을 탐방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이듬해 농촌형 공동체 회사를 설립하고 창업 직후 전북 최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됨
- 설립 초기에는 상근직원 6명이 전라북도 전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학여행, 기업연수 프로그램, 로컬푸드 여행 등 여행자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별화된 공정여행 콘텐츠를 만들어 1년간 약 5천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기도 함⁷³⁾

■ 시사점

- 공정여행 풍덩은 지역활동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만드는 소규모 지역 축제인 진안캠핑영화제 등 지역문화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나가는 노력을 하였으나 수학여행 제도의 변화, 코로나 상황에서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현재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여행콘텐츠 개발과 수요 창출, 프로그램 운영을 소규모 지역관광기업이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자체의 관광 인프라 개발과 적절한 지원사업에의 참여가 필요함

협동조합 공정여행 동네봄 운영 전반

■ 마을주민 학습공동체가 사회적기업가 육성과정을 수강하고 설립한 협동조합

- 환경부 평생학습마을로 지정된 시흥시 소재 아파트단지 마을주민 학습공동체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개설한 1년 과정의 사회적기업가 육성과정을 수강하고 과정이수 조건에 따라 법인을 설립함

72) 사단법인 숲길(2023). 2023년 지리산둘레길 순례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 사단법인 숲길.

73)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사이트 2022.8.8. 게시물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c024ee96-6fce-4a3b-90ce-4060585cbcd&con_type=10000

- 2016년 교육 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 법인 설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로 선정됨
- 조합원 11명이며, 고용인원은 객원강사 5명, 비상근 디자이너 1명, 상근직 시니어 일자리 지원자 1명
- 주요 사업은 마을해설, 시흥시 시티투어 인솔운영, 여행콘텐츠 기획 및 개발, 지역 이벤트 운영,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출강 등임

■ 협력기관 및 단체

- 설립단계부터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의 마을 비즈니스 육성·지원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기업이 성장함
- 협동조합 공정여행 동네봄은 지역 예술가·마을 비즈니스 운영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위탁한 공동체 여행 프로그램을 수행함

[표 5-3] 협동조합 공정여행 동네봄 협력체계

구분	주요 내용
중앙정부	환경부 평생학습마을 마을주민 학습공동체 참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설립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컨설팅·멘토링·선진지 견학)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과정 이수(역량강화)
광역자치단체	경기도평생교육원,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프로그램운영 협업)
기초자치단체	시흥시 관광과·예술과(시티투어 프로그램·사이공감여행·ABC학습프로그램 운영)
기타 공공기관	시설관리공단(갯골생태공원 안내프로그램 운영)
지역단체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마을학교·공동체 여행 운영

출처 : 연구자 작성

■ 시사점

- 마을 비즈니스에서의 협력네트워크의 한계는 협업을 통해 교환한 아이디어가 사업 수익으로 이어지기보다 아이디어를 도용당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므로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뉴스레터 발행 방식보다는 지역 간 연합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여 협업의 횟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
- 관광두레의 경우, 주민사업체에 대한 경영교육의 수준이 다른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비해 낮고, 각각 주민사업체의 역량이 부족해서 네트워크의 리더가 나오기 어려움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전반

■ 공정여행 사업 운영 배경 및 현황

- 화성시의 인구는 2003년 20만 명, 2009년 50만 명, 2013년 10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동-서 50km의 화성시는 도시화된 동쪽과 농촌 수준의 사회기반 취약한 지역으로 이루어지게 됨
 - 평균연령 38세(2위), GRDP 1위, 멸종위기 1급 조류 서식, 매향리갯벌 습지보호구역 지정 등의 지역자원에 대해 새로운 이주자들은 화성시 지역 정보를 모름
-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0년 공정여행을 기획하고, 2011년 우음도 전망대 - 공룡알화석산지 - 송산리 포도 산지로 이어지는 공정여행 시티투어를 시작함
-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사전예약제도를 활용했으며, 보조금은 버스비, 인건비, 의복비, 교육비로 사용하고, 참가비는 안내자비, 기념품비, 주차비 등으로 사용함
- 3~10월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말에는 생태문화투어, 평일에는 테마투어(농어촌체험, 해양레저, 문화예술, 목장체험), 화성시 50개 관광지와 농어촌을 연계하는 방문자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함
 - 2023년에는 390회 프로그램 운영하여 1만 명 참가, 참가자 구성은 관내 72%, 관외 28%임

■ 시사점

- 여행의 품질향상을 위해 연 1회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정기 간담회, 사전답사, 평가회를 개최함
 - 1회 참가자를 25명 이하로 제한하고, 참가비는 기본 2만 원으로 정하며, 이 가운데 5천 원은 농산물교환권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참가비의 1%를 화성지역시민사회단체 및 국제기금에 기부함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개인컵, 수저, 장바구니를 지참하며, 일회용품 자제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탄소배출 줄이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피해주지 않기, 지역농산물을 이용하고 농장과 인연 맺기, 음식물 남기지 않고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실천함
- 지역사회기반 관광, 마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조직력과 인적자원을 갖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를 고려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전주, 익산, 군산, 장수, 임실, 정읍에 지부를 두고 있음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 세탁사업단 운영 전반

■ 자활사업단 운영

- 지역자활센터는 노인복지관과 다르게 일자리 창출에 의한 근로복지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

- 요식업, 봉제업, 세탁청소, 카페, 베이커리사업단 등 참여주민을 위한 9개 사업단을 운영함
- 자활사업참여자는 자활 급여 책정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급여를 받으며, 급여는 국가예산으로 지급함
- 일반시장보다 기계장비 운영 등 한 달간 집중교육과 분기별 1회 1년 12시간 교육하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함
- 진안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은 건축, 장기요양복지, 나눔푸드-출장부페, 홍삼생산, 청소세탁이며 연매출 10~15억 규모임
- 세탁사업은 일반세탁소와 달리 의류는 취급하지 않고 침구, 운동화 세탁 중심으로 의류를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지역의 기존 세탁업과 충돌 방지를 위해 기존 세탁업소에 없는 분야만 다룸
- 대상은 전국 3개 중 하나인 산림조합중앙회 진안연수원, 홍삼스파, 홍삼스파빌 등 3곳이며, 방 1개당 1개월 5~7만원에 계약하고 자활사업단이 개별 단가 수거할 때마다 계산서를 발행함
- 진안읍사무소 옆에 세탁공장을 운영하며 인력 6명 고용하고 셀프세탁방을 함께 운영하며 매출은 연간 7~8천만 원 수준임
- 마을펜션 또는 체험공간은 대량 거래처는 아니지만 용담 감동마을의 경우, 방문객이 많아서 의뢰하고 있으며 마령, 성수의 마을펜션들도 이미 의뢰하고 있음
- 펜션은 여름, 겨울보다 가을에 수요가 많고 작은 규모는 세탁비 20만 원 내외임

■ 세탁사업단 시사점

- 세탁공장 설비는 약 2억의 투자금이 투입되며 보일러 시설, 배관 등의 인건비가 발생하고, 오수처리 등 인허가가 필요함
- 읍내지역은 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수처리 가능하나 마을은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어렵고, 전기세탁기와 건조기 설비도 도시가스가 마을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마을 비즈니스로는 부적합함
- 에코캠핑 삼천리길에서의 세탁사업은 각 지역의 자활사업단 또는 장애인작업장에서 담당하도록 함

장수 지역관광추진조직 DMO 운영 경험

■ 협동조합 이레 설립 경위

- 지리산권 관광조합 아카데미에서 수강생으로 만나 2018년 관광두레 사업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협동조합 이레를 결성함
- 구성원 6명은 이사장 포함 5명과 감사 1명이며 직업은 번역업, 전통주 제조업, 친환경 영농조합 경영자, 유기농 재배 농업인, 농업연수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무처장 등임

■ 장수DMO 운영 경험

- 협동조합 이례는 한국관광공사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1년 차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수행 평가 결과 2년 차 이후로 이어지지 못함
-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주민, 사업체, 지자체 등 협력 연계망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조직이며 2023년 전국에서 총 21개 지역에서 육성사업이 운영됨
 - 지역관광추진조직에 대한 지원은 총 5년간이며 1년 후 평가에 따라 연장하는데, 연간 2억5천만 원의 지원금 가운데 사업비 1억 5천만 원은 국비 지원, 인건비 1억 원은 기초지자체에서 지원됨
- 사업내용은 생활인구 유입증대, 관광홍보 플랫폼 구축, ESG관광상품개발 등 3개 사업으로 주민-사업체-지자체 등 협력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임
 -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음식, 숙박 등에 지출되어 성과를 가시화할 수 없었고 고객 만족도는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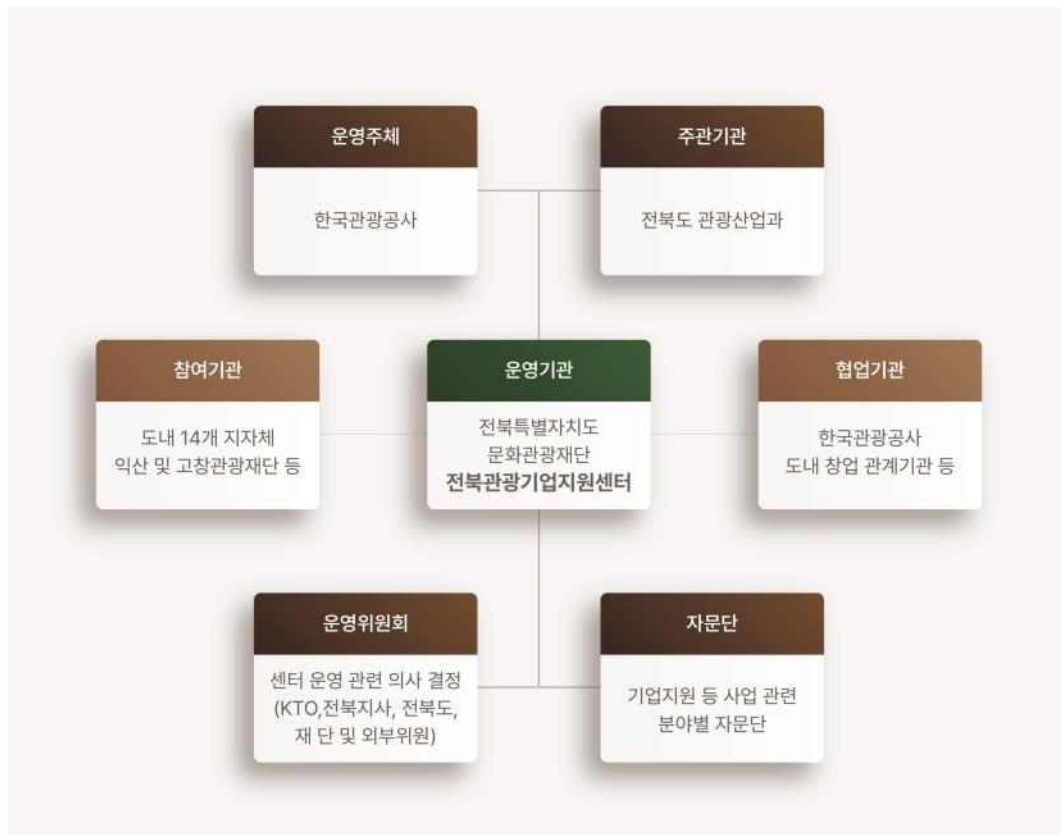
■ 시사점

- 2~3개 사업 수행만으로 지역관광의 협력 연계망을 구축했다고 할 수 없으며 협력 연계망 구축은 사업 초기에 의회, 행정, 지역활력센터 등 DMO 역할에 대한 정보 공유에 그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 등 관광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관광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시·군, 마을 등 주체별 역할 및 참여방안 등이 설계되어야함
- 지역관광에서 식당, 숙박, 체험 업체의 품질관리는 어렵고, 방문객의 만족도가 낮으며, 따라서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 만족도도 낮아짐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업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 등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전반

■ 조직 추진체계

-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공모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산업 혁신성장 거점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본부 산하 조직으로서 2023년 1월 정식 개소함
 - 관광벤처 발굴·육성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관광 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및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수행함
 -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북 관광 일자리 허브를 조성하고, 기업지원 협의체 운영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참여·협력 기반을 마련함
 -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조직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5-61]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조직 추진체계

출처: 2023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성과보고서 p.13

■ 관광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 전북 관광스타트업 공모전을 통해 예비·초기·성장 등 기업 육성 단계에 따라 지원함
 -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참여대상의 폭을 넓힘
 - 예비 창업자에게는 아이디어 연계 창업을 지원하며, 창업 이후에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창업 3~4년 차 안정된 단계의 기업은 판로 개척, 신시장 개척 등을 지원함
 - 예비기업 5개 사, 초기 기업 7개 사, 지역혁신형 성장기업 4개 사, 지역 상생형 성장기업 3개 사 등 총 19개 기업으로 운영
 - 지역 혁신적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관광 스타트업 위주의 지원을 하나 숙박업, 여행업 등 전통적 관광기업도 지원함
-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입주공간·시설 이용 지원, 컨설팅, 입주기업 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현 안 공유 및 협업사업 발굴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2023년 21개 기업을 입주시로 선정하였으며 2024년 초 평가를 통해 15개 기업으로 운영 중이고, 2024

년에는 23개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할 예정임

- 도내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
 - 정부지원, 법률, 재무회계, 홍보마케팅, IP관련, 경영, 인사노무, 창업BM, 투자 연계 등 분야별 1:1 컨설팅턴트를 매칭하여 멘토링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예비 창업자 및 업종 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관광벤처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관광 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내 관광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투자 협약을 체결함

■ 지역 기반 관광산업 개선

- 전통적 관광기업에 대한 디지털전환, 판로 개척과 마케팅 지원, 관광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 여행상품 공모전 운영 및 관광분야 재창업자를 위한 관광기업 회복지원 사업을 운영함
 - 잠재력 있는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및 여행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지역특화 여행상품 공모전에서는 전체 5개 기업 중 임실 섬진강 위케이션, 무주 아웃도어 위케이션 등을 운영하는 2개 기업이 포함됨

■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간 협업사업 발굴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우수 사례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창업캠프 등이 운영됨
 - 전북, 광주전남,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및 관광두레 네트워킹을 위한 행사에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공모전 선정 기업 및 입주기업, 30개 관계기관 등이 참여함
 - 인구감소지역 및 농어촌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 콘텐츠 발굴과 사업화 유도를 위해 도내 7개 대학 재학생 및 진안지역 청년 등이 40명이 참여하여 31명이 수료한 전북 대학생 연합 창업 캠프에서는 버섯균사를 활용한 친환경 스티로폼, 청년층 인구유입을 위한 캠핑 소개팅 플랫폼, 마을회관을 활용한 윈윈투어 농촌생활, 지역생산품을 이용한 로컬커뮤니티 레스토랑, 진안 마이산의 능소화 꽃과 홍삼을 활용한 디저트, 진안 특산물 홍삼을 테마로 한 뉴스포츠 플레이 그라운드 등의 아이디어가 발굴됨

■ 관광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관광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도내 관광기업과 인턴 매칭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
 - 관광 빅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 및 업무 적용 실습, 여행 콘텐츠 제작법, 컨벤션 기획 등
 -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가 인건비를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등

■ 시사점

- 지역의 관광 관련 기업활동은 B2G의 형태가 주류를 이룸
 - 관광 스타트업 공모전이나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사업 기회 모색,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여행상품 개발, 문화바우처를 활용하여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 기획 등의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관광 관련 기업활동이 지역 내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음
 - 전주의 기업이 전주를 포함한 다른 지역인 무주, 군산을 연계한 상품을 판매한 기업의 사례가 있으나 관광 관련 기업활동이 지역 내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음
 -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광역권 지원기관이나 현재 관련 기업활동이 전주에 집중되어 있고, 그 밖의 지역, 특히 인구소멸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 이들 지역에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과제임
 - 한편, 완주문화재단은 한국관광공사의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사업에 2023년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완주관광협의체를 구성했음
 - 진안군에서는 진안관광협의체가 사단법인 발족을 준비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업캠프의 운영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인구감소지역 및 농어촌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 콘텐츠 발굴과 사업화 유도를 위해 도내 7개 대학 재학생 및 진안지역 청년 등이 참여한 '전북대학생연합창업캠프'가 운영됨
- 인구감소지역에 요구되는 음식점 등 운영은 별도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함
 -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혁신적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 스타트업 위주의 지원을 하나 숙박업, 여행업 등 전통적 관광기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함
 - 음식점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관광음식점이라면 별도의 사업을 기획하여 지원 가능함
 - 이들 음식점에 대해서는 전북연구원과 협력 기업 마크 부여 검토 필요할 것임

2-3. 조사 결과 및 시사점 종합

1) 조사 결과

 (현황) 마을 비즈니스를 고려하지 않은 걷기 노선 운영

■ 종래의 걷기 노선은 마을 비즈니스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음

- 종래의 걷기 노선은 대부분 당일 코스로서 참가자가 도시락을 지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마을 비즈니스와 연계가 어렵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적음
- 생태관광에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경제적 지속가능성도 중요시하고 있으나 국내는 물론

해외의 걷기 노선 사례에서도 마을과의 접근성이 낮아 마을 비즈니스와의 연계가 어렵고 방문객 편의가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 기존의 농촌지역 경영체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관광두레, 그루경영체 등 중앙정부 부처별로 지원되고 있으나 걷기 노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들 간을 연계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

(실패 요인) 마을 비즈니스 활성화의 구조적 장애

■ 인프라 부족, 예산 부족, 시장정보 축적 안 됨, 잠재수요 확충 노력 없음

- 대부분 걷기 노선이 조성된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광목적지로서 경쟁지역과 비교하여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가 부족함
- 제주올레를 제외한 국내의 걷기 노선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에 의해 조직이 운영되며 낮은 인건비와 부족한 인력에 의해 최소한의 예산 범위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걷기 노선의 마케팅에 활용 가능한 정보시장정보는 매우 드문데 이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라 할지라도 이용자가 많은 대규모 시설 중심으로 이용현황이 데이터에 반영되고 있어서 그 결과를 생태관광지에 적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임
-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과 실천의 역사가 비교적 짧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생태관광 저변 확대, 잠재수요 확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성공 요인) 걷기 노선에 대한 행정의 기획과 마을 비즈니스의 연계

■ 성공사례에서는 문화적·역사적 배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한 기획, 우수한 주민공동체 사업이 돋보임

-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성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의 경우, 걷기 노선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었음
- 일본 큐슈올레의 경우, 행정에 의해 로컬푸드 판매장인 ‘미치노에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지리산 둘레길, 제주올레 민박 성공사례에서는 사무국이 시설보수 제공하고 침구 등을 지정함
- 해외 여관업 사업자협동조합의 공동판매·공동마케팅, 이윤의 공동 분배·환원 사례를 찾을 수 있음
- 성공사례에서는 여행기업을 운영하는 주민 경영체가 행정사업의 수주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대중관광 수준으로 성장하기 전 단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한 행정사업의 기획이 필요함
- 이와 같은 여행기업은 작은 단위의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약자 고용이 증대하고, 이윤의 공동 분배·사회 환원이 가능한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게 됨
- 마을 비즈니스의 내발적 발전모델은 역사가 오래되거나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찾을 수 있으며, 희생적 리더십과 사업자협동조합 방식 등에서 성공사례를 찾을 수 있음

2) 전북도 차원의 실패사례 극복방안

(개선방안) 세부적인 운영 개선에 의한 마을 비즈니스 역량 강화

■ 이용자 편의 증진

- 걷기 노선 집결지를 마을이 아닌 상업지역으로 하여 걷기 노선 참가자 픽업 및 짐 운송 서비스를 확충하고, 음식 배달, 텐트 대여, 지정 민박 등 이용자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함

■ 기존 비즈니스 자원의 연계

- 걷기 노선의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역의 소규모 업체 등 기존의 비즈니스 자원을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역할은 전북도의 주관하에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를 운영주체로 하여 에코캠핑 삼천리길 운영센터가 운영기관으로 참여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기적으로 교통편 - 음식점 - 숙박업 등 기존의 비즈니스 자원을 연계하여 서비스품질을 보완하고 걷기 노선 콘셉트에 맞춰 브랜드화해야 함

■ 관련 종사자 재교육이 시급함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생태관광 인프라 전반의 지속적 확충은 물론 기존 사업자와 신규 창업자 등 마을 비즈니스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예비 창업자 및 업종 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관광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마을 비즈니스의 저변을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함

(혁신 방안) 근본적인 인식개선과 구조개혁에 의한 마을 비즈니스 혁신

■ 생태관광 인식개선 및 인프라 확충

- 환경교육 등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생태적 공존방식에 대한 인식확산, 걷기 노선에 대한 잠재수요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연수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잠재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생태관광에 교육과 인식확산이 필요함
-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생태관광과 걷기 노선 운영 개선을 위한 데이터로 재가공하고 이를 분석하여 적용해야 함

■ 마을 단위 숙박시설 확충

- 걷기 노선 이용객의 수요에 맞춘 소규모, 저가 숙박시설의 확충은 체류시간 증대 - 다양한 마을 비

즈니스의 확대 - 걷기 노선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 - 인구감소 억제로 이어짐

-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마을 빈집 리모델링, 마을 캠핑장 등 마을 단위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와 이에 따르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향상하여야 함

■ 지역 공공기관에 의한 수요 창출

- 걷기 노선 개설 지역은 관광시장 경쟁력이 약한 지역이므로 공공경제에 의한 활성화가 필요함
- 걷기 노선 운영조직에서 관련 지역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정지원사업에 의해 관광 수요를 창출해야 함
- 에코캠핑 삼천리길 운영조직에서 관련 지역 공공기관과의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정지원사업에 의한 관광 수요를 창출해야 함

■ 마을 비즈니스 참여 조직에 대한 육성지원

- 자치단체에 의한 생태관광 인프라 전반의 지속적 확충, 걷기 노선 운영조직과 마을 비즈니스 참여자에 대한 육성·지원이 필요함
- 마을 비즈니스에 대한 신규 참여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관광기업에 대한 역량 강화, 관광분야 재창업자 지원, 지역특화 여행상품 공모전 등이 유효함
- 이와 같은 관광분야 기업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산하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생태관광 분야, 걷기 노선 주변 마을 비즈니스 경영체에 대한 육성·지원이 필요함

■ 마을 비즈니스 참여자에 대한 범위의 확대 및 제한이 필요함

- 임시고용 형태의 해설사 업무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주민에 대한 권한이양이 필요함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비영리단체의 참여는 부족한 인적자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함
- 세탁업 자활사업단 참여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마을 비즈니스 참여 우선권 부여가 필요함

■ 권역별 특성화

- 권역별 대표 사업과 연계하여 권역별 콘텐츠와 비즈니스모델을 특성화·차별화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함
- 동부권은 산악레포츠, 서북권은 역사체험, 서북권은 생태·지질체험 등으로 에코캠핑 삼천리길과 지역의 관광, 문화, 스포츠, 먹거리 자원을 특성화하여 마을 비즈니스로 연계·육성함

2-4. 에코캠핑 삼천리길 마을 비즈니스모델 구축

1) 마을 비즈니스모델 제안

(안내) 안내자 협동조합, 여행사, 삼천리길 여행업사업자협동조합

- 현재 주민 에코매니저가 활동 중이나 낮은 시급으로 인해 인력확충·프로그램 확충이 어려움
- 낮은 시급으로 인력확충·프로그램 확충이 어려운 주민 에코매니저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함
- 안내자 협동조합은 마을 여행사의 일부로 조직될 수도 있으며, 마을 여행사들을 연계하여 에코캠핑 삼천리길 여행업사업자협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음

(관리) 삼천리길 지킴이 마을기업

- 제초 등 길 관리는 현재 길 운영센터 직원이 맡고 있으나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공공근로 형태도 가능하나 마을주민의 자발성과 민주적 운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이 이상적임

(식음료) 무인 판매대, 길안내 식품점 인증, 식당·카페 협력업체 인증, 도시락배달업, 마을 식당, 마을 바비큐장

- 무인 판매대를 제작·설치하여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며, 마을의 식료품점을 에코캠핑 삼천리길 길 안내소로 인증하여 이용객 편의를 높임
- 무인 판매대는 지리산 둘레길에서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 성공사례 있으며, 길 안내 식품점 인증은 전주한옥마을 식품점 경영자들의 자발적 참여 사례 있음
- 기존의 식당·카페는 에코캠핑 삼천리길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협력업체로 인증하고 공동브랜딩·공동마케팅함
- 도시락배달업은 현재 진안 고원길에서의 성공사례인 마을 식당의 ‘들밥’ 배달 사례를 세부적으로 개선하여 확충함
- 마을 식당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제공 음식 및 서비스 개선 사업 등은 다수의 사례 있으며, 마을 식당에 대하여 농어촌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연계하여 제공 음식 및 서비스를 개선함
- 마을 바비큐장의 경우, ‘Farm to Table’이란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데 에코캠핑 삼천리길 참가자가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채취하는 등 다양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발전 가능함

☙ (숙박) 협력업체 인증, 텐트 대여, 마을민박, 마을 빈집 리모델링, 삼천리길 숙박업 사업자협동조합

숙박은 에코캠핑 삼천리길 운영에서 최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함

- 숙박 서비스 개선에 따라 이용자의 체류기간이 연장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함
- 저렴하고 선택의 폭이 넓은 숙박의 형태를 제시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우선 제주올레 할망민박과 같이 일부 시설을 개보수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숙박 협력업체를 인증함
- 텐트대여업은 현재 캠핑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에코캠핑 삼천리길에서는 캠핑장을 마을 공용마당이나 개인소유 마당 등으로 확대하고 텐트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마을민박은 기존의 주민거주공간 일부를 활용하거나 마을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연계함
- 숙박시설 운영은 마을 단위에서 또는 보다 넓은 지역단위에서 숙박업 사업자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을 제안함

☙ (세탁) 세탁업 자활사업단, 세탁업 장애인사업장, 코인세탁소 겸업 식당·카페

- 마을에는 인력 부족과 하수도 설비 문제로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세탁이 어려움
- 세탁업 자활사업단, 세탁업 장애인사업장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공동체의 참여를 도모함
- 코인세탁소 겸업 식당·카페는 삼천리길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

☙ (레저) 레저·스포츠 협력업체 인증, 레저·스포츠 마을기업, 삼천리길 레저·스포츠협동조합

- 기존의 레저·스포츠업체를 에코캠핑 삼천리길 협력업체로 인증하고 기업체의 기부금은 걷기 노선 운영에 사용하며 걷기 노선 참가자 대상 프로그램과 각종 매체를 통해 기업을 홍보함
- 레저·스포츠 마을기업, 삼천리길 레저·스포츠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함

☙ (기념품) 기념품 생산 사업자, 기념품 생산 마을기업, 삼천리길 기념품 협동조합 등임

- 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산품은 훌륭한 지역관광기념품으로 조사에 의하면 방문객의 선호도가 높은 관광기념품이며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지므로 로컬푸드 판매장을 걷기 노선과 연계하여 걷기 노선 지역의 농산물 생산·가공·판매를 고도화함
- 또한 관광 활성화에 의해 지역의 수공예품의 전통이 계승되거나 관광기념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통공예품의 사례는 국내외에서 흔히 볼 수 있음
- 종래와 같은 역외 외주 형태가 아닌 지역 수공예품을 활용하여 에코캠핑 삼천리길 기념품을 제작함
- 기념품 생산 사업자, 기념품 생산 마을기업, 기념품 생산자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함

2) 시범운영 구간의 마을 비즈니스

🌿 시범운영 구간(동 코스 01 ~ 동 코스 10) 개요

- 길이 164.147m, 9박 10일 코스로 남원 - 장수 - 무주 금강변(내도리) 구간임
- 백두대간종주코스와 연결해 있으며 장수 방화동 분기점과 남원 백두대간여가캠핑장에서 교차됨
- 2025년 개통 목표로 무주군, 장수군, 거창군, 함양군이 조성하고 있는 덕유산 둘레길 일부를 포함하며, 거점마을인 문성마을, 용추마을, 안성면소재지, 신대마을, 앞섬마을의 마을 비즈니스 활성화가 기대됨
- 국가 숲길인 지리산 둘레길이 거점마을인 백두대간여가캠핑장, 달오름마을을 중심으로 교차하여 추가적인 방문객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시범운영 구간 특성

- 시범운영 구간은 9박 10일 코스로서 구간별 길이는 12.1km에서 20.6km로 다양하며, 코스 난이도도 상·중·하 다양하게 분포함
- 코스 설계에서도 구간별 이용주체를 성인(전문) 트레커와 함께 어린이 동반 트레커로 상정하고 있음
- 역사자원, 산림체험자원, 어린이가 방문할 수 있는 연계 자원도 풍부하나 어린이 동반 트레커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프로그램과의 연계, 마을 비즈니스화가 필요함
- 동 코스 06의 마사회 목장, 동 코스 10의 앞섬마을에서 진행되는 패러글라이딩, 레저스포츠 등을 모델로 레저스포츠 분야 마을 비즈니스의 추가적 개발도 기대할 수 있음

■ 걷기 노선의 환경변화에 대응

- 한편 최근 발표에 의하면 한때 연간 70만 명 이상이 찾던 지리산 둘레길의 탐방객이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 둘레길 9곳이 생기고 코로나 이후 탐방 수요를 회복하지 못했으며, 걷기 열풍에 따라 전국적으로 둘레길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⁷⁴⁾
- 지리산 둘레길에서도 남원코스⁷⁵⁾는 한때 이용객이 연간 46만 명을 넘어섰으나 최근 4년 연속 9만 명대를 나타내며 가장 급격한 하락 폭을 보이고 있음

74) 「연 70만 찾던 '국민 숲길' 지리산둘레길, 코로나 이후 절반 '뚝」, 연합뉴스, 2024년 5월 4일 보도.

⁷⁴⁾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7%B0-70%EB%A7%8C-%EC%B0%BE%EB%8D%98-%EA%B5%AD%EB%AF%BC-%EC%88%B2%EA%B8%B8-%EC%A7%80%EB%A6%AC%EC%82%B0%EB%91%98%EB%A0%88%EA%B8%B8-%EC%BD%94%EB%A1%9C%EB%82%98-%EC%9D%B4%ED%9B%84-%EC%A0%88%EB%B0%98-%EB%9A%9D/ar-BB1mgslf?ocid=msedgntp&pc=SMTS&cvid=f16b3d04dcba4132b85551ea43dc7248&ei=47>

75) 지리산 둘레길은 2008년 남원~함양의 21km 구간으로 처음 개통됐으며 2012년 3개 도(전북·전남·경남)의 5개 시·군(남원·구례·하동·산청·함양) 120여개 마을을 잇는 289km 길이의 22개 구간이 완성됐다.

- 그 결과, 지리산 둘레길 주변의 민박집·식당 등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교인을 위한 순례길을 개발하고 걷기 축제와 같은 행사를 여는 등 콘텐츠를 확충하고 편리성·안전성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

■ 이용자 편의 강화

- 지리산 둘레길에서의 이용자 감소는 전국적인 경쟁환경과 더불어 지리산 둘레길의 낮은 이용자 편의성에 기인함
- 에코캠핑 삼천리길에서 시범적으로 개통되는 남원-무주 시범운영 구간은 특별히 이용자 편의를 강화하여 국내의 유사한 걷기 노선과 차별화하여야 함
- 홈페이지에서부터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용 가능한 마을 비즈니스 시설과 프로그램이 홈페이지에 제시되어야 하며 원스톱 예약시스템도 고려되어야 함
- 구간별 12.1km에서 20.6km 길이의 시범운영 구간에서 어린이 동반 트레커는 완주 가능성이 낮음
- 중간에 되돌아가고자 하는 탐방객을 위해 셔틀버스 등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구간 내 게스트하우스, 음식점, 카페 같은 휴게시설을 적절히 갖추는 노력이 필요함

■ 지역의 진정성 강화

-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성된 스페인 산티아고길의 경우, 걷기 노선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었고, 일본 큐슈올레의 경우, 행정조직에 의해 로컬푸드 판매장인 ‘미치노에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됨
- 남원-무주 시범운영 구간 주민이 직접 만드는 즐길 거리, 먹을거리, 이야깃거리 등의 콘텐츠가 에코캠핑 삼천리길에 입혀지고, 안전성과 편리성이 보장되어야 탐방객이 꾸준히 유입될 수 있음
- 이는 지역 소멸을 이겨낼 유력한 수단이기도 한 만큼 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함

■ 심미성 강화

- 남원-무주 시범운영 구간 중 일부는 걷기 쉬우나 논밭 경관이 길게 이어져 단조로운 경관이 펼쳐지거나, 연계 자원이 부족하여 매력성이 부족하거나, 관광자원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거점으로 삼을만한 시설 없는 구간이 있음
- 전주정원산업박람회⁷⁶⁾에 대한 호응 등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심미적 요구가 향상되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다채로운 생태관광자원과 최신 트렌드를 에코캠핑 삼천리길에서도 제공해야 함

76)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대표 정원박람회로 자리매김. 아주경제. 2024년 5월 9일 보도.
138개 업체와 유명 정원작가가 참여하고, 역대 최대인 38만 명의 관람객 방문
<https://www.ajunews.com/view/20240509155834434>

3) 마을 비즈니스 전개 시나리오

전북 생태관광 마을 비즈니스 벨류체인

-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기본구상은 생태관광 인프라를 통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코스별 마을거점 확보를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가 과업의 목적임
- 마을 비즈니스 분야 연구에서는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마을 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구체적인 경영체의 형태와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가 검토되었음
-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 비즈니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시나리오를 「전북 생태관광 벨류체인」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그림 5-62] 전북 생태관광 마을 비즈니스 벨류체인

출처: <https://www.jb-ecotour.org/page/page5> 전북 생태관광 벨류체인 참조 연구자 재구성

■ 단기 시나리오 (상류:UPSTREAM)

- 현재 전북 생태관광은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컨트롤타워가 설치되고 인프라가 확충되는 단계임
-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기본구상에 의해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의 기능이 강화됨
-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는 에코캠핑 삼천리길 총괄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하위체계로 삼천리길 권역센터, 삼천리길 마을센터가 해당 지역의 마을 비즈니스 경영체를 에코캠핑 삼천리길 이용

자에게 연계하는 구조임

- 예를 들어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의 지역특산물 가공, 관광 · 체험, 지역 먹거리 유통(로컬푸드), ‘마을 관리형’ 마을기업의 걷기노선 및 마을 캠핑장 운영 등 에코캠핑 삼천리길 참여 등임
- 이를 통해 에코캠핑 삼천리길 권역 전반의 마을 비즈니스가 고도화됨으로써 이용객에게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함

■ 중기 시나리오 (중류:MIDSTREAM)

- 중기 전략목표는 마을 비즈니스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됨으로써 전북의 생태환경자산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임
- 협동적 의사결정 공동체이자 경제공동체인 마을 비즈니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 · 문화 · 환경적 지속가능성 담보로 이어지게 될 것임
- 예를 들어 마을 비즈니스는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의 운영원칙에 근거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 · 서비스를 생산 · 판매하는 기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자연과 인간의 생태적 공존방식을 프로그램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 비즈니스가 구현됨
-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태환경자산은 체계적으로 보전 · 관리되고 생태관광지역은 브랜드화되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임

■ 장기 시나리오 (하류:DOWNSTREAM)

- 최근에는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두레’,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주민공동체 사업인 ‘그루경영체’ 등 마을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가 증가하고 있음
- 협동조합은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주인인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공동체’이며, 전북은 1,758개 협동조합이 등록되어 있고, 관광레저분야에서도 협동조합 방식의 경영체가 다수 활동하고 있음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세탁업 등 자활근로사업단의 에코캠핑 삼천리길 참여를 마을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하여 자연생태뿐만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생명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전북 생태관광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전과 개발의 대립 구도에서 생태적 회복력과 생명력으로 글로벌 기준의 생태가치를 달성하고, 사람 · 자연 · 경제의 대전환을 통한 생명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마을 비즈니스는 생명경제 시스템의 최선단(最先端)에 위치함

3. 운영관리방안

☙ 행정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민·관 파트너십 구축

-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시군에서 길의 조성, 관리, 운영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나 그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행정은 길 사업 관련 전담인력의 확보, 예산지원 등을 민간기관은 전문성 있는 운영과 지역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및 탐방객 서비스 지원 등을 담당
- 길 사업은 자원봉사자와 같은 민간의 협력 없이 성공적 수행이 어려우므로 ‘길 지킴이’, ‘길 해설사’ 등을 적극 양성하고 활용

☙ 민간단체의 전문성 기반 운영

- 에코캠핑삼천리길의 이용정보 안내 및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운영주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지정하고 길 관련 전문성 있는 인력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여 길 사업을 효율적, 지속적 추진
- 길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탐방객들의 수요와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탐방객들의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디지털 기반 노선의 관리 및 지원

- 길 이용정보 제공 플랫폼과 탐방객이 길을 걸을 때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핵심적인 기능이 탑재된 앱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반 지원체계 강화
- 실물 인증 스탬프의 관리 문제와 비용 등에서 오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디지털 기반 강화

☙ 기존 시설 및 조직 통합을 통한 효율적 관리

- 에코캠핑삼천리길은 주민, 관련법인, 걷기 전문가, 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태자원에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탐방객들의 안전 및 안내, 정보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안내 표지 활용
- 운영관리 주체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행정의 부담 경감

✚ 법률 기반 운영관리 체계 구축

- 길 사업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길의 조성, 관리 등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의하고 보장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여타 많은 길 사업과 같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특히 에코캠핑삼천리길과 같은 기초자치단체를 넘나드는 광역길은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책무와 역할을 법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천리길을 운영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길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도 시군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예산과 시군 간 역할 또한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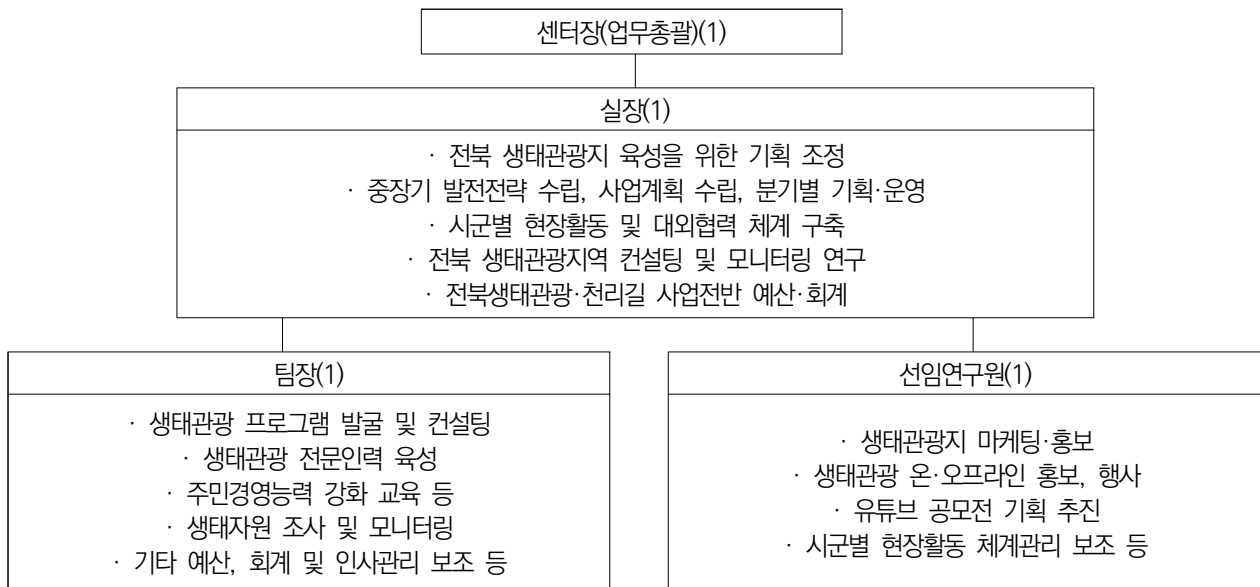
3-1. 운영관리 주체

✚ 전북특별자치도 길 관련 조직

-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차원에서 길 관련 조직은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있으며 기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천리길을 운영 관리하고 있음
- 에코캠핑삼천리길은 전북특별자치도 천리길을 광역화 하는 사업으로 운영관리를 위해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기 보다는 기존의 길 사업을 관리한 형태를 확장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임

■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 현황

- (운영조직) 현 업무분장은 「전북 생태관광지 육성사업(15~)」과 「전북 천리길 운영사업(17~)」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현재 센터장(5급 상당) 등 1팀 4명으로 운영(직제상 2팀 4명)하고 있으며 전북 천리길 운영사업은 업무분장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임



[그림 5-63]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조직

- (운영예산) 센터 총 예산 6억('24년)으로, 사업 운영, 홍보물 제작 중심으로 구성
- (한계점)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24~), 생태관광 마케팅, 지역특화사업 개발 등 미래 생태관광 업무 추진에 조직·인력 부족 예상
-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제6조는 마을사업화 지원, 마케팅 및 홍보,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육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은 부족한 실정임

[표 5-4]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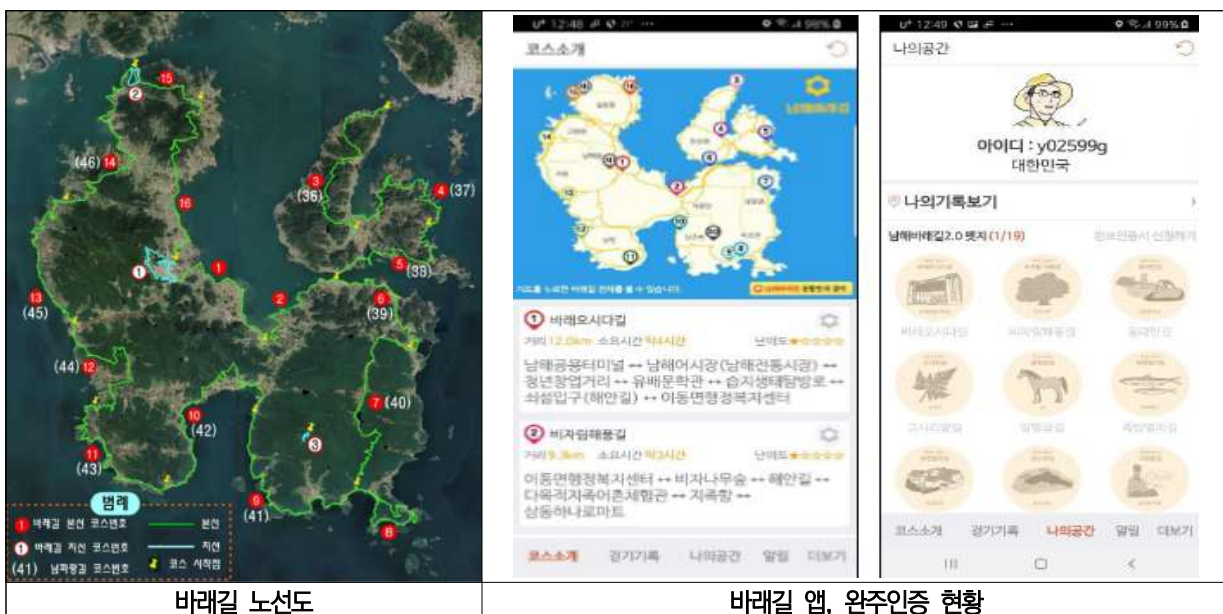
조항	내용
제3조(도지사의 책무)	생태관광 기본계획, 브랜드 가치 창출, 지역경제, 주민주도 경영에 대한 지원
제6조(센터의 기능)	1.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한 기획 조정 2. 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운용 및 관리 3. 생태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컨설팅 4. 생태관광 마을사업화 지원 5. 생태관광 전문인력 육성, 주민 경영능력 강화 6. 생태관광지 마케팅, 홍보 7. 생태관광지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육성 8. 생태자원 조사, 모니터링 및 용도지역 관리 9.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센터의 운영)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타 지역 운영 사례

■ 남해 바래길(남해관광문화재단) 운영 사례

- (노선현황) 24개 노선(순환코스 16개, 지선 6개), 총 256km

- (운영조직) 남해관광문화재단 내 길 전담 ‘바래길팀’ 운영
 - 남해관광문화재단(1본부장 4팀 13명) 중 바래길팀 5명(팀장1, 대리2, 센터2)
- (운영예산) 남해관광문화재단 총 예산 약 43.9억('24)
 - 브랜드마케팅,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플랫폼(행사/굿즈판매), 관광산업 육성, 콘텐츠 개발사업, 해외마케팅, 바래길 운영관리 등
- 주요업무
 - 걷기행사 개최: 작은소풍(월 2회, 60명), 걷기축제(반기 1회, 400명)
 - 자원봉사단(80명, 회당 2만원) 및 길해설사(20명, 회당 8만원) 운영
 - ※ 자원봉사단(지역신문 공개모집) 10시간, 길해설사(자원봉사단에서 선발) 14시간 교육
 - 남해바래길 앱 운영(램블러社 협력, 길 안내 및 스탬프투어 앱 운영)
 - 탐방객 수 : 33,000명 추정(1회이상 앱 사용 인원 11,000명 x 3)



[그림 5-64] 남해 바래길 및 바래길 앱 현황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개편 방안

- 에코캠핑삼천리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센터를 확대 개편하여야 하나 활성화 단계 이전에는 소규모로 운영하고 활성화 이후에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시
- 에코캠핑삼천리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센터가 고려해야 할 기능적 요소는 총괄센터 기능, 권역본부 기능, 프로그램 기획 기능, 민관 협력 기능, 노선지원 기능, 홍보 및 디지털 기반사업 유지관리 등이 필요

길 관련 업무 수행 위한 필요한 주요 기능

- (총괄센터 기능) 동부권, 서남부권, 서북부권으로 길이 구성되어 있고 길 노선의 규모와 특성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각 권역별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총괄 기능이 필요
- (권역본부) 길의 광역성을 고려하여 탐방객들의 수요에 즉시 대응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길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해 권역본부 설치 필요
- (프로그램 기획) 탐방객들의 지속적 유입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행사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기능이 필요함
- (민관협력 지원) 자원봉사자, 지킴이, 해설사 등 민간 인적자원의 관리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등과 연계협력을 위한 지원
- (노선지원) 탐방객들이 길을 걸을 때 요구되는 서비스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현장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며 직접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관리
- (홍보 및 디지털 기반 사업 유지관리) 걷는 길 앱과 홈페이지 관리, SNS 등을 활용한 홍보로 사업의 확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단기 개편방안

- (총괄센터) 총괄센터에서는 생태관광 기획실과 삼천리길 운영실로 2실 4팀으로 운영
- (기획홍보실) 경영지원팀과 홍보·마케팅팀으로 구성
 - (경영지원팀) 기획·예산·회계, 인사관리
 - (홍보·마케팅팀)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생태관광 및 삼천리길 마케팅(지역특화사업 개발 등),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 (삼천리길운영실) 삼천리길기획팀과 운영관리팀으로 구성
 - (삼천리길기획팀) 삼천리길·천리길 프로그램 개발·운영, 해설사 교육·관리, 축제 등 행사 기획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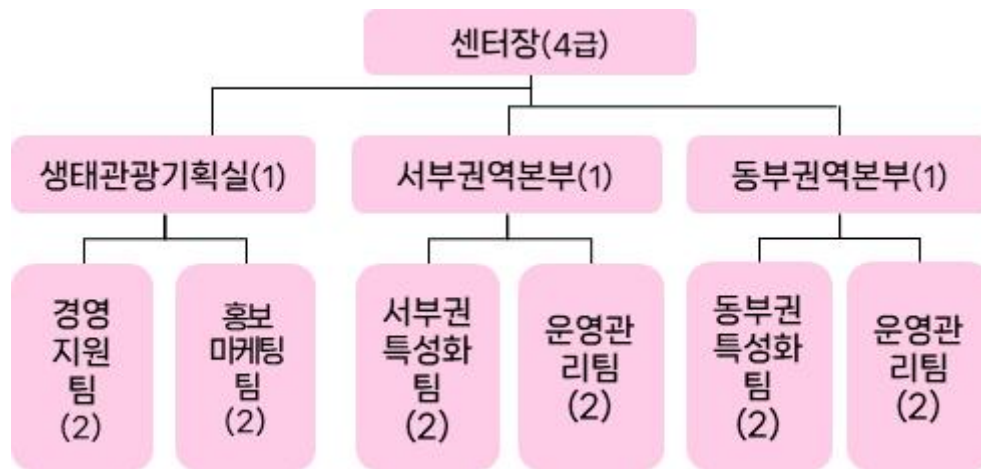
- (운영관리팀) 14개 시·군 삼천리길 및 천리길 총괄 운영 지원(HelpDesk 운영 포함), 삼천리길 모니터링 자원봉사자 관리 및 교육



[그림 5-65]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단기 개편방안

■ 중장기 개편방안

- (총괄센터) 생태관광육성과 에코캠핑삼천리길을 총괄
 - (생태관광기획실) 경영지원팀과 홍보·마케팅팀으로 구성
 - (경영지원팀) 기획·예산·회계, 인사관리
 - (홍보·마케팅팀)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생태관광 및 삼천리길 마케팅(지역특화사업 개발 등),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 (권역본부) 동부권과 서부권* 각 7개 시·군의 삼천리길 및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을 전담하는 권역 본부를 두며, 각각 서부권(동부권)특성화팀과 운영관리팀으로 구성
 - (서부권특성화팀) 역사 및 생태·지질체험 특성화사업 개발, 서부권 삼천리길 및 천리길 해설사 교육·관리, 축제 등 행사 기획·운영
 - (동부권특성화팀) 산악레포츠 특성화사업 개발, 동부권 삼천리길 및 천리길 해설사 교육·관리, 축제 등 행사 기획·운영
 - 서부권역본부는 센터에 위치, 동부권역본부는 동부권에 별도 위치
 - (운영관리팀) 권역별 7개 시·군 삼천리길 및 천리길 총괄 운영 지원(HelpDesk 운영 포함), 삼천리길 모니터링 자원봉사자 관리 및 교육



[그림 5-66]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장기 개편방안

3-2. 조례 및 제도 개선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길 관련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의 길 관련 조례는 광역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으나 부안군 변산 마실길 운영관리 지원조례,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안군 고원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천리길을 운영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길 관리를 생태관광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
- 에코캠핑삼천리길은 광역길로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

타 지역 길 관련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길의 조성, 길의 지정, 지원센터의 지정 및 관리, 종합계획수립 등을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길 관련 조례를 만들 때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부분은 도와 시군과의 관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며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리계획 수립과 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한 조항을 포함 필요
- 이와 더불어 걷는 길 정보망 구축과 길 관련 거버넌스에 대한 조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타 지역 조례 가운데 경기도 옛길 조례가 가장 세분화 되어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 5-5] 광역시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비교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경기도 옛길	충청남도 걷는 길	인천광역시 걷는 길	대구광역시 걷는 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2조 (기본원칙)	제2조 (정의)
제3조(책무)	제3조 (조성 관리구간)	제3조 (걷는 길 종합계획 수립)	제3조 (정의)	제3조 (책무)
제4조 (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4조 (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4조 (걷는 길 조성 기본원칙)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 (걷는 길 조성 관리 종합계획)
제5조 (걷는길 조성·관리 원칙)	제5조 (옛길 관리운영협의회)	제5조 (걷는 길의 관리·운영의 지원)	제5조 (시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5조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
제6조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	제6조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	제6조 (길 정보망의 구축)	제6조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제6조 (걷는 길 정보망 구축)
제7조 (걷는 길 조성·관리)	제7조 (옛길의 조성·관리 등)	제7조 (홍보 등)	제7조 (사업의 범위)	제7조 (전문인력 양성)
제8조 (걷는 길 정보망 구축)	제8조 (관련 민간단체 지원)	제8조 (명품길 지정 등)	제8조 (홍보 등)	제8조 (홍보 등)
제9조 (전문인력 양성)	제9조 (안내센터 관리 운영의 위탁)		제9조 (업무의 위탁)	제9조 (명품길 지정 등)
제10조 (홍보 등)	제10조 (안내센터 운영비)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12조 (청문)			제12조 (시행규칙)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부칙
	제14조 (재산의 관리)			
	제15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전)			
	제16조 (지도 감독)			
	제17조 (시행규칙)			

출처 : <https://www.elis.go.kr/>

[표 5-6]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지역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기지역 옛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경기도 옛길(이하 “옛길”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옛길”이란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며 지역의 개성과 장소성을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 옛 선인들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길을 원형으로 하여, 도민들에게 역사·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역사·문화·자연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경기도지사가 지정·조성한 길을 말한다.
제3조(조성 관리구간)	옛길 조성·관리 구간은 옛 선인들의 정신이 깃든 예전부터 사용하던 옛길의 관할 행정구역 중 경기도내 구간을 말한다.
제5조 (옛길 관리운영협의회)	도지사는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관할 시장·군수를 포함한 관계기관 및 단체, 개인으로 구성되는 경기도 옛길 관리·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경기도 옛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옛길 안내센터 설치 및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역사문화유산의 계승과 생태환경의식 고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3. 옛길의 역사문화, 생태환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4. 그 밖에 옛길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제7조 (옛길의 조성·관리 등)	① 옛길은 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가 조성·관리·운영하되, 그 관리·운영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기도 옛길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옛길의 조성·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경기도 옛길 조성·관리·운영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관련 민간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옛길의 조성·관리 및 걷기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안내센터 관리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옛길의 전문적인 통합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옛길 안내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생태환경운동과 걷는 길 사업실적이 있거나 경기도 옛길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옛길 안내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자체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정 시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안내센터 운영비)	수탁자는 옛길 안내센터를 자체수입으로 관리·운영하되, 도지사는 경기도 옛길의 통합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옛길의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옛길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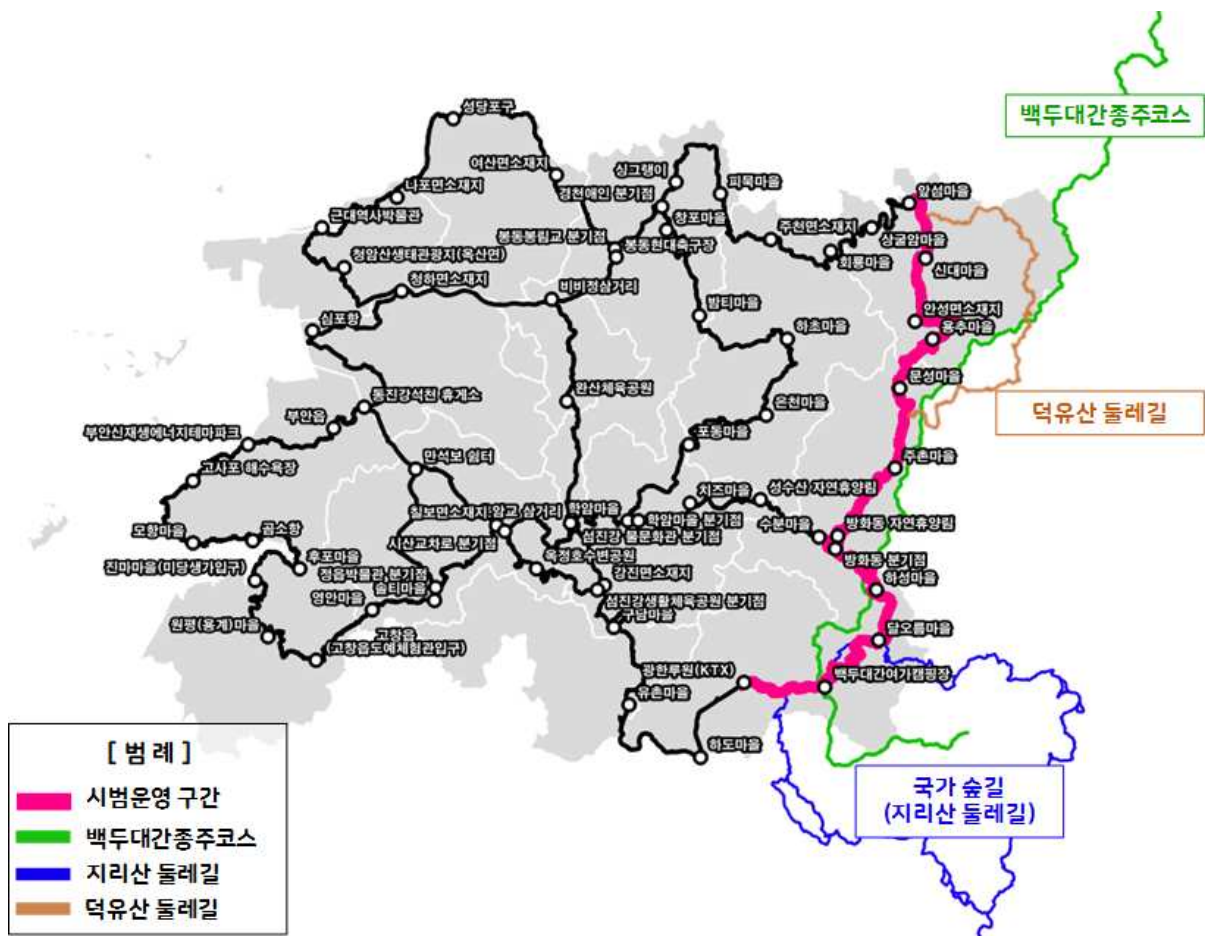
구분	내용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청문)	도지사는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지사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옛길의 관리·운영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전)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손해보험 가입 등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
제16조 (지도 감독)	①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관리·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 <https://www.elis.go.kr/>

3-3. 시범운영

개요

- 시범운영 구간은 동 코스 01 ~ 동 코스 10로 길이 164.147m, 9박 10일 코스임. 지역은 남원 중심부에서 시작하여 장수를 지나 무주 금강변(내도리)에서 종료됨
- 시범운영 구간은 백두대간종주코스와 연결해 있으며 이 코스는 특히 장수 방화동 분기점과 남원 백두대간여가캠핑장에서 교차됨
-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무주군, 장수군, 거창군, 함양군이 함께 조성하고 있는 덕유산길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내륙, 경상권에서의 진입이 용이함
- 국가 숲길인 지리산둘레길이 달오름마을, 백두대간여가캠핑장을 중심으로 교차하여 추가적인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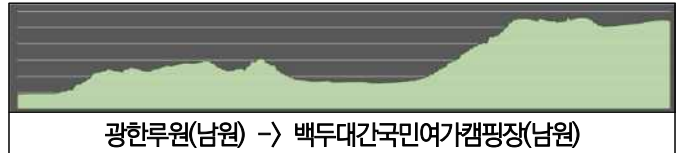


[그림 5-67] 삼천리길 '시범운영' 구간

동 코스 01

코스 개요

- 시종점 : 광한루원(남원) ~ 백두대간국민여가캠핑장(남원)
- 길이 : 14.9km
- 난이도 : 상 ★★★



코스 특성

- (자연자원) 구룡폭포, 장백산, 수정봉 등 수려한 산맥 경관이 펼쳐짐
- (관광자원) 구룡사, 백두대간여생태교육장(생태관광지), 덕음산솔향산림욕장 등 길을 걸으면서 체류할 수 있는 역사자원, 산림체험자원이 있음
- (이용주체) 성인(전문) 트레커

주요 검토사항

- 어린이와 함께 완주하기에 노선의 난이도가 높아 주의가 필요함
- 광한루원에서 ~ 주천면소재지까지 삼천리길 길 안내 체계의 보완이 필요함
- 광한루 ~ 춘향테마파크 앞까지 지정되어 있는 '남원 소리길'과의 연계가 필요함



[그림 5-68] 동 코스 01(시범운영 구간) 현황

동 코스 02

코스 개요

- 시종점 : 백두대간국민여가캠핑장(남원) ~ 달오름마을(남원)
- 길이 : 20.6km
- 난이도 : 중 ★★



코스 특성

- (자연자원) 바래봉, 삼산봉 등 지리산의 산맥 경관이 펼쳐지며 사계절 아름다운 곳
- (관광자원) 지리산허브밸리, 흥부골자연휴양림, 백두대간캠핑장 등 어린이 체류 시설이 많음
- (이용주체) 어린이 동반 트레커

주요 검토사항

- 허브밸리 ~ 황산대첩비 구간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음. '바래봉둘레길'의 복원이 필요함
- 지리산에서 펼쳐지고 있는 생태탐방 흥부놀부 스토리텔링 등 어린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체험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함



[그림 5-69] 동 코스 02(시범운영 구간) 현황

동 코스 03

코스 개요

- 시종점 : 달오름마을(남원) ~ 하성마을(남원)
- 길이 : 12.1km
- 난이도 : 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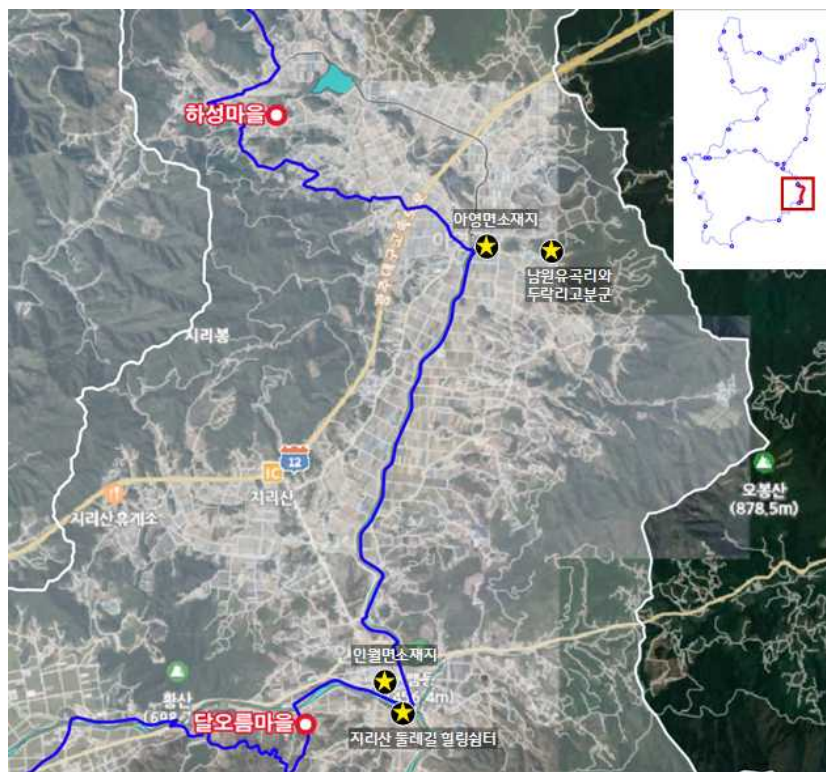


코스 특성

- (자연자원) 풍청, 지리산 등 지리산과 하천 자원이 수려함
- (관광자원) 세계문화유산인 남원유곡리와두락리고분군을 거침
- (이용주체) 어린이 동반 트레커

주요 검토사항

- ‘남원유곡리와두곡리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승격됨에 따라 역사탐방 연계가 가능함
- 아영면소재지~달오름구간은 오랜 논밭 경관이 노출되어 단조로운 경관이 펼쳐짐
- 일원면에는 지리산둘레길의 힐링쉼터가 위치하고 있어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함



[그림 5-70] 동 코스 03(시범운영 구간) 현황

동 코스 04

코스 개요

- 시종점 : 하성마을(남원) ~ 방화동자연휴양림(장수)
- 길이 : 22.8km
- 난이도 : 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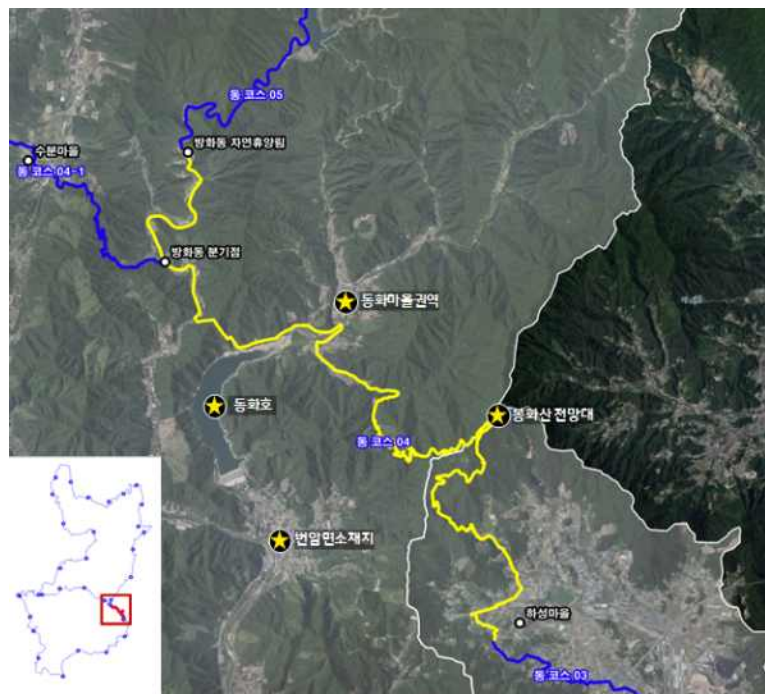
코스 특성

- (자연자원) 동화호, 봉화산을 지나치는 구간으로 천혜의 자연자원이 수려함
- (관광자원) 특별한 시설이 부재함
- (이용주체) 성인 트레커(어린이 트레커 주의 필요)



주요 검토사항

- 동화호 벚꽃군락지는 한 철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이므로 안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봉화산 정상까지 난이도 있어 유아 동반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봉화산 전망대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등산로가 분기하여 전문 트레커의 유입이 가능함



[그림 5-71] 동 코스 04(시범운영 구간) 현황

동 코스 05

코스 개요

- 시종점 : 방화동 자연휴양림(장수) ~ 주촌마을(장수)
- 길이 : 18.1km
- 난이도 : 중 ★★



코스 특성

- (자연자원) 도깨비동굴, 장안산, 덕산제, 덕산계곡, 도깨비동굴
- (관광자원) 방화동자연휴양림
- (이용주체) 어린이 동반 트레커

주요 검토사항

- 장안도깨비동굴의 인지도가 낮음. 도깨비박물관은 논개생가에 위치
- 어린이 동반이 불가능하진 않으나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아 주의가 필요함
- 여름 피서철 교통난이 심한 구간으로 교통안전 보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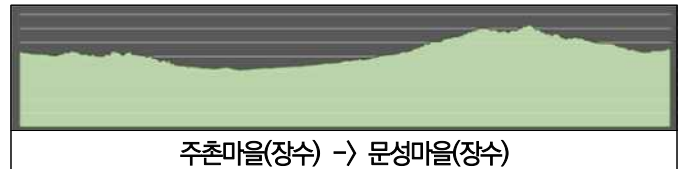


[그림 5-72] 동 코스 05(시범운영 구간) 현황

동 코스 06

코스 개요

- 시종점 : 주촌마을(장수) ~ 문성마을(장수)
- 길이 : 15.9km
- 난이도 : 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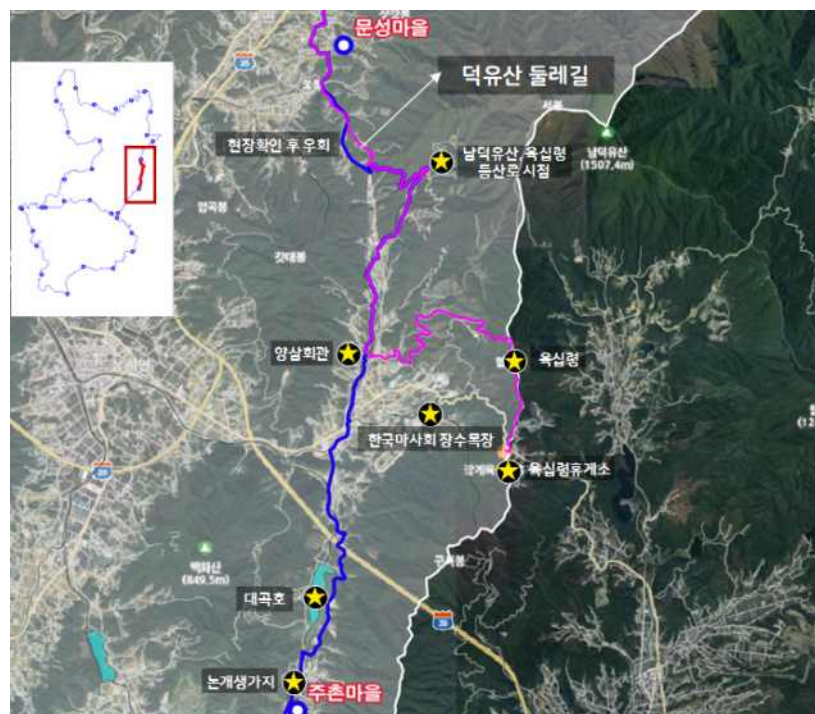


코스 특성

- (자연자원) 남덕유산, 대곡호
- (관광자원) 마사회 목장, 논개생가지, 도깨비 전시관, 대곡호호수 주변카페
- (이용주체) 어린이 동반 트레커

주요 검토사항

- 덕유산둘레길은 양삼회관 부근에서 육십령을 지나 함양으로 넘어감. 안내체계 보완이 필요하며 분기점의 경관 정비가 필요함
- 논개생가지,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등 어린이가 방문할 수 있는 연계 자원이 있음



[그림 5-73] 동 코스 06(시범운영 구간) 현황

동 코스 07

코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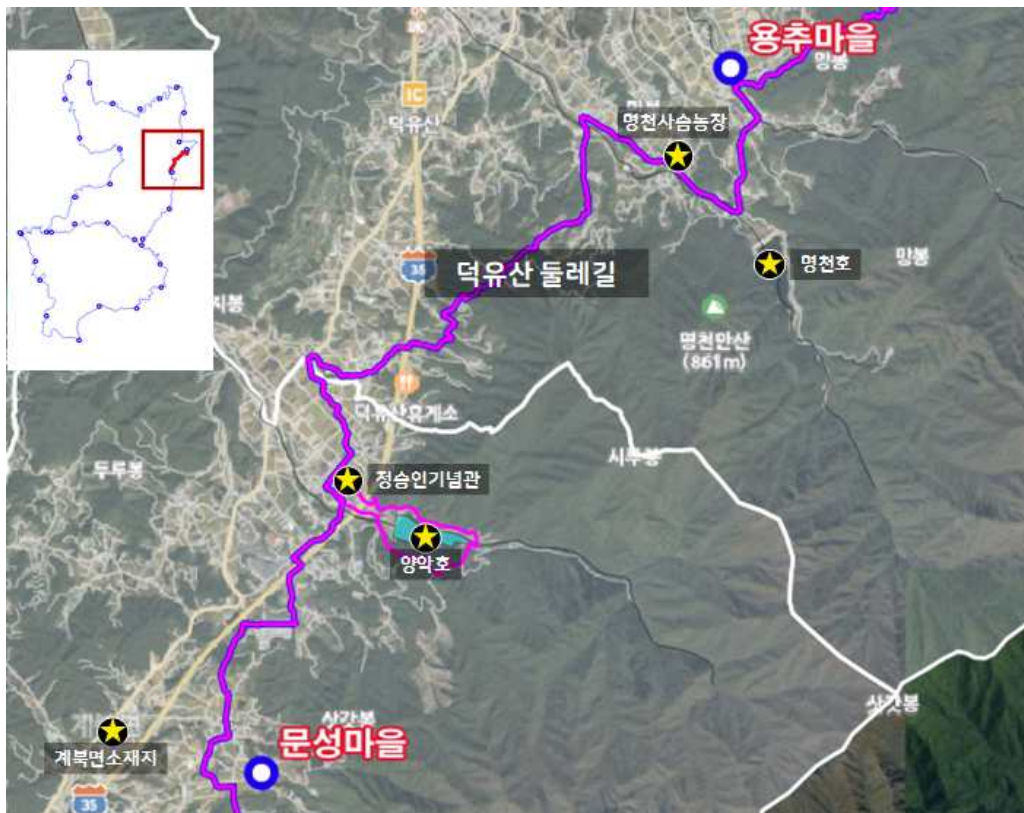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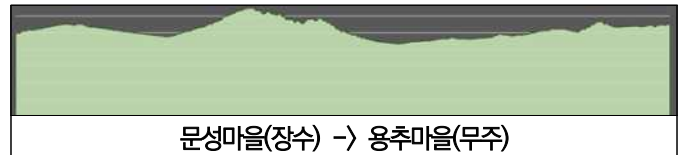
- 시종점 : 문성마을(장수) ~ 용추마을(무주)
- 길이 : 15.1km
- 난이도 : 중 ★★

코스 특성

- (자연자원) 명천호, 양악호 등 저수지 자원이 풍부
- (관광자원) 사슴농장, 정인승(장수 국어학자) 기념관
- (이용주체) 어린이 동반 트레커

주요 검토사항

- 덕유산 둘레길과 중첩 구간으로 덕유산은 양악호를 둘러지나므로 세세 한 길 안내 체계가 필요함
- 사슴농장(사설), 정인승(장수 국어학자) 기념관 등 자원이 점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그림 5-74] 동 코스 07(시범운영 구간) 현황

동 코스 08

코스 개요

- 시종점 : 용추마을(무주) ~ 안성면소재지(무주)
- 길이 : 12.2km
- 난이도 : 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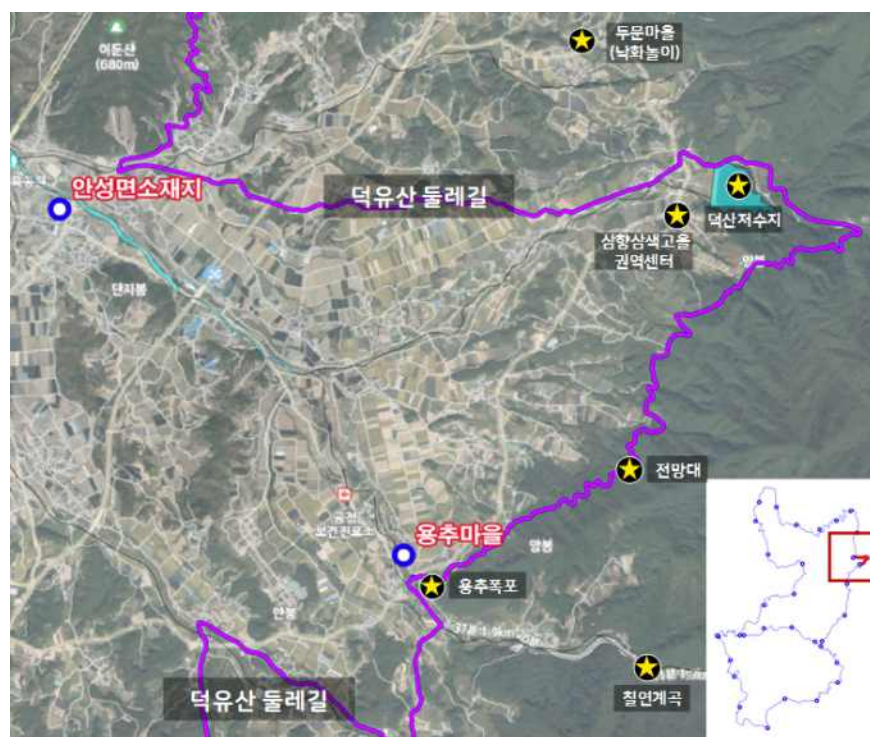
용추마을(무주) → 안성면소재지(무주)

코스 특성

- (자연자원) 저수지(금평, 덕산), 논밭, 산(덕유산), 숲 등 다채로운 자연자원 보유
- (관광자원) 삼향삼색고을권역센터, 낙화놀이(두문마을), 전망대(쉽터)
- (이용주체) 성인 트레커

주요 검토사항

- 덕유산둘레길 중첩구간으로 저수지, 용추폭포 경관이 특히 수려함
- 용추폭포 ~ 덕산저수지까지 긴 노선이 오르막길로 유아 동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오래전부터 인지도 높은 등산로이나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하여 보완이 필요함



[그림 5-75] 동 코스 08(시범운영 구간) 현황

동 코스 09

코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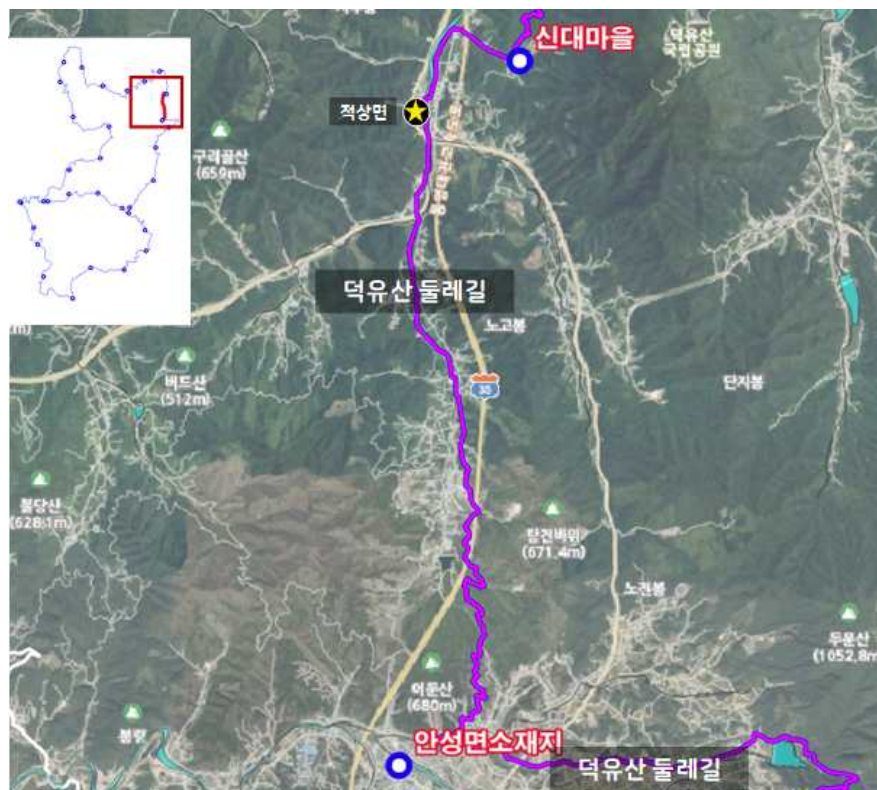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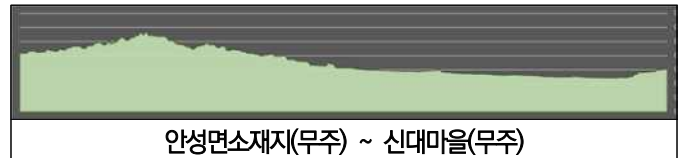
- 시종점 : 안성면소재지(무주) ~ 신대마을(무주)
- 길이 : 12.8km
- 난이도 : 중 ★★

코스 특성

- (자연자원) 하천(적상천), 숲길
- (관광자원) 거점으로 삼을만한 시설이 부재함
- (이용주체) 어린이 동반 트레커

주요 검토사항

- 덕유산 둘레길과 중첩되는 구간으로 걷기 난이도가 낮음
- 적상천을 따라 걷기 쉬우나 연계 자원이 부족하여 매력성이 부족함



[그림 5-76] 동 코스 09(시범운영 구간) 현황

동 코스 10

코스 개요

- 시종점 : 신대마을(무주) ~ 앞섬마을(무주)
- 길이 : 15.0km
- 난이도 : 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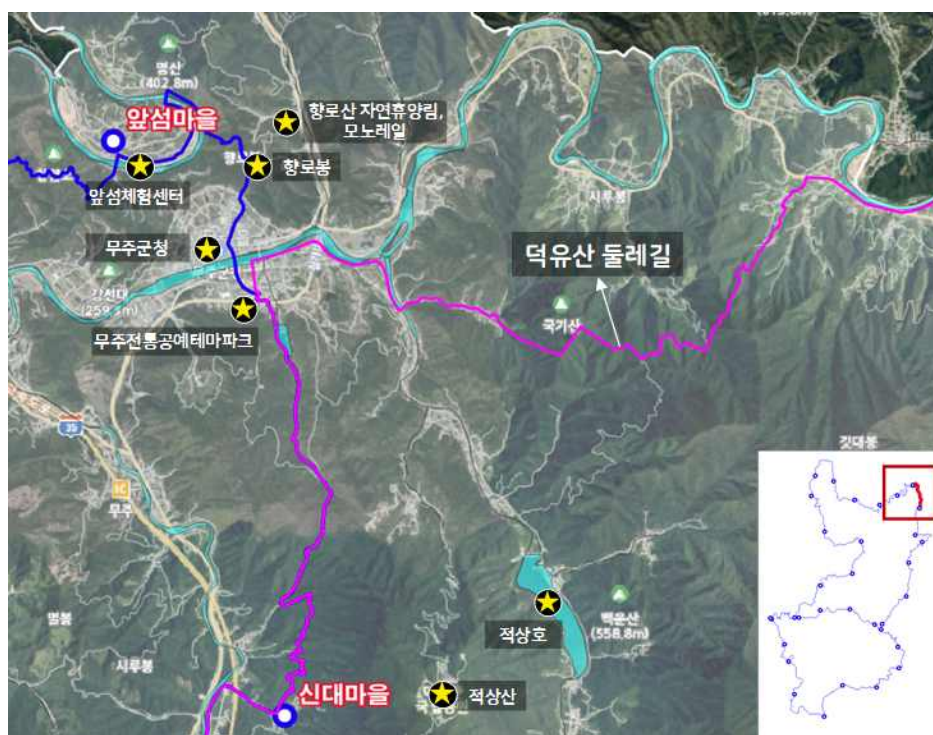
코스 특성

- (자연자원) 금강, 산(적상산, 향로봉)의 수려한 경관이 펼쳐짐
- (관광자원) 무주전통공예테마파크, 향로산자연휴양림(모노레일), 복고사
- (이용주체) 어린이 동반 트레커



주요 검토사항

- 내도리와 무주읍에 무주를 대표하는 관광인프라 집중하여 어린이 동반 가족의 체류가 가능함
- '덕유산 둘레길' 분기하여 길 안내 정비가 필요함
- 앞섬마을에서 진행되는 패러글라이딩, 레저스포츠 등 연계가 가능함



[그림 5-77] 동 코스 10(시범운영 구간) 현황

VI. 투자 및 자원 조달 방안

1. 총괄 투자비
2. 권역별 투자비
3. 자원별 투자비
4. 자원조달 방안

Ⅵ.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1. 총괄 투자비

1-1. 사업추진

- 본 투자비는 기본구상 단계에서 산출한 수량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산출한 수량에 맞춰 조정 가능함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실천 가능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 투자 및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함
-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상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단계별로 설계함

1-2. 총괄 투자비저도

- 삼천리길 조성을 위해 22~30년 기준 약 618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삼천리길 조성 520억원, 삼천리길 운영 56억원, 총괄센터 운영 42억원이 필요함
- 재원별 투자비는 소멸기금 216억원, 보전금(균특) 93억원, 도비 21억원, 시군비 288억원으로 계획함

[표 6-8] 총괄투자비

단위 : 억 원

구분		계	비율	비고
삼천리길 조성		432	69.9	소멸기금 : 시군 = 5:5
		88	14.2	보전금 : 시군 = 5:5
소 계		520	84.1	
삼천리길 운영	동부권(7)	35	5.7	보전금 : 시군 = 5:5
	서부권(7)	21	3.4	
소 계		56	9.1	
총괄센터 운영		42	6.8	보전금 : 도비 = 5:5
소 계		42	6.8	
계		618	100.0	

- 삼천리길 조성비는 동부권 364.6억원, 서북권 83.4억원, 서남권 72억원으로 총 520억원이며, 시군별 조성비는 다음과 같음

[표 6-9] 권역별 투자비

단위 : 원

구분		총 팔 투 자 비
동부권	남원시	2,443,000,000
	완주군	4,997,000,000
	진안군	3,266,000,000
	무주군	9,064,000,000
	장수군	6,553,000,000
	임실군	6,662,000,000
	순창군	3,475,000,000
	소 계	36,460,000,000
서북권	전주시	1,102,000,000
	군산시	2,701,000,000
	익산시	2,290,000,000
	김제시	2,247,000,000
	소 계	8,340,000,000
서남권	정읍시	2,687,000,000
	고창군	2,133,000,000
	부안군	2,380,000,000
	소 계	7,200,000,000
합 계		52,000,000,000

2. 권역별 투자비

- 동부권 삼천리길 조성 투자비는 노선정비 156.6억원, 시설물정비 21.3억원, 거점마을 186.7억원으로 총 364.6억원이며, 시군별 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됨
-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의 경우 하천변 및 산지형 극복을 위해 수변데크, 데크로드를 설치해야 하는 구간이 발생하여 노선정비 투자비 많이 발생함
- 거점마을은 선도거점마을 1개소, 일반거점마을 3개소를 기준으로 산출함

[표 6-10] 동부권 삼천리길 조성 투자비

단위 : 백만원

구분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동 부 권	노 선	신규	300.0	-	600.0	4,260.0	3,342.0	3,528.0	-
		정비	70.0	230.0	230.0	1,050.0	1,088.0	912.0	50.0
		소 계	370.0	230.0	830.0	5,310.0	4,430.0	4,440.0	50.0
	시 설 물	편의시설	-	-	50.0	-	50.0	-	-
		안내시설	85.9	126.9	84.65	83.9	67.4	137.75	19.1
		휴게시설	104.5	146.0	105.5	104.0	123.5	166.5	21.5
		안전시설	10.0	-	-	-	-	20.0	110.0
		부대공사 등	52.6	174.1	55.85	46.1	62.1	77.75	44.4
		소 계	253	447	296	234	303	402	195
	거점 마을	선도	488.0	2,046.0	856.0	1,971.0	506.0	506.0	1,746.0
		일반	1,332.0	2,274.0	1,284.0	1,549.0	1,314.0	1,314.0	1,484.0
		소 계	1,820.0	4,320.0	2,140.0	3,520.0	1,820.0	1,820.0	3,230.0
	합 계		2,443	4,997	3,266.0	9,064.0	6,553.0	6,662.0	3,475.0

- 서북권 삼천리길 조성 투자비는 노선정비 3.7억원, 시설물정비 7.5억원, 거점마을 72.2억원으로 총 83.4억원이며, 시군별 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됨
- 서북권은 노선이 대부분 정비되어 있으며, 익산시는 수변데크 신규 조성이 필요함
- 전주시는 선도거점마을 1개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는 선도거점마을 1개소, 일반거점마을 3개소를 기준으로 산출함

[표 6-11] 서북권 삼천리길 조성 투자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서 북 권	노 선	신규	-	-	180.0	-
		정비	-	-	190.0	-
	소 계		0.0	0.0	370.0	0.0
	시 설 물	편의시설	-	-	-	-
		안내시설	57.5	51.6	34.65	64.9
		휴게시설	42.5	63.0	42.5	105.0
		안전시설	-	50.0	-	-
		부대공사 등	72.0	106.4	22.85	37.1
	소 계		172	271	100.0	207
	거점 마을	선도	930.0	706.0	506.0	678.0
		일반	-	1,724.0	1,314.0	1,362.0
	소 계		930.0	2,430.0	1,820.0	2,040.0
	합 계		1,102	2,701	2,290.0	2,247.0

○ 서남권 삼천리길 조성 투자비는 노선정비 14.1억원, 시설물정비 8.2억원, 거점마을 49.7억원으로 총 72억원이며, 시군별 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됨

○ 거점마을은 선도거점마을 1개소, 일반거점마을 3개소를 기준으로 산출함

[표 6-12] 서남권 삼천리길 조성 투자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서 남 권	노 선	신규	360.0	-	-
		정비	610.0	120.0	320.0
	소 계		970.0	120.0	320.0
	시 설 물	편의시설	-	-	-
		안내시설	119.25	66.4	84.6
		휴게시설	147.0	83.5	105.0
		안전시설	50.0	-	-
		부대공사 등	70.75	43.1	50.4
	소 계		387.0	193.0	240.0
	거점 마을	선도	56.0	506.0	506.0
		일반	1,274.0	1,314.0	1,314.0
	소 계		1,330.0	1,820.0	1,820.0
	합 계		2,687.0	2,133.0	2,380.0

3. 자원별 투자비

3-1. 년도별 투자계획

- 삼천리길 조성은 2022~2027년까지 6년간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총괄센터는 2025년부터 권역별 센터는 동부권을 2026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함

[표 6-13] 년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분		계	2022~2023	2024	2025	2026	2027	2028~2030	비고
총 계(도+시군)	삼천리길조성	520.0	50.0	40.0	130.0	143.0	157.0	-	
	운영비	98.0	-	-	7.0	14.0	14.0	63.0	
	계	618.0	50.0	40.0	137.0	157.0	171.0	63.0	
전북특별자치도									
	삼천리길조성	-	-	-	-	-	-	-	
	운영비	42.0	-	-	7.0	7.0	7.0	21.0	총괄센터
동부권	남원시	삼천리길조성	24.43	2.83	2.26	7.35	6.22	5.77	-
		운영비	5.0	-	-	-	1.0	1.0	3.0
	완주군	삼천리길조성	49.97	-	-	-	18.74	31.23	-
		운영비	5.0	-	-	-	1.0	1.0	3.0
	진안군	삼천리길조성	32.66	3.78	3.02	9.83	8.32	7.71	-
		운영비	5.0	-	-	-	1.0	1.0	3.0
	무주군	삼천리길조성	90.64	10.49	8.39	27.28	23.08	21.40	-
		운영비	5.0	-	-	-	1.0	1.0	3.0
	장수군	삼천리길조성	65.53	7.58	6.07	19.72	16.69	15.47	-
		운영비	5.0	-	-	-	1.0	1.0	3.0
	임실군	삼천리길조성	66.62	7.71	6.17	20.05	16.96	15.73	-
		운영비	5.0	-	-	-	1.0	1.0	3.0
	순창군	삼천리길조성	34.75	4.02	3.22	10.46	8.85	8.20	-
		운영비	5.0	-	-	-	1.0	1.0	3.0
	소 계	삼천리길조성	364.6	36.41	29.13	94.69	98.86	105.51	-
		운영비	35.0	-	-	-	7.0	7.0	21.0
서북권	전주시	삼천리길조성	11.02	-	-	-	4.13	6.89	-
		운영비	3.0	-	-	-	-	-	3.0
	군산시	삼천리길조성	27.01	-	-	-	10.13	16.88	-
		운영비	3.0	-	-	-	-	-	3.0
	익산시	삼천리길조성	22.90	2.65	2.12	6.89	5.83	5.41	-
		운영비	3.0	-	-	-	-	-	3.0
	김제시	삼천리길조성	22.47	2.60	2.08	6.76	5.72	5.31	-
		운영비	3.0	-	-	-	-	-	3.0
	소 계	삼천리길조성	83.40	5.25	4.20	13.65	25.81	34.49	-
		운영비	12.0	-	-	-	-	-	12.0
서남권	정읍시	삼천리길조성	26.87	3.11	2.49	8.09	6.84	6.34	-
		운영비	3.0	-	-	-	-	-	3.0
	고창군	삼천리길조성	21.33	2.47	1.97	6.42	5.43	5.04	-
		운영비	3.0	-	-	-	-	-	3.0
	부안군	삼천리길조성	23.80	2.76	2.20	7.16	6.06	5.62	-
		운영비	3.0	-	-	-	-	-	3.0
	소 계	삼천리길조성	72.00	8.34	6.66	21.67	18.33	17.00	-
		운영비	9.0	-	-	-	-	-	9.0
시군 합계	삼천리길조성	520.0	50.0	39.99	130.01	143.0	157.0	-	
	운영비	56.0	-	-	-	7.0	7.0	42.0	

3-2. 재원별 투자계획

- 재원별 투자비는 총 624억원 중 소멸기금 34.6%, 보전금(균특) 15.4%, 도비 3.8%, 시군비 46.2%로 구분됨

[표 6-14]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분		계	소멸기금	보전금(균특)	도비	시군비
총 계(도+시군)	삼천리길조성	520.0	216.0	44.0	-	260.0
	운영비	98.0	0.0	49.0	21.0	28.0
	계	618.0	216.0	93.0	21.0	288.0
전북특별자치도	삼천리길조성	-	-	-	-	-
	운영비	42.0	-	21.0	21.0	-
동부권	남원시	삼천리길조성	24.43	12.215		12.215
		운영비	5.0	2.5		2.5
	완주군	삼천리길조성	49.97	24.985		24.985
		운영비	5.0	2.5		2.5
	진안군	삼천리길조성	32.66	16.33		16.33
		운영비	5.0	2.5		2.5
	무주군	삼천리길조성	90.64	45.32		45.32
		운영비	5.0	2.5		2.5
	장수군	삼천리길조성	65.53	32.765		32.765
		운영비	5.0	2.5		2.5
	임실군	삼천리길조성	66.62	33.31		33.31
		운영비	5.0	2.5		2.5
	순창군	삼천리길조성	34.75	17.375		17.375
		운영비	5.0	2.5		2.5
	소 계	삼천리길조성	364.6	157.315	24.985	182.3
		운영비	35.0	0	17.5	17.5
서북권	전주시	삼천리길조성	11.02	5.51		5.51
		운영비	3.0	1.5		1.5
	군산시	삼천리길조성	27.01	13.505		13.505
		운영비	3.0	1.5		1.5
	익산시	삼천리길조성	22.90	11.45		11.45
		운영비	3.0	1.5		1.5
	김제시	삼천리길조성	22.47	11.235		11.235
		운영비	3.0	1.5		1.5
	소 계	삼천리길조성	83.40	22.685	19.015	41.7
		운영비	12.0	6		6
서남권	정읍시	삼천리길조성	26.87	13.435		13.435
		운영비	3.0	1.5		1.5
	고창군	삼천리길조성	21.33	10.665		10.665
		운영비	3.0	1.5		1.5
	부안군	삼천리길조성	23.80	11.9		11.9
		운영비	3.0	1.5		1.5
	소 계	삼천리길조성	72.00	36		36
		운영비	9.0	4.5		4.5
시군 합계	삼천리길조성	520.0	216	44		260
	운영비	56.0		28		28

4. 재원조달 방안

4-1. 지방소멸대응기금(주요 재원)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10개 시군, 관심지역으로 1개 시가 지정되어 있어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표 6-15]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10개)	관심지역(1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익산시

-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22년 도입된 재원으로 22~31년(10년) 동안 매년 1조원 규모가 배분지원 할 계획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광역자치단체(15개 자치단체, 서울과 세종 제외)에 지원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성됨



[그림 6-1] 지방소멸대응기금 조합 등 구성 및 역할

4-2.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주요 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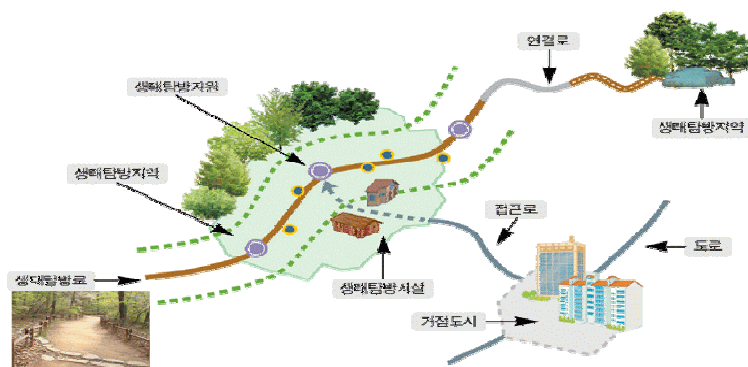
- 환경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연생태보전”을 목적으로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고보조로 주민협의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

고 있으며 생태관광 관련 사업인 생태탐방로, 에코촌,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등을 우선지원하고 대중매체 홍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2014년 고인돌·운공습지(고창), 2018년 월영습지와 솔티숲(정읍), 2023년 지리산 정령치습지(남원)이 지정되어 있음
- 환경부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2024.1)에서 고품격 생태관광 추진을 위해 소외계층 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탐방로·야영지 조성, 탐방약자 프로그램 운영(장애인, 시니어) 등으로 확대할 계획과 일회성 관광에서 체험·체류, 다시 찾는 관광화로 브랜드화 계획을 제시함

4-3.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주요 재원)

- 환경부는 2007년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국정과제 추진계획 등에 따라 우수 생태자원인 5대강, 옛길, 해안길 등을 네트워크화하는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국 2,500km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2023년까지 2,317km 90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음.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그림 6-2] 생태탐방로 구성요소

출처 : 환경부, 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4-4. 자연환경복원사업(연계 재원)

- 환경부는 자연환경이 인위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 3항 제1호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수립(2021년)」,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 후보지 조사 연구(2023년)」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국토환경 녹색복원 후보목록 선정방안 연구 I(2022년)와 II(2023년)」가 추진되었음

- 녹색복원은 자연공간간의 연계를 대상으로 하는 자연환경복원/생태복원과 다르게 복원대상지와 주변지역과의 연계 및 관계를 중요시 하고 있음

[표 6-16]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개념적 토대가 되는 ‘녹색복원’ 정의

구분	자연환경복원/생태복원	녹색복원
공간적 범위	자연지역, 자연지역의 훼손지역	자연, 반자연, 인공지역 등 국토의 모든 공간
목표	과거 혹은 유사한 생태계로의 구조와 기능회복	생태적 기능 및 건강성 극대화(미래적 기능 복구)
목적	대상의 생태적 질적 가치 및 기능 제고	자연의 다기능성 구현을 통한 복원에 따른 영향과 확산성 제고
네트워크 대상	자연공간간의 연계	복원대상지와 주변지역과의 연계 및 관계

출처 : 손승우(2022)

- 환경부는 2023년 5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 후보로 다음 표와 같이 3개소를 선정함

[표 6-17]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 후보목록(2023.5.30.)

대상지역명	규모(㎡)	복원유형	대상지 특성	등급
충남 서천 장항	66만	서식처 회복·특정종보전	습지, 비도시생태계	시급
전북 익산 왕궁	179만	지역환경개선	농경지, 준도시생태계	시급
충북 청주 명심산	39만	자연휴식공간·서식처회복	산림(주거지, 경작지), 도시생태계	시급

출처 : 환경부(2023.5.30.)

참고 문헌



참고 문헌

- "뉴질랜드 밀포드", <http://www.newzealand.com>
- "루리티지", <http://www.ruritage.eu>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 "제주올레", <https://www.jejuolle.org>
- "법제처", <https://www.law.go.kr>
-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 "국립공원공단", <https://www.knps.or.kr>
- "위키백과(올레길)", <https://ko.wikipedia.org/wiki/%EC%98%AC%EB%A0%88%EA%B8%B8>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kdissw.or.kr/menu.es?mid=a10601050000>
- "관광두레", <https://tourdure.visitkorea.or.kr>
- "한국임업진흥원", <https://www.kofpi.or.kr>
- "환경부", <https://www.me.go.kr>
- "산림청", <https://www.forest.go.kr>
-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https://www.jb-ecotour.org>
- "행정안전부", <https://mois.go.kr>
- "카미노 데 산티아고", <https://santiago-compostela.net>
- "Follow the Camino", <https://followthecamino.com>
-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Fiordland National Park Visitor Centre)", <https://www.doc.govt.nz>
- "Appalachian Trail Conservancy", <https://appalachiantrail.org>
- "九州オルレ(규슈 올레)". <https://www.welcomekyushu.jp>
- "Workforcenow", <https://workforcenow.adp.com>
-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 <https://www.keep.go.kr>
-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http://jayeon.or.kr>
-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
- "한국관광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https://sehub.net/village-support>
- "2024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https://knled.org/pages/159>
- "랑도네", <https://www.ffrandonnee.fr>

행정안전부.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행정안전부.

- 전북특별자치도(2023). "2023 전라북도 생태관광 시군평가". 전북특별자치도
- 국립공원연구원(2018). "국립공원 명품마을사업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국립공원연구원.
- 환경부(2019).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환경부.
- 산림청(2018). "여행의 시작 숲 - 여행가기 좋은 우수 산촌생태마을 10선". 산림청.
- 문화체육관광부(2022).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22). "생태관광 진흥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0).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 창출을 위한 발걸음을 떼다".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4). "관광두레 조성사업 추진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국무조정실(2017). "섬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2018).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 지역 관광 육성에서 찾겠습니다". 국무조정실.
- 국립산림과학원(2017). "산촌생태관광 도입에 의한 산촌진흥 방안 연구". 국립산림과학원.
- 오마이뉴스 부설 도보 여행길 답사연구팀(2018). "고양누리길 이용자 편의성 개선 방안". 오마이뉴스.
- 환경부(2019).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환경부.
- 전북특별자치도(2020).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 전북특별자치도
- 환경부(2019).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환경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2022). "2022 걷기여행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 사단법인 숲길(2023). "2023년 지리산둘레길 순례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 사단법인 숲길.
- 환경부(2019).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환경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관광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환경부 (2023.5.30.).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 후보목록
- 김보국, 김형오, & 조하진. (2020).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사업 중간점검 및 발전방향". 전북연구원.
- 안필균, 엄성준, 김용균, & 김상범. (2021). "농촌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RURITAGE 개념 도입 연구 - 농업유산 및 역사마을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 김선기 외(2009). "지역공동체경영사업의 활성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원지·황영모·배균기·정호중(2022). 전라북도 마을공동체 자립역량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전북연구원.
- 김영주·박남희(2012).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관점에서 본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김찬동·서운정(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연구원.
- 김보국·김형오·조하진(2020).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사업 중간점검 및 발전방향 연구". 전북연구원.
- 호소우치 노부타카 편저, 박혜연·이상현 역(2007).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희망제작소.
- 프랑스문화연구(2014). "파리 랑도네 안내서(Tope-Guides)를 통한 도시문화 탐방의 조형적 고찰"
- 권유홍·허문경(2018). "50+당사자연구 연구보고서-50플러스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레저분야 협동조합

창업모델개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권유홍·허문경(2019). "국내 관광레저분야 일반협동조합의 특성과 시사점". 한국협동조합학회.

권유홍·황병중·한주형·허문경(2021).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두레 협력 네트워크 강화방안". 한국관광공사

김선기(2011).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정책 추진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도(2011).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의 이론과 실제". 교우사.

마저리 켈라·테드 하워드 저, 홍기빈 역(2021). "모두를 위한 경제-합리적인 공동체의 희망: 클리블랜드-프레스턴 모델 설명서". 학교재

권유홍·황병중·한주형·허문경(2021).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두레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한국관광공사.

허문경·권유홍(2020). "일본 쿠로카와온천관광여관협동조합 사례연구". 한국관광학회.

권유홍·황병중·한주형·허문경(2021).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두레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한국관광공사

손승우, (2022). 국토환경 녹색복원 정책 및 방향: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수립과 후보목록 구축, 전라북도
녹색복원 및 생태축 복원사업 시군 설명회. 한국환경연구원.

아주경제(2024.05.09.).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대표 정원박람회로 자리매김". <https://www.ajunews.com/view/20240509155834434>

부록

1. 국내 사례조사 결과보고서
2. 국외 사례조사 결과보고서
3. 인터뷰 결과(마을비즈니스)
4. 생태탐방 수요자 인식조사 설문조사지

1. 국내 사례조사 결과보고서

1-1. 운탄고도 사례조사

1) 개요

- 일 시 : 2023. 04. 12(수) ~ 14(금), 2박3일
- 장 소 : 운탄고도 1330 노선, 정선 등
- 목 적 : 국내 장기 걷기길 사례조사
- 출 장 자 : 이강진 선임연구위원, 천정운 연구위원, 배진아 전문연구원
- 일 정 :

날짜	장 소	세부일정	비 고
(1일차)	9:00-13:00	전주 - 영월	
	13:00-14:00	점심식사	
	14:00-16:00	운탄고도1330 통합관리센터 방문	
	16:00-18:00	지역자원 탐방 (영월 선돌 등)	
	18:00-20:00	저녁 및 간담회의	
(2일차)	9:00-18:00	A 팀: 운탄고도 4길 트레킹 28.76km (예미역-함백초등학교-타임캡슐공원-새비재-꽃꺼끼재) + 사북역(5.3km)	
		B 팀: 지역연계자원 탐방 정선 스카이버스, 정선레일바이크,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18:00-20:00	저녁 및 간담회의	
(3일차)	9:00-13:00	지역연계자원 탐방: 스카이워크 & 집와이어	
	13:00-14:00	점심식사	
	14:00-18:00	정선-전주	

2) 1일차

(1) 운탄고도1330 센터방문

■ 운탄고도 출범 배경

- 운탄고도1330은 2020년 강원도가 추진한 사업으로 2022년 영월~정선~태백구간 1단계 사업이 준공됨

- 추진 시점에서부터 최초 준공까지 소요된 시간이 2년 이내로 짧게 걸린 이유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한 지금이 기 확보 되어 있었기 때문임

- 운탄고도 1330의 노선은 장기트레킹을 위해 새롭게 조성한 길이기보다는 기존 영월, 정선, 태백 각 지자체에 있던 특화 길을 연결시킨 개념임. 순환코스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음

■ 운탄고도 1330 명칭 및 코스 설정

- ‘운탄고도 길’은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 리조트 주변의 백운산 주변에 기 활성화 되어 있던 길로 ‘운탄고도’ 고유명사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강원랜드가 가지고 있는 상태임. 이로 인해 ‘운탄고도 1330’ 상표출원이 불가능한 상황
- ‘석탄을 운반하던 길’ 본연의 가치가 높은 운탄고도 코스는 4코스~5코스가 대표적이며 나머지 길은 우수한 자연자원을 잇는 산악트레킹 길임

■ 운탄고도 1330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운탄고도 1330은 영월군 출자 기관인 (재)영월산업진흥원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강원도 출자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음. 예산이 강원도 -> 영월군 -> 영월산업진흥원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사용에 어려움이 많음
- 영월 외 정선, 태백의 운탄고도 1330 관리센터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통합업무를 맡을 기관 및 예산 확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
- 운탄고도 1330 통합지원센터는 노선 관리를 첫 번째 업무로 삼고 있으며 다음으로 방문객 응대, 프로그램 기획 관리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

- 탐방길이 현장 검증이 부재한 채 행정 처리가 완료된 시점에 개통함.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에서 민원을 전부 센터가 받고 있음
 - 그러나 센터도 관련 업무 경력이 부재하고 인력도 충분치 않아 민원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국유림지 이용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기존 설치된 화장실도 철수하는 등 원활한 시설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자전거로 국유림지에 진입하는 것이 불법인 일부 구간이 존재하나 센터에서 저지할 근거가 없음
- 홈페이지에 다양한 정보를 게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민원 업무량이 과중함
- 예산을 투입하여 BI 개발, 굿즈를 제작 해 놓고 정작 판매를 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함. ‘운탄고도’의 사용 권한이 강원도가 아닌 ‘강원랜드’가 가지고 있기 때문

■ 시사점

○ 현장 점검이 꼼꼼히 이루어진 길 필요

- 미완의 노선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4계절, 밤낮의 세밀한 현장 실사가 필요함. 또 이용객 입장에서 겪는 문제점이 수렴될 수 있도록 가 개통, 시범운영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문성을 갖춘 삼천리길 통합 운영센터 필요

- 운탄고도 통합센터는 고유 업무와 운영 방식이 고도화 되지 못한 문제가 대두됨. 또한 센터 내부에서도 센터 장 외 '운탄고도 1330' 사업을 이해하는 이가 부재하여 대응이 원활하지 않고 있음
- 운탄고도 사례를 미루어 볼 때 노선을 통합 운영하는 한 개 기관이 민원, 노선관리, 홍보 등 고유의 업무를 맡아야 함. 또 삼천리길 자체의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채용이 필요함

○ 지자체, 산림청 등과 유연한 업무협업 체계 필요

- 산림청과 업무 협의를 맺었다고는 하나 기 설치된 화장실을 철거하는 등 현장에 필요한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삼천리 길에서도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산림청, 환경청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상표등록을 통한 수익사업의 필요성 검토

- 센터의 자립을 위해 수익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숙박 및 굿즈 판매를 통해 가능하며 상표출원에 문제가 없도록 브랜드 네이밍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함

○ 시종점 마을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 운탄고도 사례의 안내 지도에서는 시종점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숙박, 식당 등을 별도의 검증 과정 및 협의 과정없이 모조리 넣은 상태임
- 노선의 만족도는 안내, 서비스, 음식, 숙박 등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시종점 마을에 대한 협업구조가 필요함

(2) 모현동 벽화마을, 엽기적인 소나무 거점 방문

■ 모현동 벽화마을

○ 모현동 벽화마을은 3구간을 통과하는 주요 거점으로 1990년대까지 번성했으나 석탄산업의 쇠퇴와 함께 쇠퇴한 마을임

- 운탄고도1330 개통과 함께 '운탄고도 마을호텔' 예능프로그램이 방영되어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한 지역

○ 채광업소, 기숙사 등 마을역사 자원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한채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방문객을 위한 상시 시설이 부재함

- 마을 입구는 운탄고도 관련 외 이정표가 정리되지 못한 채 어지러움. 운탄고도 사인은 다른 시설물에 가려 눈에 띄지 않음

■ 엽기적인 소나무, 타임캡슐 공원

- 운탄고도 4코스 변에 위치하고 있는 명소로 주차장과 카페,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으며 타임캡슐 체험이 가능함
-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차량과 도보 이용이 가능하고 산림과 고원 경관의 심미성이 높음

3) 2일차 : 5길 트레킹 및 지역 명소 방문

(1) 5길 (정선 만항재 ~ 화절령) 답사 및 시사점

- 만항제에서 화절령에 걸친 운탄고도1330 5길은 완만한 경사의 임도길로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조성된 길을 활용한 것으로 하이원 하늘길과 대부분 중첩되어있어 운탄고도1330통합관리센터에서 뿐 아니라 하이원에서도 관리하고 있음
 - 하이원은 길 관리를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
- 운탄고도 5길의 표식은 잘 되어 있어 하이커들이 걷기에 편안한 길이었으며 표식의 종류는 5종류 (메인 안내판, 종합안내판, 방향표지판, 기둥형 심볼, 리본) 외에 대형 사인표지판도 있어 운탄고도를 알리는데 부족함이 없었음
- 5길에는 도롱이 연못과 1777깡도 가 있어 하이킹 하는 중간에 볼거리를 제공함
- 5길과 4길에는 편의시설이 쉬는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었으나 화장실이 전무한 상태이고 인근 마을도 없어 장거리 하이커 들에게는 불편한 부분이 많았음
 - 유일하게 있던 도롱이 연못 앞의 화장실은 철거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 이용하지 못함

(2) 백두대간 국가수목원 거점 방문

- 국가가 조성한 대규모 관광거점으로 걷기 코스를 테마로 다양한 체험시설이 조성되어 있음
- 백두대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음
- 비교적 최근 개관한 시설로 심미성 높은 디자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강원도 및 운탄고도와의 접점을 찾기 힘들

(3) 도롱이 연못 지역 명소 방문

-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를 거치는 4코스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입 경사가 급해 도보로 진입하기 어려움. 카카오, 다음 지도에 검색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 찾기가 어려움
- 4코스 주변 산 진입로는 인위적으로 수종을 통일시킴(자작나무). 가로변 위치하고 있는 안내사인은 하이원이 제공하고 관리하여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었음

4) 3일차 : 정선 산악스포츠 체험지 답사

(1) 정선 스카이워크 및 산림레포츠 체험 시설

- 밤섬의 수려한 물줄기를 배후로 병방치 전망대와 산림레포츠 시설이 위치한 복합체험 시설임
 - 짚와이어, 짚라인, 짚코스터, 어드벤처, 스카이워크, 글램핑이 결합되어 있음
- 병방치 전망대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조망시설로 TV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등산길이 위치하여 트레킹의 추가 체험이 가능함
- 짚와이어는 성인, 짚라인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며 어린이 및 유아를 위한 시설은 짚코스터, 어드벤처 시설이 있음
- 운탄고도와 연계되지 못하였으며 도보 보다는 차량의 접근이 수월한 한계를 보임



1-2. 제주올레

1) 개요

- 일 시 : 2023. 10. 4(수) ~ 6(금), 2박3일
- 장 소 : 제주도 일원
- 목 적 :
 - 제주올레의 통합운영관리의 범위 및 시스템 파악
 - 제주올레길과 마을과의 협력 벤치마킹 (안내, 화장실, 숙박 등)
 - 제주올레길과 산티아고, 규슈 등 해외 걷기길 협력 벤치마킹
- 출 장 자 : 이강진 선임연구위원, 김재구연구위원, 장충희연구위원
- 일 정 :

날짜	시간	세부일정	비 고
1일차	9:00-12:00	제주 도착, 렌트	
	12:00-13:00	점심 및 이동	
	14:00-16:00	(사)제주올레	
	16:00-18:00	7-1코스 답사(호근마을)	
	18:00-20:00	저녁 식사	
	20:00-	취침	
2일차	A팀 9:00-18:00	1코스 ~ 2코스 완주	
	B팀 9:00-18:00	2~3코스 주요거점 방문	
	18:00-20:00	저녁 식사	
	20:00-	취침	
3일차	9:00-12:00	세화마을협동조합, 질그랭이거점센터	
	12:00 ~ 14:00	점심 및 렌트 반납	
	14:00 ~ 16:20	공항도착	
	18:00 ~	해산	

2) (사) 제주올레 방문 결과

- 제주올레는 민간단체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제주도의 지원시설물 등) 일부 받고 있으며 올레지기 등 지역 사회봉사자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길’은 조성보다는 실시간 단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함. 제주올레는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올레지기가 있음
- 걷는다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편의시설(차량)에 제약을 두고 있음. 스토리 등 연계도 올레길 구성에 투영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걷는다는 행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배낭 픽업 서비스 등을 시범운영하였고 현재는 다양한 업체들이 운영되고 있음
- 제주올레는 17년 이상을 준비와 여러 시행착오 끝에 오늘에 이룸. 올레길 구상 당시 목적은 ‘알려지지 않은 제주의 모습’을 관광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음

3) 하영올레길 현지조사

- 하영올레는 시가지와 관광지,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올레길 구성되어 있으며 시가지의 경우 올레길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올레길 주변 경관 및 콘텐츠들과 적극적인 연계보다는 잘 짜여진 길을 통해 걷는 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제주올레길 이외의 ‘길 표식’이 문제가 되어 자체적으로 수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4) 제주올레 1~2코스 (시흥리-광치기)

- 1코스인 시흥리는 역사적인 연원 (제주도에 파견된 관리가 가장 먼저 방문하고 제를 올리는 곳)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 코스인 24코스 종달리 역시 마지막을 상징하는 곳임
 - 접근성보다는 길의 의미를 두고 시종점을 계획함
- 코스 중간에 산티아고 순례길 표식이 있어 올레 이용자들 및 해외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되고 있음
- 코스 곳곳 시종점 및 현위치를 알려주는 표석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올레 안내소 (상주 직원)가 있어 코스 및 굿즈, 화장실, 임시 휴게소 역할을 수행함
- 올레길 곳곳 문화재 등이 산재해 있지만 이를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음
 - 야영장 (표선), 마을에서 운영하는 카페 등과 연계하여 기존 시설물 기반 안내 센터 등을 운영

5) 세화마을협동조합, 질그랭이거점센터 20코스

- 지역 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마을협동조합에 거점센터를 운영 (숙박, 휴식 등)
- 제주 올레길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민간단체 및 민간인 들은 마을 사업 등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었음
- 상주 시설인 안내소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만 대부분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유지시키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를 통해 그 보상을 지원받고 있음

1-3. 남해바래길

1) 개요

- 일 시 : 2024. 3. 25(월) ~ 3. 26(화) 1박 2일
- 장 소 : 남해 바래길 일원
- 목 적 : 남해 바래길 현장답사 및 바래길(남파랑길 포함) 운영 실태 답사
- 출 장 자 : 약 15명
 - 전북자치도(2) : 이성석 기후환경정책과 팀장, 강신범 기후환경정책과 주무관
 - 전북특별자치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4) : 두양수 센터장, 이범숙 실장, 김효영 팀장, 황슬기 선임연구원
 - 전북연구원(2) : 이강진 선임연구위원, 천정운 연구위원
 - 남해관광문화재단(7) : 조영호 본부장, 윤문기 팀장, 남찬원 대리, 정성남 매니저 외 약 3명
- 일 정

일 시			내용	비고
1일차	13:00 ~ 16:00	'180	· 이동	
	16:00 ~ 18:30	'150	· 남해 바래길 현장답사(앵강다숲길), · 바래길 탐방지원센터 방문	
2일차	10:30 ~ 12:00	'90	· 남해관광문화재단 방문 및 운영현황 질의응답 · 남파랑길 여행지원센터 방문 및 광역길 운영현황 질의응답	
	12:00 ~ 13:30	'90	· 점심식사 및 이동	
	13:30 ~ 15:30	'120	· 현장답사(고사리밭길, 별해로)	
	15:30 ~ 18:00	'150	· 귀원	

2) 남해 바래길 탐방지원센터 방문

- 2010년 개통되었으며 현재는 약 250km(본선 16개, 지선 4개, 섬 지선 2개, 3개 마을 코스로 구성) 노선으로 구성됨
- 남해군(관광과) 예산 지원으로 길 정비·보수가 이뤄지며, 단순한 노선 표식 달기 등은 자원봉사자인 지킴이(약 80명)를 통해 이뤄짐(4시간 이상 활동시 2만원 활동비 지급)
- 운영주체는 남해군(관광과), 남해생태관광협의회의(민간), 남해관광문화재단(운영)으로 구성됨
 - 남해군 : 길 보수, 관광과 내 별도 팀 편성
 - 남해관광문화재단 : 길 및 탐방지원센터 운영(정규 3명, 기간제 2명(시설관리))
- 대부분의 이용객은 당일보다는 숙박(펜션 등 활용)을 통해 지역의 생태자원과 마을문화 등을 함께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교통서비스로 버스노선 안내(안내지도, 앱에 표시), 택시 안내(면 관할구역 내의 사전에 협의된 택시 기사로 제한), 숙박업소 안내(사전에 협의된 숙박업소로 픽업서비스도 가능)

3) 남해관광문화재단 방문

- 남해 바래길 탐방객은 2023년 기준 약 35,000명 추정(바래길 앱을 통해 카운팅 한 수치는 약 11,000명이며, 앱 미사용객을 포함하면 약 35,000명으로 추정됨)
- 앱은 노선 안내(램블러 길찾기 서비스 활용), 알람, 응급메시지 전송, 탐방객수 카운팅, 온라인시스템 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대부분의 바래길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였으나 일부 구간은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로 이러한 도로들은 데크 등 탐방객 안전을 위한 시설 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 민간에서 참여하는 부분으로 1. 자원봉사자, 2. 길 해설사가 있으며, 이외에도 환경부가 지원하는 자연환경해설사 협조로 생태해설 프로그램도 운영중임
- 최근 길 해설사 중에서 일부를 길동무(탐방객과 함께 걸으면서 길에 대해 안내)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구상 중임
- 처음엔 개별적으로 떨어진 길들로 개통(바래길 1.0)되었으며, 향후 전체를 연결하는 트레일 개념으로 확대하여 개통(바래길 2.0)되었고, 향후에는 자전거길, 등산길, 웰니스서비스까지 확대하여 바래길 3.0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임
- 운영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리직원의 길에 대한 전문성과 마인드임
- 남파랑길 여행지원센터는 앵강다숲길(10코스)에 위치한 바래길 탐방지원센터 옆에 설치함(문체부 사업비로 신축, 운영은 남해관광문화재단에서 함)
- 축제, 행사로는 봄·가을에 500여명이 모이는 축제, 매월 첫째 주 50여명이 모이는 노르딕 워킹 행사, 매월 셋째 주 프리워킹 150여명 행사가 있음

4) 경기옛길 등 광역길 운영관리

- 걷기길 1세대는 올레길을 제외하면 반은 실패함. 이유는 유형적 요소(노선 유지관리 등)는 등한시키고 길의 무형(선)적 요소(소프트웨어, 정보 등)만 중요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 유지관리는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 둘 다 매우 중요하며, 관리운영을 위한 전담인력과 조직(도

부록

및 시군과 중간조직, 민간 등)이 필요함

- 경기옛길은 조례를 만들고, 경기옛길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시행 및 운영관리는 경기문화재단이라는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음
- 경기문화재단은 5명(시설관리 1명, 노선정보 및 행사, 탐방프로그램 관리 2명, 홍보 1명, 총괄, 서무, 거버넌스 1명)으로 구성됨
- 자원봉사는자는 재단에서 모집하며, 길 노선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순 운영관리 업무를 맡김(먼거리 이동에 대한 실비 지원)
- 광역길의 초기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브랜드 인지도이며, 홍보전략 마련과 탐방객들을 통한 자발적 홍보가 필요함
- 지킴이, 생태해설사, 길 해설사 등이 구분되어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가 생태해설사 등의 역할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광역길의 운영에 있어 구성 지자체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도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요함

5) 별해로

- 남해바래길 4코스(남파랑길 37코스) 고사리밭길은 우리나라 최대 고사리 산지(전체 생산량의 1/3 생산)를 거쳐가는 곳으로, “별해로”라는 쉼터 겸 전망공간을 만들어 고사리밭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함



2. 국외 사례조사 결과보고서

2-1. 뉴질랜드 밀포드

1) 개요

- 일 시 : 2022. 12. 15(목) ~12. 22(목), 6박8일
- 장 소 : 뉴질랜드 일원
- 목 적 : 동부산악권 한국형 밀포드 트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현지 답사
 -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거리 트레킹 코스 벤치마킹
 - 체류형 탐방객 방문에 따른 주민 소득 창출 유도 기반 조성 등 확인
 - 운영 관계자 면담 및 자료 수집 등 우리 도 적용 방안 모색
 - 탐방객 방문 유도를 위한 연계 관광자원 및 브랜드 활용 사례 조사 등
- 출 장 자 : 9명(도 5, 시군 2, 연구원 2)전북특별자치도 :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산림녹지과장 황상국, 관광산업과장 이순택, 기후환경정책과 주무관 진은아, 주무관 최승현
 - 시군 : 진안군 환경과장 최방규, 장수군 산림자원팀장 최석원
 - 연구원 : 김보국 선임연구위원, 천정윤 연구위원
- 일 정

날짜	장 소	세부일정	비 고
1일차	인천 오클랜드	출국(인천 20:50 → 오클랜드 12:05<익일>)	
	오클랜드 퀸스타운	답사지역 이동(오클랜드 17:35 → 퀸스타운 19:25)	
2일차	퀸스타운 테아나우	애로우타운, 카와라우번지센터, 퀸스타운가든, Te Papa Atawhai 야생과학보호구역,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 캐플러(Kepler) 트랙	
3일차	테아나우 밀포드사운드	테아나우 다운(밀포드 트랙 시점), 밀포드사운드(밀포드 트랙 종점), 루터번 트랙	
4일차	오아마루 더니든	와이타키 화이트스톤 지질공원	
5일차	더니든 퀸스타운	퀸스타운 트레일 일원	
6일차	퀸스타운 오클랜드	이동(퀸스타운 15:00 → 오클랜드 16:45)	
	오클랜드 인천	귀국(오클랜드 11:10 → 인천 19:15)	

2) 퀸스타운 및 테아나우 일원

(1)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 방문

- 밀포드 트랙을 비롯한 다양한 트레킹 코스와 피오르드, 빙하, 원시림, 산악경관을 보유한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면적 약 12,500km²)인 Fiordland National Park의 비지터 센터 중 하나로 테아나우에 위치하고 있음
-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의 공식 탐방로인 케플러(Kepler) 트랙, 밀포드(Milford)트랙, 루터번(Routeburn) 트랙, 그리고 캠프장과 헛(Hut), 사냥 구역을 관리
- Hut 숙박티켓 및 노선 패스 예약·판매, Great Walks 시즌(11~5월) 예약, 자연보전활동 안내, 휴양체험 안내, 수렵 허가, 낚시 면허, 시청각 프로그램 운영, 국립공원 박물관, 기상정보 운영, 정보집 및 기념품 판매,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음



방문자센터 내부 모습

기념품 판매

지형 형성 과정 전시

(2) 캐플러(Kepler) 트랙 답사

- 테아나우 시에서 출발하여 Hanging 밸리, Rocky Point 대피소 등을 거쳐 돌아오는 순환형 코스로 중간 난이도(intermediate)이며, 한 방향으로만 도는 다른 코스와는 달리 양방향으로 걸을 수 있음
- 3~4일, 총 60.1km 코스로 10월~4월까지가 성수기이며, 테아나우와 가깝고 입장객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누구나 쉽게 방문하여 뉴질랜드 온대다우림(너도밤나무림 및 고사리 등 양치식물)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음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태보전 프로그램인 'Kids Restore the Kepler'프로젝트를 Kids Restore NZ, Community Trust of Southland, Distinction Hotels NZ의 민간 자금 지원으로 DOC와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Fiordland 보전 트러스트가 운영하고 있음(kidsrestorethekepler.org.nz)



Kepler 트랙 고도 프로파일 및 주요 경관



Kepler 트랙 맵



〈Kepler 트랙 위치〉



Kepler 트랙 입구 표지판



어린이 참여 생태보전 프로그램 위치도



유해야생동물 포획용 트랩

(3) 연계 관광지 사례

🏠 애로우(Arrow) 타운 방문

- 19세기 뉴질랜드 남섬에서 금광이 발견되어 골드러시가 일어난 중심지로, 당시 Arrow강 주변에 형성된 마을의 모습을 재현한 곳이며, 초기 중국인 광부들이 살았던 작은 집, 차이나 타운 등이 보존되어 있음
- 캠프장, 전쟁기념관, 도서관, 우체국, 역사거리, 박물관 및 방문자센터 시설 보유



박물관 및 방문자센터 내부



중국인 노동자 헌신을 기념한 소공원

🏠 카와라우 번지센터 답사

- 세계 최초의 상업적인 번지점프 장소로 유명한 카와라우(Kawarau) 번지센터는 카와라우강에서 1988년 11월, A.J. Hackett에 의해 조성되기 시작함
- 1880년에 건축한 역사적인 현수교에 위치한 번지 체험장은 43m높이로 비교적 낮아 초보자, 어린이, 여성, 커플들에게 인기가 많아 하루 약 100여명이 뛰어내리고 있음(연간 약 3.8만명)
- 체험비는 220뉴질랜드달러(약 17.6만원)로 고가이나 번지점프 및 익스트림 스포츠 마니아들의 성지로 인기가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100달러가 추가되는 기념사진을 찍는 경험도 고려할 만함
- 번지센터에는 번지점프를 뛰는 사람들 이외에 방문객들을 위한 기념품 판매, 식음시설, 영상자료 시청이 가능함
- A.J. Hackett 번지점프장은 카와라우 이외에도 뉴질랜드 2곳을 더 포함하여 총 6곳의 번지점프장을 운영하고 있음
- 퀸스타운과 이어지는 트레일 구간이 현수교를 통과하고 있어 번지점프 외에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연계 탐방활동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창출함



번지센터 입구



번지센터 내부 시설 모습



번지점프 체험시설 및 전망대



현수교 위에 조성된 걷기길 이정표

🌿 퀸스타운 가든 및 트레일

- 퀸스타운 가든은 와카티푸 호수변에 조성된 공원으로 자연적인 조형물 형상을 한 어린이 놀이터(생태놀이터), 걷기와 사이클링을 위한 트레일 코스, 디스크 골프(Frisbee golf) 코스, Robert Falcon Scott 기념비 등이 위치함
- 호수 주변의 수변 트레일과 숲속으로 조성된 산책로, 디스크 골프 코스 등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과 산책,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놀이공간으로 널리 이용됨
- 거점도시인 퀸스타운을 통해 관광객을 모으고, 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연계 관광시설(보트 타기, 케이블카, 패러글라이딩, 전망대, 루지, 숙박, 교통, 안내센터 등)이 조성되어 다채로운 체험과 지역의 관광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부록



퀸스타운(Queenstown)

- 뉴질랜드 남섬 오타고 지방(내륙) 와카티푸 호수 기슭에 위치한 도시로 반지의 제왕에 나온 산과 와카티푸 호수에 둘러싸인 자연경관이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임
-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골프, 낚시, 제트보트, 스키, 스노우보드, 증기선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고급 호텔과 세계적 부호들의 별장이 와카티푸 호수변에 조성되어 있어 연간 약 13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옴
- 퀸스타운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남서 뉴질랜드 지역(Te Wahipounamu - South West New Zealand)의 거점 도시로 밀포드 트랙 등 남서부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임

(4) Te Papa Atawhai 야생과학보호구역(Wilderness Scientific Reserve)

- 퀸스타운에서 테아나우로 가는 길에 위치한 보호구역으로 뉴질랜드의 원시 늪지대 관목성 소나무숲과 이끼류를 지대를 걸을 수 있는 곳임
- 산책 등 위킹은 가능하지만 캠핑은 금지되어 있으며, 유럽인들이 정착해서 현재의 낙농업을 위해 조성한 초지경관 이전의 생태계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음
- 야생과학보호구역을 보전하기 위해 뉴질랜드 보전부(Department of Conservation; DOC)에서 다

양한 과학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함



야생과학보호구역 표지판

Te Papa Atawhai 야생과학보호구역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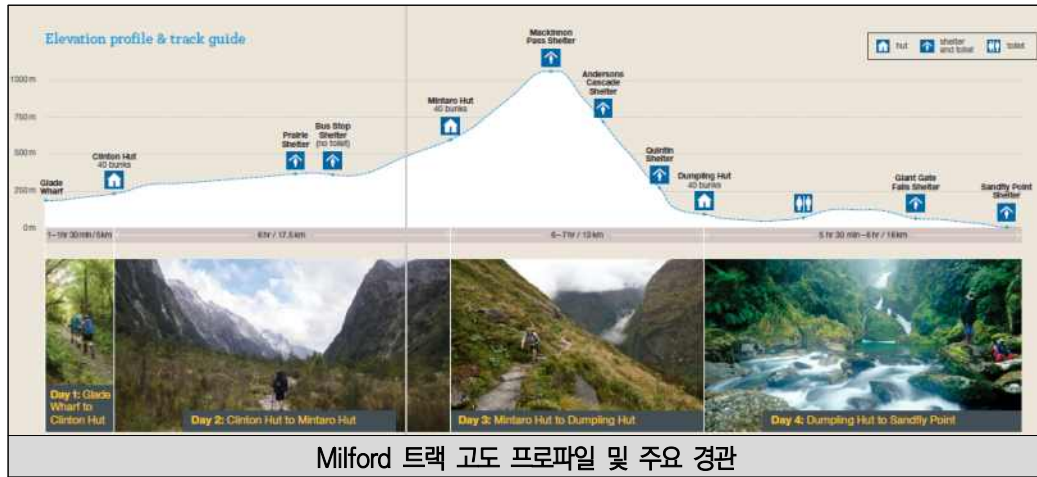
3) 2일차

(1) 밀포드 트랙 시종점 답사

- 밀포드(Milford) 트랙은 세계 3대 트레킹 코스의 하나로 4일, 53.5km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 난이도이며, 원시림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하루에 90명의 입장객 제한이 이뤄지고 있음
- 성수기(Grate Walk Season) 시즌 밀포드 트랙을 걷는 방법은 총 2가지로 첫째, DOC가 운영하는 Hut에서 숙박하는 방법과, 둘째, 민간 기관인 Ultimate Hike에서 운영하는 Lodge에서 숙박하는 방법으로 구분됨
- 첫째, DOC사이트 예약자는 Hut에 숙박하며, 모든 준비물을 챙겨서 가이드 없이 직접 전 코스를 완주하는 개념임. 모든 음식물을 개인이 준비하고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며(기본취사도구 비치), 취식 후 모든 쓰레기를 회수해야 함
- 둘째, Ultimate Hike 예약자는 Lodge에 숙박하며, 기본 준비물을 챙겨서 가이드와 함께 걷는 개념으로, 고급 침구류가 구비된 침대, 뷔페식 식사 제공, 이동거점간 교통수단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함
- 테아나우 다운에서 보트를 타고 Glade Wharf로 이동하고, 이곳에서 신발에 묻어있는 흙을 털어내고 트레킹을 시작함(타지의 유해 생물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임)
- Hut 사이 약 2시간 거리마다 대피소(shelter) 또는 화장실이 위치하며, 트랙커의 편의를 위해 종점인 Sandfly Point에서 밀포드 사운드까지 보트를 타고 이동함. 밀포드사운드에서는 거점도시인 퀸스타운 또는 테아나우까지 버스가 운영되고 있음
- 종점인 밀포드사운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피오르드 협곡 보트 투어(중식 포함)가 운영되며, 대부분

부록

의 관광객이 보트를 활용한 탐방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육상에서의 탐방 활동에 따른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루터번 트랙 답사

- 루터번(Routeburn) 트랙은 33km의 2~3일 코스로 중간 난이도이며 밀포드사운드로 향하는 도로의 중간에서 시작되어 루터번 대피소에서 끝나는 코스임
- 산악지방을 많이 통과하는 코스로 저지대의 다우림에서 고지대의 초원지대, 빙하경관 등 다양한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음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두 국립공원인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과 아스파이어링 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코스로 이 지역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인기가 높음



4) 3일차 : 오타고 대학 및 볼드윈 거리 : 연계 관광자원 사례

- 오타고 대학은 뉴질랜드에 세워진 최초의 대학으로 지역의 지질, 생태 등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될 예정인 와이타키 화이트스톤 지질공원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볼드윈 거리는 세계적인 급경사로(경사 약 35%)에 위치한 도로자원을 활용, 도로 걷기 체험(경쟁 유발), 이색 사진 촬영(정상부 포토 스팟 조성), 초콜릿 굴리기 대회 등 다양한 생태관광 연계 활동을 체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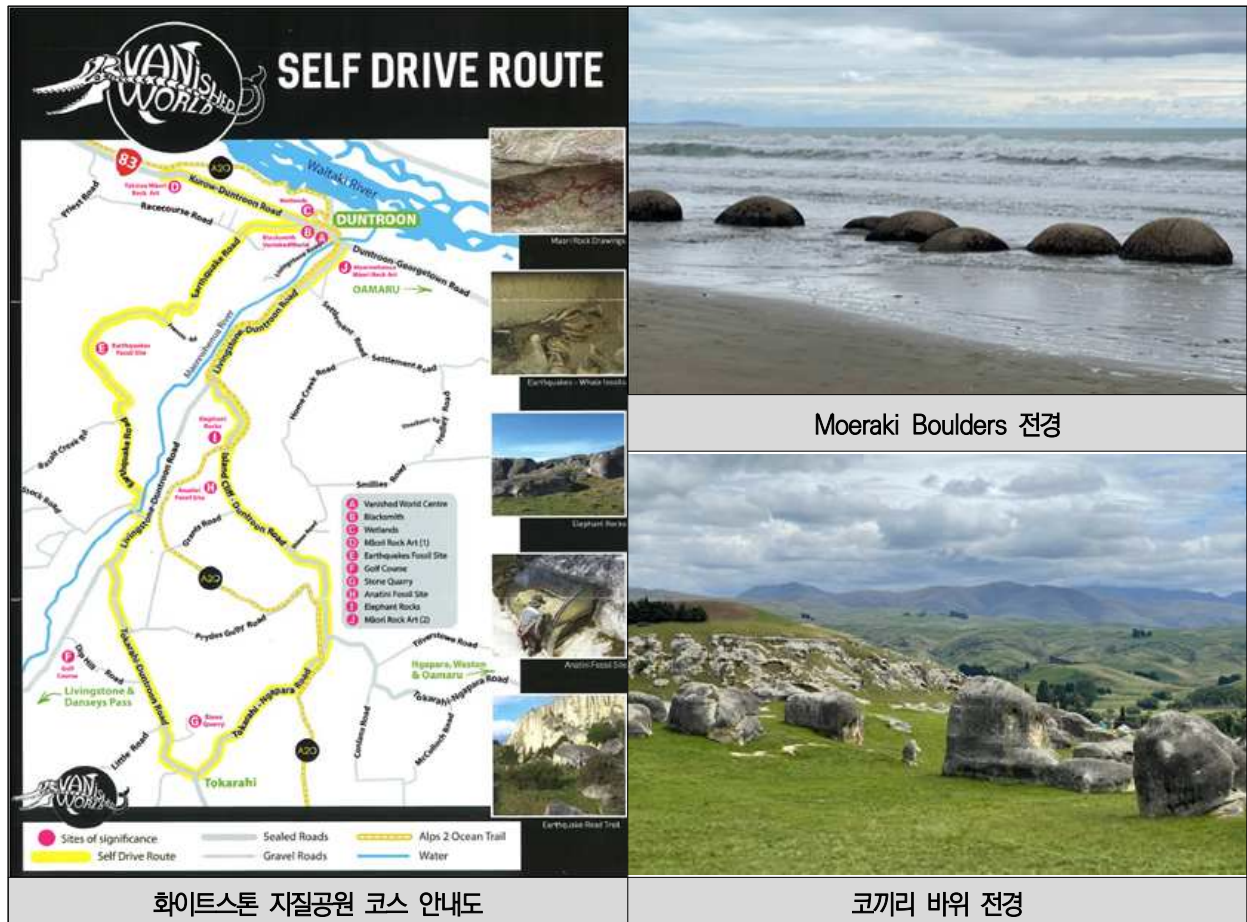


오타고 대학 전경

오타고 대학 지질 실습실

5) 4일차 : 퀸즈타운 일원 : 와이타키 화이트스톤 지질공원 방문

- 와이타키 화이트스톤 지질공원은 '23년 5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될 예정으로 오타고 및 뉴질랜드 남서부 지역의 주요 지질명소 역할을 하고 있음
- 원주민 문화와 지질학적 특이성, 주변의 자연 경관을 접목하여 다양한 지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곳은 명소인 코끼리 바위(Elephant Rocks)를 거쳐가는 사라진 세계 트레일(Vanished World Trail), 캠핑장과 연결한 Duntroon 습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화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라진 세계 전시관(Vanished World Centre), 마오리족의 암석화를 체험하는 Maori Rock Art 체험장으로 구성됨



6) 5일차

(1) Utimate Hikes - 밀포드 트랙 민간 운영기관 방문

- Utimate Hikes는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의 밀포드 트랙, 루터번 트랙에 대한 가이드 트레킹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임
- 밀포드 트랙과 루터번 트랙을 활용, 상기 개별 코스들에 대한 트레킹 프로그램 이외에도 두 코스를 연계한 그랜드 트래버스(Grand Traverse), 더 클래식(The Classic) 트레킹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총 4개의 트레킹 프로그램 운영)
- DOC에서 운영하는 Hut와 별도로 식사와 샤워 등 편의를 더한 Lodge를 운영하며, 전문 트레킹 가이드가 동행하여 트레킹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밀포드 트랙 프로그램의 경우 4일 걷기 이후에 1일 일정으로 밀포드사운드에서 피오르드 유람선 체험을 연계하여 탐방객의 다양한 체험 경험 제공함



(2) 퀸스타운 방문자 센터 방문

- 퀸스타운 방문자 센터는 DOC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퀸스타운 지역과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지역의 트레킹 프로그램을 운영함
-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이 높고 야생 생태계가 우수한 곳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DOC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생태계 모니터링 및 보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유해야생동물 트랩 설치 등 자연환경 보전 활동과 탐방 시설 관리·점검에 지역 주민을 고용하여 지역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2-2. 프랑스 랑도네

1) 개요

- 기간 : 2023. 5. 22(월) ~5. 31(수), 9박10일
- 지역 : 프랑스, 스위스 일원
- 목적 : 에코캠핑 삼천리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현지 사전 답사
 - 우리 도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거리 트레킹 코스 벤치마킹
 - 체류형 탐방객 방문에 따른 지역 활성화 기반 조성 사례
 - 정부관계자 및 운영 관계자 면담을 통한 우리 도 적용 방안 모색
 - 탐방객 방문 유도를 위한 연계 관광자원 및 브랜드 활용 사례 조사 등
- 출 장 자 : 2명(전북연구원 2)
 - 이강진 선임연구위원, 김재구 연구위원
- 일정

날짜	장 소	세부일정	비 고
(1일차)	인천 파리	출국(인천 12:15 → 파리 18:30)	
(2일차)	파리	랑도네 협회 (FFRandonnee) 방문 1학교 1길 프로그램 담당자 면담, jeunes@ffrandonnee.fr	
(3일차)	파리	퐁텐블류 GR13, Karma 방문	
(4일차)	파리	도시랑도네 / 랑도네 정보센터 방문 14 Rue Riquet, 75018	
(5일차)	파리	signage 담당 기업 방문	
(6일차)	파리	GR3 랑부예 숲길	
(7일차)	파리 제네바	이동(파리 13:00 → 제네바 14:10)	
(8일차)	제네바	Rando Geneva 방문 / lac leman 트레킹	
(9일차)	제네바	GR5 Tracking	
(10일차)	제네바 인천	귀국(제네바 → 파리)	
(11일차)	제네바 인천	귀국(파리 → 인천)	

2) 유럽 장거리 트레킹의 요람 FFRandonnee 협회 답사

■ 장소 : 프랑스 파리

■ 참석자

- 랑도네협회 (Severine Ikkawi, Madeleine Lebranchu, Giles Vicrobeck, Brigitte Souлары)
- 전북연구원 (이강진, 김재구)
- 통역 (박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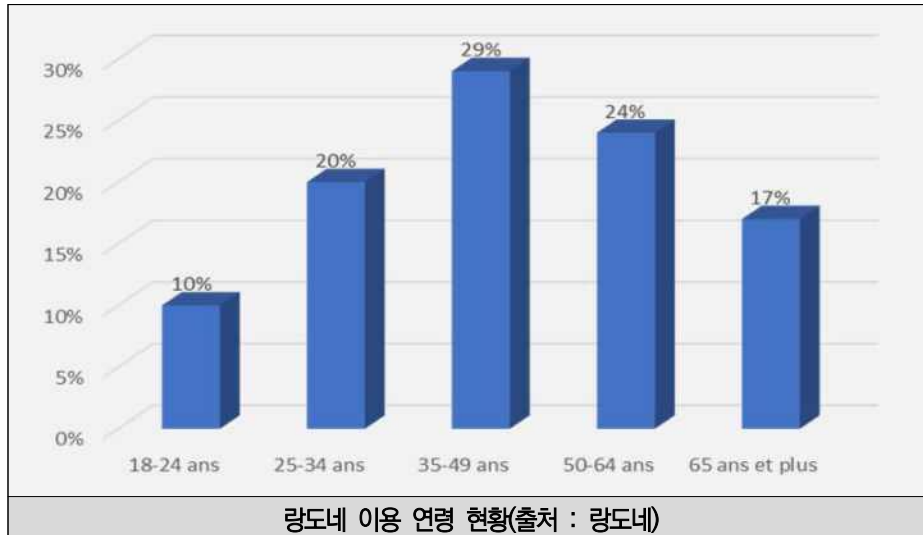
■ 주요내용 : 랑도네 협회의 조직, 역사, 기능, 주요프로젝트, 지역네트워크 등 조사 및 관계자 면담

- 정보센터가 기존에 14Rue Riquet, 75019, Paris에 소재하였으나 최근에 FFRandonnee 협회 건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협회에는 현재 50명의 상근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자원봉사 인원들이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Madeleine Lebranchu (vice president)는 비상근 자원봉사 임원임.
- 협회의 주요 임무는 1) 체육부와 연계를 통한 국민의 스포츠, 건강 및 웰빙 향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구성, 홍보 등을 수행함. 2) GR® 및 GR® de Pays 트레일의 생성 및 유지 관리를 통한 개발 및 홍보, 자연 및 문화 유산의 향상. 3) 합리적 활용을 촉진하는 녹색 및 지속 가능한 관광의 실천 장소를 만들고 지역의 경제적 이익 증대에 기여
- - FFRandonnee 회원 프로파일을 보면 지역과 데파르트망의 110개의 위원회와 3,500개 클럽이 있고 221,653명의 회원이 있으며 28년까지 회원수를 50만명으로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다시 반등하고 있음. 회원의 93%가 50세 이상이며 여성이 65%, 남성이 35%로 여성의 비율이 크게 높음



부록

- 프랑스인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는 Randonnee 이며 그 다음으로 자전거, 스키 순서이며 지난 12개월동안 2700만 프랑스인이 하이킹 연습을 하였으며 하이킹을 하는 주요 이유로는 월빙, 자연, 그리고 건강임. 하이커들의 49%는 25~49세 이었으며 35~49세의 연령층이 가장 많이 하이킹에 참여하였으며 하이커들의 평균연령은 46세 였음



- FRandonnee 에서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노르망디 지역의 역사자원을 활용한 길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음. Memory of Randonnee 라는 주제로 세계대전의 유적지를 연계하는 길을 만들어 군인 뿐 아니라 국민에게 역사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음
- 최근 국방부와 협력을 통해 노르망디 지역의 역사자원을 활용한 길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길 만드는 사업은 진행형이며 길 만드는 과정은 1) 지역이나 단체에서 길 만들기 사업 요청, 2) 5명 정도의 연구진이 구성되고 사전조사와 답사를 통해 길에 대한 제안을 함, 3) 지역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후 길을 확정 4_ Randonnee 협회에서 길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숙박, 관광 등은 유관기관에서 담당하며 유기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관리
- hiking과 tracking 개념의 명확하게 정의 함. 하이킹은 1일 이내에서의 걷기 활동이며 트레킹은 2일 이상의 걷기활동을 말함
- 에두알 프로그램을 운영함. 전 코스를 다 걷지 못하는 하이커들을 위해 거점 숙소를 정하고 그 인근에서 20KM 정도의 하이킹 코스를 걷고 또 다른 거점 숙소를 정하고 인근에서 20Km를 걷는 형태로 운영
- 시점과 종점에 대한 마크를 해 줌으로서 트래커들이 보다 쉽게 시종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Randonnee 대부분이 기차역을 중심으로 분할되어 있어 기차를 이용하여 시점에 회귀할 수 있도록 함. 전북은 기차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특히 동부권의 접근성이 어려우므로 하이킹 이후에 시점으로 회귀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함

- 건강을 위한 Randonnee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이 나쁘거나 건강제한자들에 대해 재화에 초점을 맞추어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함.
- 각 나라별로 동식물 보호종, 자연보호지역, 보존지역 등에 대한 법위가 다르므로 나라의 특성에 맞추어 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1길 1학교는 교육청과 협업하는 프로그램으로 등하교시에 어디로 산책길을 만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학생들로 하여금 구상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하교에 선호하는 4~5Km의 길을 학생들에게 글이나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이를 협회에서 개발하는 형태로 운영함. 어렸을 때부터 문화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도보를 좋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프랑스는 교육법상 일정부분 외부 활동을 의무화 하고 있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용이한 면이 있음. Randonnee는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좋지 않은 건강을 건강하게, 삶의 활력이 떨어질 때 활력을 증진, 잃어버렸던 기억 등을 되찾는 것을 가능하게 함
- Unesco 자연자원을 활용하면 좋은 스토리가 나올 것이므로 전북의 Unesco 자원을 연결하는 방안도 고민하였으면 함
- 트레일의 난이도는 3가지로 나누는데 경사도, 지형적 난이도, 위험요소 등으로 측정함. 경사도의 난이도는 개별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난이도 측정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지형적 난이도 및 위험요소는 현장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난이도를 측정함



출처 : 랑도네

부록

- GR과 지역의 활성화 사례를 보면 FFRandonnee에서 추진하고 있는 MonGR 은 GR 중 우수한 곳을 선정하는데 이에 선정된 곳은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 선정된 노르망디 지역 지자체 단체장이 개별적으로 고맙다는 전화를 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 일부 지역은 Over Tourism 으로 걱정할 정도가 되었다고 함. 또한, GR70과 GR65는 연구보고서가 있을 정도로 지역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음
- Validation 은 중요한 요소로 1년에 3회 정도 하고 있으며 사용되는 페인트도 엄격히 규격을 정하고 있음. 친환경적 이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을 사용함. Validation 은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자원봉사자가 담당을 하며 이들에 대한 Validation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랑도네 길 표시(출처 : 랑도네)

- 숙박 등에 관해서는 협회가 관여하지를 않고 관공공사 지역지부가 관여하고 있으며 지역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숙박과 관광서비스를 병행하여 진행하며 숙박은 3등급으로 나누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음. 이러한 부담이 줄어 협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음
- 기관간 MOU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함. 정해진 절차는 없으나 일반적인 형태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함. 원격회의를 통해 질문을 하면 무엇을 도와줄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을것임. MOU 절차도 향후 논의하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MOU협력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임

3) FFRandonnee 정보센터 방문

■ 장소 : 프랑스 파리

■ 참석자

- 랑도네협회(Severine Ikkawi)
- 전북연구원 (이강진, 김재구)
- 통역 (박상희)

■ 주요내용 : 장거리 트레일 운영에 따른 정보제공, 연계서비스 방안 조사

- 정보센터가 기존에 14Rue Riquet, 75019, Paris에 소재하였으나 최근에 FFRandonnee 협회 건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 정보센터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근인력이 있으며 랑도네 관련 자료를 판매하고 트레킹에 대한 계획도 지원함. 토포가이드 작성은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며 많은 트레커들이 토포가이드를 활용하여 트레킹을 하고 있음.
- 티셔츠, 캡, 물병, 토트백 등 트레킹 관련 다양한 굿즈가 있어 전북에서도 굿즈에 대한 통합적 기획으로 길을 홍보하고 수익모델 창출의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FFRandonnee 인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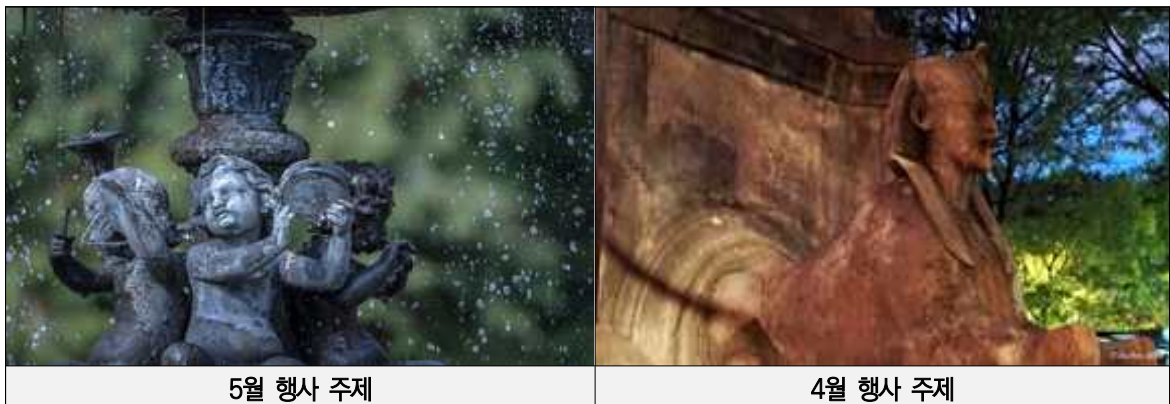
4) 자연 및 역사 유산 등 연계 관광자원 활용 사례 조사

■ 장소 : 파리일원

■ 대 상 : 도심랑도네

■ 주요내용 : 역사자원과 연계한 트레일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활용사례

- 도심 랑도네는 파리시청 주관 매월3주 목요일 Next Panamea® 라는 키워드로 진행이 됨. 매회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파리 도심의 역사 및 자연자원을 걷기를 통해 탐구하고 배우는 과정이다. 최근 도심 랑도네는 5월 18일 파리의 천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4월에는 파리의 이집트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음
- 출발 집결지는 지하철 12호선 Notre-Dame-de-Lorette 출구이며 저녁 7시에 출발하여 저녁 10시경에 Paris 6th Metro Saint-Sulpice에 도착함. 모두에게 개방된 문화 걷기 행사로 무료로 진행함



출처 : 랑도네

- 파리시청 주관 행사와 별도로 개인들이 파리로심 랑도네를 기획하고 즐길 수 있도록 FFRandonnee에서 정보를 제공함. 파리로심 랑도네는 크게 3개의 루트로 되어있음. 각 코스별로 프랑스의 주요 랜드마크를 탐방할 수 있도록 기획됨. 1코스는 동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팡테온, 에펠탑, 앵발리드, Maison de Balzac을 탐방할 수 있게 구성되었음. 2코스는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팡테온 인근에서 1코스와 교차하며 노트담 대성당, 파리시청, Quartier du Marais, Canal St-Martin, La Geode 등을 탐방할 수 있음. 3코스는 파리 북측을 동서로 반원형 형태로 연결되고 있으며 개선문, 몽마르트 언덕, 바쌈 드 라 빌레뜨를 연계함
- 파리로심 랑도네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파리에서 코스를 탐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 코스를 나누어서 탐방하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어 도심 랑도네를 기획 시 대중교통과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북에서도 도심지역의 역사 및 문화자원을 연계한 코스 개발 및 시점과 종점의 표식, 종점에서 시점으로 회귀할 수 있는 교통편 등에 대한 기획으로 도심랑도네의 편의성 제고노력 필요

도심 Randonnee



5) 주요 사례지 및 도입시설 벤치마킹

■ 장소 : 프랑스 파리, 퐁텐블로 일원

■ 대상 : 퐁텐블로 트레일, 카르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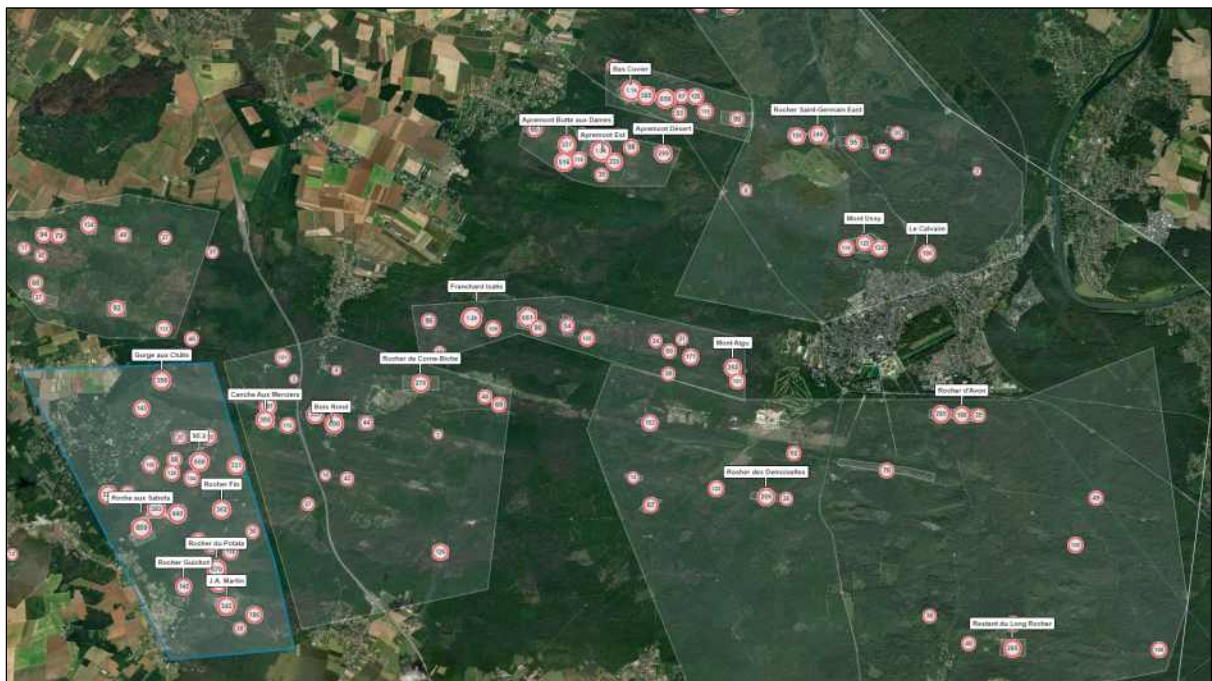
■ 주요내용 : 트레일 구간 내 도입시설 탐방 및 프로그램 운영상황 확인

- 퐁텐블로 지역은 파리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의 중요한 명소인 퐁텐블로 성(Chateau de Fontainebleau)가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성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함
- 퐁텐블로 성은 12세기에 왕들의 사냥용 별장으로 지어졌지만 16세기 프랑수아 1세가 복원을 하여 현재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으며 앙리 2세, 앙리4세, 그리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가 가장 좋아했던 성으로 알려져 있음.
- 퐁텐블로 지역은 걷기 트레일이 잘 발달되어있고 걷기 뿐 아니라 자전거 트레일도 잘 발달되어 있음. 트레일은 대부분 흙길이며 일부 말들이 다니는 트레일은 모래가 많이 깔려있어 자전거를 이용

부록

하여 트레일을 탐방하는 경우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퐁텐블로 지역은 세계 최고의 볼더링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트레 흐 피뇽 (Trois Pignon) 은 다양한 볼더링 사이트가 집적되어 있는 지역임.
-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명한 볼더링 사이트가 집적해 있으며 트레 흐 피뇽 북동부의 사이트를 방문하였을 때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호인 및 개인들이 볼더링을 즐기고 있었음



퐁텐블로 지역 볼더링 사이트(출처 : 랑도네)

- 또한 콘텐츠블로에는 실내에서 볼더링을 연습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있어 초급자부터 상급자 까지 모두 볼더링을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함.
- 전북지역에도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산악지형이 많고 볼더링을 즐길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볼더링 사이트를 개발하여 증가하는 볼더링 사이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시 볼더링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레벨의 볼더링 훈련수요에 부응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볼더링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Fonteinbleau trail & Bouldering



6) GR1 기반시설 및 운영상황 확인

■ 장소 : 프랑스 파리 il-de-france GR1

■ 대상 : 일드 프랑스 GR1 트레일 중 Rambouillet 구간 일부

■ 주요내용 : 트레일 구간 내 이정표 등 기반시설 조성 상황 및 주요 탐방 프로그램 운영상황 확인

- GR 1은 총 540km로 프랑스 파리 il-de-france 지역을 원형으로 트레킹할 수 있는 지역임. 벤치 마킹에서는 일부 구간인 GR®1 De Rambouillet à Feucherolles (Yvelines) 구간을 탐방함
- 전반적으로 구간 시작인 Rambouillet 지역부터 마크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으며 길은 쉼터에서 일부 구간 서행하는 자동차 길을 통과하고 숲길을 지나는 형태로 되어있음
- GR 표식인 적색/백색의 표지는 눈높이 보다 약간 높게 되어있어 인식하기에도 쉽게 되어있으며 나무, 지형지물, 도로표지판, 가로등 등을 활용하여 안내를 하고 있음.
- 중간에 GR 1과 GR 655번과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으며 이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있었음.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으로 길을 안내하고 있었음. 이는 길 사업을 하는

부록

전북에서 어떠한 형태로 길을 명명할 것인지, 길 표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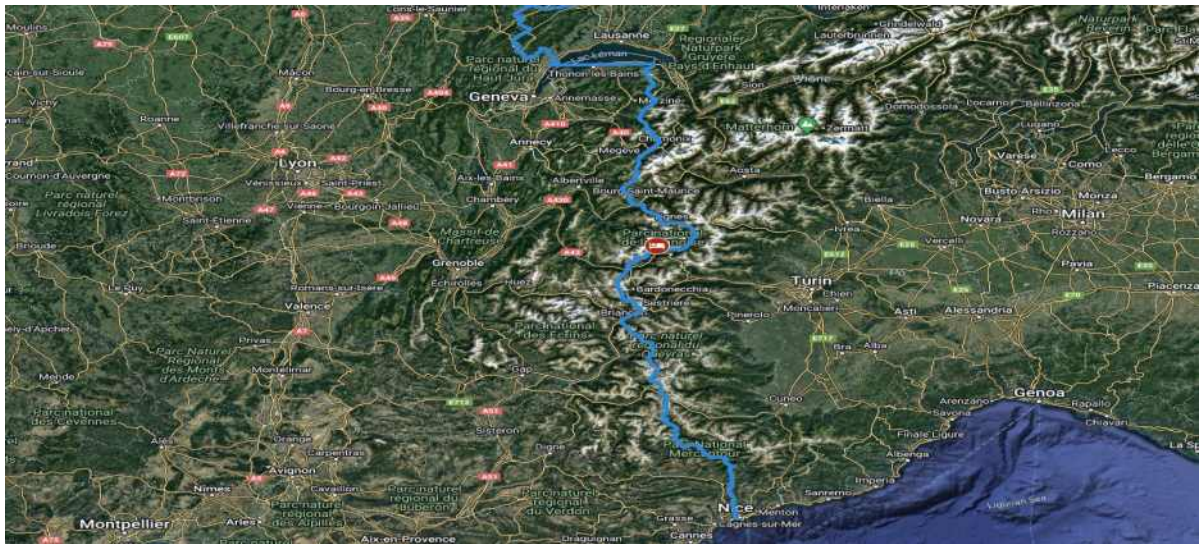


Rambuillet GR1



7) GR5 기반시설 및 운영상황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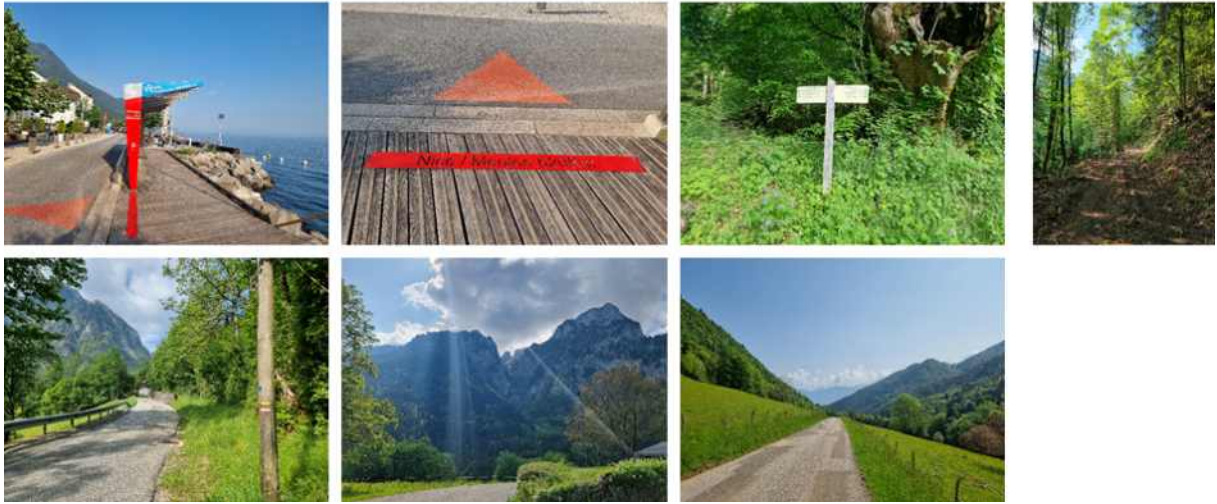
- 장소 : 제네바 일원
- 대상 : GR5 트레일
- 주요내용 : 장기 트레일인 GR5의 트레일 구간 내 이정표 등 기반시설 조성 상황 및 주요 탐방 프로그램 운영상황 확인



출처 : 구글 맵

- GR 5는 룩셈부르크에서 지중해까지 (Schengen(Luxembourg) to Nice (Alpes-Maritimes)) 1526Km 의 장거리 트레일 이며 이 가운데 레만호수(Lac Lemman)에서 지중해 까지의 코스를 대부분 트레킹 함. 이번 벤치마킹에서는 레만호수 시작점인 St Gingolf에서 시작하여 Novel 과 La Planche 사이까지를 탐방함
- GR 5 레만호수 시작점인 St Gingolf 에는 트레일의 시작점을 알리는 표시가 아래 그림과 같이 되어 있었으며 시작점에서 종점까지의 거리를 표시하고 있었음
- 전반적으로 트레일은 경사도가 있는 구간이었고 지속적으로 고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나 흙길과 도로로 이어지는 길은 걷기에 쾌적한 길이었음. 계곡으로 흐르는 물은 하이킹을 하는 내내 하이커를 시원하게 해 주었고 도로에서 본 높은 산은 감탄을 자아낼만 하였음. 중간 중간에 표식은 잘 되어있어 트레일을 따라 가기 수월하였으며 1개 지점에서만 표식이 애매하여 길을 찾는데 시간을 소요했으나 원래 트랙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음.
- 거점마을인 Novel 지역은 작은 마을로 식당과 카페가 있었으며 트래커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 있었음. 중심지에는 50여 가구정도가 살고 있을 정도로
- 전반적으로 트레킹을 하는 동안 가파르지만 걷기 쾌적한 구간이었으며 표식 또한 잘 되어있었으며 편의시설인 벤치 등은 많이 되어있지 않았으며 이는 GR 트레일 전체적으로 큰 투자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보임. 전북에서도 시설투자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으며 유지보수가 잘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St Gingolph GR5



8) National Trail 3 & 4 기반시설 및 운영상황 확인

■ 장소 : 제네바 일원

■ 대상 : 스위스 National Trail 3 & 4

■ 주요내용 : 장거리 트레일인 스위스 National Trail 3번과 4번을 탐방하고 표식, 도입시설에 대한 조사

- 스위스 트레일은 National Routes, Regional Routes, Local Routes 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National은 1단위, Regional은 2단위, Local 은 3단위 숫자로 표시하며 National Route는 1번부터 7번까지 Via Alphine, Trans Swiss Trail, Alpine Panoram Trail, Via Jacobi, Jura Crest Trail, Alphine Passes Trail, Via Gottardo 가 있으며 이번 벤치마킹에서 3구간인 Alphine Panoram Trail 과 4구간인 Via Jacobi 의 중첩구간을 탐방함. 함.
- 탐방의 시작은 4코스의 시작점인 코르나뱅 역 인근에서 출발하여 시작점으로 회귀하는 형태로 진행함. 시작점에서는 변화가인 관계로 다양한 표식이 있었으나 관심 있게 본다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및 방향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특이 사항은 산타아고 순례길의 표식이 되어 있어 유럽의 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음
- 스위스는 마을마다 식수시설이 잘 되어있어 트래커들에게 식수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고 있었으며 거점 뷰포인트에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어 멀리서나마 몽블랑을 볼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었음
- 전반적으로 안내 표시가 잘 되어 있었으나 도심 구간에서 자전거와 공동으로 활용되는 구간에서는

걷기에 꺼려지는 구간이 있어 우회 또는 건널목을 설치하면 더 걷기 쾌적한 구간이 있었음. 전북에서 길을 조성할 경우 지도상에는 문제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걷기 꺼려지는 노선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National Trail 3&4



3. 인터뷰 결과(마을비즈니스)

3-1. 개요

- 조 사 명 : 에코캠핑 삼천리길 마을비즈니스 모델개발을 위한 인터뷰
- 일 시 : 2024년 1월 11일 ~ 3월 15일
- 조사방법 : 스노우볼 샘플링에 의한 조사
- 조사대상 : 총 11명

번호	성명	소속	직위	인터뷰 날짜	인터뷰 장소
1	이진우	전북 자연환경연수원	교육부원	2024. 01. 11(목)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2	박송자	전북 생태관광해설사(뜬봉샘)	해설사	2024. 01. 15(월)	뜬봉샘 생태관광지
3	한원일	진안자활센터	실장	2024. 01. 18(목)	진안군 자활센터
4	정병귀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2024. 01. 23(화)	진안고원길
5	조헌철	진안 공정여행 협동조합 풍덩	대표	2024. 01. 25(목)	풍덩 협동조합
6	남권길현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024. 01. 30(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7	김순영	공정여행 동네봄 협동조합	대표	2024. 2. 2(금)	zoom회의
8	장준균	지리산 둘레길 사) 숲길	사무국장	2024. 2. 7(수)	숲길 남원센터
9	최성범	운탄고도1330통합안내센터	센터장	2024. 2. 16(금)	zoom회의
10	장지현	관광기업센터	센터장	2024. 2. 19(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11	구태환	협동조합 이레	이사	2024. 3. 15(금)	협동조합 이레

3-2. 인터뷰 결과 - 01

1) 개요

- 일시 : 2024. 01. 11(목)
-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 대상 : 이진우 전북자치 자연환경연수원 교육부원

2) 인터뷰 내용

- 인터뷰 대상자의 업무상 활동 경험 : 환경교육기본법-의무조항으로 위촉강사 25명, 연수원 교수진 4명으로 운영
-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라북도 생태관광의 현황 파악(전반) : 그린북클럽 진행 시 고창 운곡람 사르습지 생태해설
- 구체적 제안
 - 시·군, 마을 등 주체별 역할 및 참여방안
 - 무주군 마을 반딧불축제, 안성마을 나비축제-곤충표본, 손수건 물들이기 체험, 나비에벌레전시관, 어린이 도슨트, 먹이주기체험 등 공유
 - 24년부터 공사 진행. 25년부터 연수원 운동장을 캠핑장으로 운영-환경교육-환경캠프 추진 예정
 - 야간곤충탐사 : 반딧불, 나방, 풍뎅이,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수생생물
 - 생태티어링도롱뇽, 개구리 서식지

3) 추후 조사를 위한 전문가 추천

- 안승현 님 고창 생태해설사 - 개인연구소 운영

4) 기타

-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을 중심으로 한 수요 파악과 홍보 필요성 확인

3-3. 인터뷰 결과 - 02

1) 개요

- 일시 : 2024. 01. 15(월)
- 장소 : 뜬봉샘 생태관광지
- 대상 : 생태관광해설사 박송자

2) 인터뷰 내용

- 인터뷰 대상자의 개인적 활동 경험: 장수군 의제21 사무국장, 그린리더, 환경부소속 자연환경해설사, 숲해설사, 지리산관광대학-해설사양성과정,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원센터 에코메니저양성과정 등
- 인터뷰 대상자의 업무상 활동 경험: 유치원생, 여고생 대상 부영이생태학교의 연간 프로그램 진행 상세 설명
- 구체적 제언(인터뷰 대상자의 전문영역에 따라 자유롭게 답변)
 - 숙박(캠핑), 먹거리(지역농수산물 및 음식문화), 기념품(굿즈) 등을 연계한 거점마을 중심의 지역사회 소득 창출 전략
 - 시·군, 마을 등 주체별 역할 및 참여방안

3) 추후 조사를 위한 전문가 추천

- 장수군 관광해설사 협동조합 초록누리협동조합 박규희 이사장 추천

4) 기타 정보제공

- 에코메니저 활동 실태 파악
- 장수군 프리랜서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 직업교육의 중요성 파악

3-4. 인터뷰 결과 - 03

1) 개요

- 일시 : 2024. 01. 18(목)
- 장소 : 진안자활센터
- 대상 : 진안자활센터 한원일 실장

2) 인터뷰 내용

- 인터뷰 대상자의 업무상 활동 경험: 지역자활센터 요식업, 봉제-차상위계층 경제적 자립, 노인복지관과 다르게 일자리 창출 근로복지, 참여주민을 위한 사업 9개 사업단 세탁청소 카페 베이커리사업단 실무총괄
- 세탁업 중심 정보제공 : 일반세탁소와 달리 의류는 하지 않고 침구 운동화 세탁 중심, 의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지역의 기존 세탁업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
- 대상은 산림조합중앙회 진안훈련원 전국 3개 중 하나, 전에는 익산 전주에서 함. 연수원 홍삼스파 홍삼스파빌 3곳 진행. 수거할 때마다 계산서 발행, 마을펜션 체험공간 대량 거래주는 아니지만 진안 용담 감동마을에 방문객이 많아서 의뢰하고 있음. 추가로 마령, 성수 펜션들도 의뢰받음
- 대량세탁공장은 보일러시설 배관 인건비 발생하고 오수처리등 인허가 필요함
 - 읍내지역은 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함. 전기세탁기 건조기 안됨
 - 도시가스 마을에 안들어감. 투자대비 운영비 안나오는 상황이 많음
- 자활사업단 교육 중심 정보제공: 자활사업참여자는 자활 급여 책정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급여 받음
 - 일반시장보다 기계장비 운영 등 1달 집중교육 분기별 1회 1년 12시간 교육-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받고 있음
 - 진안에서만 4개(건축 장기요양복지 나눔푸드-출장부페 홍삼생산 청소)

3) 추후 조사를 위한 전문가 추천

- 다문화사업단 최임선 팀장님

4) 기타 정보제공

- 진안읍 대성길 7-11 세탁공장

3-5. 인터뷰 결과 - 04

1) 개요

- 일시 : 2024. 01. 23(화)
- 장소 :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 대상 : 정병귀 진안 고원길 사무국장

2) 인터뷰 내용

- 인터뷰 대상자의 업무상 활동 경험: 천리길 완보증 지자체 홍보용
 - 고원길 캠핑장 200명 규모 행사
 - 고원길 14개 완보, 14박 읍내 여관 2개 진안파크 추천, 고원길 후원회원 150명
 - 올레는 6-7억 판매수익 전체 30억 활동가 3-40명, 노선이 계속 바뀜, 사유지 소유자 변심-노선안내가 계속 공지됨-길안내자 역할 중요
-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라북도 생태관광의 개선점(전반)
 - 노선선정과 운영 염려됨, 관광지와 비교해서 트레일은 생명의 위험-으스스한 길, 군산구불길 단체 없어짐 사무국장이 계약직 공무원이면서 민간 활동가, 변산마실길 사무국 없고 이사장만, 부안군청 현장직 안내 표지+예초
- 구체적 제언(인터뷰 대상자의 전문영역에 따라 자유롭게 답변)
 - 안내표지 노선관리 상시운영관리 어려움: 진안 고원길 직원 4명 중 2명은 현장
 - 숙박(캠핑), 먹거리(지역농수산물 및 음식문화), 기념품(굿즈) 등을 연계한 거점마을 중심의 지역사회 소득 창출 전략: 현재 진안 고원길 운영방식으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거의 없음
 - 시·군, 마을 등 주체별 역할 및 참여방안: 집결지를 마을이 아닌 상업지역으로 제안, 마당스테이-백패킹, 마을 공공의 마당-집 옥상, 평상을 사업비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평소에는 주민이 쓰고 백패커에게 1만원 2만원에 제공, 목욕시설, 식기 제공에서 텐트대여업까지 사례 공유, 제주올레 할망민박-도배장판 침구지정
 - 짐운송 서비스+로컬푸드 펜션이 시작함=픽업+짐운송
 - 주민협동조합: 유한회사 풍당-제주올레 -코스 안내 숙박 기념품
 - 배달시스템-들밥프로젝트: 마을 회관 앞 식당연락처-배달가능-드론은 무게제한-샌드위치 정도

3) 추후 조사를 위한 전문가 추천

- 무진장드론협동조합 : 교육 수익사업, 농약 드론, 드론 교육 자격증-지자체마다 드론 있음

4) 기타 정보제공

- 진안 고원길 운영 정보 - 중요 참고 사항
 - 토요일 100명이 자기 도시락 지참하여 참가
 - 행정사업비로 운영: 제주 올레 제외 육지의 모든 트레일은 행정사업비
 - 최저수준 인건비, 행정예산은 사무국 운영비, 후원금은 4명 퇴직금, 나머지는 회원들에게 환원
 - 제주올레 후원자 2천 명, 진안 고원길 후원자 150명
- 지리산둘레길 활동보고서 참고할 것
- 시사점: 현행과 는 다른 방식으로 길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해야 함

3-6. 인터뷰 결과 - 05

1) 개요

- 일시 : 2024. 01. 25(목)
- 장소 : 풍덩 협동조합
- 대상 : 진안군 공정여행 협동조합 풍덩 대표 조헌철 님

2) 인터뷰 내용

- 인터뷰 대상자의 업무상 활동 경험: 신문사 그만두고 있을 때 김춘희 대표님의 제안, 정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가 고민
 - 탐사, 종교 관심있으며 홍삼인증 30농가에 관여하고 있음
- 공정여행 협동조합 풍덩 활동의 애로사항: 1박2일 산림청 공모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세월호 이후 수학여행 불가, 일을 주는 주체는 군청,센터임
 - 모객자체가 쉽지 않음. 학교가 제일 가능함, 9개 마을사업 -학동 계곡, 하가막마을, 원연장마을 식당

3) 기타 정보제공

- 전라북도의 대표적 공정여행기업 사례를 통해 동부권에서의 커뮤니티 베이스드 투어리즘 운영의 어려움을 파악

3-7. 인터뷰 결과 - 06

1) 개요

- 일시 : 2024. 01.30(화)
- 장소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 대상 :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남권길현 사무국장

2) 관련 활동 정보

-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사례
 - 공정여행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여행
 - 2003년 20만 2009년 50만 2013년 100만 명
 - 동-서 50킬로미터 새로운 이주자들은 화성시 지역정보 모름
 - 도시화된 동쪽과 농촌지역 서쪽-농촌수준의 사회기반 취약
 - 평균연령 38세(2위), GRDP 1위, 멸종위기1급 조류 서식, 매향리갯벌 습지보호구역 지정
- 2010년 공정여행기획
 - 2011년 공정여행 컨셉의 시티투어 시작
 - 우음도 전망대 - 공룡알화석산지 방문 - 송산리 포도
 - 보조금=버스비, 인건비, 의복비, 교육비
 - 참가비=안내자비, 기념품비, 주차비 등
 - 사전예약제도(홈페이지-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
 - 3-10월 운영, 주말: 생태문화투어, 평일: 테마투어(농어촌체험, 해양레저, 문화예술, 목장체험), 방문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테마투어=화성시 50개 관광지와 농어촌 연계), 질 높은 여행을 위해 1회 25명 이하, 참가비 기본 2만원)
 - 현황조사 연1회 반드시 실시: 정기 간담회, 사전답사, 평가회
- 운영원칙
 - 참가비 1% 기부(화성지역시민사회단체 및 국제기금기부)
 - 참가비 1만 5천원 받고 5천원 농산물교환권 제공, 개인컵, 수저, 장바구니 가져오기
 - 일회용품 자제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탄소배출줄이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피해주지 않기, 지역농산물을 이용하고 농장과 인연 맺기, 음식물 남기지 않고 쓰레기 되가져가기

3) 기타 정보제공

-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례를 통한 전라북도 동부권에의 시사점
- 커뮤니티 베이스드 투어리즘 운영의 어려움
- 상대적으로 조직력과 인적자원을 갖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 고려
-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전주, 익산, 군산, 장수, 임실, 정읍에 지부
- 동부권은 장수, 임실, 정읍 해당

3-8. 인터뷰 결과 - 07

1) 개요

- 일시 : 2024. 2. 2(금)
- 장소 : 줌회의
- 대상 : 김순영 공정여행 동네봄 협동조합 대표

2) 인터뷰 내용

- 인터뷰 대상자의 업무상 활동 경험: 홈페이지 참고 <https://dongnebom.com/>
- 생태관광의 관련 사업 경험(전반)
- 구성원 중 3명 생태교육강사
 -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 2-3시간 이상 지식 전달 어려움. 관광이 될 수 없음
 - 전체적인 관광 안에 일부 생태교육
 - 경기관광공사에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요청
 - “숲지를 담다” : 시흥의 생태관광경쟁력은 숲지 밖에 없다
 - 갯골, 150만평 논습지, 하천습지 없음
 - 순천만 정도의 대규모 아니면 비용을 내고 이용 어려움
 - 환경교육과 관광이 접목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반나절-환경교육프로그램 우수 인증
- 홍보 및 모객 정보
 - 전국의 마을교육공동체-교사네트워크의 조력-안양 중학교 이용
 - 이듬해 지원금 끊기니 판매하려니 안됨
 - 지원사업을 받아서 저가상품은 모객 경험. 고가 상품 모객 경험은 없음

3-9. 인터뷰 결과 - 08

1) 개요

- 일시 : 2024. 2. 7(수)
- 장소 : 숲길 남원센터
- 대상 : 지리산 둘레길 장준균 사무국장(사) 숲길 3기 사무국장)

2) 인터뷰 내용

- 인터뷰 대상자의 개인적 활동 경험: 철학전공, 서울 IT업계 상품기획자 15년 경력, 귀농귀촌, 2009년부터 관련 업무
- 업무상 활동 경험: 지리산 둘레길 운영 전반

■ 지리산 둘레길 조성 배경

- 일반적으로 걷기 프로그램은 등산협회, 산악연맹, 지자체 조성 트레킹 로드, 제주올레길 등에서 운영 중이며, 제주올레길이 관광목적지로서 조성된 것에 비해 지리산 둘레길은 문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조성
- 지리산 주변 지역 인구는 5개 시·군 20만 명 이하이며 지리산 둘레길이용자 연간 30만 명 수준으로 연간 60~70만 명이 이용하는 제주올레길과 비교했을 때 이용자 수의 차이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차이
- 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성찰'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국립공원 지역이 아닌 지리산의 둘레를 걸 으면서 환경적 실천을 통해 생태를 보전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문화 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개척한 길을 '둘레길'로 명명 - '둘레길'의 명칭은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1천 개 이상 조성되어 생성 소멸한 트레킹 길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명칭이 차용
- 2000년 시작된 '지리산 마음으로 세상을 배우자' 지리산 공부모임
- 2004년 '생명 평화'를 뿌릴 수 있도록 순례길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이 지리산 둘레길의 시작
 - 2007년 사단법인 숲길 설립 - 주민동의, 민간위탁보조금, 후원금 사업
 - 2008년 지리산 둘레길 첫 구간 완성. 산림청, 사) 숲길, 남원시,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공동협약
 - 2012년 전 구간 완성. 지리산 둘레길 아젠다 선언, 지리산 둘레길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진행

- 2014년 지리산마을예술품을 지향하는 지리산 프로젝트 추진
- 2019년 기네스북 '세계에서 가장 긴 야생화길' 등재
- 2020년 산림형 사회적기업 지정
- 2021년 '국가숲길' 지정, 벚수 조성

■ 국가 숲길

- 등산·트레킹·레저 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한 길과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 길로서 산행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부터 산림청이 '국가숲길'을 지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제23조 3에 따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운영·관리
- 국가숲길 지정 조건은 산림의 생태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 숲길의 규모, 숲길 조성 적합성, 운영 관리체계 여부, 연결성, 접근성 등 7가지 기준
- 2023년 11월 현재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지리산 둘레길, 백두대간 트레일, DMZ 편치볼 둘레길, 대관령 숲길, 내포문화 숲길, 울진 금강소나무길, 대전둘레길, 한라산둘레길, 속리산둘레길 등 총 9 곳이며, 이 가운데 백두대간 트레일, DMZ 편치볼 둘레길, 울진 금강소나무길은 예약제로만 운영되며, 국가숲길은 2026년까지 15곳으로 조성 예정

■ 지리산 둘레길 운영 현황 상세

- 지리산 둘레길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함양·하동의 지리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295km 길이의 국가숲길로 현재 21개 구간이 조성되어있으며 20개 읍면 120여 개 마을 규모, 하동, 구례, 남원, 함양, 산청센터 등 6개 센터, 3개 안내소 운영
- 당일 프로그램인 '토요걷기', 3박 4일 프로그램인 '34순례단', 15박 16일 프로그램인 '지리산평화순례단' 등의 고정 프로그램 운영 중 - '토요걷기'는 안착하기까지 2년 소요되었으며, '지리산평화순례단'은 소수의 이용자, 철학적 순례를 위해서는 약 100km를 걷게 되는 3박 4일 이상의 체험(프로그램 명 '34순례단')이 바람직하나 홍보 인력 부족으로 현재 프로그램 운영 어려움

3-10. 인터뷰 결과 - 09

1) 개요

- 일시 : 2024. 2. 16(금)
- 장소 : 줌회의
- 대상 : 최성범 운탄고도1330통합안내센터 센터장

2) 인터뷰 내용

- 운탄고도 조성 배경 및 과정: 강원발전연구원 보고서 참고
- 운탄고도 1330 관광기업센터 업무 개요: 홈페이지 참고
 - 2021년 개소, 4개 시군(영월 정선 태백), 노선관리-이정표, 제초, 길보수 홍보-이벤트, TV, 강원관광재단 기획, 영월군 후원, 전체 3억, 도비+영월군
 - 집계시스템 구축, 패스포드 발행, 행사 프로그램 방문자, 23년 1만명 방문 추정, 안내-유선상 안내, 완주 인증시스템-현장에 와야, 우편신청, 상세 안내지도, 홈페이지, 코스, 숙박, 교통
 - 스토리텔링 요청시 팀장, 매니저 5명 근무자가 출장, 함께 걸으면서 설명
 - 모운동 마을호텔 촬영지-광부의 길, 광산 건물, 최근 전용앱 개발 보완 중
 - 긴급구조요청-지역 경찰서, 이용시설 설명은 없음, 교통, 숙박, 주변식당 있음. 화장실은 마을 주민자치센터 이용. 마을호텔 화장실
 - 식당화장실만 이용, 탐방객 에티켓
- 운탄고도 1330 통합안내센터 운영 주체: 강원도 재원, 영월군에 위탁, 영월산업진흥원 재단이 위탁 경영
- 2023년 영월산업진흥원 운탄고도 “폐광지역 중장년 창업지원사업”, 4개 기업 창업-음식점 카페, 플랫폼 구축
- 노선 조성 3년차, 난이도 문제, 마을과 연계 안됨, 읍면단위도 지나가지 않음, 산티아고길은 20 킬로마다 마을, 태백시도 황진이 연못과 중앙시장 통과하는 길을 센터가 제안
- 변경주체는 각 시군, 인위적으로 인프라 만들기 어려움, 산림청 관리구역은 화장실 설치가 불법
- 일부 있는 것도 불법시설물 -규제 풀어야 마을을 통과하여 교통 숙박 연계
- 기존의 길을 그냥 이은 것, 외씨버선 길 등 연결만 함, 인프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함

3-11. 인터뷰 결과 -10

1) 개요

- 일시 : 2024. 2. 19(월)
-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대상 : 장지현 관광기업센터장

2) 인터뷰 내용

- (중앙정부 차원) 관광기업센터 설립 취지 등 업무 개요
- (전북특별자치도 차원) 관광기업센터 업무 개요
 - 23년 2월 센터 운영 시작, 관광스타트업 공모전 21개 기업-15개로 축소됨
 - 입주공간 23개 공간 구성되어 있음 24년 재정비 예정
 - 일반여행업, 콘텐츠기획, 행사진행-입주공간제공,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업종-관광음식점은 있음-일반음식점은 아님 도내 200여개
 - 인플루언서 활용-홍보마케팅
 - 지역축제 관련사업-지자체 연계
 - 스타트업 공모전
 - 여행업 예비사회적기업-리스트 제공-신규일자리창출-평가 지표화
 - 입주기업리스트 제공
 - 로컬여행상품 공모전-23년-결과보고서 제공
 - 웰리스, 위케이션, 원도심
 - 무주 연계 관광상품 판매기업-입주기업
 - 안 관광협의체 구성-사단법인-협동조합 연락처 제공
 - DMO사업-완주관광재단-작년-올해 부안/전주는 민간 정보제공

3-12. 인터뷰 결과 -11

1) 개요

- 일시 : 2024. 3. 15
- 장소 : 협동조합 이레
- 대상 : 구태완 협동조합 이레 이사

2) 인터뷰 내용

■ 2018년 6월 협동조합 이레 설립 경위 및 활동 경력

- 2018년 관광두레 도움-지리산권관광조합 아카데미에서 만난 사람들에서 시작
- 조합원 3명+이사장 포함 5명+감사 1명 전체 6명
- 번역일, 전통주, 친환경 영농조합, 무농약 유기농, 농업연수원-귀농귀촌 사무차장

■ 2018년부터 2022년 장수DMO 운영자 선정 이전 협동조합 이레 활동

- 관광두레와 함께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 관광자원이 많은 통영, 담양 등의 주말 참가자가 장수 1년 오는 사람과 같음
- 사업체에서 돈을 들여서 공연, 식사, 걷기 명상 등 만족도 높여야 하나 운영비용 상승
- 교통-철도, 대중교통 없음
- 주민사업체가 운영하기 어려움. 수익을 거두려면 단가 올라감
- 담양에 없는 것이 장수에 있다-치유, 힐링할 수 있는 생명력, 고요함,
- 도 기준으로는 관광센터가 있지만 군 지역은 관광분야 거버넌스 역할이 없음. 그래서 DMO위탁 참여했으나 의원 공무원 주민 모두 관심 없었음
- 한국관광공사 평가 1년차 실적 부족하다는 평가 결과
- 7월에 예산 나눔 - 사업기간 12월 - 한국관광공사 운영 미숙-예산 집행에만 관심있음
- 정부와 개인간의 신뢰가 없는 듯-개인은 정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함

■ 장수 DMO 운영

- 공모 사업 선정 과정
 - 문체부 공지사항-직원급여 250, 이사 무급-급여구조 개선 시급함

-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관광대응력을 강화하고 주민, 사업체, 지자체 등 협력 연계망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조직으로 올해 전국에서 총 21개 지역이 선정됨
- 주민, 사업체, 지자체 등 협력 연계망
 - 1억 5천 사업이 음식, 숙박 등 가시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래서 고객만족이 낮음, 2-3개는 성과, 이것으로 거버넌스 구축이라 할 수 없음
 - 숙박이 열악
 - 초기에는 의회, 행정, 지역활력센터 등 DMO역할에 대한 정보 공유
 - 군청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관광플랫폼 없음-지역관광조례 제안
- 한국관광공사의 지원 및 타 DMO와의 관계
 - 관광공사는 지역사정을 잘 모름-1년에 끝남
 - 협동조합 이례는 지역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생활인구 유입 증대 사업과 관광홍보 플랫폼 구축, ESG관광상품개발사업 등 총 3개의 기획사업 및 전북권역 DMO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억 5천만원의 사업비
 - 1억 5천 국비 사업비+1억 인건비 운영비-장수군
 - 5년간-1년 후 평가
 - 1년 간 사용
- 전북권역 DMO 공동사업-완주, 전주
 - 완주는 직원역량, 커뮤니티비즈니스부터
 - 2년 차부터 부진장 거버넌스 구축하고자 했으나 어려움
- 전북문화관광재단과의 관계 안되어 있음
- 기타 전북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관계-없음
 - 생활인구 유입증대 사업은 '가자GO~장수'를 주제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0회차를 기획해 현재까지 9회차를 완료해 관광객 7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수군을 홍보함
- 구체적 운영사례 및 성과
 - 10회차 - 파일럿 프로그램, 일부 자부담
 - 장수는 가족형 관광지인데 20-30명이 오면 보여줄 것이 없음-5-6명 정도가 적당함
 - 성과로 이어지지 않음
 - 숙박업이 없어서 1-2인실 원하는데 4인이상 8인만 있어 불만스러움

- 귀농귀촌자는 사업체 관심있으나 관광시킴
- 온라인 전문 마케팅 회사 관련 정보(프로그램 당 온라인 마케팅 건수 등)
 - 홍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역을 알리는데는 도움 안됨
 - 작지만 제대로된 기획이 필요
 - ESG연계 사업은 장수군 천천면 섯밭들마을의 장수가야산촌살이법인과 업무협약으로 친환경 체험여행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50명의 관광객을 유입해 지역 자연 자원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캠페인(산,숲,물) 쓰레기 줍기 등 자연환경 살리기 활동을 펼침
- 친환경 체험여행 및 캠페인 참여자 관련 정보
 - 정여립영화관 만들고 있음 : 대동사상
 - 마을산골영화제-참여자 대상
 - 마지막 사업은 전북권역(전주,완주,장수) DMO 공동사업으로 지난 4일 서울 파워블러거 22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하며 장수 누리파크에 새롭게 조성된 논개의 비밀정원 및 벚꽃 조형물,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장수 누리파크 캠핑장 카라반 등을 소개함
- 성과를 확인 어려움
 - 협동조합 이레(장수군 DMO)는 앞으로도 식당, 숙박, 체험 업체와의 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해 장수군 관광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의 DMO 사업을 알리고 장수군 관광 홍보에 힘을 보탬 예정
- 식당, 숙박, 체험 업체의 품질관리 어렵고, 사업참여 만족도 낮음

3)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코 캠핑삼천리길에 대한 전반적인 제언

- 시·군, 마을 등 주체별 역할 및 참여방안 등
- 지자체가 인프라를 만들지 않으면 안됨

4) 구체적 제언

- 숙박(캠핑), 먹거리(지역농수산물 및 음식문화), 기념품(굿즈) 등을 연계한 거점마을 중심의 지역사회 소득 창출 전략
- 사업비 들어가면서 마을은 같등, 마을에 관심 없음

4. 생태탐방 수요자 인식조사 설문조사지

전라북도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트레킹)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조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는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라북도의 장기 트레킹 노선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 관련 의견 청취하고자 진행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총 설문 시간은 5분 내외이며, 질 높은 장기 트레킹 노선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 관 처 : 전라북도, 전북연구원
■ 조사수행처 : 지역연구소플랜플러스(063-286-2465)

1. 트레킹 실태

1-1. 귀하의 이동(계획)구간은 어디부터 어디입니까??

출발지 :

도착지 :

1-2. 이전에 트레킹 목적으로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처음 방문 ② 두 번째 방문 ③ 3~4번째 방문 ④ 그 외()

1-3. 트레킹의 목적 및 코스 선정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등반, 대회 등의 목적) 등산 및 탐방
② (일반) 등산 및 탐방
③ 산책 및 가벼운 걷기
④ 지역 관광
⑤ 휴양 및 산림 체험
⑥ 기타 ()

1-4. 트레킹의 소요시간은 얼마입니까?

- ① 당일(시간) ② 1박 2일 ③ 2박 3일 ④ 그 외()

1-5. 트레킹의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 ① 없음(혼자) ② 친구, 연인 ③ 가족(부부) ④ 가족(어린이 및 청소년 동반)
⑤ 가족(그 외) ⑥ 동호회 및 단체 ⑦ 기타()

1-6. 트레킹 구간의 전반적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7. 트레킹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예. 이정표 부족,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노후화 등)

1-8. 트레킹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예. 충분한 이정표 설치, 충분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놀거리 및 자연자원 풍부 등)

2. 전라북도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

[전라북도 장기 트레킹 노선] 이란?

개념 : 기존 천리길, 등산로 등을 활용하여 14개 시군 전체를 연결하는 약 1,000km 길이의 걷기 길

목적 : 자연 · 생태 · 관광자원의 연계로 관계 인구의 증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2-1. 전라북도 장기 트레킹 노선의 필요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2-2. 전라북도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체크해주시요.

구분	부정적 ← → 긍정적				
건강 증진	①	②	③	④	⑤
지역 홍보	①	②	③	④	⑤
지역소비 촉진	①	②	③	④	⑤
관광객 증가	①	②	③	④	⑤
거주민구 증가	①	②	③	④	⑤

2-3. 전라북도 장기 트레킹 노선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정표의 디자인, 노선 내 숙박, 음식점 등 체류기반 확보 등)

3. 응답자 일반사항

3-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 ② 여

3-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① 전라북도 ② 서울 및 경기도 ③ 충청북도 ④ 충청남도
⑤ 경상북도 ⑥ 경상남도 ⑦ 강원도 ⑧ 그 외()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원명		조사일시	2023. . .
------	--	------	-----------

전라북도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자전거)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조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는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라북도의 장기 트레킹 노선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장기 트레킹 노선 구성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진행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총 설문 시간은 5분 내외이며, 질 높은 장기 트레킹 노선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 관 처 : 전라북도, 전북연구원
■ 조사수행처 : 지역연구소플랜플러스(063-286-2465)

1. 자전거 타기 실태

1-1. 자전거로 이동하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출발지 :

도착지 :

1-2. 이전에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처음 방문 ② 두 번째 방문 ③ 3~4번째 방문 ④ 그 외()

1-3. 본 구간을 선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전국 자전거길 완주
② 자전거 대회 준비
③ 동호회(친목) 활동
④ 지역 관광 및 체험
⑤ 우수한 자연 경관
⑥ 여가 및 휴식
⑦ 기타 ()

1-4. 자전거 타기의 소요 시간은 얼마입니까?

- ① 당일(시간) ② 1박 2일 ③ 2박 3일 ④ 그 외()

1-5. 자전거 타기의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 ① 없음(혼자) ② 친구, 연인 ③ 가족(부부) ④ 가족(어린이 및 청소년 동반)
 ⑤ 가족(그 외) ⑥ 동호회 및 단체 ⑦ 기타()

1-6. 자전거는 어떻게 운반하십니까?

- ① 자가용 이용 ② 열차 이용 ③ 버스 이용
 ④ 처음부터 자전거 타고 이동 ⑤ 그 외()

1-7. 자전거 구간의 전반적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8. 자전거를 타실 때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예. 이정표 부족,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노후화 등)

1-9. 자전거를 타실 때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예. 충분한 이정표 설치, 충분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놀거리 및 자연자원 풍부 등)

2. 전라북도 장기 자전거 노선 조성

[전라북도 장기 자전거 노선] 이란?

개념 : 기존 천리길, 등산로 등을 활용하여 14개 시군 전체를 연결하는 약 1,000km 길이의 노선 중
자전거와 걷기가 혼용되는 구간

대상 : 완주, 군산, 익산, 김제, 정읍, 임실, 전주, 남원

목적 : 자연 · 생태 · 관광자원의 연계로 관계 인구의 증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2-1. 전라북도 장기 트레킹 노선의 필요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부록

2-2. 전라북도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체크해주시요.

구분	부정적 ← → 긍정적				
건강 증진	①	②	③	④	⑤
지역 홍보	①	②	③	④	⑤
지역소비 촉진	①	②	③	④	⑤
관광객 증가	①	②	③	④	⑤
거주민구 증가	①	②	③	④	⑤

2-3. 전라북도 장기 자전거 노선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정표의 디자인, 노선 내 숙박, 음식점 등 체류기반 확보 등)

3. 응답자 일반사항

3-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 ② 여

3-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 ① 전라북도 ② 서울 및 경기도 ③ 충청북도 ④ 충청남도
⑤ 경상북도 ⑥ 경상남도 ⑦ 강원도 ⑧ 그 외()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원명		조사일시	2023. . .
------	--	------	-----------

전라북도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캠핑)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조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는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라북도의 장기 트레킹 노선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진행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총 설문 시간은 5분 내외이며, 질 높은 장기 트레킹 노선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 관 처 : 전라북도, 전북연구원
■ 조사수행처 : 지역연구소플랜플러스(063-286-2465)

1. 캠핑 실태

1-1. 캠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가족 및 친구와의 교류
- ② 동호회(친목) 활동
- ③ 지역 관광 및 체험
- ④ 우수한 자연 경관
- ⑤ 여가 및 휴식

1-2. 캠핑의 체류 기간은 얼마입니까?

- ① 당일(시간) ② 1박 2일 ③ 2박 3일 ④ 그 외()

1-3. 캠핑의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 ① 없음(혼자) ② 친구, 연인 ③ 가족(부부) ④ 가족(어린이 및 청소년 동반)
- ⑤ 가족(그 외) ⑥ 동호회 및 단체 ⑦ 기타()

1-4. 이전에 해당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처음 방문 ② 두 번째 방문 ③ 3~4번째 방문 ④ 그 외()

부록

1-5. 캠핑의 전반적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6. 캠핑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예. 이정표 부족,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노후화 등)

1-7. 캠핑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예. 충분한 이정표 설치, 충분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놀거리 및 자연자원 풍부 등)

2. 전라북도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

[전라북도 장기 트레킹 노선] 이란?

개념 : 기존 천리길, 등산로 등을 활용하여 14개 시군 전체를 연결하는 약 1,000km 길이의 걷기 길

목적 : 자연 · 생태 · 관광자원의 연계로 관계 인구의 증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2-1. 전라북도 장기 트레킹 노선의 필요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2-2. 전라북도 장기 트레킹 노선 조성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체크해주시요.

구분	부정적 ← → 긍정적				
건강 증진	①	②	③	④	⑤
지역 홍보	①	②	③	④	⑤
지역소비 촉진	①	②	③	④	⑤
관광객 증가	①	②	③	④	⑤
거주인구 증가	①	②	③	④	⑤

2-3. 전라북도는 장기 트레킹 변에 불을 사용하지 않는 노지 캠핑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체크해주시요.

구분	부정적 ← → 긍정적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사용 의사	①	②	③	④	⑤
화기사용 여부	①	②	③	④	⑤

2-4. 전라북도 장기 트레킹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정표의 디자인, 노선 내 숙박, 음식점 등 체류기반 확보 등)

3. 응답자 일반사항

3-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 ② 여

3-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 ① 전라북도 ② 서울 및 경기도 ③ 충청북도 ④ 충청남도
⑤ 경상북도 ⑥ 경상남도 ⑦ 강원도 ⑧ 그 외()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원명		조사일시	2023. . .
------	--	------	-----------

전북특별자치도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기본구상

